2023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춘계학술대회
중어중문학 신진연구자 논문 발표회

■ 일시: 2023년 4월 29일(토) 13:00 – 17:50
■ 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현장: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인문2관 108, 104, 105호)
Zoom: (ID: 861 2494 7099 / PW: 20230429)
■ 주최: 한국중어중문학회
■ 주관: 한국중어중문학회, 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등 록 (12:50 – 13:00)
[인문2관 108호]

개회식 (13:00 – 13:20) 사회: 윤순일(부산대)
[인문2관 108호]

개회사: 장동천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고려대)
환영사: 황소연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발표일정 및 내용

1부	13:20 – 15:20	현대문학 분과, 어학 1분과
2부	15:30 – 17:40	고전문학 분과, 어학 2분과

폐회식 (17:40 – 17:50) 사회: 권운영(신한대)
[인문2관 108호]

폐회사: 이현복 (강원대 중어중문학전공 주임교수)

2023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춘계학술대회
분과별 발표

시간	발표자	발표내용	사회자
1부			
고전문학 분과: 고전문학과 문화 [인문2관 104호]			
13:10 15:20	장수현(한국외대)	▪ 소철산문연구(蘇轍散文研究)	강민호 (서울대)
	김진희(전북대)	▪ 주희(朱熹)의 치심(治心) 수양론에 대한 재고찰 — 진덕수업(進德修業)에 관한 주자 어록을 중심으로	
	吳 瓊(숭실대)	▪ 比較視域下的中韓古典笑話審美意蘊研究	김수희 (중앙대)
	임미주(한양대)	▪ 청 궁정 월령승응희(月令承應戲)의 전승 연구 Ⅰ — 청 궁정희 속 사마등(司馬騰)의 '옥마고사(玉馬故事)' 전승을 중심으로	
어학 1분과: 어법 [인문2관 105호]			
13:10 15:20	이은경(서울대)	▪ 현대중국어 '是…的' 분열구문 연구	이슬기 (서강대)
	김다래(한국외대)	▪ 『孟子』 의동 사건의미 구의 도출과 해석 — 유표 의동구문을 중심으로	
	김영인(영남대)	▪ 중국어 보어 성어 구문의 구문화와 구문변화 연구	박민준 (덕성여대)
	위엔리(경북대) 왕위에신(경북대)	▪ 韩国汉语学习者习得"再"的偏误分析	
	LI MINGYUE (안동대)	▪ 构式语法视角下的汉语数量词构式研究	
15:20 15:30	**휴식**		

2023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춘계학술대회
분과별 발표

시간	발표자	발표내용	사회자
2부			
현대문학 분과: 현대문학과 문화 [인문2관 104호]			
15:30 17:40	박은혜(한국외대)	▪ 청샤오칭 탐정소설(程小青) 연구 — 근대 인식과 서사전략을 중심으로	서유진 (연세대)
	전 영(남서울대)	▪ 중국 신월파와 영미 문학의 교류 양상과 영향 연구	
	왕 연(고려대)	▪ 중국 향토 서정소설의 서사미학 연구	
	김하나(삼육대)	▪ 한중일 웹소설의 상업모델과 위치 비교	류영하 (백석대)
	吕 晨(한국외대)	▪ 프롯 챈 영화의 홍콩인 정체성과 타자 재현 연구	
어학 2분과: 어법과 중국어사 [인문2관 105호]			
15:30 17:40	양 류(서강대)	▪ 현대중국어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 연구	오유정 (고려대)
	한수진(한국외대)	▪ 중국어『신약성경』'把' 사동구 연구 — 사복음서 '把' 사동구 후속 절 성분 생략 현상 해석	
	장준익(南京大學)	▪ 한국 한자음을 통해 보는 止蟹섭 합류의 開合 차이	곡효운 (광운대)
	王蓓蓓(숭실대)	▪ 《說文解字》"戈"部字六書分類辨證	

◂ ‖ 자료집 목차 ‖ ▸

고전문학 분과: 고전문학과 문화

- 소철산문연구(蘇轍散文研究) ····· 장수현(한국외대) ■ 3
- 주희(朱熹)의 치심(治心) 수양론에 대한 재고찰
  — 진덕수업(進德修業)에 관한 주자 어록을 중심으로 ····· 김진희(전북대) ■ 9
- 比較視域下的中韓古典笑話審美意蘊研究 ····· 吳 瓊(숭실대) ■ 17
- 청 궁정 월령승응희(月令承應戲)의 전승 연구 Ⅰ
  — 청 궁정희 속 사마등(司馬騰)의 '옥마고사(玉馬故事)' 전승을 중심으로 ····· 임미주(한양대) ■ 27

어학 1분과: 어법

- 현대중국어 '是…的' 분열구문 연구 ····· 이은경(서울대) ■ 45
- 『孟子』 의동 사건의미 구의 도출과 해석
  — 유표 의동구문을 중심으로 ····· 김다래(한국외대) ■ 57
- 중국어 보어 성어 구문의 구문화와 구문변화 연구 ····· 김영인(영남대) ■ 67
- 韩国汉语学习者习得"再"的偏误分析 ····· 위엔리(경북대)/ 왕위에신(경북대) ■ 79
- 构式语法视角下的汉语数量词构式研究 ····· LI MINGYUE(안동대) ■ 95

현대문학 분과: 현대문학과 문화

- 청샤오칭 탐정소설(程小青) 연구
  — 근대 인식과 서사전략을 중심으로 ····· 박은혜(한국외대) ■ 109
- 중국 신월파와 영미 문학의 교류 양상과 영향 연구 ····· 전 영(남서울대) ■ 115
- 중국 향토 서정소설의 서사미학 연구 ····· 왕 연(고려대) ■ 121
- 한중일 웹소설의 상업모델과 위치 비교 ····· 김하나(삼육대) ■ 129
- 프릇 챈 영화의 홍콩인 정체성과 타자 재현 연구 ····· 吕晨(한국외대) ■ 139

어학 2분과: 어법과 중국어사

- 현대중국어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 연구 ····· 양 류(서강대) ■ 147
- 중국어 『신약성경』 '把' 사동구 연구
  — 사복음서 '把' 사동구 후속 절 성분 생략 현상 해석 ····· 한수진(한국외대) ■ 157
- 한국 한자음을 통해 보는 止蟹섭 합류의 開合 차이 ····· 장준익(南京大學) ■ 177
- 《說文解字》"戈"部字六書分類辨證 ····· 王蓓蓓(숭실대) ■ 183

4月 29日(土) 13:10~15:20

발표논문

고전문학분과

고전문학과 문화

— [인문2관 104호] —

소철산문연구(蘇轍散文研究)

장수현*

<目 次>

1. 서언
2. 소철의 산문
3. 결론

1. 서언

소철(蘇轍, 1039-1112)은 자(字)는 자유(子由), 호(號)는 영빈유로(潁濱遺老)로 북송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문장가이다. 아버지 소순(蘇洵), 형 소식(蘇軾)과 함께 '삼소(三蘇)'로 불린다. 소철이 남긴 여러 문장의 형식 중 아버지와 형과 함께 산문(散文)으로 유명하다. 이에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한다. 『송사(宋史)』에서 소철의 글을 평가하여 이르길: '苏辙论事精确, 修辞简严'라고 하였다. 소식 또한 소철에 대해 이르길, '子由之文实胜仆, 而世俗不知, 乃以为不如. 其为人深不愿人知之, 其文如其为人, 故汪洋澹泊, 有一唱三叹之声, 而其秀杰之气, 终不可没.'라고 평했다.

소철은 일생동안 다섯 황제(인종(仁宗), 영종(英宗), 신종(神宗), 철종(哲宗), 휘종(徽宗))를 섬기면서 40여 년간 관직에 머물렀다. 희녕(熙宁)연간 왕안석(王安石)과의 정치적 의견의 차이로 폄적당하여 10여 년간 지방을 전전하였다. 그 후 또 형 소식(苏轼)의 '오대시안(乌台诗案)' 사건에 연루되어 연좌로 책임을 물어 감균주염주세(监筠州盐酒税)로 강등되었다. 철종(哲宗)이 즉위하고 태후가 수렴청정을 하자 소철은 태후의 부름으로 다시 조정으로 복귀하였는데, 이 때 상서우승(尚書右丞), 문하시랑(門下侍郎)까지 역임하였다. 그 후 철종의 친정으로 구당(舊黨) 세력들이 모두 폄적되면서 소철도 함께 폄적되어 균주(筠州), 뢰주(雷州), 순주(循州) 등의 지방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후 휘종(徽宗)이 왕위를 계승하자 사면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와 영천(潁川)에 거주하였고, 말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이 평생동안 썼던 문장들을 문집으로 정리하였다.

소철은 관직으로서는 우사간(右司諫), 중서사인(中書舍人), 호부시랑(戶部侍郎), 한림학사(翰林學士), 어사중승 (御史中丞)을 역임하였고, 앞서 언급했듯 상서우승(尚書右丞), 문하시랑(門下侍郎)에까지 이르렀다. 중앙관직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직을 역임하기도 하고, 신당과 구당의 당쟁(黨爭)으로 인해 폄적을 당하기도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풍파를 맞기도 했었기에, 정치 경험이 다양하고도 풍부하여 이를 바탕으로 많은 문장을 썼는데, 소철이 쓴 여러 문장을 통해 당시의 정치적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 소철만의 정견을 엿볼 수도 있다. 문장의 색채 또한 소철만의 뚜렷한 풍격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소철 개인의 인생을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각각의 시기마다 다수의 문장을 썼는데, 이를 바탕으로 『诗集传』, 『春秋集解』, 『论语拾遗』, 『老子解』, 『古史』, 『龙川略志』, 『龙川别志』를 편찬하였고, 자신의 문장을 정리하여 『栾城集』, 『栾城后集』, 『栾城第三集』, 『栾城应诏集』을 내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강사. 2022년 北京師範大學 文學院에서 ≪蘇轍散文研究≫로 文學博士學位를 받았음.

2. 소철의 산문

앞서 언급하였듯 소철은 자신이 쓴 문장을 정리하여『欒城集』,『欒城後集』,『欒城第三集』,『欒城应詔集』으로 엮었다.

『栾城集』은 송 철종(哲宗) 원우(元祐)6년(1091)에 소철이 상서우승(尙書右丞)으로 있을 때 정리한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원우(元祐)6년(1091) 이전까지 쓴 문장을 정리해서 엮었다. 서문에서 이르기를 '年五十有三, 始以空疏備位政府, 自是無述作之暇, 顧前後所作至多, 不忍棄去, 乃裒而集之, 得五十卷, 題曰欒城集.'라고 하였다.『欒城後集』은 원우(元祐)6년(1091)부터 숭녕(崇宁)5년(1106) 에 쓴 문장을 정리한 것이다. 서문에서 이르기를 '九年, 得罪出守臨汝, 自汝徙筠, 自筠徙雷, 自雷徙循, 凡七年.元符三年, 蒙恩北歸, 寓居潁川.至崇寧五年, 前後十五年, 憂患侵尋, 所作寡矣.然而亦班班可見, 復類而編之, 以為後集, 凡二十四卷.'라고 하였다.『欒城第三集』은 송 휘종(徽宗) 정화(政和) 원년(元年)(1111)에 편찬한 것으로 숭녕(崇宁)5년(1106)부터 세상을 뜨기 전까지의 문장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서에서 이르기를, '又五年, 當政和元年, 復收拾遺稾, 以類相從, 謂之欒城第三集.方昔少年, 沈酣文字之間, 習氣所薰, 老而不能已.既以自喜, 亦以自笑.今益以老矣, 余日無幾.方其未死, 將復有所為.故隨類輒空其後, 以俟異日附益之雲爾.'라고 하였다.『欒城应詔集』은 총 12권인데, 소철이 제과(制科)시험에 참가했을 때 지은『진론(進論)』과『책론(策論)』, 그 외 진사(進士)시험에서 썼던 문장들을 정리해서 엮었다.

이렇듯『欒城集』,『欒城後集』,『欒城第三集』,『欒城应詔集』은 소철의 문장을 전면적으로 엿볼 수 있으며, 또한 대략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기에 소철만의 문체 변천 연구의 중요한 저본으로 삼을 수 있다. 동시에 송대 문장가들 속에서 소철만의 특징도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소철이 직접 정리한『欒城集』,『欒城後集』,『欒城第三集』,『欒城应詔集』에 수록된 문장 중 산문 총 1118편을 저본으로 삼아 소철 문장의 특징과 사상을 분석하였다. 총 1118편의 문장을 문체별로 분류하면 논변(論辯) 113편, 주의문(奏議文) 282편, 조령(詔令) 506편, 잡기(雜記) 24편, 서발(序跋) 17편, 서(書牘) 40편, 비지문(碑誌文) 10편, 애제문(哀祭文) 35篇, 축문(祝文) 33편, 청사(青辭) 26편, 사부(辭賦) 13편, 송찬(頌贊) 10편, 전장(傳狀) 5편, 잠명(箴銘) 4편으로 나눌 수 있다. 소철이 쓴 문장의 여러 문체 중 소철이 가장 많이 썼고, 소철의 색깔을 드러낸 것으로 책론(策論), 주의문(奏議文), 기(記), 사론문(史論)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문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창작 시기에 비교적 집중적으로 썼다.

첫째, 책론(策論文)은 주로 소철의 젊은 시절 과거에 참가한 시기에 썼다. 송 인종(仁宗) 가우(嘉祐) 2년(1057), 소철은 19살의 나이로 진사(進士)에 급제했다. 가우(嘉祐) 6년(六年)에 제과(制科)에 합격하게 되는데, 제과(制科)의 시험에 책론(策論)을 써내야 하는 것이 있었다. 때마침 그때, 진사과(進士科) 시험의 형식이 시부(詩賦)문제 중심에서 책론(策論)으로 변하던 시기였는데, '自嘉祐以來, 以古文為貴, 則策論盛行於世, 而詩賦幾至於熄'였다. 이 시기에 썼던 59편의 문장을 정리하여『欒城应詔集』에 수록했는데, 그중 진사과성시론 (進士科省試論) 1편, 제과(制科)의 '현량진권(賢良進卷)' 50편, 제과(制科)의 '비각6론(秘閣六論)' 6편, 제과전시책(制科殿試策)1편, 그리고 비시론(秘試論)1편이 있다. 이때부터 소철은 후대에 책론(策論)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심지어 '而論策以下, 當屬之蘇氏父子兄弟'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와는 달리 아직 소철의 문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소철의 책론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 송대 제과(制科) 시험에서는 우선 50편의 책론(策論)을 제출해야 하는데, 소철의 '현량진권(賢良進卷)' 50편이 제과 시험을 위해 작성한 것이었다. 50편은『진론(進論)』25편과『진책(進策))』25편이다.『진론(進論)』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上自三王而下至五代'인 사론문(史論) 12편인데, 전대(前代) 역사에 대한 소철만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표현했는데, 대부분 옛것을 빌려 현재를 비유한 (借古喻今) 문장으로, 현실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둘째는 주공(周公), 오경(五經)과 노자(老聃)에 대해

서술한 문장 8편으로, 유가와 도가 두 가지 사상에 대한 것을 논한 것이다. 셋째는 촉(蜀), 북적(北狄), 서융(西戎), 서남이(西南夷), 연(燕), 조(趙)에 대해 서술한 5편의 문장으로, 주로 그들에 대한 풍습과 민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각각 지역의 민간 풍속에 대한 관점을 논하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치정 이론(治理)에 대해 서술하였다. 『진책(進策)』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군술책(君術策)』, 『신사책(臣事策)』, 『민정책(民政策)』으로 나눠서 정리하였다. 이처럼 소철의 50편의 '현량진권(賢良進卷)'은 체계적으로 나눠서 서술한 동시에 '국가의 흥망성쇠(國家的興衰存亡)'를 주제로 서술했는데, 이를 통해 소철이 관직에 들어서기 전 초기의 정치적 구상을 비교적 전면적으로 엿볼 수 있다.

둘째, 주의문(奏議文)은 대부분 송 신종(神宗) 희녕(熙寧) 2년(1069)부터 원풍(元豊) 2년(1079) 사이, 그리고 송 철종(哲宗) 원우(元祐) 원년(元年)(1086)부터 원우(元祐) 9년(1094, 즉 소성(紹聖) 원년(元年)) 사이 쓴 것인데, 이 두 시기 모두 소철이 조정에서 중앙관직으로 역임하던 시기였다. 앞서 서술한 책론은 관직의 길에 들어서기 전 어렸을 때 읽은 책을 통해 배운 여러 선학들의 정치적 사상을 토대로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인생 철학을 펼쳤던 문장이라면, 실제 관료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서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을 현실의 상황에 맞게 정치적 주장과 사상을 담아낸 것이 바로 소철의 주의문(奏議文)다. 소철의 주의문(奏議文)은 소철의 정치적 주장을 드러낸 중요한 매개체였는데, 신법(新法), 당쟁(黨爭), 타국과의 변경 지역 경계 문제 등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소철의 정견을 파악할 수 있다. 소철의 주의문(奏議文)은 완연한 정치가(政治家)로서의 문장이었다. 문장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논쟁을 펼쳤고, 실제로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화려한 수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하여 실용적인 정견을 펼쳤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기보다는 직접적인 화법을 구사하였다. 동시에 소철의 주의문(奏議文)은 문장가(古文家)의 문장이기도 했다. 수사(修辭)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다잡았으며, 문체에 있어서도 산체(散體)의 문체를 위주로 사용하였고, 병체(駢體)의 문체도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도 했다.

셋째, 기체문(記體文)은 주로 소철이 조정을 떠나 지방에 머물렀던 시기에 썼다. 주로 쓰였던 시기는 다음 세 시기인데, 첫 번째 시기는 송 신종(神宗) 희녕(熙寧) 2년(1069)부터 원풍(元豊) 8년(1085)이고, 두 번째 시기는 철종(哲宗) 원우(元祐) 9년(1094, 즉, 소성(紹聖) 원년(元年))부터 숭녕(崇寧) 2년(1103), 세 번째 시기는 숭년(崇寧) 2년(1103)부터 정화(政和) 2년(1112)이다. 소철의 기체문(記體文)은 24편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유명한 문장들이 많은데, 『여산서현사신수승당기(庐山栖贤寺新修僧堂记)』, 『황주쾌재정기(黄州快哉亭记)』 등이다. 물론 기체문에서도 자신만의 정치적 사상을 다분히 드러내고 있지만, 책론(策論)이나 주의문(奏議文)에 비해 사적인 감정을 좀 더 드러내었고, 소철의 독특한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더욱 많이 보여주었다. '이기위론(以記爲論)'의 작문 방법을 활용하여 산문사(散文史)에 있어서도 문체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철의 기체문은 사실성(事實性)과 심미성(審美性)이 병존하여 역사적 사실의 증거로 뒷받침하는데 일정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유의 매개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넷째, 사론문(史论文)은 소철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쓴 것이다. 모든 풍파를 겪은 만년(晚年)의 정치가의 눈으로 젊은 시절 썼던 책론보다 비교적 더 자신만의 색깔을 더 뚜렷하게 정견(政見)을 담아냈다. 소철은 송 휘종(徽宗) 원부(元符) 3년(1100)에 휘종의 부름으로 북쪽으로 돌아왔는데, 이에 변경(汴京) 근처 영창부(颍昌府)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론문은 이때 쓴 것이다. 이때 문장의 풍격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는데, 이 사론문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선명하게 드러났다. 모곤(茅坤)이 평가하길, '其年已老, 其氣已衰, 無復向所為飄飄馳驟若雲之出岫者、馬之下阪者之態, 然而閱世既久, 於古今得失處參驗已熟, 雖無心於為文, 而其折衷於道處, 往往中肯綮切事情, 語所謂老人之言是已.'라고 하였다. 소철의 사론문에서는 '문이재도(文以載道)'를 철저히 관철시켰고 사실적인 내용을 담아낸 동시에 다분히 실용적인 문장이었는데, 소철의 조카 소과(蘇過)가 소철의 사론문을 찬양하면서 이르길, '斯文有盟主, 坐製狂瀾漂', '手持文章柄, 燦若北鬥標'라고 하였고, 이는 당시 문단에서의 소철의 위치를 말해준다.

소철의 문장 중 비교적 수량이 많은 위 네 가지 문체(책론(策論), 주의문(奏議文), 기체문(記體文), 사론문(史論文)) 외에도 서로 다른 시기에 서발(序跋), 서독(書牘), 비지(碑誌), 애제(哀祭)를 썼다. 이와 같은 문체 또한 소철만의 사상을 깊이 담고 있으며, 내포하고 있는 함의(含意) 또한 풍부하고, 소철만의 색이 뚜렷했기에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철의 서발(序跋)은 서적(書籍)의 창작 원인과 창작 과정을 논술하고 개인의 학술 관점이나 시정(時政) 이념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는데, 편폭이 비교적 길고, 설명성(說明性)이 비교적 강하다. 서독(书牍)은 쉽게 말해 편지글인데, 받는 대상과의 교유에 목적을 두고 있고, 편폭이 비교적 유연하며, 내용 또한 비교적 유연하다. 비지(碑志)는 돌아가신 분, 묘주(廟主)의 생애와 사적(事跡)을 소개하고 업적(業績) 평가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는데, 편폭이 비교적 길고 서사성이 강하다. 애제(哀祭)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 그리움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편폭이 짧고 서정성이 매우 강하다. 소철이 쓴 이 네 가지 서발(序跋), 서독(书牍), 비지(碑志), 애제(哀祭)는 형식도 다르고 서술 수법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작문의 대상이 가족 혹은 친인척, 친우(親友), 은인(恩人)라는 사실이다. 그들을 위해 썼거나 그들에게 쓴 글이다. 그리고 네 문체 모두 주제가 비슷하고 대상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소철이 견지한 '문장으로써 도를 밝히고(明道), 세상을 구한다(救世)'는 그만의 문장 관념의 영향 때문이다. 이 네 가지 문체에서 모두 개인적인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본인의 가치 판단 기준을 그 속에 융합시켰는데, 사대부의 전형적인 형상을 '순리(循吏)'의 개념으로 녹아냈고, 여성의 전형적인 형상을 '강인함(堅韌)'으로 풀어냈다. 감정 표현에 있어서 진실하고도 진실함을 담고 있고, 문장의 형식 및 수사(修辭)에 있어서도 곡절(曲折)과 평화(平和)의 표현법을 충분히 잘 표현했는데, 이 모두 소철의 사람됨과 그만의 문장 풍격이 일치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3. 결론

소철(蘇轍)은 송 인종(仁宗)부터 휘종(徽宗)까지 다섯 황제를 섬기면서 40여 년간 관직에 있었으며, 정치가이자 문장가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소철은 산문(散文)을 통해 그의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이상, 국가에 대한 정서와 인생에 대한 풍부한 생각, 개인적인 감정의 세계도 드러내었다.

소철의 책론(策論)은 그만의 정치적 이상과 정치 이론의 초보적인 구상으로서 북송 초중기의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 존재하는 폐단을 심도 있게 밝히고 조정의 혁신에 대해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주장을 펼쳤으며 이와 동시에 위정(爲政)이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소철의 책론(策論)은 그만의 곧은 풍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북송에서 흔치 않은 극히 소철만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

주의문(奏議文)은 소철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주장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산체(散體)의 형식을 주로 사용하였고, 때로는 병체(駢體)와 산체(散體)를 융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재도(載道)와 치용(致用)을 주요 주지(主旨)로 삼았다. 다른 문인들의 주의문(奏議文)과는 달리 형식적인 면에서 일부 독특한 면모가 있다. 주의문(奏議文)에서 첩황(貼黃)을 사용했는데, 본 내용을 보충하는 동시에 첩황(貼黃) 자체를 독립적인 매개체로 의미를 부여하여 첩황(貼黃)의 가치를 크게 제고시켰다.

소철의 기체문(記體文)은 책론(策論), 주의문(奏議文)보다 소철만의 독특한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더욱 많이 드러내었다. 초기에 공적인 장소를 위주로 서술한 기사기물(記事記物)에서 후에는 사적인 공간 내에서의 자아언설(自我言說)에 이르기까지 점차 감정도 더욱 풍부하게 드러내고 섬세한 변화과정을 보여주었다. 소철은 기체문(記體文)으로도 정치적 경험과 자신만의 정견(政見)을 드러내었다. 그만의 정치적 사상에 인생에 대한 태도를 서로 교차하여 서술하였고, 행간에 현실과 관련된 의론(議論)에 수사적 심미(審美)까지 겸비한 문장이었다.

소철은 사론문(史論文)을 통해 그만의 역사 관념과 심오한 정견(政見)을 드러내었으며, 형식상 초기의 책론(策論)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옛것을 빌려 현재를 비유한 (借古喻今) 수법을 사용하여 '국가의 흥망성쇠(國家的興衰存亡)'의 내재적 요소를 총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소철의 독특한 '도(道)', '기(氣)'관념과 '문장자일가(文章自一家)'의 면모를 드러내어 소철의 사관의식(史官意識))과 정치적 지혜를 보여주었다.

소철의 서발(序跋), 서독(書牘), 비지(碑志), 애제(哀祭)는 소철 인생의 각 단계에 흩어져 있으며, 글쓰기 대상은 대부분 소철의 가족, 친인척 및 가족에 가까운 은인에 집중되어 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글에서 소철은 '순리(循吏)'의 면모에 중점을 둔 사대부의 전형적 형상, '강인한(堅韌)' 품성에 중점을 둔 여성의 전형적 형상을 그려냈는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행간의 기교를 통해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었다.

소철의 일생을 살펴보면 방대한 시대 배경, 심도 깊은 사상 내포, 풍부한 개인 경력, 뛰어난 예술 수양은 모두 그의 산문 창작에 투영되어 북송 문단에서 독보적인 그만의 일파를 이루었다. 그의 산문은 북송의 정치, 사상, 문화 분야에서 중요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북송의 산문 문체 발전의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문학사에서도, 문화사에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 산문의 발전과 변천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주희(朱熹)의 치심(治心) 수양론에 대한 재고찰
— 진덕수업(進德修業)에 관한 주자 어록을 중심으로

김진희*

<目 次>

1. 서론
2. 치심의 속성과 충신(忠信)
3. 치심의 방법과 입성(立誠)
4. 치심의 현존과 수사(修辭)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진덕수업(進德修業)을 논한 주자 어록을 근거로 치심(治心) 관련 내용을 탐색함으로써 주희(朱熹)의 치심 수양론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졸고 「『근사록(近思錄)』 주석서에 나타난 주자설 고찰 —치심(治心) 수양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에서 주희의 치심 수양론에 대한 이론 정립을 시도하였다. 치심 수양론은 주희의 수양론과 구분된다는 가설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주희의 수양론은 거경궁리 중심의 형이상학적 이론이다. 필자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양론의 특징과 대조적으로 주희의 치심 수양론이 형이하학적 측면에서 일상생활의 도덕적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마음 수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치심 수양론의 대략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치심 수양론의 이론적 확립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많은 공란이 남겨져 있다. 이와 같은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이론적 체계성을 갖춰나가기 위해 치심에 관한 근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희가 밝힌 진덕수업에 관한 논설은 덕(德), 사(事), 성의(誠意), 경의(敬義) 등 치심 수양론에서 다루고 있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분석은 주희의 치심 수양론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재고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덕수업에 관한 주희의 언설은 『주자어류(朱子語類)』나 『근사록』 주석서에 인용된 주자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덕수업의 원전 출처는 『주역(周易)·건괘(乾卦)·문언전(文言傳)』이다. “군자(君子)는 진덕수업(進德修業)하니, 충신(忠信)이 진덕(進德)의 방법이며,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이 거업(居業)의 방법이다.”[1]라는 문장에서 진덕수업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진덕수업에 관한 주희의 학설은 『주자어류·역오(易五)·건하(乾下)』에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역』의 구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주희가 『근사록』 집필 시 인용한 정이(程頤)와 정호(鄭顥)의 학설과 더불어 그에 관해 주희가 논한 어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주희의 진덕수업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주요 근거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필자가 주희의 치심 수양론에 대해 선행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밝힌 치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치심은 기연지사(其然之事), 즉 현상적인 일의 근본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치심의 방법으로 성의(誠意)

* 전북대학교 한스타일연구센터

1) 『周易·乾卦·文言傳』, 君子, 進德修業, 忠信, 所以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

와 정의(精義)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주희의 치심 수양론이 현실 생활 속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위한 형이하학적인 덕목을 골자로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주자어류・역오・건하』와 『근사록』 주석서에 나타난 주자 어록의 내용과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이들 공통분모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치심 수양론이란 과연 무엇을 일컫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2. 치심의 속성과 충신(忠信)

본 장에서는 주희가 치심이 일의 근본이라고 밝힌 점에 착안하여, 근본의 측면에서 치심의 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희가 치심의 근본적 속성에 대해 밝힌 내용은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의 주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사록』에서 정이(程頤)는 기연(其然)이 근본과 말단의 두 가지 일로 나뉠 수 없다고 하였다.[2] 여기서 기연은 쇄소응대(灑掃應對)와 같은 일상적인 예절을 의미한다. 『근사록집해』의 주석에 따르면, 주희는 기연을 일로 지칭하여 기연지사(其然之事)로 명명하고, 이를 본말(本末)로 나누었다. 이 중 근본에 해당하는 것은 치심과 수신(修身)이라고 하였고, 말단에 해당하는 것은 쇄소응대라고 하였다.[3] 여기서 치심과 수신[4]은 인간이 지향하는 최고 가치인 덕(德)을 양성하는 기반이 됨과 동시에 덕을 키워나가는 효용과 목표를 갖는다. 그러므로 치심은 일의 본질이자, 덕의 함양을 위한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역・건괘・문언전』에 "충신은 덕을 키우는 방법(忠信, 所以進德也)."이라는 말이 있다. 주희는 이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신을 뿌리[根]에 비유하였다.

> 충신은 뿌리이다. 이 뿌리는 가지와 잎을 틔우고 자라나게 할 수 있다.[5]

> 충신은 어떤 일 하나라도 성실(誠實)하지 않음이 없음을 뜻한다. 이는 나무에 뿌리가 있어 나무의 생명력이 끊임없는 것과 같다.[6]

위에서 주희는 뿌리와 지엽(枝葉)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기연지사를 본말로 나누어 설명하였던 그의 관점에 상응한다. 또한, "어떤 일 하나라도 성실하지 않음이 없다(無一事不誠實)"고 밝힌 구절에서도 충신과 일을 연관 지어 밝힌 점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의 근본인 치심과 여기서 말한 충신은 상통하는 의미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나무를 사람의 삶과 일에 비유하자면, 나무의 생명과 성장은 뿌리에서 비롯되듯 일상의 도덕 실천에 관한 일은 충신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일의 근본인 치심이란 곧 충신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뿌리가 있음에 수반되는 나무의 생명력이 그침이 없는 것은 곧 덕을 갖춘 마음을 비유할 것이다. 이는 곧 치심이 숭덕(崇德)의 바탕이라고 보았던 그의 관점과 연결된다. 이처럼 치심과 덕, 그리고 충신과 덕의 관계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치심, 즉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충신하기 위해서이며, 마음 다스림을 통해 충신함으로써 결국 덕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충신이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하였듯이, "충신은 진덕의 방법(忠信, 所以進德也)"이다. 따라서

---

2) 『近思錄・道體』, 凡物有本末, 不可分本末爲兩段事. 灑掃應對是其然, 必有所以然.

3) [宋] 葉菜, 『近思錄集解・爲學』, 朱子曰: 治心修身是本, 洒掃應對是末, 皆其然之事也. 至於所以然則理也, 理無精粗本末.

4) 『周易本義·繫辭傳下』, 精研其義, 至於入神, 屈之至也. 然乃所以為出而致用之本, 利其施用, 無適不安, 信之極也. 然乃所以為入而崇德之資, 內外交相養, 互相發也. 여기서 안으로 굽히는 것[屈]은 정의입신의 치심을 말하는 것이고, 밖으로 편다는 것[伸]은 치심과 더불어 이행하는 수양 방법인 수신이다.

5) 『朱子語類・易五・乾下』, 忠信是根, 有此根便能發生枝葉.

6) 『朱子語類・易五・乾下』, 蓋忠信, 則無一事不誠實, 猶木之有根, 其生不已.

충신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진덕과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근사록』에서 정호(鄭顥)는 종일토록 부지런히 수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밝히면서, 그 중대한 일의 실제 출발점은 오히려 충신을 통한 진덕에 있을 따름이라고 하였다.[7] 이에 대한 주희의 관점이 나타난 『근사록집주』의 주자 어록은 다음과 같다.

> 주자께서 말씀하셨다. 진덕(進德)은 마음의 방면에서 말한 것이다. 이는 마음속에서 속임 없는 이치를 실제 보는 것과 같다. 또한, 악을 미워하기를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처럼 하고, 선을 좋아하기를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하면 덕이 진전되기를 기대하지 않고도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8]

위에서 주희는 진덕을 할 때의 마음 상태를 두 가지 측면에서 풀이하였으며, 이를 통해 충신의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다. 그중 첫째는 "속임이 없는 이치를 실제 보는 것(實見得理之不妄)"이다. 이치는 사적인 해석이 가미되지 않은 진실이다. 이러한 이치를 사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투명한 시각을 갖는 것이 곧 충신이다. 둘째는 "악을 미워하기를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처럼 하고, 선을 좋아하기를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것(如惡惡臭, 如好好色)"이다. 악취를 맡는 것은 후각이고, 아름다운 빛깔을 보는 것은 시각이다. 이는 인간의 신체적 기능이다. 이러한 신체 기능을 통해 감지된 냄새와 색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와 다르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 이지적으로 부여한 윤리적 가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오악취(如惡惡臭), 여호호색(如好好色)"은 인간의 윤리성을 본능처럼 인간이 본래 타고난 것과 대등한 수준에까지 끌어올린 경지를 말한다. 후각과 시각을 통해 발현되는 인간의 본능이 직면한 현실에서 여실히 나타나는 것처럼, 맞닿은 상황에 따라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는 도덕적 가치 판단이 진실하게 구현되는 것, 이것이 곧 충신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충신이란 인간이 갖춘 진실성을 의미한다. 주희는 이러한 충신이 마음에 근본 토대로 자리함으로 인해 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 충신진덕(忠信進德)은 『대학(大學)』의 성의(誠意)에 관한 학설일 따름이다. "여오악취(如惡惡臭), 여호호색(如好好色)"의 근본이 있어 덕이 바야흐로 나아갈 수 있다.[9]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여오악취, 여호호색"은 곧 충신의 상태를 일컫는다. 주희는 이러한 충신이 뿌리로 자리 잡아 나무의 생명력인 덕이 활기를 띨 수 있게 됨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는 충신진덕과 『대학』의 성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거론하였다. 『대학』에서 성의란 자신을 속이지 않는 "무자기(毋自欺)"라고 일컬으면서, "여오악취, 여호호색"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한 "여오악취, 여호호색"은 스스로 흡족해하는 상태인 자겸(自謙)을 의미한다.[10] 이를 충신의 의미로 확장해볼 수 있다. 충신이라는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으면 곧 스스로 만족하는 자겸의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덕을 진전하는 바탕이 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치심의 속성인 충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치심이란 충신을 키워나가는 과

---

7) 『近思錄・爲學』, 終日乾乾, 大小大事, 却只是忠信所以進德, 爲實下手處, 修辭立其誠, 爲實修業處.

8) [淸] 茅星来, 『近思錄集註・爲學』, 朱子曰: 進德就心上言, 如心中實見得理之不妄, 如惡惡臭, 如好好色, 常常如此, 則德不期進而進矣. 修業就事上言, 修辭立誠, 便是要立得此忠信. 若口不擇言, 逢事便說, 則忠信亦爲汨沒動蕩, 而不能以自立矣.

9) 『朱子語類・易五・乾下』, 問: 「居業當兼言行言之, 今獨曰『修辭』何也?」 曰: 「此只是上文意. 人多因言語上, 便不忠信.」 (不忠信, 首先是言語.) 因言: 「忠信進德, 便只是大學誠意之說. 『如惡惡臭, 如好好色』, 有此根本, 德方可進. 修辭, 只是『言顧行, 行顧言』之意.」

10) 『大學』,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 必愼其獨也.

정이며, 치심을 완성한 마음 상태는 충신임을 귀결지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성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앞서 진행한 주희의 치심 수양론에 관한 연구에서 성의는 치심 수양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치심의 방법인 성의에 관련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3. 치심의 방법과 입성(立誠)

『주역・건괘・문언전』에 따르면, 진덕(進德)의 방법은 충신(忠信)이며, 수업(修業), 즉 거업(居業)의 방법은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이다. 정이(程頤)는 이에 대해 "안에 충신을 쌓음(內積忠信)은 진덕의 방법이며, 말을 가려서 하고 뜻을 독실하게 하는 것(擇言篤志)은 거업의 방법이다."[11]라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을 "택언독지(擇言篤志)"로 바꾸어 설명한 점인데, 이에 대해 주희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 말을 가려서 한다는 택언(擇言)은 수사(修辭)를 일컫는다. 뜻을 돈독하게 한다는 독지(篤志)는 입성(立誠)을 일컫는다. 여기서 입성은 곧 위에서 말한 충신(忠信)이다.[12]

위에서 주희는 독지가 곧 입성임을 밝혔다. 독지의 독(篤)은 단단하고 견실하게 한다는 의미로 입성의 입(立)에 내포된 확립(確立)의 의미와 상응한다. 또한, 그는 독지의 지(志)를 입성의 성(誠)과 연결 지었는데, 지(志)가 의(意)와 의미가 유사함을 감안하면 성(誠)은 곧 성의(誠意)를 지칭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희는 입성이 곧 충신임을 밝혔다. 성의가 치심의 방법이라는 점에 근거해볼 때, 치심의 방법인 성의를 확고히 하는 치심의 과정은 입성이고, 그에 따른 치심의 결과는 충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충신은 치심을 완성한 마음 상태를 지칭한다. 따라서 성의는 충신을 유지하는 방법이자, 치심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뜻을 진실하게 하는 성의의 과정이 치심이기 때문이다. 진덕수업에 관한 학설에서 성의를 지속하는 방법으로 수사(修辭)가 거론되었다. 바로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이다. 이는 말을 다스려서 자신의 성의를 세움을 일컫는다. 여기서 입성(立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양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유하자면 성의는 버팀목이 없는 막대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잠시라도 방치하면 쓰러지므로 계속 일으켜 세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치심 수양의 수행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치심이 일[事]의 근본이라고 보았던 주희의 관점에 대입해볼 때, 입성을 치심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주희는 진덕수업의 덕과 업에 관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덕은 마음에서 얻는 것이다. 업은 일에 나타나는 것이다. "진덕"은 자각한다는 의미로 하루 동안 힘쓰면 하루만큼 이룬 것 같고, 하루 동안 진작되면 하루만큼 성장한 것과 같다. 이처럼 외면적인 일이 아니며, 그저 저절로 나타난다는 의미와 다르다. 업이라는 것은 덕의 일이다. 덕은 날마다 나아가고자 하나, 일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거한다는 것은 유지하면서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13]

위에서 밝힌 주희의 해설에 따르면, 덕은 마음에서 얻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마음은 충신의

11)『近思錄・爲學』, 內積忠信, 所以進德也, 擇言篤志, 所以居業也.

12) [宋] 葉菜,『近思錄集解・爲學』, 朱子曰: … 擇言, 謂修辭, 篤志, 謂立誠, 立誠, 卽上文忠信.

13)『朱子語類・易五・乾下』, 德是得之於心, 業是見之於事.『進德』是自覺得意思日强似一日, 日振作似一日, 不是外面事, 只是自見得意思不同. 業是德之事也, 德則欲日進, 業要終始不易, 居是存而不失之意.

상태이다. 충신으로 덕을 키우는 절차는 마음의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현상적인 일이 아니다. 반면에 입성은 일의 영역에 속하며, 덕의 일을 일컫는다. 일의 영역이므로 치심의 과정인 입성은 일상생활의 현실과 마음의 작용 사이에서 구현된다. 이러한 입성의 지속성은 충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

지금까지 정이가 "수사입성"을 "택언독지"로 해석한 것과 이에 대한 주희의 관점을 근거로 입성이 치심의 과정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추론이 가미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정이가 밝힌 학설의 한계일 것이다. 주희는 이처럼 정이한 논한 학설의 범주가 넓은 것을 단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호(鄭顥)가 말한 "언사를 다스림은 바로 자신의 성의를 세우는 것(修其言辭, 正爲立己之誠意)"이 더욱 정밀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14] 그 이유는 정호가 입성에 대해 해설하면서 성의(誠意)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심 수양의 관점에서 입성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정호의 학설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근사록』에서 정호가 입성에 관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도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은 자세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사입기성이란 언사를 다스리고 성찰할 수 있으면 바로 입성을 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만약 그저 언사를 꾸미는 것에만 마음을 쓴다면 그것은 거짓이 된다. 언사를 잘 다스림으로써 자신의 성의(誠意)를 확립하게 된다면, 이는 곧 스스로 '경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써 외면을 바르게 하는 것(敬以直內, 義以方外)'의 실질적인 일을 해내는 것이다. 도는 크고도 넓으니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오직 입성에 거할 곳이 있다. 거할 수 있는 곳에서 수업(修業)이 가능해진다. 종일토록 수양에 전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들 하지만, 오히려 단지 충신이 진덕의 방법이자 실제 출발점이며, 수사입기성이 사실상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15]

위에서 정호는 언사를 다스리고 성찰하는 능력이 있으면 곧바로 입성을 실천할 의지가 생긴다고 하였다. 주희는 "내면에 충신이 있어야 비로소 수사를 할 수 있다."[16]고 밝힌 바 있다. 언사를 다스리고 성찰하는 능력은 마음에 충신이 확보되었을 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충신은 입성을 실천하기 위한 조건이자, 입성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이다. 충신과 입성이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서로의 발현처가 각기 다르다. 충신은 마음에서, 입성은 일에서 작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공통적 속성하에 이들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치심 수양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성의를 올곧게 확립하는 것은 곧 경으로써 내면을 곧게 하고 의로써 외면을 바르게 하는 것(敬以直內, 義以方外)의 실질적인 일을 체험하고 주관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경(敬)과 의(義) 역시 치심 수양의 방법인 성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주희의 치심 수양론에 관한 필자의 논문에서 거론하였듯이, 거경궁리(居敬窮理)는 성의의 선행 단계에 속하며, 정의(精義)는 성의와 함께 치심 수양의 방법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17] 이와 동시에 입성은 경과 의의 실질적인 일[實事]을 구현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치심

---

14) [淸] 茅星来, 『近思錄集註・爲學』, 朱子曰: … 伊川解修辭立誠作擇言篤志, 說得來寬. 不如明道所言「修其言辭, 正爲立己之誠意」更精.

15) 『近思錄・爲學』, 明道先生曰: 修辭立其誠, 不可不子細理會, 言能修省言辭, 便是要立誠. 若只是修飾言辭爲心, 只是爲僞也. 若修其言辭, 正爲立己之誠意, 乃是體當自家敬以直內, 義以方外之實事. 道之浩浩, 何處下手. 惟立誠, 纔有可居之處, 有可居之處, 則可以修業也. 終日乾乾, 大小大事, 却只是忠信所以進德, 爲實下手處, 修辭立其誠, 爲實修業處.

16) [宋] 葉菜, 『近思錄集解・爲學』, 朱子曰: … 內有忠信, 方能修辭.

17) 경(敬)과 의(義)의 작용 범주는 내면[內]과 외면[外]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에서 내면은 이치(理)와 관련한 형이상학적인 영역이다. 또한, 외면은 이치의 올바름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형이상학적인 영역과 결부되어 있으면서도, 마음에 체득한 의로움의 기준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생각과 관련한 형이학적인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앞선 필자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의(精義) 역시도 치심 수양론의 방법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

수양론이 도덕 실천을 위한 실질적 이론이라는 점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다음의 주자 어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주자께서 말씀하셨다. “입성(立誠)한 이후에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며, 사사로움에 얽매이거나 어지러운 일에 매이는 근심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수업(修業)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업(業)은 매일의 사업(事業)으로, 오늘의 일과와 같다.”

위에서 주희는 입성을 통해 마음에 의지할 곳을 마련하고 내면의 혼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입성의 효용에 대해 밝혔다. 이를 통해 입성은 치심의 방법이자 통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입성의 과정을 거친 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충만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치심 수양의 대상이 고원한 도의 경지가 아니라, 일상적인 도덕적 실천임을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4. 치심의 현존과 수사(修辭)

앞 장에서 충신은 치심의 속성이며, 입성은 치심의 방법임을 논하였다. 진덕수업에 관한 논의 중 남은 부분은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의 수사(修辭)이다. 수사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성찰하며 다스린다는 뜻이다. 일의 본질이 치심과 수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던 주희는 마음과 몸을 수양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이와 더불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듯하다. 이와 관련한 주자 어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자께서 말씀하셨다. … “‘수사입성’은 일의 측면에서 말한 것으로, 진실하지 않은 말이라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묻기를, “수사 또한 하나의 실마리를 근거로 말한 것 아닙니까?”라고 하자, 주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은 행동의 표상이니, 말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 또 이르시기를, “‘충신진덕’은 ‘수사입성’의 도리를 체득한 것이고, ‘수사입성’은 ‘충신진덕’의 도리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18]

위에서 주희는 수사입성이 일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며, 이는 충신진덕의 도리를 실천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사입성은 실질적인 행동의 영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수사입성을 풀이할 때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수사의 의미를 유추해보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서 ‘수사’의 ‘수’는 마음의 인지와 성찰에 관한 능력과 결부된다. 이와 더불어 ‘수사’의 ‘사’는 행동의 표상인 말[言]을 지칭하는 것으로, 수사는 언행에 관한 수양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말에 관한 수양인 수사는 통해 내적 영역의 치심 수양을 일상생활의 실질적 영역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말이라는 것은 행동을 대변하며 마음의 진실함을 더욱 여실히 드러내므로 실제성과 현재성이 강하다. 이에 대해 주희는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 묻기를. “어째서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말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까?”라고 하자, 주자께서 말씀하셨다. “일은 오히려 사람을 속일 수 있거니와 말은 숨길 수 없다. 그러므로 ‘말은 행실을 돌아보며, 행실은 말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대부분 언어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쉽게 내뱉는다. 만약 말을 할 때 일일이 진실하고자 한다면, 이

18) 『朱子語類・易五・乾下』, 曰: …『修辭立誠』是就事上說, 欲無一言之不實也. 問:「修辭也是擧一端而言否?」 曰:「言者行之表, 故就言上說.」 … 又云:「『忠信進德』是見箇『修辭立誠』底道理, 『修辭立誠』是行箇『忠信進德』底道理.」

러한 것이 진정 거대한 공부가 될 것이다.[19]

치심의 목표는 매 순간 진실함을 갖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은 바로 말이다. 위에 주희가 언급한 것처럼, 말은 숨길 수 없으므로 내면의 진실성을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말은 하기 쉬운 것이므로 다스리기 어려운 대상이지만, 말의 수양을 해내기만 한다면 큰 공부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주희가 치심 수양에서 수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유일 것이다. 그는 또한 "말은 행실을 돌아보며, 행실은 말을 돌아보아야 한다(言顧行 行顧言)."라는 『중용(中庸)』의 구절을 수사의 수행 방법에 빗대어 논하였다. 이 역시 수사가 인간의 언행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임을 방증한다. 이처럼 수사는 치심이 현실 속에서 현존하도록 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와 같은 수사의 실질성과 현재성에 대해 주희는 정호와 정이의 학설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하였다.

> 주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천 선생께서 소계명(蘇季明)에 대해 말씀하시길 '학문을 하는 데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나, 스스로 체득하지 못한다면, 비록 오경을 모두 통달하더라도 이는 또한 공언(空言)일 따름일 것이다.'라고 하셨다. 명도 선생께서는 단지 '수사' 두 글자만을 말씀하셨는데, 그 거대한 원리를 이해하신 것이다. 이천 선생께서는 세밀한 부분을 이해하셨지만, 결점을 메우지는 못하셨다."[20]

이정(二程) 문인인 소계명(蘇季明)은 치경(治經)을 통해 도(道)를 전하는 것을 거업(居業)의 실질로 삼은 바 있다. 즉, 소계명이 생각한 수사는 경전의 내용을 잘 학습하고 그 내용을 후대로 전하는 것을 지칭한다. 정이는 이러한 소계명의 학문 태도 중 경전에 대한 피상적 수용 및 전수에 관한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전에 나타난 성인의 뜻에 침잠하여 언행의 원천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러한 자득(自得)의 과정이 없는 수사는 경전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허한 말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주희는 이와 같은 정이의 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호가 이를 '수사'라는 두 글자로 논변한 것을 거론하였다. 정호가 말한 수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희 어록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 주자께서 말씀하셨다. "소계명은 장횡거(張橫渠)을 종주로 삼아 입언(立言)을 통해 후세에 전하는 것이 수사라는 학설을 펼쳤다. 명도 선생께서 말씀하신 인언(因言)을 통한 수사는 단지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非禮勿言).'와 같을 따름이다. 이는 장횡거의 학설과 다르다."[21]

위와 같은 주희의 관점에 따르면, 소계명은 입언(立言)을 통한 수사를, 정호는 인언(因言)을 통한 수사를 중시하였다. 여기서 입언은 학습한 경전의 내용을 저술하여 후대로 전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 인언은 경전의 내용을 내재화하여 실제 발화 시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례물언(非禮勿言)"이라는 구절을 후세에 남기는 것은 입언 수사에 속하며, 실제 일상생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예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실례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구사하는 발화는 인언 수사에 해당한다. 언어 행위의 현재성에 입각하면, 입언은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죽은 언어이며, 인언은 마음의 인지 작용과 실제 언행의 현장이 반영된 살아있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인언 수사는 실질성과 현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치심을 현존하게 하는 언어 활동이라고 결론지어 볼 수 있다.

---

19) [淸] 茅星来, 『近思錄集註・爲學』, 問: 何不說事, 却說言? 曰: 事尙可欺人, 辭不可掩, 故曰言顧行, 行顧言. 又曰: 人多將言語作沒緊要, 容易說出來. 若一一要實, 這工夫自是大.

20) [淸] 茅星来, 『近思錄集註・爲學』, 朱子曰: 按伊川謂季明曰: 「爲學治經最好, 不自得, 雖盡治五經亦是空言。」 蓋明道只辨「修辭」二字, 理會其大規模, 伊川又理會細密處, 都無縫罅.

21) [淸] 茅星来, 『近思錄集註・爲學』, 朱子曰: 季明祖橫渠立言傳後爲修辭之說. 明道因言修辭只是如「非禮勿言」耳, 非有如橫渠之說也.

5.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주희의 치심 수양론의 이론체계는 진덕수업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덕수업의 실천 방법인 충신, 입성, 수사가 치심 수양론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충신은 마음의 진실성으로 치심의 속성이다. 입성은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치심의 방법이자 과정에 속한다. 이 둘은 치심의 내적 수양에 해당한다. 수사의 경우, 그 기능과 범위가 이들과 조금은 다르다. 수사는 내면의 덕성에 기초하여 언행을 제어하는 활동을 일컬으며, 인간의 마음인 내부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사회인 외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사는 치심이 내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이루도록 한다.

『근사록』 주석서의 주자주를 중심으로 주희의 치심 수양론을 고찰했던 졸고의 후속 연구로서 진덕수업에 관한 주자 어록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는 주희의 치심 수양론을 구체화하는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比較視域下的中韓古典笑話審美意蘊研究

吳 瓊*

<目 次>

1. 緒論
2. “笑中含淚”－－悲喜交加的審美體驗
3. “笑裏藏刀”－－婉兒多諷的審美表達
4. “俗趣”與“雅趣”－－雅與俗的審美實踐差異
5. 結論

국문초록

웃음은 인간 특유의 고급 감정 중 하나로, 인간은 보통 웃음과 관련된 사물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소화(笑話) 문학은 웃음과 관련된 인간의 미적 표현 형태이다. 한·중 양국의 고전 소화 문학은 미적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같으면서도 다른 미적 함의를 형성한다. 미적 주체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하니 ‘평화를 중시하고 평범함을 추구하는(貴和尙中)’ 문화적 가치 관념과 ‘부드럽고 돈독한(溫柔敦厚)’ 문학 창작 관념에서 서로 일치하며, ‘희비가 교체하고(悲喜交加)’, ‘완곡한 논의로 사회에 대한 풍자를 표하는(婉而多諷)’ 미적 함의를 나타낸다. 미적 객체에서 볼 때 양국이 서로 다른 역사적·정치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소화 문학작품에 반영되어 각각의 특색을 지닌 미적 함의를 나타낸다. 중국 고전 소화는 일종의 자유로운 ‘세속의 정취(俗趣)’에 치우쳐 있는 반면, 한국 고전 소화는 지혜로운 ‘우아한 정취(雅趣)’를 주로 드러내고 있다.

핵심어: 중국, 한국, 비교, 소화, 미적 함의

1. 緒 論

笑話作為一種喜劇藝術，既能使用一般文學形式中的藝術技巧，又能使用獨特的喜劇語言和結構，巧妙整合喜劇元素，在特定語境中引發喜劇作品中千姿百態的笑聲，具有獨特的審美意蘊。中國和韓國古典笑話傳統源遠流長，但在發展的歷程中經歷了不少起伏波折。長期受到儒教、佛教影響的古代中國和韓國，嚴格遵循以“仁、義、禮、智、信”為核心的儒家倫理道德規範，同時又接受著佛教靜心修行、壓制欲念的禪宗思想。儒教和佛教所宣揚的價值觀念，在一定程度上影響了中韓兩國人民關於“笑”情緒的表達。在韓國有學者認為：“在韓國文化和歷史中長期具有影響力的佛教文化和儒教文化，正如其文化的屬性一樣，與詼諧的關係並不密切，這也增加了(詼諧文化)傳承上的困難。因此關於我們對詼諧文化的傳承，不排除喪失或忘卻的可能性。”[1]中國近現代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1) “그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역사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한 불교문화나 유교문화 역시 그 문화의 속성이 그렇듯 해학과 결코 친밀하지 않은 것도 전승의 어려움을 더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해학의 문화적 전승을 많이 상실했거나 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병렬 : ≪한국 해학의 예술과 철학≫, 서울: 아카넷, 2013 : 45.

文學家、思想家魯迅也曾說過：“‘幽默’既非國產，中國人也不是長於‘幽默’的人民。”[2]甚至西方對東方普遍有著一種刻板印象，認為一些東方國家，尤其是位於漢文化圈的國家和民族，不懂幽默，不具有幽默感。這種觀點顯然是局限的，中韓兩國並非沒有幽默的存在，只不過因為不同的文化和國家對於“笑”的理解和表現存在著一定差異，若不熟悉中國和韓國特有的文化和表達方式，就會產生一些誤解。中國和韓國的笑話文學作品中蘊含的“笑”，就是中韓古人具有幽默感的見證。中韓古典笑話可以“笑裏藏刀”，可以“悲中寓喜”，還能“雅俗共賞”，體現著兩國民眾對“笑”獨有的審美表達和笑話作品的獨特審美價值。本文以中國明清時代笑話和韓國朝鮮時代笑話為中心，從比較文學視角挖掘兩國古典笑話的獨特審美價值，揭示兩國笑話文學審美表達的相通性和差異性，並分析導致這些相通性和差異性的民族文化原因。目前學界，尤其是中國學界，雖然在中韓比較文學研究上的成果較為豐厚，但還未關注到對兩國笑話審美內涵方面的比較。筆者希望通過本文為中韓比較文學研究提供一個新的研究視角，起到拋磚引玉的作用。

2. “笑中含淚”——悲喜交加的審美體驗

笑話作為一門喜劇藝術，喜劇性是必不可少的，作為審美主體的讀者，在品讀笑話的審美實踐過程中，因笑話的喜劇性帶來的審美體驗，自然流露出“笑”的情感。然而這並不是中韓笑話唯一的審美體驗。中國古代笑話書≪笑倒・序言≫有雲：“然則笑倒乎，哭倒也。”中韓笑話中還常常還插入悲劇元素，使喜劇感與悲劇感共同寓於作品之中，“悲劇感是審美主體對審美對象的命運所包含的一種憂患意識，往往形成傷感與快感的混合表現。”[3]形成了一種“笑中含淚”的獨特審美體驗。

中韓笑話喜劇感與悲劇感的共存可以體現在用喜劇形式展現人物悲劇命運。笑話主要由喜劇人物營造喜劇效果。在中韓笑話中，喜劇人物身上不僅具備可笑滑稽的喜劇元素，還經常為展現一些尖銳的社會問題和變幻無常的人生境遇，為人物被賦予悲劇命運，表現為深陷某種困境、被欺淩、被迫害、被錯冤等等。這些悲劇色彩的加入，並不影響整個故事的喜劇性，還可以使笑話的審美內涵變得更為立體。首先我們來看中國古代笑話：

> 貧漁夫婦於冬夜以網為被，中夜以指透網外，私相謂曰：“如此寒夜，虧那無被的如何熬過。”≪笑府・被≫[4]
>
> 乞兒爛腿臥市中，一狗往舔之。乞兒罵曰：“畜生這等急，少不得是你的食，忙做甚的？”≪笑倒・罵狗≫[5]

貧漁夫婦冬夜用網作被，乞兒爛腿躺在街中，都是底層人民窮苦生活的客觀展現和悲劇命運的真實寫照。若是在其他文學作品中，也許會對他們悲慘遭遇進行著重刻畫，使人讀後不禁心生酸楚。然而在笑話中，交代過他們的窮困生活後，又以詼諧的筆調展現人物形象的喜劇色彩：貧漁夫婦用網作被已經相當於沒有被子可蓋了，卻還能說出“如此寒夜，虧那無被的如何熬過”的可笑之言；乞兒爛腿被狗舔舐，大概是料到自己的腿已無藥可救，罵狗道“畜生這等急，少不得是你的食”。這些人物在極度窮困的窘境下，依然可以說出這樣詼諧幽默的話語，展現了人物的樂觀主義精神。通過對這些人物的詼諧語言的描寫，讀者對人物悲劇命運產生同情之餘，還可感受到人物在逆境中依舊樂觀向上的精神，產生些許輕鬆愉悅之感，使笑話呈現出“悲喜交加”的審美表現。此外中國古代笑話中還有一類富人與窮人之間的故事，在富人的豪奢與窮人的苦命對比中展現笑話“悲喜交加”的獨

2) 魯迅：≪魯迅自編文集14・偽自由書≫，北京：北京聯合出版公司，2014：38.

3) 季素彩：≪幽默美學≫，石家莊：河北教育出版社，1997：351.

4) [明]趙南星，馮夢龍，[清]陳皋謨，石成金：≪明清笑話四種≫，北京：人民文學出版社，1958：81.

5) 同上，96頁。

特內涵：

有富貴公子早晨出門，見一窮人挑擔子，臥地不起，問人曰：“此人因何臥倒？”旁人答曰：“這人沒得飯吃，肚餓了，倒在地上歇氣的。”公子曰：“既不曾吃飯，因何不吃一盞人參湯出門，也飽得好大半日。”≪笑得好・人參湯≫

一富翁冬月暖閣重裘，圍爐聚飲，酒半汗出，解衣去帽，大聲曰：“今年冬月如此甚暖，乃四時之不正也。”門外奴僕寒戰答曰：“主人在內說四時不正，我等門外衣單腹餓，寒風入骨，天時正得很呢！”≪笑得好・四時不正≫[6]

中國古代封建社會的許多社會問題積弊過深，人民苦不堪言。這兩則故事就採用辛辣不失詼諧的筆調揭露了貧富差距和階級剝削的社會問題。第一則故事中的富貴公子，面對門外快要餓死的窮人，竟發出了“何不吃一盞人參湯”愚蠢可笑的疑問；第二則故事中富翁“暖閣重裘”感歎“四時不正”，自己的奴僕卻忍饑受凍，做出“天時正得很”的回復，十分滑稽。快要餓死的窮人，門外饑寒交迫的奴僕真實演繹了底層人民的悲劇生活，不禁令人心生憐憫；疑問窮人為何不食人參湯和自己吃飽穿暖不顧奴僕饑寒交迫的富人，令人十分憤慨，這都是笑話故事悲劇色彩的呈現。然而故事中窮人和富人具有強烈反差感和幽默感的語言，增添了喜劇性元素，進而使讀者在此類笑話中同時產生了悲劇感與喜劇感的審美體驗。

同樣，在韓國古典笑話中也不乏這種用詼諧的表達方式展現人物悲慘命運的故事，帶給讀者“悲喜交織”的審美體驗，例如：

貧翁父子가 鰥居에 父는 本不吸草요 子는 能矣라 冬天長夜에 與父共宿할세 子가 不勝其寒하야 起而對爐吸草러니 父가 隨而醒睡에 耐寒叩齒而問曰 汝坐何為耶오 子曰不堪寒苦故로 吸草禦之니이다 父曰 南草之功이 能禦寒耶아 子曰雖不禦寒이나 然이나 烟津이 潤脾하며 火氣가 攻痰하야 自有薰薰之意矣니이다 父曰 吾亦寒不堪寢而 憂心이 沖沖하니 或試之則庶可消遣耶아 似或有然이나 願請試之하노이다하고 遂以石筒短竹으로 盛葉屑而進之할세 進呈之時에 不覺火落於其父之裹頭破綿矣라 父가 仍臥吸之라가 俄而요 問曰 吸草則溫氣가 始自何處耶아 子曰 不知顯著處而 大抵廢寒冷也니이다 父曰 汝之吸草는 猶不知滋味也로다 吾則 薰氣가 自頭而下也니라 語言之間에 裹綿燒頭하야 焦額皮爛矣라 翁이 不覺失聲하고 以手叩頭曰 速脫我帽綿하라 頭髮이 已焚矣라하니……≪御睡新话・贫老烂头≫[7]

窮人父子冬夜寒冷難耐，不堪其苦，兒子欲吸食煙草禦寒，父親也想效仿，不料火星落在了裹頭破綿卻不知，落得一個“焦額皮爛”的後果。窮人父子的遭遇無疑是令人同情的，貧窮寒微，只能吸食煙草禦寒，還燒傷了自己，簡直“雪上加霜”。但作者塑造的人物言談舉止、舉手投足又使人忍俊不禁，點燃帽子卻以為“薰氣自頭而下”直到“裹綿燒頭”才恍然大悟。窮人父子饑寒交迫的境況構成了故事的悲劇基調，但這種悲劇又是通過喜劇性的手法體現出來，構成了“寓悲於喜”的效果。

笑話中的悲劇不僅體現在貧寒之人的艱苦境遇，還有一些涉及到具有先天缺陷或身患疾病之人的笑話，同樣令人有“悲喜交加”之感。如下面幾則故事：

有近視者拾火爆一枚，就燈認之，觸火而響。傍有聾子拊其背問曰：“汝方才拾甚麼東西，在手就散了？”≪笑府・拾爆竹≫

嘲近視詩雲：笑君雙眼忒希奇，子立身邊問是誰。日透窗櫺拿彈子，月移花影拾柴枝。因看畫壁磨傷鼻，為鎖書箱夾住眉。更有一般堪笑處，吹燈燒了嘴唇皮。≪笑府・嘲近視詩≫

6) 同上，118頁。

7) 장한종：≪(完譯) 어수신화≫，서울: 보고사, 2010：279-280.

一醫者重聽，至一家看病。病人問：“蓮心吃得否？”醫者曰：“麵筋吃不得。”病者曰：“蓮肉也？”醫曰：“醃肉也少吃些。”病者曰：“先生耳朵是聾的？”醫曰：“若裏股內紅的，還須防他生橫疮。”≪笑府・聾醫≫[8]

這些笑話中的主人公或患有眼疾、耳疾或是某種先天缺陷，在病痛的折磨中痛苦掙扎，坎坷的遭遇使人不免心生同情，但在笑話中塑造具有生理缺陷之人時，通常是一種漫畫式勾勒，將他們的缺陷放大到極致，以增強喜劇效果，第一則的近視者因視力低下，把爆竹看成了燈，爆竹響了之後，旁邊的聾人因聽力障礙只看到了爆竹的火光散開，沒聽到爆竹的聲音。第二則專為近視之人作了一首趣味打油詩，將近視之人因視力障礙引發的諸多生活不便用詼諧幽默的語調展現出來，充滿了嘲弄意味。第三則故事中的醫生因聽力障礙，將“蓮心”聽成“麵筋”，將“蓮肉”聽成“醃肉”，將“耳朵是聾的”聽成“裏股內紅的”，這種聽力偏差實在讓人忍俊不禁。

涉及這種人物的笑話故事還有≪笑贊・瞽者≫≪笑府・金漆盒≫≪笑府・瞽笑≫等等，韓國古典笑話的≪禦睡新話・五聾退客≫≪禦睡新話・認網為絲≫≪太平閒話滑稽傳・矮人≫等等，在此不一一列舉。這些具有生理缺陷之人作為喜劇人物，因自身的缺陷、疾病遭受苦痛，成為故事悲劇情感的渲染者，但他們滑稽的動作、語言，或是樂觀向上的精神，都是故事笑料的製造者，由此使喜劇感與悲劇感共同寓於故事之中。

由此可見在中韓笑話中，“悲喜交加”是一種較為常見的審美表達。“笑不是目的，僅是一種手段，詼諧幽默的笑中蘊藏著極其嚴肅的主題。可笑的現象體現了深刻的社會內容，否定鞭撻了醜惡事物，真實地反映了生活的本質。”[9]人間百態自有酸甜苦辣。悲劇的背後，往往反映了社會中一些殘酷現實，然而喜劇性又反映了世間歡樂、溫情、團圓等愉悅人心的瞬間，喜劇元素的加入，有助於營造出一種的詼諧輕鬆的氣氛，如調味劑一般，在審美過程中製造“喘息”的機會，從而緩解這些問題帶來的沉重與悲傷，帶給了讀者更為深刻的思考和體驗，增強了笑話作品的藝術感染力，具有較高的審美價值。

悲與喜是完全對立的兩個審美體驗，但在中國和韓國的古典笑話中卻可以和諧共生，形成一種中和之美，中韓兩國相通的文化傳統中，從來不乏這種“中和之美”。符合中韓兩國人民的共有的審美理念。中韓兩國人民自古以來在情感表達方面較為內斂，並不主張直言不諱，更加注重莊重、含蓄的情感表達方式。≪論語・八佾≫有雲：“≪關雎≫樂而不淫，哀而不傷。”在笑話中悲劇與喜劇的結合，就是“樂而不淫，哀而不傷”的體現，諸如“樂而不荒”“哀而不愁”都是一種中正平和的情感表達。“中和”來源於儒家“中庸”的哲學思想。對於“中庸”的解釋，朱熹曾說：“以性情言之，謂之中和；以禮義言之，謂之中庸，其實一也。”可見“中和”“中庸”是互相聯繫的。≪論語・雍也≫：“子曰：‘中庸之為德也，其至矣乎！民鮮久矣。’”[10]孔子提出，中庸是一種極高的道德修養。在中庸之道的影響下，“貴和尚中”逐漸成為了人們認同的文化價值觀。“儒家這種貴和尚中的思想，正好既適應了大一統的政治需要，又迎合了宗法社會溫情脈脈的倫理情感的需要，從而成為民族的情感心理原則。”[11]受貴和尚中文化精神的薰陶，娛樂與說教通常相伴相隨，暗示人們在追求快樂的同時，應該關注社會的公正與良知，保持一份理智和清醒的思考。“傳統的‘中和’審美意識適應於這種社會(封建社會)變化的要求，改朝換代不可能對傳統審美意識起到質的影響。傳統的‘中和’之美特別重視美與善之‘和’，即美與善的統一，美與封建倫理道德的統一。”[12]這種價值觀念，不僅在中國，在同處於儒家漢文化圈的韓國自然也有著廣泛的認同。故而對於笑話作品這種喜劇藝術的創作，創作者們講求“悲喜交加”，實際上是對喜劇中“喜”的含蘊性的一種追求。“悲喜交加”的審美意蘊，是“貴和尚中”的文化價值觀念在兩國笑話作品中的沉澱，反映了中韓對“中庸”文化的認同，是兩國心態文化相通的見證。

---

8) 同上，57-58頁。

9) 南邨：≪古代笑話美學摭談≫，喀什師範學院學報，1989(03)：83.

10) (魏)何晏注，(宋)邢昺疏：≪論語注疏≫十三經注疏本，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83.

11) 張岱年，方克立：≪中國文化概論≫，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2004：295.

12) 佴榮本：≪笑與喜劇美學≫，北京：中國戲劇出版社，1988：270.

3. “笑裏藏刀”——婉而多諷的審美表達

“婉而多諷”是指能用委婉的語言展現多樣諷刺。詼諧、諷刺、機智都是審美形態，都可作為喜劇作品的審美表達方式。在中韓兩國許多笑話中都呈現出一種諷刺性幽默的審美意蘊，“諷刺性幽默是指將幽默的語調與諷刺的批判力度相結合的一種表述，其針對的是一切醜陋或不合理的社會現象，具有鮮明的政治倫理功能。”[13]比起其他藝術形式，人們對包含笑話在內的喜劇藝術是持有更加包容的態度的，這也意味著在喜劇藝術中表現的諷刺或批判內容可以讓人更加包容的接受，也正是如此，笑話中才會有嘲笑、譏笑或恥笑的存在。我們可以看到中韓笑話中傳遞了許多這種諷刺性笑聲，例如嘲笑愚昧無知的愚人，譏笑尸位素餐的昏官，恥笑貪婪成性的貪官等等。任何文學形式的發展，都離不開特定土壤的滋養。縱觀中韓兩國的笑話，這種諷刺笑聲都是在“婉而多諷”的喜劇風格中傳遞的，表現為運用多種“綿裏藏針”的諷刺技巧，如雙關、譬喻、借代等修辭手段，首先我們來看中國古代笑話：

有好賭者，家私輸盡，不能自活，取繩上吊。忽見一吊死鬼在梁上，叫曰：“快拿頭來！”此人曰：“虧你開得口，我輸到這地位，還問我要頭子。”≪笑倒・上吊≫[14]

賭徒所說的“頭子”一語雙關，既指吊死鬼找賭徒所要的“腦袋”，又指的是賭場中納付給場主的頭錢。賭徒輸盡家產，上吊前還要惦記著欠下的頭錢，可憐卻又實在可恨，以此諷刺了賭徒的愚蠢癲狂。

有婦人通於和尚，夫頗覺之。一日，夫以他故撻其妻，和尚適過其門，進為勸解，其夫並撻和尚。和尚訴於官，官不受理，但署其狀曰：“並州剪子揚州絛，蘇州鞋子雲南刀。”和尚不解，問一秀才，秀才曰：“說‘打得好，打得好’耳。”≪笑倒・打得好≫ [15]

此則故事中“打得好”一語雙關，和尚與有夫之婦私通，丈夫打和尚打得好，又因並州剪子、揚州絛、蘇州鞋子和雲南刀都是手藝精良的上品，也可稱為“打得好”，這種“話中有話”，諷刺了和尚與婦人私通“恬不知恥”的行徑，含蓄幽默，諷刺得十分巧妙。

在韓國古典笑話中，也不乏委婉的諷刺手段，如下面幾則故事：

村人，於平原曠野，累土為高，上施畢戈，冒禽鳥者曰，草蠶。有一朝官，出宰古阜，暗於吏事，終日兀坐，如泥塑然。民有訴訟官，不雪其冤者，孰視太守曰：“此草蠶，何時開口？”傍有一人，笑曰：“太守與草蠶，孰優？”民曰：“草蠶，上施畢戈，時或冒鷹。太守，無一做事，似不及也。”一人大笑曰：“惡！是何言？太守亦解執酒鐘也。”聞者絕倒。≪太平閒話滑稽傳・草蠶≫[16]

“草蠶”即莊稼地上用來驅趕鳥兒的稻草人，稻草人不會動不會說話，這則故事抓住“草蠶”的這個特點，來譬喻不盡忠職守，終日呆坐在朝堂之上毫無用處的朝官。但“草蠶”至少還可以驅趕偷莊稼的鳥類，這位朝官卻一無是處，甚至連“草蠶”都不如，辛辣地諷刺了尸位素餐的官員。

金安老掌銓時 一武人求官不得 自念 彼佩銅章 綰墨綬輩 未必賢於我而能得之者 用何術也 仍往來微察之 或緣內間 或附子弟 或秸婢僕 納賂之道 各有蹊逕 武人亦欲行賂而難其路 以兼銀 鑄成一童子

13) 黨妮妮：≪諷刺性幽默的藝術效果及意義≫，青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17：15.

14) [明]趙南星，馮夢龍，[清]陳皋謨，石成金：≪明清笑話四種≫，北京：人民文學出版社，1958：96.

15) 同上，101頁。

16) 서거정：≪太平閑話滑稽傳≫，서울: 태학사, 2013：151.

像 刻其姓名於腹上 乘晨 袖往安老家 從厠穴納之 安老適如厠 見而驚喜 觀其所刻名字 感而欲報之……
≪冥葉志諧・宰問艮弟≫[17]

武人求官時因“納賂之道，各有蹊蹺”，因此一武人用“兼銀”打造童子像，在童子像上刻上自己名字藏入貪官金安老的“廁穴”中。金安老果然“見而驚喜”，從而“欲報之”。可以得知，不僅官員收受賄賂，行賄之人行賄的方式也各有千秋，可見“貪污行賄”的風氣之甚。整個故事對貪官的展現並未提到一個“貪”字，只是用寥寥數語敘述官員的“貪行”，使人們在笑聲中體會到貪官之“貪”；

兩國的文學從萌芽期就離不開政治文化的影響。笑話在初期也是由諷諫功能發展出來的，例如≪史記・滑稽列傳≫所記載的淳於髡、優孟、優旃等人用詼諧言語機智勸諫的故事。在後代，許多笑話作品便成為了諷刺生活中不合理不公正現象的武器。同時，兩國都經歷了漫長的封建社會階段，人民大眾對黑暗腐敗的社會現實更加敏感。但統治階級具有絕對的權威，地位不容撼動，若想要對統治階級進行抗爭、批判，簡直難如登天。朝鮮半島諷刺作家許筠作≪洪吉童傳≫，通過展現主人公洪吉童與地主權貴的勇敢抗爭，諷刺了兩班貴族對平民百姓的剝削和壓迫。過於真實的描寫激怒了統治階層，使其捲入政治風波被處斬。“被冠上神秘道教的罪名，被儒教事大主義和封建主義擁護者殺害。”[18]在中國明清時期“文字獄”愈演愈烈，文人墨客若在寫作過程不小心“觸碰逆鱗”，最嚴重可招致殺身之禍。因此，如何在作品中進行“安全有效”的諷刺是古往今來許多作家所鑽研的問題。在這種環境的影響下，人們在諷刺的方面總是“小心謹慎”的。

另一方面，“溫柔敦厚”的儒家詩教觀念佔據的文壇統治地位堅如磐石。鄭玄注≪毛詩序≫中提到：“風化、風刺皆謂譬喻，不斥言也。”因此，諷刺在儒家詩教觀念主導下，是隱晦內斂的。而笑話相比其他文學形式，它的表現更為自由，與非正常現象特別是政治中的非正常現象可以十分巧妙的共生。在描寫喜劇情節時，笑話的語言、結構十分靈活，無需平白直敘，可以把想反映的事物無限放大或縮小到荒誕的程度，也可以逗趣解頤為由，映射黑暗現實，十分委婉巧妙。因此，笑話中的諷刺與其他文學作品中的諷刺有所不同，是在笑聲中批判，對諷刺對象進行“綿裏藏針”式的諷刺。笑話靈活的結構、語言技巧等諸多獨特性質，與“溫柔敦厚”的儒家詩教觀念十分契合，由此形成了中韓特有的“婉而多諷”的審美表達方式。正如韓國學者李石來先生所說：“從諷刺笑話中，不僅可以確認其中包含的韓民族的心意歸屬感，而且作為諷刺文學的萌芽具有更重要的意義。”[19]兩國笑話在“婉而多諷”審美表達上的共通之處，受到了兩國特有的政治背景、文學傳統、文化習慣等多方面因素影響。

4. “雅趣”與“俗趣”——雅與俗的審美實踐差異

喜劇藝術的自由性帶來了喜劇藝術對話語的包容，這種包容也使得雅與俗的兩種不同審美形態可以同時存在於一種藝術形式之中，可稱之為“雅俗共賞”。笑話從整體來看，就是一種雅俗共賞的喜劇藝術。但中韓兩國笑話在“雅俗共賞”審美意蘊中的具體實踐上，顯示出了不同之處。

首先，在以≪笑贊≫≪笑府≫≪笑倒≫≪笑得好≫等為代表的中國明清笑話，語言風格從總體上呈現出淺近通俗，口語表達豐富的特徵。而以≪太平閒話滑稽傳≫≪冥葉志諧≫≪禦睡新話≫≪破睡錄≫等為代表的韓國朝鮮時代笑話，語言風格大體呈現出典雅含蓄的特徵。中韓兩國笑話中，有許多主題和情節完全相同，語言

17) 정용수：≪고금소총・명엽지해≫，서울: 국학자료원, 1998：168.

18)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신비적 도교를 갖고 있다는 죄목으로 유교적 사대주의와 봉건주의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만다. 하늘이 내린 천재를 유교에 중독된 족속들이 죽이고 말았다.” —윤병렬：≪한국 해학의 예술과 철학≫，서울: 아카넷, 2013：359.

19) “풍자 소화는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의 心意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풍자 문학의 胚種으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 —李石来：≪笑話의 效用 - 諷刺笑話論≫，성심어문논집 14・15，1993: 9.

表現卻完全不同的笑話故事。我們可以通過比較這些笑話故事，從中直觀感受到中韓兩國笑話語言風格“俗”與“雅”的差異：

(中)≪笑贊・和尚≫	(中)≪笑府・解僧卒≫	(韓)≪冥葉志諧・僧換押吏≫
A.一和尚犯罪，一人解之，B.夜宿旅店，和尚沽酒勸其人爛醉，乃削其髮而逃。C.其人酒醒，繞屋尋和尚不得，摩其頭則無髮矣，D.乃大叫曰：“和尚倒在，我卻何處去了？”[20]	A.一卒管解罪僧赴戍，僧故黠，B.中道醉之以酒，取刀髡其首，脫己索，反縛之而逸。C.次早卒寤，求僧不得，自摩其首，居然髡也，而索又在項，D.乃大詫曰：“僧放在此，我在哪里去了？”[21]	A.古一僧 被罪遠配 吏押去 B.至中道 僧沽得秋露 飮押吏 吏泥醉倒地 僧乘其醉 削吏鬚髮 脫弁著之 解衲衣之 仍著吏冠服 而自稱押吏 督醉吏而去 C.吏酒醒 D.環顧其身曰 僧則在是 吾身何去 竟替僧而去 聞者胡蘆[22]

這三則故事情節結構完全相同，由以下四部分組成：A.僧犯罪被吏押送。B.僧灌醉吏，掙脫枷鎖，剃光吏的頭髮後出逃。C.吏酒醒。D.吏問：“僧在，自己去哪了？”從整體上看三則故事，≪笑贊≫基本上用了全白話，淺顯易懂；≪笑府≫採用半文半白，≪冥葉志諧≫卻是通篇文言，對語詞注重潤飾與加工，語句較為工整。例如在結構B僧為吏剃頭的情節，≪笑贊≫雲“削其髮”；≪笑府≫雲“取刀髡其首”，都可用於口語表達之中。≪冥葉志諧≫則雲：“削吏須髮”，而這完全是書面辭彙。還有在結構D中吏所說的話。≪笑贊≫中是這樣說的：“和尚倒在，我卻何處去了？”≪笑倒≫中：“僧放在此，我在哪里去了？”≪冥葉志諧≫中：“僧則在是，吾身何去，竟替僧而去。”可以看到兩則中國笑話故事中的人稱代詞用了“你”“我”，而韓國笑話中用的是“吾”。可以看出≪冥葉志諧≫的語言表達是十分注重規範性和典雅性的。還有下面中韓有關“豬頭”兩則故事：

(中)≪笑得好・要豬頭銀子≫	(韓)≪禦睡新話・貸肉禱神≫
A.一人新年出門，偶遇空中飛鳥遺糞帽上，以為不祥，欲求神謝解，因向屠家賒一豬頭，用訖屢討不還。B.一日，屠人面遇曰：“不見你多日了，該的豬頭銀子也不可再遲了。”C.答曰：“遲是遲了，只是我有一譬喻對你說。譬如這個豬不曾生頭，也來向我要銀子麼？”屠人曰：“亂說！哪有豬沒頭的。”曰：“既然此說不通，還有一說。譬如去年我還了銀子，你用過也沒有了。”屠人曰：“益發亂說！若去年討得來用，又省下我別的銀子了。”欠人低頭沉吟曰：“此說又不通，我索性對你說了罷，譬如這堆鳥糞撒在你的頭上，怕你自己不用豬頭禳解，哪里還有銀子留到而今呢！”[23]	A.飛鳶이 放屎于一人笠子之上이어늘 其人이 大以爲不吉이라하고 直往肉肆而 假借一猪頭하야 以禱神祠矣라 猪頭價를 過二日이 未及還給故로 B.猪賈가 逢必促之러니 C.一日은 其人이 向猪賈言曰 吾有相議事하니 君須聽之하라 賈가 從容進前則 其人曰 君은 知以其猪가 元來無頭耶아 更勿索錢於我也하라 賈曰 天下에 豈有無頭物耶오 吾以重價로 買來一大生猪而屠之하야 以進其頭於君而已어니 吾失其錢이 可乎아한즉 其人이 無言退坐라가 良久에 更進執賈之手하며笑曰 今有一言可罷者어늘 爾須以鳶屎로 不放于我笠子요 放于汝笠이면 汝自爲祈禱之하리니 汝則如何耶아하더라[24]

這兩則故事情節結構都由以下三部分組成：A.一人遭遇鳥糞，覺得不吉利借豬頭祭神，卻遲遲不還。B.屠戶討豬頭。C.此人拒還豬頭，多番無賴狡辯。整個故事笑點都分佈在了結構C中，從結構C的人物描寫即可發現兩國笑話的差異。例如在屠戶反駁該人的無賴言辭時，≪笑得好≫中的屠戶說：“亂說！哪有豬沒頭的。”≪禦睡新話≫中屠戶說：“天下 豈有無頭物耶오？”無論是“哪有”與“豈有”之別，還是“沒頭的”與“無頭物”之別，中國笑

20) [明]趙南星，馮夢龍，[清]陳皋謨，石成金：≪明清笑話四種≫，北京：人民文學出版社，1958：7.

21) 同上，76頁。

22) 정용수：≪고금소총・명엽지해≫，서울: 국학자료원，1998：228.

23) [明]趙南星，馮夢龍，[清]陳皋謨，石成金：≪明清笑話四種≫，北京：人民文學出版社，1958：128.

24) 장한종：≪(完譯) 어수신화≫，서울: 보고사，2010：233.

話中屠戶的語言完全是口語。兩則故事的“此人”語言之別也十分明顯，在≪笑得好≫中，鳥糞是“撒”在頭上，≪禦睡新話≫中，鳥糞是“放”於笠子上。相比之下，顯然韓國笑話中的表達更為文雅。

中韓笑話笑話語言風格差異的背後，有多方面因素的影響。中國明清時期，市民階層壯大，通俗文學迅猛發展。為滿足廣大市民階層群眾的需要，文學作品尤其是喜劇文學，更著眼於解頤休閒，詼諧逗笑的需求。由於去古甚遠，明清時期的中國老百姓對於作品中的典雅規整的文言辭彙不容易理解，因此笑話中語言更注重使用貼近人們日常生活中的口語。而韓國在訓民正音頒佈之前，韓語只有讀音，沒有文字，人們使用的口語是韓語，只在書面上與中國共同使用漢字。白話文是一種口語書面化的呈現，使用韓語口語的人們對自然對漢語口語——白話瞭解甚少，更習慣文言文的語言形式，因此在笑話作品的語言呈現上與中國笑話產生了差異。這種差異實質上是中韓不同語言發展規律的展露。

其次，中國古代笑話中經常出現打油詩、白話詩等通俗手段。韓國古典笑話中的通俗手段較少，相反較多出現趣詩、敏對等高雅文學手段。從而顯現出中韓笑話兩種不同的審美意蘊。在中國古代笑話中，打油詩、白話詩十分普遍，這些打油詩和白話詩不注重格律，也不講求平仄，多由七字句、五字句組成採用當時不會讀書識字的百姓都能理解的日常口語，民俗氣息濃郁，還經常被用於行令和謎面上，富有特色。例如≪笑倒・嘲不還席≫中，“賣韭、賣蒜、賣蔥、賣白菜”四人依次行令作打油詩：“賣韭、賣蒜、賣蔥、賣白菜”四人依次行令作打油詩：“韭(久)飲他人酒，蒜(算)來不可當，蔥(聰)明人自曉，白吃有何妨。”[25]採用俚俗口語，趣味十足；≪笑府・贊馬≫中，三位女婿分別作題贊，長婿道：“水面擱金針，丈人騎馬到山陰，騎去又騎來，金針還未沉。”次及二婿道：“火上放鵝毛，丈人騎馬到餘姚，騎去又騎來，鵝毛尚未焦。”輪到三婿：“丈母撒個屁，丈人騎馬到會稽，騎去又騎來，孔門猶未閉。”[26]這三段詩採用“五七五七”體，運用白話，押韻和對仗都較為巧妙，生動諧趣，尤其是最後一位傻女婿所作，“屁”的出現雖然粗俗卻增添了生活氣息，更顯通俗幽默；還有≪笑府・嘲近視詩≫：“笑君雙眼忒希奇，子立身邊問是誰。日透窗櫺拿彈子，月移花影拾柴枝。因看畫壁磨傷鼻，為鎖書箱夾住眉。更有一般堪笑處，吹燈燒了嘴唇皮。”[27]整首詩沒有平仄，甚至不對仗，但能生動還原近視之人的日常生活，嘲得津津樂道。“窗櫺”“彈子”“柴枝”“嘴唇皮”都是日常生活中常見的事物，被運用到這種打油詩中，更貼近百姓的生活，從而使笑話藝術更受到廣大人民群眾的喜聞樂見。打油詩、白話詩與正統詩體相比是不規範的、不完整的形式，但運用在喜劇藝術中，這種不完整、不整齊恰好成就了喜劇藝術的“失調”詼諧特點，與喜劇藝術相得益彰。

在韓國古典笑話中，這些手段的運用則呈現出另一番景象，韓國古典笑話經常使用趣詩敏對增添喜劇效果，為笑話作品作畫龍點睛之筆。比起中國古代笑話，這些趣詩對仗工整，多為笑話主人公在行令、嘲人嘲物等場景出口成章之作，顯示出了文人的機敏才智。例如在≪破睡錄・應口輒對≫中，過客為乞食，即興賦詩道：“偶然爲客到南闖，藥圃新栽九節菖。寺外玉峯連北極，佛前金葉自西羌。身同野鶴寧隨鶩，意似寒蟬不羨螳。日暮山齋仍進飯，盤中異味雜椒薑。”[28]整首詩韻律美妙，對仗工整。把自己的生活狀態和所處情景用近似白描的手法勾勒出來，可謂“白而有味”，意趣盎然；在≪冥葉志諧・喜聽裙聲≫中，三人行令，松江曰：“清宵朗月，樓頭遏雲聲，爲好。”一松曰：“滿山紅葉，風前遠笛聲，絕好。”西崖曰：“曉窓睡餘，小樽酒滴聲，尤妙。”月沙曰：“山間草堂，才子詠詩聲，亦佳。”四位文人脫口而出，應對自如，作出“敏對”。形式上都為“四五二”。從意境上看，第一短句“清宵朗月”“滿山紅葉”“曉窓睡餘”“山間草堂”都是清新淡雅之境，後面的“樓頭遏雲聲”“風前遠笛聲”“小樽酒滴聲”“才子詠詩聲”與前一短句形成通感，妙合無垠；還有在≪太平閒話滑稽傳・酒令≫中，儒士五人用“一字三音”作酒令，前四人分別作：“行行行，飲水吃沙塘。”“說說說，熊脂合清蜜。”“樂樂樂，醇酒和駱駝”“重重重，香閨雲雨濃。”最後一人苦吟道：“已己己，白粒持歸市。”然而卻不符合“一字”，

25) [明]趙南星，馮夢龍，[清]陳皋謨，石成金：≪明清笑話四種≫，北京：人民文學出版社，1958：94.

26) 同上，71頁。

27) 同上，57頁。

28) 김영준：≪(完譯) 파수록/진담록≫，서울: 보고사, 2010：81.

面對其餘四人的質疑，此人解釋到："三字晝同，白粒持歸市，沙糖在是，清蜜在是，駱駝在是，雲雨亦可濃也。豈不醺甘乎？"[29]這五人作出的"敏對"，體現了扎實的漢文學基礎，既要求同字不同音，又要求意義的關聯性。最後一人則是"苦吟"後採用相似字形作對，內容構思十分巧妙，趣味盎然；此外還有≪太平閒話滑稽傳・下陽臺≫中，文人嘲諷武官，即興賦詩："西原佳妓下陽臺，歌舞叢中獨擅才。最恨當時文士會，適從何處武人來。金丸忽入風流竅，玉齒飜成睥睨開。從此繞梁聲反澁，空教坐客恨難裁。"[30]全詩語言風格典雅絢麗，對仗工整，平仄分明，押韻自然，在內容上全然呈現了當日之景，嘲笑了武人的魯莽愚笨，對武人表現出不屑與譏諷。

綜上，中韓笑話在笑話藝術雅俗的審美表現上採取了不同的實踐方式，呈現出兩種不同的風格。中國古代笑話語言大體上通俗易懂，口語豐富，善用詼諧生動的打油詩、白話詩等手段，更多展現平民百姓的家長里短。表達更自由化、平民化，天馬行空，不受拘束，大多顯現出一種"俗趣"。韓國古典笑話語言大體上典雅含蓄，多用規範化的文言，善用對仗工整的趣詩、對聯等手段，更多展現朝野士大夫的逸聞趣事。理趣結合，邏輯縝密，更多的顯現出一種機智的"雅趣"。

5. 結 論

中韓兩國笑話中所蘊含的"笑"具有同中有異的審美意蘊，喜劇感與悲劇感的共存，婉而多諷的表達，都是中韓兩國笑話的獨特審美風格，帶來了"悲喜交加"和"笑裏藏刀"的獨特審美體驗。體現出中國與韓國古人崇尚"中和之美"審美心態的共通和對"貴和尚中"文化傳統的認同。同時，中韓兩國笑話對雅俗呈現上有著不同的偏重實踐方式，但從整體上看，依然共同呈現"雅俗共賞"的審美意蘊，"雅"和"俗"在兩國作品中始終積極溝通。"陽春白雪"與"下里巴人"的互補共存，使兩國笑話真正成為一門喜聞樂見的喜劇藝術，具有獨特的審美價值。

〈參考文獻〉

[1] ≪古今笑叢≫(第1輯)，首爾：民俗學資料刊行會，1958.
[2] [明]趙南星，馮夢龍，[清]陳皋謨，石成金：≪明清笑話四種≫，北京：人民文學出版社，1958.
[3] 佴榮本：≪笑與喜劇美學≫，北京：中國戲劇出版社，1988.
[4] 段寶林：≪笑話-人間的喜劇藝術≫，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6.
[5] 서대석：≪한・중 소화의 비교≫，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2007.
[6] 李石來：≪文獻所載 漢文笑話 研究一笑話論을 위하여≫，성심어문논집 7.- (1983): 25-40.
[7] 김영준：≪朝鮮朝 文獻笑話 社會意識.≫，원우론집 15.1 (1987): 1-32.
[8] 段寶林：≪試論民間笑話的美學價值和結構方式≫，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4(04): 48-55.
[9] 南邨：≪古代笑話美學摭談≫，喀什師範學院學報，1989(03): 80-85+79.

29) 서거정：≪太平閑話滑稽傳≫，서울: 태학사，2013：61.
30) 同上，225頁。

청 궁정 월령승응희(月令承應戲)의 전승 연구 Ⅰ

— 청 궁정희 속 사마등(司馬騰)의 '옥마고사(玉馬故事)' 전승을 중심으로

임미주*

<目 次>

1. 서론
2.『節節好音』수록본 賞雪節戲「瑞應皇朝」
3. 昇平署 전승본 月令承應戲「玉馬歸朝」
4.「瑞應皇朝」와「玉馬歸朝」를 통해 본 청 궁정 내 월령승응희 전승 경향
5. 결론

1. 서론

본고는『節節好音』으로 대표되는 송구영신 시기 공연된 月令承應戲의 청 궁정 내 전승 상황을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 황실 내 송구영신 연극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초기 월령승응희와 후기 월령승응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월령승응희의 방대한 양을 생각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사려되어 먼저 청 전기 南府 월령승응희 작품집인『절절호음』이 수록한 臘月과 正月의 송구영신 시기의 작품과 후기 昇平署 전승 납월, 정월 명절의 월령승응희 비교 연구를 통해 오늘날까지 중국인의 최대 전통명절인 '春節'의 청 황실 내 명맥 및 전승 상황을 유추하고자 계획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절절호음』수록 賞雪節戲인「瑞應皇朝」와 승평서 전승 月令承應戲「玉馬歸朝」및 함께 공연된「柳營會飮」은 모두 西晉 시대 幷州都督 司馬騰이 대설이 내린 후 눈이 쌓이지 않은 땅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군사들을 시켜 그 땅을 파게 하였더니 불꽃이 일며 옥마가 나와 이를 황제께 바쳤다는 고사를 다루고 있다. 그 줄거리와 등장인물이 매우 유사하여 두 작품 사이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학계에서는 주로 劇目으로만 월령승응희 작품들을 분석하다 보니 두 작품의 관련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 특히 승평서본「옥마귀조」는 현전 극본 2종과 題綱 2종이 전하며,『穿戴題綱』중에도 등장인물과 무대 의상 및 분장 상황에 대한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 이에 그동안 관련 공연 기록이나 역사 기록이 전하지 않아 그 공연 상황을 짐작하기 어려웠던『절절호음』의 전승 상황을 추적할 수 있고,『절절호음』이 단지 극본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연되고 후기 월령승응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례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절절호음』수록본「서응황조」와 승평서 전승본「옥마귀조」의 비교 분석을 통해, 건륭 연간의 월령승응희와 후기 월령승응희의 특징을 비교하고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 작업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문화적 환경이 월령승응희에 끼친 영향을 보여주는 구체적 실례를 찾고자 한다. 나아가 송구영신 기간에 공연된 동일한 작품의 시대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작업은 청나라 송구영신 풍속 및 청 궁정 의례희에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5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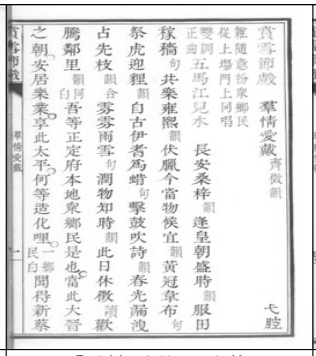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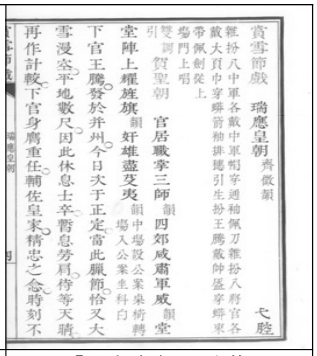
** 단국대 산학협력단 연구원,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겸임교수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것이다.

2.『節節好音』수록본 賞雪節戲「瑞應皇朝」

「瑞應皇朝」는「群情愛戴」와 함께 중국국가도서관 소장「절절호음」제 22책에 수록되어 있다.『절절호음』에는 두 작품을 포함하여,「較獵從古」,「飛熊應兆」(제 25책);「約會花仙」,「美人入夢」(제 26책);「翠竹勁節」,「七賢賞雪」(제 27책);「瑞雪漫空」,「劍仙遊戲」(제 28책);「報功大祭」,「化運薦新」(제 29책) 등 총 6책 12종의 상설절희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절절호음」은 원단절희 6책을 제외한 제 7책부터 매 책 표지 다음 면 왼쪽 위편에 그 책에 수록된 두 작품을 공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瑞應皇朝」는「羣情愛戴」와 함께 구성된 제 22책에도 그 공연 시간이 '二刻十分(40분)'으로 기록되어 있어, 건륭 연간에는 두 작품이 함께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두 작품 모두 현재『절절호음』을 제외하고는 승평서 檔案을 비롯하여 청대 역사자료에 관련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다음은『절절호음』수록「瑞應皇朝」판본의 대략적인 상황이다.

〈표 1「瑞應皇朝」의 판본 상황〉

<table>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第22冊 표지</td>
<td>第22冊 卷首</td>
<td>「羣情愛戴」首葉</td>
<td>「瑞應皇朝」首葉</td>
</tr>
</table>

「羣情愛戴」와「瑞應皇朝」는 臘月에 대설이 내리고, 晉나라 正定府 백성들은 10尺 정도의 땅에만 눈이 쌓이지 않는 것을 신기하게 여겨 王騰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 왕등은 사람들에게 그 땅을 파게 하였는데, 그 속에서 玉馬 하나가 나와 황제께 바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한편, 이 고사의 추형은 이미『晉書・卷三十七・列傳第七』에서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초에, 騰이 幷州에서 출발해 眞定에 도착하였다. 마침 대설이 내려, 평지에 몇 尺이나 쌓였다. 營門 전방에 數丈 길이의 땅은 눈이 녹아 쌓이지 않았다. 王騰이 기이히 여겨 땅을 파보니 玉馬를 얻었다. 높이가 한 척 이상으로, 황제께 바쳤다."[1]

그 기본 스토리가『절절호음』수록 상설절희인「瑞應皇朝」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등장인물(王 騰)과 배경 지역(眞定은 正定府의 옛 지명), 玉馬를 바친 부분까지 역사 기록과 대부분 일치한다.

주인공인 司馬騰(?~307년)은 字가 元邁이고, 河內 溫縣(오늘날 허난성 河溫縣)사람이다. 진(晉) 선제(宣帝)인 사마의(司馬懿)의 넷째 아우이자 조위동무성후(曹魏東武城侯) 사마욱(司馬馗)의 손자로, 서진(西晉)의 종실이며, 제후왕이다. 처음에는 동영공(東瀛公)으로 제수되었다가, 후에 도독병주제군사(都督幷州諸軍事),

1) "初, 騰發並州, 次於眞定。值大雪, 平地數尺, 營門前方數丈雪融不積, 騰怪而掘之, 得玉馬, 高尺許, 表獻之。"

병주자사(幷州刺史)를 역임하였다. 회제(懷帝)를 구출하여 맞이한 공훈으로 신채왕(新蔡王)으로 봉해져, 업성(鄴城)을 수비하였다.[2)]

永嘉 원년에 사마등이 幷州에서 출발하여, 잠시 眞定에 군대를 주둔하게 되었는데, 마침 큰 눈이 내려, 몇 尺이나 쌓였는데도 사마등의 군영 문 앞 수 丈에만 눈이 바로 녹아 쌓이지 않았다. 그 곳에서 한 척 높이에 이빨이 없는 옥마를 출토했다. 사마등은 옥마가 황실의 성씨인 사마(司馬)와 같기에 상서로운 물건으로 여겼다. "그러나 혹자들은 '말에 이빨이 없으니 (먹이를) 먹을 수 없다.'고 하였다. 얼마 후 진나라가 큰 혼란이 생기고, 사마등도 급상(汲桑)에게 죽임을 당했다."[3)] 이 기사는 『송서(宋書)』 및 『진서(晉書)』의 「오행지(五行志)」에도 보이는데, 모두 백상(白祥)이라고 보고 있다. 진나라는 금덕(金德)이고, 마(馬)는 국성(國姓)이지만, 말에 이빨이 없기에 좋은 일이 아닌 것이다.[4)]

그러나 「瑞應皇朝」에서는 대설이 내린 날 옥마를 발견하여 충성심에 황제께 바친 충신으로서의 사마등의 모습만을 취하여, 상설 때 궁정 연회에서 즐기던 연극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청 황실에서 사마등의 '옥마고사'가 상설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전승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함께 공연된 상설절희 「羣情愛戴」에서는 晉나라 正定府 백성들의 대사를 통해 태평성대를 누리며 안락한 생활을 보내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태평성대를 가공송덕하고 있다.

> "우리는 正定府 본지 향민들입니다. 大晉의 시대에, 평안히 거하고 즐거이 일하며 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니 어떠한 연고인지요."[5)]

또 마을 백성의 입을 통해 왕 등의 군대가 정정부로 와서 주둔하게 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 "듣기로 신채왕(新蔡王) 나리께서 병주에서 출발하여, 이곳으로 와서 군대를 주둔할 것이라던데 알고 계셨소?"[6)]

正定府는 청나라 때 행정구획명으로, 직예(直隸, 오늘날의 허베이성) 성의 중부에 위치한 지역인데, 원래 지명은 진정부(眞定府)였지만 청 옹정 원년(1723)에 세종(世宗)의 이름인 '윤진(胤禛)'을 피휘하기 위해 '正定府'로 바꾸었다. 따라서 「羣情愛戴」와 「瑞應皇朝」에서는 『절절호음』의 편찬 시기로 추정되는 1746년 전후[7)]의 피휘법을 반영[8)]하여, 옹정의 휘인 '眞'을 피휘하고자 작품의 배경인 진정부가 아닌 청 옹정 이후의 바뀐 행정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편, 「羣情愛戴」에서는 晉나라 正定府 백성들이 10尺 정도의 눈이 쌓이지 않은 땅을 무대로 삼아 '黨太尉賞雪'[9)]라는 작품을 '帽兒排'형식으로 공연하는 극중극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

2) 白玉林, 曾誌華, 張新科主編, 『晉書解讀』, 華齡出版社, 2009, pp.53-54.

3) "或謂馬無齒, 則不得食。未幾, 晉遂打亂, 騰後為汲桑所殺。" (『異苑』 卷四)

4) 王煥然, 『讖緯與魏晉南北朝文學研究』, 河南人民出版社, 2016. pp.208-209.

5) "吾等正定府本地衆鄉民是也。當此大晉之朝, 安居樂業, 享此太平, 何等造化哩。"

6) "(一鄉民白)聞得新蔡王老爺發幷州, 將次要到這裏來安營下寨。你們知道麼?"

7) 졸고, 「청대 궁정희 극본집 『절절호음(節節好音)』의 판본 및 제작시기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제71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pp.236-237.

8) 『절절호음』에서는 곳곳에 옹정의 휘인 '眞', 건륭의 휘인 '弘'을 피휘하는데, 가령, 「如願良姻」, 「化遠薦新」, 「藏神顯聖」, 「祿位齊豐」, 「筵開栢酒」 다섯 작품은 모두 그 압운으로 '眞文韻'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 작품명 아래에 韻目을 기록하면서 모두 '眞'의 마지막 한 획을 적지 않고 피휘했다. 또 상원절희 「杭城元夜」 중 【慶餘】의 곡사 중에 "博學鴻詞를 천거하니, 내년에는 翰林에 들어가리."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9) 청나라 무명씨 작품의 잡극이다. 『綴白裘』에 「賞雪」 1절을 수록하고 있다. 張生玠의 『玉田春水軒雜劇』에도 당 태위가 초상을 그리며 눈을 그려 넣는 내용의 「看眞」 1절이 있다.

"마을 사람 1: 오늘 비록 대설이 내리지만 날씨는 그리 춥지 않네요. 눈이 없는 곳을 무대로 삼읍시다. 여러분 중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는 연극 한 작품을 노래하시게. 북 연주할 수 있는 자는 북을 연주하시게. 방강(幇腔)을 할 수 있는 자는 한 출을 방강하시게. 피리를 한 곡조 부시게. 이렇게 하여 납월 상설의 풍경으로 삼음이 어떠한가?

마을사람들: 좋습니다. 우리에게 '당태위 상설(黨太尉賞雪)'이라는 작품이 있으니 한번 불러봅시다.

마을사람들: 좋소. 무대의상이 없으니, '모아희(帽兒戲)'로 부릅시다.

(각자 말하는 척하며, 아래에서 북, 징, 생황, 피리, 탁자, 의자를 가지고 등장한다. 펼쳐놓고 무대를 연다. 한 사람이 黨太尉를 맡고, 한 사람이 黨姬를 맡는다. 함께 말하며 우스꽝스럽게 틀리게 빠뜨려가며 노래한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크게 웃는다.)[10]

'帽兒戲'는 '帽兒排'라고도 부르는데, 공연 때 희곡 복장을 갖춰 입지 않고, 소매 연기만 할 수 있는 특수한 의상을 입고 공연을 펼치는데, 노래[唱], 동작[做], 대사[念]는 일반적인 희곡 공연과 유사하다. '모아희'로 삽입 공연된 작품인 '黨太尉賞雪'은 짧은 '滑稽戲'로, 거칠고 호방함을 자랑하는 武將인 黨進과 애첩인 黨姬가 함께 눈을 감상하며 술을 마시다가 酒令을 지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黨進 고사를 다룬 작품으로 건륭 연간 內府本 「太尉賞雪」[11]과 청대 희곡선본인 『綴白裘』 第二卷 『雜劇』 「賞雪」이 전한다.[12] 이를 통해 건륭 연간 상설 작품으로「太尉賞雪」이 널리 유행했고, 청 궁정에서도 활발히 공연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羣情愛戴」 속 진정부 백성들이 펼치는 모아희 '黨太尉賞雪' 공연은 당시 청 궁정에서 상설공연으로 자주 공연된 「太尉賞雪」 작품 및 '모아희'라는 설창 공연 형식을 반영하고 있어 청 궁정연극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바탕 눈밭에서 '모아희' 공연을 즐긴 백성들은 눈이 쌓이지 않은 기이한 사실을 알리러 왕 등을 찾아오며 「瑞應皇朝」가 시작되고 있다. 한편, 『절절호음』 극본에는 등장인물의 무대 의상을 소개하는 '천대(穿戴)'와 지시문인 '과개(科介)'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시 청 궁정희의 무대 의상 및 공연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도와준다.「瑞應皇朝」 속 등장인물과 무대의상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서응황조」 속 등장인물의 무대의상 상황〉

행당(行當)	배역[角色]	무대의상[穿戴]
雜	중군 8인 (八中軍)	각자 군모(軍帽)를 쓰고, 긴 통소매를 입고 칼을 찼다. [各戴軍帽, 穿通袖, 佩刀]
雜	장관 8인 (八將官)	각자 대엽건(大葉巾)을 쓰고, 망포, 전수(箭袖)[13], 배수(排穗)[14]를 입었다. [各戴大葉巾[15], 穿蟒、箭袖、]
生	왕 등(王 騰)	장수 투구[帥盔]를 쓰고, 망포를 입고, 허리띠를 묶고 검을 찼다. [戴帥盔, 穿蟒, 束帶, 佩劍]
雜	마을 사람들 (衆鄉民)	마음대로 분장한다. [隨意扮]
소도구	切末	지정(地井) 안에서 옥마 소도구가 나온다. [地井內出玉馬切末]

10) (一鄉民白) "今日雖然落此大雪, 天氣却不冷。無雪的地方, 就算作戲臺。列位內中有會唱的, 唱一出戲。有會打的, 打一通鼓。有會幇的, 幇一出腔。有會吹的, 吹一出調。只當是過臘節賞雪景何如? (衆鄉民白)好。我們有一出黨太尉賞雪。唱唱罷。(衆鄉民白)好。沒有行頭。唱帽兒戲罷. (各虛白, 向下取鑼鼓笙笛桌椅隨上, 作陳設開臺科, 一人扮黨太尉, 一人扮黨姬, 同作虛白發諢訛錯遺漏唱科, 衆鄉民同作虛白大笑科)"

11) 東北大學所藏清朝內府劇安殿本『如是觀』(連四齣 崑腔, 半個時辰)、「滑子拾金」(崑腔『三元記』一刻)、「冥判到任」(崑腔『牡丹亭』, 二刻十分)、「太尉賞雪」(『崑腔『金盆記』, 一刻十分)

12) 임미주, 『淸代 宮廷戲 '節節好音' 硏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p.231-232 참고.

13) 전수(箭袖)는 북방 민족의 복식에서 유래했다. 전수라는 용어는 청 후기에 생겨났고, 고대에는 '착수(窄袖)'라고 불렀다. 북방 민족의 복식에서 전수가 많은데, 추운 지역의 소매 시작 부분은 대부분 넓고 두꺼워 위로 뒤집기 쉬워서 노동이나 활쏘기에 편리하고, 다시 아래로 내리면 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소매 입구가 좁으면 일을 할 때 편리하고 보

먼저 8인의 중군과 8인의 장관과 함께 주인공 왕 등이 등장하여 자기소개를 하며, 이야기의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한다.

> “소신은 왕 등입니다. 병주에서 출발하여 오늘은 정정(正定)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납절(臘節)을 맞아 마침 대설이 내려, 평지에 몇 척이나 쌓였습니다. 이에 병졸들을 쉬게 하여 잠시 지친 어깨를 쉬게 하고, 날이 개면 다시 계획해야겠습니다. 소신은 중임을 지고, 황실을 보좌하니, 무한한 충성심을 한시도 잊은 적 없습니다. 비록 직(稷), 설(契), 고요(皐陶)[16],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 왕규(王珪)와 위징(魏徵)[17]을 따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가슴 속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18]

짧은 몇 마디 왕 등의 대사를 통해 황실을 보좌하려는 그의 충성심과 군사를 아끼는 장수의 면면이 잘 드러난다. 또 대설이 내린 臘節에 정정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시공간적 배경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정정부 백성들이 당도하여 왕 등을 뵙길 청하고, 군대가 주둔한 營門 앞에만 눈이 녹아 쌓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알린다. 이 사실을 접한 왕등은 곧 백성들에게 그곳을 파보라고 명한다.

> 왕등: 아! 과연 몇 丈의 땅에 눈이 녹아 쌓이지 않았구나. 그 안에 반드시 연고가 있으리라. 백성들아! 어서 가래와 괭이를 가지고 한번 파 보시게, 그러면 바로 알게 되겠지.
> (마을 사람들이 대답하고, 아래에서 가래와 괭이를 취해, 나와서 땅을 판다. 노래한다.)
> 마을 사람들:【쌍조정곡・유초청(雙調正曲・柳梢青)】
> 오늘 맺어진 의심을, 모두가 알게 되리. 영문에 서설이 분분한 것 보니, 그 중에 어찌 개일까. 오늘 장군의 휘하에서 잠시 발을 들어 쟁기 손질하네. (합창) 우리 농민들에게 명해, 가래와 호미로 일하게 하시니[19], 파내면 바로 단서를 알게 되리.[20]

그러자 옥마를 얻게 되는데 「瑞應皇朝」에서는 청 궁정 무대의 지정(地井)[21]을 활용하여, 지정에서 옥마

온을 유지하기도 쉬웠다. 그래서 군복, 관복 및 백성들의 일상복에 전수가 널리 사용되게 되어 한족 복식의 소매 제작방식이 되었다.

14) 배수(排穗)는 옷 아래쪽 끝에 늘여진 채색 장식 술이다.

15) 대엽건(大葉巾)은 ‘대판건(大板巾)’, ‘차관모(差官帽)’라고도 부르는데, 고대 희곡에서 사용되는 모자류이다. 옆에 휘날리는 끈이 있고 건 뒤에는 큰 망토가 있어, 큰 잎사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주 차관(差官), 기패(旗牌), 교위(校尉) 등이 사용한다.

16) 직설고요(稷契皐陶): 직(稷)은 순(舜) 임금의 신하로 농사를 맡은 사람. 이름은 기(夔). 중국 주(周) 나라의 시조이고, 설(契)은 상(商, 지금의 허난성 상추(商丘)시) 지역 사람으로, 성은 자(子), 이름은 설(契)이다. 상(은)나라의 시조로 전해지는 전설상의 인물로, 건(乾), 설(卨), 알백(閼伯)으로 쓰기도 한다. 고요(皐陶)는 순(舜) 임금의 신하로, 법리(法理)에 통달하여 법을 세워 형벌을 제정하고, 또 옥(獄)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17) 방두왕위(房杜王魏) :방두(房杜)는 당(唐)나라 때의 명상(名相)인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왕위(王魏)는 당(唐)나라의 명신(名臣)인 왕규(王珪)와 위징(魏徵)을 말한다. 왕규는 예부 상서(禮部尙書) 검교시중(檢校侍中), 위징은 간의대부(諫議大夫) 검교시중 등 요직에 있으면서 태종(太宗)의 신임을 받았으며, 특히 어떤 일을 당하여도 직언(直言) 항쟁하여 정사(政事)를 바로잡아 유명하다.

18) “下官王騰。發於幷州, 今日次于正定。當此臘節, 恰又大雪漫空, 平地數尺, 因此休息士卒, 暫息勞肩。待等天晴, 再作計較。下官身膺重任, 輔佐皇家, 精忠之念, 時刻不忘。雖不能遠追稷契皐陶, 房杜王魏, 然此心未嘗少釋於懷也。”

19) ‘痔乃錢鎛’은『시경(詩經)』「주송(周頌)」 제2 ‘신공지십(第二 臣工之什)’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20) “呀! 果然數丈之內, 雪融不集, 其中必有緣故。衆鄉民! 快拏鍬鑱來, 掘開一看, 便知分曉。(衆鄉民應, 作向下取鍬鑱, 隨上作掘地科, 同唱)【雙調正曲・柳梢青】今日結就疑團, 大家要啓。視看營門瑞雪繽紛, 其中何霽。今日在將軍麾下, 權作個舉趾于耜。(合)命我農人, 痔乃錢鎛, 掘開時便知端的。”

21)『절절호음』에서는 地井과 天井을 사용하고, 고도의 기계화 된 장비를 활용해 다양한 무대 연출을 시도하고 있다. 地井은 주로 등장인물이 몰래 등퇴장하거나 무대 도구를 교환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청 궁정 삼층 대희대 중 1층 壽

가 나오는 것으로 효과적인 무대구현을 하고 있다. 왕 등은 중군에게 명해 옥마를 잘 담을 비단과 상자를 준비하게 명하고 먼저 망궐례(望闕禮)[22]를 행한다.

> (지정에서 옥마 소도구가 나온다. 마을 사람들이 옥마를 받쳐 들고 말한다)
> 마을 사람들: 몇 척을 팠더니, 이 옥마를 얻었습니다.
> 왕 등: 기묘하구나! 이는 천자의 큰 복이니. 이 상서로움이 나타났구나. 백성들은 회피하거라.
> (마을 사람들이 대답한다. 각자 가래와 괭이를 들고 상장문으로 퇴장한다.)
> 왕 등: 중군들! 빨리 비단 상자를 만들어 옥마를 잘 담도록 하라! 별밤에 조정에 바칠 것이니, 최고의 길조이다. 어서 향안을 마련하여 망궐례를 행하게 하라.
> (중군 1인이 대답하고, 하장문으로 퇴장한다. 무대 중앙에 향안을 설치하고 왕 등이 옥마를 향안에 올려놓고, 향을 피워 예를 행한다.)[23]

그리고 옥마를 상자에 잘 담아 밤새 궁궐로 보내 바치게 명하고는 그 심정을 【雙調正曲・羅帳裏坐】와 【慶餘】 두 곡으로 노래하며 극을 맺고 있다.

전체적으로 「瑞應皇朝」는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마등이 진정부에서 옥마를 얻은 이야기를 청 황실 무대에 옮겨놓고 있다. 납일에 서설이 내린 길일에 옥마까지 얻은 길조를 통해 태평성대에 하늘이 길조를 내려주신 것을 통해 현 왕조의 성치를 가공송덕하고 있으며, '직설고요(稷契皐陶)', '방두왕위(房杜王魏)', '치내전박(痔乃錢鎛)' 등 여러 전고들을 활용하여 어용사인의 높은 문학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전정부 백성들을 등장시켜 사마등과 호응하게 한 방식을 통해 여민동락하는 사마등의 충신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3. 昇平署 전승본 月令承應戲「玉馬歸朝」

한편, 필자는 청 전기 南府 월령승응희 작품과 후기 昇平署 월령승응희 작품의 전승 문제를 검토하다가, 후기 승평서에서 공연되던 상설절희 「玉馬歸朝」 역시 사마등의 '옥마' 고사를 토대로 각색된 작품임을 발견하였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幷州都督 司馬騰은 대설이 내려 날씨가 추워 기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와중에 中軍이 와서 영문 앞 눈이 쌓이지 않고 바로 녹는 수 丈의 땅이 있다고 보고를 한다. 사마등이 가서 관찰하고, 군사들을 시켜 그 땅을 파게 하니 불꽃이 일면서 옥마가 나왔다. 사마등은 이를 궁궐로 보내 황제께 바친다는 내용이다. 그 줄거리와 등장인물이 『절절호음』 수록본 상설절희 「瑞應皇朝」와 매우 흡사하여 두 작품 사이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학계에서는 주로 劇目으로만 월령승응희 작품들을 분석하다 보니 이들 작품의 관련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실 「瑞應皇朝」(『절절호음』 수록본)와 「玉馬歸朝」(승평서 전승 월령승응희)처럼 극명은 다르지만 실제는 같은 작품에 속하는 사례는 청 궁정희에서 자주 보인다. 가령, 『綏中吳氏藏抄本稿本戲曲叢刊』 第26冊에 수록된 「星雲景慶」(鼓板一種)의 좌우측에 "「景星慶祝」을 고친 것이다"[24]라고 하거나, 中秋節戲의 대표

臺의 바닥에 중간에 하나, 네 모퉁이마다 하나씩, 총 다섯 개의 지정을 설치했다.

22) 망궐례(望闕禮)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지방관이나 사신(使臣)이 객사(客舍)에 안치된 궐패(闕牌)에 절하던 예식을 말한다. 이는 외관이나 사신이 왕을 공경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왕과 궁궐을 상징한 나무에 '궐(闕)' 자를 새겨 패를 만들어 각 고을 관아의 객사에 봉안해 놓고 예를 올렸다.

23) "(地井內出玉馬切末, 衆鄉民作捧玉馬科, 白)掘下數尺, 得此玉馬。(王騰白)妙嗄! 此乃聖天子洪福, 現此佳瑞也。衆鄉民迴避了。(衆鄉民應, 作各持鍬鐝從上場門下, 王騰白)中軍! 快製錦匣, 將玉馬盛好。星夜進於朝廷, 以爲上瑞。快排香案, 待下官望闕拜禮。(一中軍應科, 從下場門下, 中場設香案, 王騰將玉馬安香案桌上, 作拈香禮拜科, 唱)"

24) "改「景星慶祝」"

작인 「天香慶節」은 「中秋慶節」이라는 이명이 존재한다. 또, 「萬卉呈祥」은 「樂壽長生」이라고도 하며, 「萬花獻瑞」와 「萬壽長春」도 실상은 같은 작품에 속한다. 반면, 이름은 같지만 다른 작품도 존재하는데, 가령, 「法宮雅奏」는 內廷에서 경사가 있을 때 공연하던 '경축희[慶典戲]'의 통칭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25]

특히 「玉馬歸朝」의 현전 판본은 『清代雜劇全目』에 따르면 극본은 故宮博物院 소장본과 중국국가도서관 소장본 총 2종이 있고, 題綱도 2종이 전한다. 『南府戲檔』, 『穿戴題綱』, 『崑劇目錄』 등에 모두 '賞雪' 공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두 「柳營會飮」[26]과 함께 한 책을 이루어 두 작품이 함께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석화는 이를 '宴戲承應'이라고 보았다. 반면 중국희곡학원 소장 『四季承應』 안에 수록된 「柳營會飮」은 현재는 단독으로 전한다.[27] 승평서초본 『法宮雅奏』 四十八卷에도 두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28] 또 『穿戴題綱』 중에도 「柳營會飮」[29]과 「玉馬歸朝」[30]의 등장인물과 분장 상황에 대한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31] 이에 그동안 관련 공연 기록이나 역사 기록이 전하지 않아 그 공연 상황을 짐작하기 어려웠던 『절절호음』의 전승 상황을 추적할 수 있고, 『절절호음』이 단지 극본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연되고 후기 월령승응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례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그 중 「柳營會飮」과 「玉馬歸朝」 두 작품이 함께 수록된 『故宮珍本叢刊』의 『崑弋各種承應戲』 第一冊 '崑弋承應宴戲'[32]條의 극본을 저본으로 참고하였다. 그 극본 말미에 "光緒拾四年十月準排場在後編上"이라고 작품 관련 정보가 남아있어, 광서 14년에 기록되고 공연된 극본임을 알 수 있는데, 승평서 당안에도 기록되지 않은 가장 후기의 공연 사례로서, 그 전승 상황을 살펴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 판본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5) 劉鐵 ,『清宮月令承應戲考論』, 遼寧大學博士學位論文, 2017, pp.61-62.

26) 「柳營會飮」은 병주도독(幷州都督) 의 군영에서 날씨가 춥고 큰 눈이 펑펑 내리자 군사들이 땅에 둘러앉아 술을 데워 함께 마시며, 악기를 연주하며 돌아가며 노래한다. 한 병사가 수염을 가리고 교태로운 목소리로, 날씬한 여성을 흉내내며, 여러 군사들에게 술을 따르며 즐긴다. 그러다 군영의 문 앞에 수 丈의 땅만 눈이 쌓이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고는 도독에게 가서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27) 無名氏撰。『穿戴題綱』著錄, 注云 : "節令,賞雪"。『崑戲目錄』注入, 注云 : "賞雪"。『昇平署志略』謂 : "酒宴承應"。此劇流傳版本, 計有
1.昇平署鈔本, 標名云 : 「玉馬歸朝」, 總本。原與 「柳營會飮」合訂一冊。故宮博物院藏。
2.昇平署鈔本, 標名云 : 「玉馬歸朝」, 題綱. 二部. 原與 「柳營會飮」 合訂一冊。故宮博物院藏。
3.昇平署鈔本, 標名云 : 「玉馬歸朝」, 原與 「柳營會飮」合訂一冊。北京圖書館藏。(傅惜華著, 『清代雜劇全目』, 人民文學出版社, 1981, pp.527-528)

28) 『法宮雅奏』 四十八卷은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法宮雅奏』은 궁정에서 각종 경축일에 공연되던 작품들을 모은 것으로, 주로 小戲를 공연한다. "皇上大婚承應", "皇子成婚承應", "皇上訂婚承應", "誕生承應", "洗三承應", "彌月承應" 등에 공연된 작품들이 있다. 「柳營會飮」과 「玉馬歸朝」는 "酒宴承應"(모두 27卷)에 포함된다. (孫崇濤著, 『戲曲文獻學』, 太原: 山西教育出版社, 2008, p.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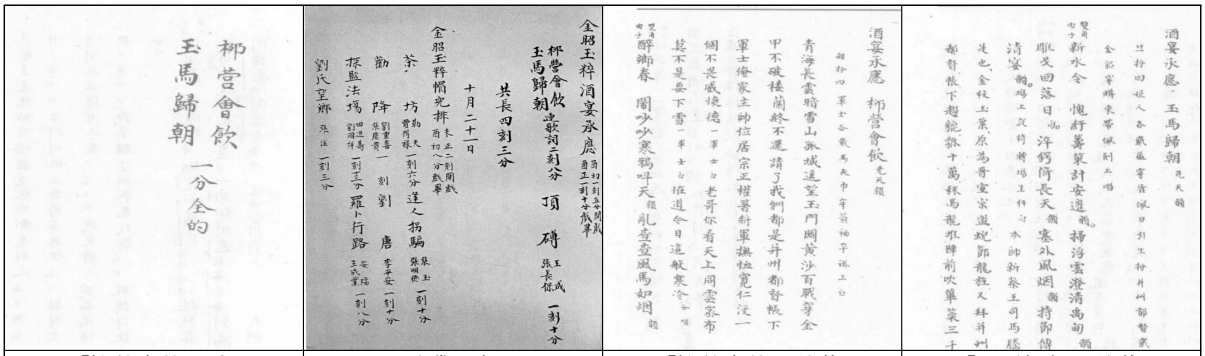
29) 「柳營會飮」: 八軍士, 二軍士

30) 「玉馬歸朝」: 四姬人(過梁宮衣) 司馬騰(■無僕頭奎蟒帶) 二中軍(帽排) 十軍士(■) 八開門刀(大葉巾蟒箭袖排穗) 馬夫(馬夫巾箭袖卒褂)

31) 故宮博物院編, 『故宮珍本叢刊』 第690冊, 海口 : 海南出版社, 2000, p.241.

32) 故宮博物院編, 『故宮珍本叢刊』 第660冊, 海口 : 海南出版社, 2000, pp.265-268.

〈표 3「玉馬歸朝」의 판본 상황〉



「柳營會飮」와 「玉馬歸朝」首葉	咸豐二年 差事檔(咸豐二年正月立)	「柳營會飮」首葉	「玉馬歸朝」首葉

「玉馬歸朝」와 함께 공연된 「柳營會飮」은 작품의 배경을 조성하는데, 병주도독 휘하의 군사 4명이 등장하여 눈이 내리는 날씨를 틈타 함께 술을 마시며 돌아가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즐기자고 제의한다. 술자리의 여흥을 돋우기 위해 한 군사가 수염을 가리고 미인 행세를 하는 희극적 요소가 첨가되어 있다.

(각자 떠들썩하게 우스갯소리를 한다)

무리들: 우리는 오늘 바로 "맑은 밤 온 성 가득 악기 소리 떠들썩하니, 행인이 변경이라 믿지 않네."[33]이구려 그저 술 상대가 없는 것이 안타깝구려.

군사 1: 그게 뭐 어렵나. 내가 수염을 가리고, 교태스런 목소리, 날씬한 몸을 흉내내면, 바로 여인이지.(손으로 수염을 가리고, 여인의 몸동작을 한다. 술을 건넨다. 함께 노래한다)[34]

한바탕 우스개를 펼친 뒤 한 군사가 영문 앞에 몇 장의 땅에만 눈이 쌓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도독에게 보고하러 가기로 결정하며 퇴장한다.

연이어 공연되는 「옥마귀조」에서는 기녀 4인이 병주도독 사마등을 이끌고 무대에 등장한다. 「옥마귀조」 속 등장인물과 그 무대의상은 다음과 같다.

〈표 4「옥마귀조」 속 등장인물의 무대의상 상황〉

행당(行當)	배역[角色]	무대의상[穿戴]
旦	기녀 4인(四姬人)	각자 투구를 쓰고, 칼을 찼다. [各戴盔, 佩刀]
雜	중군(中軍)	중군(中軍) 모자를 쓰고, 중군 갑옷을 입고, 칼을 찼다. [戴中軍帽, 穿中軍鎧, 佩刀]
雜	장군 4인(四將軍)	각자 장건(將巾)[35]을 쓰고, 전수, 배수를 입고, 표창을 쥐었다. [各戴將巾, 穿箭袖、排穗, 執標槍]
生	병주도독(幷州都督) 사마등(司馬騰)	황금빛 담비 털, 망포를 입고, 허리띠를 묶고, 검을 찼다. [金貂, 穿蟒,束帶, 佩劍]
雜	군사들(眾軍士)	각자 마부건(馬夫巾)을 쓰고, 전수, 졸괘(卒掛)를 입고, 깃발을 쥐고 있다. [各戴馬夫巾, 穿箭袖、卒掛, 執旗]
소도구		안에서 오색 불을 놓는다. 군사들이 옥마를 캐서 바라본다. [內放彩火, 眾軍士作掘得玉馬呈看科]

33) 唐나라 姚合의 「窮邊詞」 二首에서 가져왔다. 전체 사는 "將軍作鎮古汧州, 水膩山春節氣柔。清夜滿城絲管散, 行人不信是邊頭。箭利弓調四鎮兵, 蕃人不敢近東行。沿邊千裏渾無事, 唯見平安火入城。"이다.

34) (各作喧嘩發諢科, 白)我們今日正是：清夜滿城弦管沸, 行人不信是邊頭。只可惜沒個陪酒的。(一軍士白)這有何難。我遮了鬍鬚, 裝出那些嬌滴滴的聲音, 軟苗的身段, 就是一個女人了。(將手遮鬍鬚, 作女人身勢發諢, 遞酒科, 同唱)

35) 장건(將巾)은 무장(武將)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관으로, 중앙에는 무장의 부호인 '딱딱한 불꽃' 모양으로 장식하고 건

먼저, 사마등이 등장하며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를 통해 작품의 배경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 “도독: 저는 신채왕 사마등입니다. 금지옥엽처럼 귀한 원래 진 황실의 종맹(宗盟)으로, 옥제의 의장 중군의 깃발로 또 병주도독(幷州都督)을 제수받았습니다. 휘하에 비휴(貔貅) 천만을 좇으니, 용퇴(龍堆)에서 말 먹이고, 진 앞에서 필률(篳篥) 삼천을 부니, 어해(魚海)에서 칼을 씻습니다. 바로 ‘장부의 작인(鵲印)이 달 옆에서 흔들리고, 대장군의 용깃발에 바다 구름 걷히네.’[36]이지요. 오늘은 시기상 초동(初冬)에 이르니, 변풍이 매섭고, 일찍이 대설이 한바탕 내려, 평지에 이미 수 장 깊이로 쌓이니, 정말이지 풍년의 좋은 징조입니다.” [37]

이어 기녀에게 명해 술을 따르라 명하여 호방하게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중군이 와서 영문 앞 수 장의 땅에만 눈이 쌓이지 않는 일을 보고한다. 그러자 도독은 군사들에게 그 땅을 파도록 시킨다.

> 도독: 군사들! 저 수 丈의 땅을 즉시 파거라! 무엇이 있는지 보면, 바로 단서를 알 수 있으리라.
> (군사들이 대답한다. 아래에서 가래와 괭이를 취해 등장한다. 각자 땅을 판다. 함께 노래한다)
> 군사들: 【雙角曲子・雁兒落帶得勝令】
> 처량하고 맑은 시월의 날씨, 허둥지둥 천군(千軍)을 파견하네. 원래 이 땅은 화염산(火焰山)이 아닌데, 어찌 눈이 단약 화로처럼 연단되는 것일까. 시끌벅적한 백전(白戰)이 마침 눈앞이니, 용감하게 잔 들고 각자 앞다투네. 두터운 땅 가볍게 파서, 저 기이한 현상 갑자기 나타나니, 중권(中權)은 비호(飛虎)처럼 천명을 받고, 평원(平原)은 잠시 바로 근원에 이르네.
> (안에서 채색 불이 품어져 나온다. 군사들이 옥마를 캐서 꺼내 본다. 도독이 말한다)
> 도독: 기묘하구나! 기묘해! 원래 땅 아래 옥마가 있어, 이 정기가 위로 올라와서 눈이 맺히지 않았던 것이구나. 정말이지 이 눈이 아니었다면 이 말도 얻지 못하고, 이 말이 없었다면 이 눈도 전해지지 못했겠구나.[38]
> 도독: 땅의 정수가 말이 되니, 음에 응해 양을 세움이 아닌가. 비로소 이 첫째가는 상서로움을 길러내었네. 조정에 알리는 것이 합당하니. 땅이 보배를 아끼지 않으심 드러났네. 수하에게 분부하여, 빨리 비단 상자를 준비하여 담아서 도성으로 보내게 하라.
> (군사가 대답한다. 아래를 향해 비단 상자를 들고 옥마를 담는다.)[39]

이어 옥마를 얻게 된 소감을 【雙角曲子・收江南】과 【慶餘】 두 곡으로 노래하고 퇴장하며 극을 마무리한다.

한편, 「玉馬歸朝」의 공연 기록은 昇平署 檔案[40]에서 咸豐二年 ‘差事檔’ 十月十八日[41]의 공연 기록이 전

뒤에는 뒤 주머니로 장식한다.

36) 이 시구는 唐나라 시인 岑參의 고시 「獻封大夫破播仙凱歌」 제 3수에서 따왔다.

37) “本帥新蔡王司馬騰是也。金枝玉葉, 原為晉室宗盟, 蚬節龍旌, 又拜並州都督, 帳下趨貔貅千萬, 秣馬龍堆, 陣前吹篳篥三千, 洗兵魚海, 正是: 丈夫鵲印搖邊月, 大將龍旗掣海雲, 今當序入初冬, 邊風栗烈, 早降下一場大雪, 平地也已深數丈, 好個豐年的佳兆也。”

38) “眾軍士！將那數丈之地立即掘下去, 看有什麼東西, 便知端的。(眾軍士應科, 向下取鍬镢上, 各作掘地科。仝唱)
【雙角曲子・雁兒落帶得勝令】煞淒清十月天, 忙篤速千軍遣。卻原來地非火焰山, 怎會得雪似丹爐煉。闡轟轟白戰恰當前, 勇赳赳荷鐘各爭先。把厚地輕輕掘, 那奇徵兀自顯, 中權, 授命如飛虎。平原, 移時便及泉。(內放彩火, 眾軍士作掘得玉馬呈看科, 都督白)妙嗄！妙嗄！原來地下有玉馬, 故此精氣上騰, 雪使不能融結, 正是無此雪不能得此馬, 無此馬也不能傳是雪。”

39) “(白)聞得地精為馬, 莫不是應陰世陽, 才得毓此上瑞, 自合表奏朝庭。用徵地不愛寶, 吩咐左右, 速備錦匣裝盛, 賚上神京去者。(軍士應科, 向下持錦匣妝玉馬科, 都督唱)”

40) 연극공연이 성행했던 청 궁정에서는 南府와 昇平署라는 연극기구를 두고, 타 정부 부서와 마찬가지로 播案房을 따로 설치하여 희극연출에 대한 황제의 명령과 연출 상황, 각색, 연출 후 내려진 포상과 월급 등의 상세한 構案을 남겼다. 청 궁정희 관련 당안은 현재 주로 中國第1歷史播案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淸代 內務部 소속 昇平署 檔案이 8554件이 남아있으며, 北京圖書館, 中國藝術研究員, 浙江省圖書館 등에 약간의 기록과 극본이 약간 남아있다. (신지영, 「청대 昇

부이다. 이 때 「柳營會飮」도 함께 공연되었는데, 먼저 「柳營會飮」을 공연한 다음 「玉馬歸朝」를 공연했다. 「柳營會飮」의 공연 기록은 '道光八年正月十五日'부터 '咸豐八年十月十九日'까지 총 11개의 기록이 전한다. 당안에는 날씨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지만, 정월과 10월에 주로 공연되었고 함께 공연된 극목에 「賞雪」이 있어서 눈이 내린 날에 공연된 '상설절희'임을 추측할 수 있다. 「玉馬歸朝」와 「柳營會飮」과 관련된 승평서 檔案의 공연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승평서 당안 속 「柳營會飮」과 「玉馬歸朝」의 공연 사례〉

공연일시	당안 기록	공연극목
道光八年正月十五日	"奉三無私[42] 酒宴 「柳營會飮」 一分 酉初三刻五分 酉正一刻戲畢" (25분)[43]	「柳營會飮」
道光九年正月十五日	"奉三無私 午宴承應 「萬花向榮」 轉宴「御苑獻瑞」酒宴承應 「柳營會飮」一分 酉初三刻開戲 酉正十分戲畢"[44]	「柳營會飮」
道光十年十二月三十日	"養心殿[45] 上排 「柳營會飮」 一分 「一門忠烈」(四出) 「蒙正邏齋」(安福)「如願迎新」(吉祥)申正一刻五分畢"[46]	「柳營會飮」
道光十六年十二月二十二日	"養心殿 伺候 帽兒排 未初一分開戲 申正三刻五分戲畢 「柳營會飮」一分(一刻十分)「教歌」(一刻十分)「文道害命」(一刻九分)「賞雪」(一刻十分)「回回指路」(一刻七分)「打虎」(一刻九分)「敬德賞軍」(一刻十二分)「上點平章拷姬」(一刻五分)「一門忠烈」(三刻七分)共長十六刻四分"[47]	「柳營會飮」
道光二十三年十二月初九日	"養心殿 伺候 帽兒排 未初十三分開戲 申正二刻五分戲畢 「天官賜福」「送京」「賞雪」(一刻十分)「柳營會飮」一分(二刻八分)「雪夜訪賢」(二刻五分)「竇君釋義」(一刻十分)「文道害命」(一刻九分)「仙翁放鶴」一分(一刻五分)共長十四刻三分"[48]	「柳營會飮」
道光二十四年十二月十二日	"養心殿 帽兒排 未初一刻十分開戲 申正四分戲畢 「柳營會飮」 一分(祁進祿 連歌詞 二刻三分)「懶婦燒鍋」(一刻五分)「賞雪」(張德明 張佳 一刻十分)「夜看春秋」(二刻)「背娃進府」(三刻五分)共長十刻十三分"[49]	「柳營會飮」
道光二十七年十二月初一日	"養心殿 帽兒排 未初一刻十分開戲 申初三刻四分戲畢 「柳營會飮」一分(二刻三分)「宮花報喜」(一刻五十三分)「烏盆記」(四出四刻)「佛會(一刻四分)共長九刻九分"[50]	「柳營會飮」
咸豐二年十月十八日	"金昭玉粹[51] 酒宴承應 酉初一刻五分開戲 酉正一刻十分戲畢 「柳營會飮」「玉馬歸朝」(連歌詞 二刻八分)「頂磚」(一刻十分)共長四刻三分"[52]	「柳營會飮」「玉馬歸朝」
咸豐五年正月十九日	"養心殿 酒宴承應 酉初一刻五分開戲 戌初一刻戲畢 「柳營會飮」一分 (連歌詞 二刻八分)「盜韓」(二刻五分)「謝庭詠絮」(一刻五分)共長七刻十二分"[53]	「柳營會飮」
咸豐六年正月十五日	"奉三無私 酒宴承應戲 酉初十分開戲 酉正二刻戲畢「玉面懷春」(一刻五分)「柳營會飮」一分(連歌詞 二刻八分)「醒妓」(一刻十分)共長五刻八分"[54]	「柳營會飮」
咸豐八年十月十九日	"愼德堂[55] 酒宴承應戲 「柳營會飮」一分(連歌詞 二刻八分) 「妝平」(一刻)「破謀」(一刻五分)共長四刻十三分"[56]	「柳營會飮」

平署 檔案에 나타난 宮庭戲 연출상황」,『中國文學』35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01년 05월, pp.179-196 참조)

41) "差事檔"(咸豐二年正月立)(中國國家圖書館編撰, 『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 第13冊, 中華書局, 2011, p.6773)

42) '奉三無私'은 圓明園 후전의 '奉三無私'을 지칭한다.『禮記・孔子閑居』에 나오는 말로, 奉은 '奉行'의 의미이고, '三無私'는 '하늘은 사사로이 덮지 않고, 땅은 사사로이 싣지 않고, 일월은 사사로이 비추지 않는 것[天無私覆, 地無私載, 日月無私照]'처럼 제왕이 천하를 공정하게 다스리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청 황실에서는 上元에 주로 원명원 내 奉三無私 에서 공연이 펼쳐졌다.

43) 中國國家圖書館編撰,『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第3冊, 中華書局, 2011, p.1455.

44) 中國國家圖書館編撰,『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第3冊, 中華書局, 2011, p.1536.

45) '養心殿'은 자금성 내 황제의 寢宮이며, 乾清宮은 황제가 국정을 처리하는 곳으로, 건륭 연간에는 조정대신을 불러 만나고, 정무를 처리하며, 독서와 공부를 진행하던 복합 공간이었기 때문에 정식 공연무대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임시

현전 승평서 당안 속 「柳營會飮」과 「玉馬歸朝」의 공연상황을 살펴보면, 도광 연간과 함풍 연간에 그 공연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공연 시기는 정월, 10월, 12월로 모두 베이징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로서 상설절희로 공연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공연 장소는 奉三無私, 金昭玉粹, 愼德堂, 養心殿이고, 주로 酒宴에서 공연되었다. 또 도광 연간에는 대부분 養心殿에서 '帽兒排' 형식으로 공연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공연 시간은 청 전기에는 「柳營會飮」의 경우, 공연 시간이 '一刻十分(25분)'이었다가 도광 24년에는 '二刻三分'(33분)으로 늘었고, 함풍 연간에는 모두 '二刻八分'(38분)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유일하게 「柳營會飮」과 「玉馬歸朝」가 함께 기록된 함풍 2년 10월 18일 공연 시간도 '二刻八分'(38분)으로, '柳營會飮 玉馬歸朝(連歌詞 二刻八分)' 와 이후 기록인 '柳營會飮 一分(連歌詞 二刻八分)'에 모두 '連歌詞'라는 동일한 특성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두 작품을 연이어 공연한 동일한 공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柳營會飮」과 「玉馬歸朝」두 작품을 함께 공연한 공연 시간인 '二刻八分'(38분)은 『절절호음』의 「羣情愛戴」와 「瑞應皇朝」이 함께 공연된 시간인 '二刻十分'(40분)과도 비슷한 길이라서 두 작품이 함께 공연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4. 「瑞應皇朝」와 「玉馬歸朝」를 통해 본 청 궁정 내 월령승응희 전승 경향

『절절호음』 수록본 「瑞應皇朝」와 승평서 본 월령승응희 「玉馬歸朝」를 대조한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瑞應皇朝」와 「玉馬歸朝」 비교 분석〉

작품명	「瑞應皇朝」	「玉馬歸朝」
공연기구	南府	昇平署[57](酒宴承應)
함께 공연한 극목	「羣情愛戴」(衆鄉民)	「柳營會飮」(四軍士/二軍士)[58]
공연시기	상설일 (臘日)	상설일 (10월)
공연시간	二刻十分(40분)	二刻八分(38분)[59]
운목(韻目)	齊微韻	先天韻[60]
성강(聲腔)	弋腔	崑腔

무대를 설치하여 제석, 원단 등 송구영신 기간 月令承應戲와 小戲들을 자주 공연하였다.

46) 中國國家圖書館編撰,『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第4冊, 中華書局, 2011, p.1689.

47) 中國國家圖書館編撰,『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第5冊, 中華書局, 2011, pp.2480-2481.

48) 中國國家圖書館編撰,『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第8冊, 中華書局, 2011, pp.3855-3856.

49) 中國國家圖書館編撰,『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第9冊, 中華書局, 2011, p.4272.

50) 中國國家圖書館編撰,『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第11冊, 中華書局, 2011, p.5376.

51) '金昭玉粹'는 실내 희대로서 紫禁城 重華宮의 漱芳齋 風雅存이다. '金昭玉粹'는 소방재 후전의 편액으로, 건륭제의 어제(御題)이다. 금옥(金玉)의 밝은 아름다움을 지칭한다. 南朝・宋・顔延之의 「應詔宴曲水作」 시의 "君彼東朝, 金昭玉粹。" 구절에서 유래했다. '金昭玉粹'는 한 때 황태후의 아침 식사, 연극 감상을 수행하던 장소이다. (萬依,『故宮辭典』, 北京: 故宮出版社, 1996, p.70 참조)

52) 中國國家圖書館編撰,『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第13冊, 中華書局, 2011, p.6773.

53) 中國國家圖書館編撰,『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第15冊, 中華書局, 2011, p.7646.

54) 中國國家圖書館編撰,『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第15冊, 中華書局, 2011, p.7790.

55) 愼德堂은 도광 11년(1831)에 건축되었는데, 황제가 원명원 행궁에서 주로 생활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황제의 주생활 장소라 대량의 설비와 일상용품들이 필요했는데, 경덕진(景德鎭) 어용가마에서 대량으로 신덕당용 도기를 생산했다고 한다. 신덕당은 함풍 11년 8월 23일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 의한 화재로 불탔다. (故宮博物院編,『故宮博物院藏愼德堂款瓷器』, 北京: 故宮出版社, 2014, pp.13-14 참고)

56) 中國國家圖書館編撰,『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第15冊, 中華書局, 2011, p.8213.

등장인물	八中軍, 八將官, 王 騰, 衆鄉民	四姬人, 中軍, 四將軍, 幷州都督(司馬騰), 眾軍士
曲牌	南曲 【雙調引・賀聖朝】-【雙調正曲・四塊金】-【雙調正曲・灞陵橋】-【雙調正曲・柳梢青】-【雙調正曲・羅帳裏坐】-【又一體】-【慶餘】	北曲 【雙角子・新水令】-【雙角曲子・駐馬聽】-【雙角曲子・折桂令】-【雙角曲子・雁兒落帶得勝令】-【雙角曲子・沽美酒帶太平令】-【雙角曲子・收江南】-【慶餘】

1. 등장인물의 변화이다. 전기 남부『절절호음』수록본인「瑞應歸朝」에 비해 후기 승평서 월령승응희본「玉馬歸朝」에는 그 등장인물의 수가 줄어들었다. 가령, 전기「瑞應歸朝」본에서는 將官 수가 8명이었는데, 후기「玉馬歸朝」본에서는 將軍 4명으로 줄고, 正定府 鄉民들도 軍士들로 바뀌어 있다. 특히 中軍 8명이 1명으로 줄었고, 대신 기녀 4명의 브 배역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이는 함께 공연되던 작품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가령,『절절호음』수록본인「羣情愛戴」에서는 鄉民들이 등장하여 스스로 공연하며 대설을 즐기는 내용인 반면,「柳營會飮」은 司馬騰 군영의 군사 6명이 대설에 쉬는 틈을 타 술을 마시며 즐기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승평서 본에서는 그 등장인물과 이야기를 사마등 군영의 일로 축소하고 집중시키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편, 등장인물의 축소 경향은 승평서 본「玉馬歸朝」의 내부 전승에서도 계속 발생하는데, 가경 연간의『穿戴題綱』에서「柳營會飮」의 등장인물에는 八軍士, 二軍士였다가 광서 14년 공연본에는 四軍士, 二軍士로 바뀌어 있다. 이를 통해 가경 연간 남부시기 공연에 비해 승평서 시기 등장인물이 4명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또,「玉馬歸朝」는 남부시기『穿戴題綱』에서는 四姬人(4), 司馬騰(1), 二中軍(2), 十軍士(10), 八開門刀(8), 馬夫(1)인 데 비해, 승평서 본에서는 四姬人(4), 中軍(1), 四將軍(4), 司馬騰(1), 眾軍士로, 八開門刀(8), 馬夫(1) 등 총 9명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광 7년 승평서 개혁 이후 궁정 극단의 규모 및 예인의 수가 대폭 감소한 사실에도 부합하며, 한 작품이 청 궁정 극단의 변화에 따라 실제 공연 상황을 조정하며 전승되는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2. 주인공의 이름과 신분에도 약간의 변화가 발생했다.『절절호음』수록본은 역사기록을 충실히 따라 王 騰이라고 하고, 幷州에서 출발하여 正定府에 주둔한 상황을 자세히 밝힌 반면, 승평서본에서는 간략히 司馬騰의 幷州都督이라는 신분만 언급하고 있다.

3. 시간과 공간적 배경에도 변화가 있다.『절절호음』수록본인「瑞應歸朝」의 공간 배경은 正定府인 반면,「玉馬歸朝」에서는 그 배경을 幷州로 한정짓고 있다. 시간적 배경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瑞應歸朝」는 **"오늘 臘節[61]에, 대설이 하늘에 가득하니"**[62]라고 그 때를 음력 12월 8일 납일로 설정한 데 반해,「玉馬歸朝」는 **"오늘은 시기상 초동(初冬)에 이르니, 변풍이 매섭고, 일찍이 대설이 한바탕 내렸습니**

57)『故宮珍本叢刊』,『崑弋各種承應戲』第一册 目錄의 설명에 따르면, 昇平署 극본 마지막에 "광서14년 10월에 준하다. 배장은 후편에 있다.(光緒拾四年十月準排場在後編上)"라고 기록되어 있다.

58) 가경 연간의『穿戴題綱』에서「柳營會飮」의 등장인물에는 八軍士, 二軍士였다가 광서 14년 공연본에는 四軍士, 二軍士로 바뀌어 있다. 이를 통해 남부 시기에 비해 승평서 시기 등장인물이 4명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玉馬歸朝」가 남부 시기『穿戴題綱』에서는 四姬人(4명), 司馬騰(1명), 二中軍(2명), 十軍士(10명), 八開門刀(8명), 馬夫(1명)인데 비해, 승평서 시기에는 四姬人(4명), 中軍(1명), 四將軍(4명), 司馬騰(1명), 眾軍士로, 八開門刀(8명), 馬夫(1명) 등 9명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59) 현전 극본에는 그 공연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승평서 당안 기록인 咸豐二年十月十八日 "金昭玉粹 酒宴承應 酉初一刻五分開戲 酉正一刻十分戲畢 柳營會飮 玉馬歸朝 (連歌詞二刻八分) 頂磚(一刻十分)共長四刻三分"의 기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60) 극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각 곡패의 용운 사항을 정리하여 필자가 보충하였다.

61) 매년 冬至 후 세 번째 未日로, 臘享祭를 지내는 날이다. 본래 동지 후 세 번째 戌日에 해당한다. 비슷한 말로 臘日이 있다.

62) "當此臘節, 恰又大雪漫空"

다.[63]라고 하여, 초동 즉 음력 10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극본 뒤에 "광서 14년 10월에 배장을 준하다"는 기록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실제 공연 시간에 따라 그 시간적 배경을 수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다. 「瑞應歸朝」에서는 왕 등이 옥마를 발굴하여 이를 상서로운 징조로 여겨, 향안을 준비하여 望闕禮를 행하고[64], 【羅帳裏坐】 한 곡을 노래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후기 승평서 본인 「玉馬歸朝」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5. 唱詞 등 문장의 풍격이 달라졌다. 작품의 마지막에 사마등이 옥마를 황실로 보내면서 그 심정을 노래하는데, 비록 그 노래하는 내용은 같지만 두 작품의 唱詞는 완전히 다른 풍격을 보여준다. 자세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瑞應皇朝」

【雙調正曲・羅帳裏坐】 아름다운 옥마, 인간 세상에서는 실로 흔하지 않네. 尙方[65]에 바치니, 용안이 필히 기뻐하시겠네. 수놓은 비단으로 감싸고, 또 선물 담는 광주리에 담았네. (합창) 비록 莊王의 愛馬의 비단옷[66]에 미치지 못하나 이 기이한 신선의 물건에 부합하겠네.

【慶餘】 은 꽃(눈)에 젖은 삼동의 상서로움, 누가 神龍이 매장되어 광채를 품고 있을 줄 알았으랴. 황하에서 용마의 등에 그려진 그림[67] 나오고 땅에서 술이 솟아나는 것과 비견할 바 아니네. [68]

「玉馬歸朝」

【雙角曲子・收江南】 한 통의 편지 궁궐에 부치고, 기이한 보물 함께 성상 앞에 바치네. 산은 빛나고 옥은 부드럽게 굽이 이어지니, 마치 吳門 지역의 흰 비단[69] 같구나. 흰 구름길 열리니 瓊田[70]을 쓸겠구나.

【慶餘】 玉龍을 캐낸 그 해, 어찌 이 옥마의 기이한 인연에 비길까. 새하얀 눈 신통함을 드러내니, 나 신채왕이 공경하여 바치게 허락하셨네. [71]

「瑞應皇朝」는 雙調正曲를 쓰고 있어서 南曲을 쓰고 있고, 「玉馬歸朝」는 雙角曲子를 사용해서 北曲을 쓰고 있다. 또 「瑞應皇朝」의 【慶餘】는 매 구가 세 글자로 이루어진 三句尾인 데 반해 「玉馬歸朝」는 매 구가 네 글자로 이루어진 四句尾를 사용하고 있다. 雙調와 雙角은 모두 『九宮大成南北詞宮譜』의 12궁조 12

63) "今雷序入初冬, 邊風栗烈, 早降下一場大雪"

64) "以爲上瑞。快排香案, 待下官望闕拜禮。"

65) 상방(尙方)은 상의원(尙衣院)의 별칭(別稱)으로, 원래 중국 한(漢)나라 때 천자(天子)가 쓰는 기물(器物)을 맡았던 벼슬이나 기구를 가리킨다.

66) 초나라 장왕이 말 한 마리를 끔찍이 아껴 그 애마에게 아름답게 수놓인 비단을 입히고, 화려하게 장식한 침상을 놓아주고, 대추와 좋은 육포를 먹였다. 그 애마는 날마다 배불리 먹기만 하여, 일찍 죽고 말았다. 장왕은 대신들에게 명하여 大夫의 예로써 장례를 치르라고 하였다. 이에 優孟이 장왕을 풍자한 사건이 『사기』「골계열전」에 나온다.

67)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는 『易經』「繫辭傳」에 등장한다. "하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오니 성인이 그것을 법도로 삼았다."는 뜻이다. 河出圖는 중국 고대 복희씨 때에 황하에서 나온 그림으로, 龍馬의 등에 그려진 그림을 河圖라고 하였다. 복희씨(伏羲氏)가 황하(黃河)에 출현한 용마(龍馬)의 무늬를 숫자로 환치하여 하도를 만든 뒤 팔괘(八卦)를 그었으며, 하우(夏禹)가 치수(治水)할 때 낙수(洛水)에 출현한 신귀(神龜)의 반점을 본받아 구주(九疇)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68) 【又一體】琳琅御驥, 人世誠稀。想貢到尙方, 天顔必喜。裹以錦繡, 還盛以筐篚。(合)雖莊王愛馬文衣。總應讓此仙奇。【慶餘】銀花淋漓三冬瑞, 誰料得神龍埋藏含彩輝。休比做河出圖馬地湧醴。

69) 吳門匹練은 '오(吳) 지역에서 생산한 새하얀 긴 비단'을 지칭한다. 오문(吳門)은 오늘날 쑤저우(蘇州)이고, 필(匹)은 주포(綢布) 등 직물을 세는 양사로서, 고대 1필은 약 4장(丈)에 해당한다. 련(練)은 새하얀 견직물이다.

70) 경전(瓊田)은 전설 속 영초가 자라는 밭을 일컫는다.

71) 【雙角曲子・收江南】一封牋奏九重天, 奇珍共進聖人前, 山輝玉潤綿延。宛似那吳門匹練, 全夠得白霓途啟掃瓊田。【慶餘】玉龍兒掘自當年, 怎比著玉馬奇緣, 雪皚皚顯個神通, 纔許俺新蔡王恭呈獻。

개월 분배에서 10월에 속하는 궁조로서, 이는 10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玉馬歸朝」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 曲文을 비교하면, 『절절호음』 수록본인 「瑞應皇朝」는 '莊王愛馬'와 '河出圖' 같이 『史記』나 『易經』 등 경전의 전고를 적극 활용하고, '銀花'나 '筐篚'[72]같은 아름답고 비유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등 더 우아하고 문인적인 경향을 보여주어 건륭 연간 어용사인들의 높은 문학적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절절호음』에서 「瑞應皇朝」와 함께 공연하는 「羣情愛戴」에서는 晉나라 正定府 백성들이 10尺 정도의 눈이 쌓이지 않은 땅을 무대로 삼아 '黨太尉賞雪'[73]라는 작품을 '帽兒排' 형식으로 공연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반면, 후기 승평서 공연본인 「玉馬歸朝」는 「柳營會飮」과 함께 공연하는데, 軍士 네 명이 눈이 내리자 각자 악기를 연주하고 돌아가며 노래하면서 술자리를 즐기는데, 술자리에 여흥을 돋우기 위해 한 군사가 수염을 가리고 미인 행세를 하는 희극적 요소가 첨가되어 있다. 두 작품 모두 그 삽입된 내용들이 모두 해학적이고 희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道光十六年 差事檔"의 12月22日 기록에는 "養心殿에서 帽兒排 형식으로「柳營會飮」가 공연되었다"[74]라고 되어있다. 『절절호음』 속에서는 「羣情愛戴」에 '모아배' 형식의 삽입 공연이 있었던 것에 반해, 도광 연간에는 더 규모를 축소하여 전체 작품을 아예 공연 분장을 하지 않는 '모아배' 형식으로 공연이 이루어진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절절호음』 수록 「瑞應皇朝」극본과 후기 승평서 전승 월령승응희 「玉馬歸朝」 극본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얻은 건륭 연간 남부 작품과 후대 승평서 월령승응희 작품의 전승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절절호음』의 창작 연대인 건륭 연간에는 張文敏[75] 등 어용사인들이 직접 창작에 참여하였다. 이에 그 고사성이 더 충실하고, 기본 고사의 뼈대 위에 문인들이 직접 曲文을 창작하여 그 곡사가 전아하고 화려한 경향이 있다. 또, 경전이나 전고 등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반면, 도광제의 승평서 개혁 이후 승평서에서 공연된 작품들은 새로운 창작보다는 주로 기존 작품의 곡문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주로 승평서의 태감들이 공연 상황에 따라 임시로 고쳐서 공연하다 보니 그 내용이 전대에 비해 훨씬 간단해지고 평이해졌으며, 문학적 수준 또한 건륭 연간에 비해서 당연히 뒤쳐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쉽고 이해하기가 편해서 승평서 배우들에게는 더 환영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반에 어용사인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창작되어 문학성이 뛰어난 『절절호음』은 후기 승평서의 취사 선택에서 점차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절희는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창작된 극목이지만, 매년 반복 공연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신선함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그 오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해 공연에 새로운 요소를 가미해야 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골계적이고 해학적인 내용을 첨가하는 것이다. 이에 건륭 연간 작품에 비해 후기 승평서 월령승응희로 갈수록 중간에 해학적이고 재미난 내용이 조금씩 늘어난다. 「柳營會飮」에서도 군사가 여자 흉내를 내며 우스갯소리를 하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매년 반복 공연되는 월령승응희에 새로운 재미를 가미한 공연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건륭 연간의 절희는 『절절호음』처럼 두 작품이 짝을 이뤄 함께 공연되는 1本 2出이 주 경향이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원래 함께 공연되던 작품들 중에서 한 작품만 공연하는 사례가 많아진다. 가령, 『절절호음』 수록 상설절희인 「羣情愛戴」와 「瑞應皇朝」는 함께 공연이 되었지만, 이를 계승한 작품이거나

---

72) 광비(筐篚)는 예물(禮物)을 담는 광주리를 가리킨다. 그 뜻이 인신되어 '높은 사람이 내리는 고귀한 선물'을 지칭하기도 한다.

73) 청나라 무명씨 작품의 잡극이다. 『綴白裘』에 「賞雪」 1절을 수록하고 있다. 張生玠의 『玉田春水軒雜劇』에도 당 태위가 초상을 그리며 눈을 그려 넣는 내용의 「看眞」 1절이 있다.

74) 中國國家圖書館編撰, 『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 第5冊, 中華書局, 2011, pp.2380-2384.

75) 『嘯亭續錄』 卷一 「大戲節戲」 條에는 "건륭 초, 純皇帝께서 나라 안팎이 평안하자 張文敏에게 여러 극본을 바쳐 樂部에 배치하고 익혀서 절일마다 공연하라고 하명하셨다."라고 하였다. 張文敏은 張照(시호가 文敏, 1691~1745)이다. 장조는 康熙 48년 進士 출신으로, 乾隆 2년 內閣學士를 지냈으며, 『昇平寶伐』, 『勸善金科』 등의 連台本大戲를 창작하였다.

후기에 각색한 작품인 「柳營會飮」과 「玉馬歸朝」는 도광 연간에 이르면 「柳營會飮」만 단독으로 공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런 현상은 승평서 월령승응희 공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喜朝五位 歲發四時」, 「早春朝賀, 對雪題詩」, 「海不揚波, 太平王會」, 「聖母巡行, 群仙赴會」, 「太僕陳儀, 金吾勘箭」, 「太和報最, 司命錫禧」와 같이 자주 함께 공연되던 작품들이 후기에 이르면, 「喜朝五位」, 「早春朝賀」, 「海不揚波」, 「聖母巡行」, 「太僕陳儀」, 「太和報最」만 단독으로 공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승평서 개혁 후 축소된 궁정 극단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의례적인 월령승응희 공연보다는 오락적이고 관상적인 공연이 더 환영을 받으면서 생겨난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서태후는 아예 월령승응희 공연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공연을 보러 올 정도였다고 하니, 월령승응희는 개장 공연으로 그 의례적 명맥만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건륭 연간 절희 가운데서도 午宴이나 酒宴에서 공연되던 宴戲 작품들이 후대까지 전승되는 양상을 보인다. 현전 『절절호음』 86종 작품 중에서 승평서로 전승된 작품들은 「如願迎新」(養心殿 酒宴), 「柳營會飮」(奉三無私 酒宴), 「蒙正祭竈」(養心殿 帽兒排)처럼 주로 연회에서 공연되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승평서 월령승응희 공연상황에서도 확인했듯이 연회에서 '宴戲'로서 공연된 절희는 그 극목이 고정되어 후대까지 전승되기 용이하다. 한편, '宴戲'는 주로 연회의 흥취를 고조시키고 명절의 상서로운 경축의 분위기를 고취하는 내용이 적합하였다. 따라서 원래 슬프거나 헤어지는 내용은 점점 배제되고 경축의 분위기를 강조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명절에 다 함께 술을 마시고, 사람마다 그 뜻하는 바를 이루도록 기원하는 길상적 내용을 확대하는 각색 방향을 이끌었을 것이다.

5. 후기에는 국세가 나날이 쇠퇴해 가는 상황에서 건륭 연간처럼 대규모의 화려한 공연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특히 도광 연간 승평서로 개혁 이후, 궁정 극단의 규모가 대규모로 줄어들었고, 예능 수준이 뛰어난 민간 예인들도 모두 방출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출연하고, 볼거리가 풍부한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기는 더욱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기존의 작품들 중에서 계속 공연되는 작품들은 자연히 소규모의 간단한 작품들이었을 것이다. 이에 「柳營會飮」은 도광 연간 養心殿에서 '帽兒排' 형태로 자주 공연되었고, 그 등장인물도 『절절호음』에 비해 대폭 줄어들어, 「柳營會飮」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절절호음』 수록 절희들은 많게는 100여 명의 등장인물이 함께 등장하기도 하고, 보통 20명 이상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또, 대규모 소도구와 地井을 활용하는 등 공연 규모가 큰 작품들이 많았다. 이들 작품들은 건륭 연간에 비해 부족한 인력과 물질 자원으로 유지되던 후기 승평서에서는 공연하기 쉽지 않았다. 후기 월령승응희에 전승사항이 보이는 작품들은 모두 『절절호음』 가운데서도 등장인물이 적고, 공연 규모도 크지 않은 작품들에 속한다. 어쩌면 그 작은 공연 규모가 후대로 전승되는 데는 큰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절절호음』의 대다수 작품들이 승평서 개혁 이후 궁정 극단의 축소 및 부족한 인력과 물질 자원으로 유지되던 후기 승평서에서는 공연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결론

청 궁정의 월령승응희 공연은 건륭 연간 궁정 의례로 정식 제정되어 규범화되고, 대규모 작품 창작이 이루어지는 등 가장 흥성하였다. 그러나 도광 연간 승평서 개혁 이후, 궁정 극단의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기예가 뛰어난 민간 예인들도 모두 방출되었다. 또 근검절약을 숭상하던 도광제의 정책으로 대규모 인원이 출연하고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은 더 이상 공연되기 어려웠다. 게다가 청대 후기로 갈수록 국세가 나날이 기울어져 가는 상황에서 건륭 연간처럼 대규모의 화려한 공연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절희 공연은 후대로 갈수록 그 공연 절기 수와 공연 장소, 공연 극목 모두 점차 감소하

게 된다. 비록 서태후 시기 궁정 연극이 잠시 활기를 되찾지만, 주 관객층(특히 서태후)의 취향이 오락적이고 관상적인 공연을 더 애호하였기 때문에 월령승응희 같은 의례희 공연은 의례적 규범을 지키는 한에서 최소한의 공연만이 이루어졌다. 청 궁정 연극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월령승응희는 주로 개장으로 1-2출 공연되며 그 명맥만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건륭 연간 대규모로 창작되었던 기존의 작품들은 대부분 공연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절절호음』은 건륭 연간 어용사인들이 기본 고사의 뼈대 위에 직접 曲文을 창작하여 그 곡사가 전아하고 화려하며, 경전이나 전고 등을 많이 인용하여 그 문학성이 후기 월령승응희에 비해 뛰어나다. 그러나 그 뛰어난 문학성이 오히려 후기 승평서 태감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공연하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후기로 갈수록 월령승응희는 의례적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면서 주로 신선들이 등장해서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가공송덕하는 내용의 작품만이 주로 청 말까지 전승되게 되는데, 『절절호음』 속 많은 문인 고사들과 일반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반영한 이야기는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을 것이다. 또 건륭 연간 성대했던 궁정 연극의 상황에 따라 창작된 『절절호음』에는 많은 수의 배우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고, 다양한 소도구 및 지정 등 무대 장치를 활용하는 작품들이 많아서 후대 궁정 극단이 소화하기에는 버거운 내용들이 많았다. 이에 등장인물이 많지 않고, 대형 무대가 아닌 간단하게 공연할 수 있는 작품들만이 후기 승평서 무대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절절호음』 속 「瑞應皇朝」는 「玉馬歸朝」와 같은 후기 승평서 극목으로 각색되어 전승되고, 대부분의 작품들은 공연 전승이 끊기게 되며, 승평서 당안 등 청대 역사 자료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참고문헌〉

國家圖書館古籍善本室藏, 『節節好音』, 乾隆五色鈔本, 四十三冊.

故宮博物院編, 『故宮珍本叢刊』(第660-696冊, 海口 : 海南出版社, 2000.

中國國家圖書館編撰, 『中國國家圖書館藏淸宮昇平署檔案集成』, 中華書局, 2011.

故宮博物院編, 『故宮博物院藏淸宮南府昇平署戲本』(全450冊), 紫禁城出版社, 2016.

周祥鈺、鄒金生等輯, 『九宮大成南北詞宮譜』, 『續修四庫全書』 第1753卷, 上海古籍出版社, 2002.

傅惜華, 『淸代雜劇全目』, 人民文學出版社, 1981.

王秋桂輯, 『善本戲曲叢刊』,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4-87.

薛曉金, 丁汝芹主編, 『淸宮節令戲』(上下冊), 新華出版社, 2015.

劉鐵, 『淸宮月令承應戲考論』, 遼寧大學博士學位論文, 2017.

張瑩, 『淸代宮廷月令承應戲研究』, 中國人民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白玉林, 曾誌華, 張新科主編, 『晉書解讀』, 華齡出版社, 2009.

王煥然, 『讖緯與魏晉南北朝文學研究』, 河南人民出版社, 2016.

孫崇濤著, 『戲曲文獻學』, 太原: 山西教育出版社, 2008.

萬依, 『故宮辭典』, 北京: 故宮出版社, 1996.

故宮博物院編, 『故宮博物院藏愼德堂款瓷器』, 北京: 故宮出版社, 2014.

신지영, 「청대 昇平署 檔案에 나타난 宮庭戲 연출상황」, 『中國文學』 35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01년 05월.

임미주, 「청대 궁정희 극본집 『절절호음(節節好音)』의 판본 및 제작시기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제71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임미주, 『淸代 宮廷戲 '節節好音'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4月 29日(土) 13:10~15:20

발표논문

어 학 1 분 과

어 법

— [인문2관 105호] —

현대중국어 ‘是…的’ 분열구문 연구

이은경*

<目 次>

1. 서론
2. ‘是…的’ 분열구문의 특징과 판단 기준
3. 상적 특성에 따른 동사 분류
4.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 및 성분 분석
5. ‘是…的’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
6. ‘的’의 상적 기능
7.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
8. 결론

1. 서론

‘분열문(cleft sentence)’은 Jespersen(1937: 73)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서, 초점과 전제의 두 부분으로 분절되는 문장을 의미한다.

(1) a. It was yesterday that he died.
b. It is the wife that decides. (Jespersen, 1937: 76-77)

예문 (1)에서 초점은 be 동사에 후행하는 ‘yesterday’와 ‘wife’이며 나머지 부분은 전제로 해석된다.

Teng(1979), 汤廷池(1981), 方梅(1995), 田泉(1996), Wu(1998), 李晗・李慧敏(2020) 등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에서 과거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조건, 목적, 행위자 등을 강조하는 ‘是…的’ 구문의 경우 한 문장을 초점과 전제의 두 부분으로 분절할 수 있으며 초점 성분이 ‘是’의 뒤에 출현하므로 기능상 영어의 ‘it-분열문’에 해당한다. 다음의 예문은 ‘是…的’ 분열구문의 대표적인 예이며 영어의 분열문과 완전히 동일한 형식은 아니다.

(2) a. 那本教材是1958年编写的。
b. 我是在预售处买的票。
c. 是小王告诉我的。 (刘月华 외, 2001: 763-764)

예문 (2)에서 문장의 초점은 각각 시간, 장소, 행위자이며 초점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전제로 인식된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是…的’ 분열구문에서 전제로 인식되는 부분은 반드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다. 즉, 중국어의 분열구문은 반드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른 언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문법적 제약을 갖는다. 그러나 영어에는 이러한 시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3) a. *我是明天去的中国。
b. It is tomorrow that he will go to china. (Wu, 1998: 157)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현대중국어에서 모든 동사들이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에 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喜欢', '盯'와 같은 동사들은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할 수 없다.

(4) a. *我是小时候喜欢的狗。
b. *警察是上周盯的他。

다음의 예문을 보자.

(5) a. 这是李四看的。
이것은 리쓰가 봤어요. / 이것은 리쓰가 보는 거예요.
b. 这是李四喜欢的。
이것은 리쓰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문 (5.a)와 (5.b)는 모두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문장이며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 그러나 (5.a)는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5.b)는 명사화구문(nominalized construction)으로만 해석된다. 또한, 예문 (5.a)의 경우 '是'에 후행하는 성분은 '谁'(누가), '什么时候'(언제) 등과 같은 의문대사(疑问代词)로 대체할 수 있다.

(6) A: 这是{谁/什么时候…}看的？
B: 这是{李四/昨天…}看的。

그러나 상태동사 '喜欢'이 출현하는 (5.b)의 경우에는 '是' 뒤의 성분을 '谁'(누가), '什么时候'(언제)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

(7) A: *这是{谁/什么时候…}喜欢的？
B: 这是{李四/上大学的时候…}喜欢的。

따라서 예문 (5.a)와 (5.b)는 동일한 '是…的'의 형식으로 쓰였지만, 동사에 따라 기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赵淑华(1979), 牛秀兰(1991), 李讷 외(1998), 刘月华 외(2001) 등에 따르면 표준중국어에서 '的'는 문말에 출현할 수도 있고, 목적어의 앞에 출현할 수도 있다.[1)]

(8) a. 他是什么时候去北京的？
b. 他是什么时候去的北京？

그러나 우시(无锡)방언과 민난(闽南)방언 등에서 '的'는 문말에만 출현할 수 있다. 아래는 우시방언의 예이다.

1) Chao(1968: 297)의 견해에 따르면 'V的O'는 북방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형식이다.

(9) a. 伊是啥辰光去北京个？
b. *伊是啥辰光去个北京？

이러한 현상은 ‘是…的’ 분열구문에서의 ‘的’의 분포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黄正德(1989), Wu(1998: 157-175), 刘林(2013)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是’ 초점구문도 과거 의미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과 마찬가지로 영어의 ‘it-분열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2)]

(10) a. 张三是明天到纽约去。
b. It is tomorrow that John will go to New York. (黄正德, 1989: 44)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是’는 후행 성분을 초점화하며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제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10.a)와 같은 ‘是’ 초점구문은 기능상 (10.b)의 ‘it-분열문’과 동일하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분열구문의 특성을 갖는 ‘是…的’의 형식이 반드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지만, 그것이 왜 과거 시제만을 나타내는지, 동사의 선택에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동일한 형식의 명사화구문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현대중국어에서 동사 ‘吃’와 ‘买’의 뒤에 ‘的’를 부가할 경우 ‘吃的’는 현재 ‘먹는 것’을 나타내지만, ‘买的’는 아무런 표지 없이 과거에 ‘산 것’을 나타낸다. 본고는 ‘V的’의 형식에서 동사의 시제가 어떤 경우에는 현재를 나타내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 동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상적 자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의 상적 자질이 ‘是…的’ 분열구문의 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동사를 상적 자질에 근거하여 분류한 후 각 유형의 동사들이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경우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는지, 문장의 시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是…的’ 분열구문이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면서 다른 기능을 하는 명사화구문과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的’의 분포가 북방과 남방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우선, 과거에 ‘的’가 문말에만 쓰이다가 현재는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는 문법화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언어 변화가 활발한 북방 지역에서 먼저 ‘的’가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언어 변화가 더딘 남방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的’가 문말에만 출현하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법화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的’의 문법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인다. 즉, 일부 학자들은 ‘的’를 일종의 명사화표지(nominalizer)라고 주장하였으며 일부는 ‘的’를 어기조사(sentence-final particle)로 분석하였고, 또 일부는 시제(tense)나, 상표지(aspect marker)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여러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문법적 기능에 대해 분석할 것이며 ‘是…的’ 분열구문이 과거 시제만을 나타내는 이유도 ‘的’의 문법적 기능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표준중국어에서 ‘的’가 문말과 목적어의 앞에 모두 출현할 수 있는 반면, 남방 방언에서는 문말에만 출현하는 이유에 대해 ‘的’가 완정상의 기능을 획득하면서 ‘了$_1$’과 마찬가지로 문말에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는 문법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문법화의 속도가 차이를 보이는 방언 지역에서 ‘是…的’ 분열구문을 사용할 때 ‘的’가 어느 위치에 출현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的’의 문법적 기능 및 전반적인 문법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2) ‘是’ 초점구문은 ‘我是学生’과 같이 ‘是’가 주요 동사로 쓰인 판단문이 아니라, (11.a)와 같이 ‘是’가 초점표지로 쓰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과정에서 코퍼스 자료를 통해 각 유형의 분열구문이 실제로 어떠한 문맥에서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유사한 기능을 하는 ‘是’ 초점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두 구문이 정보구조적으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이 전제와 초점을 분리하는 정보구조적 책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언어에서 분열구문이 갖는 보편적 특성과 분열구문의 발전 경로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是…的’ 분열구문의 특징과 판단 기준

‘是…的’ 분열구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우선, ‘是’와 동사 사이에는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원인, 목적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출현하며 ‘是’는 휴지 없이 생략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사의 뒤에 목적어를 수반할 경우 문말의 ‘的’는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是…的’ 분열구문에서 동사에는 상표지나 양태표지를 부가할 수 없으며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경우 ‘的’의 뒤에는 중심어를 부가할 수 없다. ‘是…的’ 분열구문의 화용적 특징은 ‘VP的’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며 초점은 ‘是’의 뒤에 출현하는 성분으로서 논항 초점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是…的’ 분열구문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是…的’ 분열구문에서 동사의 뒤에 목적어를 수반할 경우 ‘的’는 목적어의 앞과 뒤(문말)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둘째, ‘是…的’ 분열구문에서 ‘是’는 휴지 없이 생략이 가능하다. 셋째, ‘是…的’ 분열구문에서 동사에는 상표지나 양태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 넷째, ‘是…的’ 분열구문에서 ‘是’와 동사 사이에 출현하는 부사어는 논항 초점으로 기능한다. 일반적으로 분열구문의 초점은 ‘什么时候’, ‘在哪儿’, ‘怎么’, ‘谁’ 등 의문대사에 대한 대답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사어를 의문대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판단할 것이며, 대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분열구문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다. 다섯째, ‘是…的’ 분열구문에서 ‘的’의 뒤에는 중심어를 부가할 수 없다.

3. 상적 특성에 따른 동사 분류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동사를 동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자질로써 상태, 동작, 달성 및 성취의 네 가지 상황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동사들이 내포하는 특징과 자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태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내부구조 속에 어떠한 상태의 변화나, 행위로 인한 결과를 포함하지 않으며 시간축의 일정 구간에서 특정 상황이 계속 유지됨을 의미한다. 또한, 상태동사는 일반적으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다. 상태 상황유형은 [-동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며 대표적인 동사에는 ‘喜欢’, ‘爱’, ‘相信’ 등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형용사도 상태 상황유형에 속한다.[3)]

둘째, 동작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내부구조 속에 행위로 인한 어떠한 결과나 상태의 변화를 포함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다. 또한, 동작 상황유형은 지속성의 정도에 따라 강지속, 약지속, 비지속의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강지속동사에는 ‘等’, ‘找’ ‘盯’ 등과 같이 지속성이 강한 동사들이 속하며 약지속동사에는 ‘看’, ‘做’, ‘写’ 등과 같이 지속성이 약한 동사

3) Chao(1968: 663), 马庆株(1992: 21), 陈昌来(2003: 56)를 비롯한 많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국어의 형용사는 술어의 중심어로 쓰일 수 있고, ‘不’로 부정할 수 있으므로 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邓守信(1985), 杨素英(2000: 95), 左思民(2009) 등의 상적 자질에 따른 동사 분류에 따르면 중국어의 형용사는 어떤 상태가 계속 유지됨을 의미하므로 상태 상황유형에 속한다.

들이 속한다.[4] 동사가 내포하고 있는 지속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5]

(11) a. 我等她等了一年了。
b. 这本书看了一年了，还没看完。
c. 那场戏我已经看了一年了，还记得很清楚。

위의 예문을 보면 (11.a)에서 '等'의 뒤에 시량보어가 출현하는 경우 행위의 지속 시간만을 나타내지만 (11.b)와 (11.c)에서 '看'의 뒤에 시량보어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행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다. '看了一年了'가 '等了一年了'와 달리 동작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완료된 이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은 '看'이 '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구조 속에 조금 더 뚜렷한 종점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看了一年了'가 행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무언가를 보는 행위가 1년 동안 쉼 없이 일관적으로 지속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 '等了一年了'는 1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는 행위가 일관적으로 지속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看'류와 '等'류는 모두 [+지속]의 자질을 내포하는 동작동사이지만, 지속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看'류가 '等'류에 비해 [+지속]의 자질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약지속동사의 경우 '是T前V完的'의 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강지속동사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6]

(12) a. 看了三天了 → 是三天前看完的
b. 做了三天了 → 是三天前做完的
c. 写了三天了 → 是三天前写完的
(13) a. 等了三天了 → *是三天前等完的
b. 睡了三天了 → *是三天前睡完的
c. 坚持了三天了 → *是三天前坚持完的

다음으로 비지속동사에는 '碰', '眨(眼)', '咳嗽' 등과 같이 지속의 자질을 전혀 내포하지 않는 순간동사들이 속한다. 비지속동사는 의미적으로 순간적인 행위나 사건의 출현만을 나타내므로, 내부구조 속에 지속 구간과 종점이 포함되지 않으며 행위로 인한 어떠한 결과나 상태의 변화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비지속동사는 시량보어와 공기할 경우 동작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 없으며 순간적인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됨을 나타낸다. 이 경우 전체 동사구는 [+지속]을 나타내는 다중-사건 동작 상황유형으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본고는 동작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동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내포한다고 본다.

셋째, 달성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의미적으로 사건이 종점에 도달하여 어떤 결과, 또는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며 내부구조 속에 사건의 결과나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건 종료 전까지의 지속 구간도 포함한다. 따라서 달성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자연 종점이 반드시 포함되며, 'V了+시량보어+了'에 출현할 경우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지속 시간만을 나타낸다. 또한, 달성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다. 달성 상황유형은 [+동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모두 포함하며 대표적인 동사에는 '来/去', '买', '见' 등이 속한다. Smith(1994: 263-296)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어

4) 사실상 강지속동사와 약지속동사는 모두 [+지속]의 자질을 내포하므로, 자질적인 측면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강지속동사와 약지속동사를 따로 구분한 이유는 동사의 지속성이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 동사의 지속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马庆株(1992: 3-7)를 참고하였다.

6) 'T'는 시간 표현을 의미하며 'V'는 동사를 의미한다.

에서 ‘吃饱’, ‘写完’, ‘走进’, ‘跑出来’ 등과 같이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부가된 동사구는 동작의 과정과 결과로 구성되므로 달성 상황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넷째, 성취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행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의 발생과 함께 즉각적으로 변화된 상황을 의미하며 달성 상황유형과는 달리, 선행 단계가 비록 변화된 상황에 관련되어 있어도 사건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성취 상황유형과 달성 상황유형의 공통점은 모두 내부구조 속에 자연 종점을 반드시 포함하므로 ‘V了+시량보어+了’에 출현할 경우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지속 시간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성취동사는 순간적인 변화나 결과만을 의미하는 반면, 달성동사는 변화나 결과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과정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성취동사는 일반적으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모두 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성취 상황유형은 [-동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며 대표적인 성취동사들은 ‘死’, ‘发现’, ‘毕业’ 등이 있다.

4.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 및 성분 분석

본고에서는 코퍼스 자료를 통해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700개의 분열구문을 추출한 후 분열구문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유형별로 어떠한 논항이 초점으로 자주 출현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3장에서 제시한 현대중국어 동사의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코퍼스를 통해 추출한 700개의 분열구문을 분석한 결과 ‘是…的’ 분열구문은 크게 ‘O+是+XP+VP的’, ‘S+是+XP+VP的’, ‘是+XP+VP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중 ‘O+是+XP+VP的’의 유형은 294개 출현하였으며 ‘S+是+XP+VP的’의 유형은 253개 출현하였고, ‘是+XP+VP的’의 유형은 153개 출현하였다. 따라서 세 유형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O+是+XP+VP的’이며 가장 낮은 유형은 ‘是+XP+VP的’임을 알 수 있었다. ‘O+是+XP+VP的’의 경우 행위자, 시간, 방식,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비교적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S+是+XP+VP的’의 경우에는 방식,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논항의 출현 빈도가 비교적 높았다. ‘是+XP+VP的’의 경우에는 행위자, 장소, 시간, 방식을 나타내는 논항이 다른 논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행위자와 방식을 나타내는 두 논항이 함께 초점으로 출현하는 경우도 비교적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또한, ‘O+是+XP+VP的’와 ‘是+XP+VP的’의 두 경우 모두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하는 빈도가 다른 논항에 비해 매우 높았다.

다음으로 700개의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들을 분석한 결과 총 385개의 동사가 출현함을 알 수 있었다. 그중 성취동사는 49개, 달성동사는 221개 출현하였으며 비지속-동작동사는 2개, 약지속-동작동사는 103개 출현하였고 강지속-동작동사와 상태동사는 각각 5개씩 출현하였다. 비지속-동작동사의 수가 매우 적은 점을 감안하면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낮은 유형은 상태 상황유형과 강지속-동작 상황유형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달성 상황유형이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통해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동사의 자질은 종결성과 지속성이라고 판단한다. 즉,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일수록, 지속의 자질이 약한 동사일수록 ‘是…的’ 분열구문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 반면,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 중 지속의 자질이 강한 상태동사들과 강지속동사들은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동사가 [+종결]의 자질을 내포한다는 것은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 반드시 자연 종점이 포함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동사들이 의미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기 쉽다. 따라서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달성 및 성취동사들이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쉽게 과거에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서

분열구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동사가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자연 종점을 포함하지 않으며 지속의 자질이 전혀 없는 비지속-동작동사를 제외하면 모두 일정한 지속 구간을 포함한다. 이러한 동사들이 의미하는 행위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의 속성이 강한 상태동사와 강지속-동작동사들이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분열구문으로 해석되기 어려우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5. '是…的'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

본 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시간 표현이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각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어떠한 시간 표현과 공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S+是+T+VP的'와 'O+是+T+VP的'의 형식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태 상황유형의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할 수 없다. 그러나 '认识', '知道', '相识', '明白', '懂' 등 '알다'류에 속하는 상태동사는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喜欢', '担心'과 같은 소수의 상태동사는 T가 과거이거나, 현재를 나타내는 'O+是+T+VP的'의 형식에 제한적으로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T는 대조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고,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열구문이 아니라, 명사화구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동작 상황유형의 동사는 지속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강지속동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지만, '用', '住'와 같은 소수의 강지속동사는 T가 과거인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여 분열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O+是+T+VP的'의 형식에도 소수의 강지속동사들만 출현할 수 있으며 T가 과거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반면, 'O+是+T+VP的'의 T가 현재이거나 미래인 경우 대조 초점을 갖는 명사화구문으로 인식된다. 비지속동사의 경우에는 'S+是+T+VP的'와 'O+是+T+VP的'의 형식에 모두 출현할 수 있지만, T가 과거 시점 표현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T는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며 분열구문으로 해석된다. 약지속동사의 경우에는 강지속과 비지속의 중간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약지속동사는 'S+是+T+VP的'의 형식에 T가 과거 시점인 경우에만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O+是+T+VP的'의 형식에서는 어떠한 시점 표현과도 공기할 수 있다. 즉, 'O+是+T+VP的'의 T가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분열구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명사화구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O+是+T+VP的'의 T가 현재이거나 미래인 경우에는 대조 초점을 갖는 명사화구문으로만 인식된다.

셋째, 성취 및 달성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동작 상황유형의 비지속동사와 마찬가지로 T가 과거인 'S+是+T+VP的'와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여 분열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들은 비과거 시점 표현과는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시간 표현이 출현하는 '是…的'의 형식이 분열구문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동사의 상적 자질 중 종결성과 지속성의 두 자질이 크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은 과거 시점 표현과만 공기하며, 이 경우 '是…的' 형식은 분열구문으로 인식된다. 마찬가지로 지속성이 약할수록 공기하는 시점 표현의 제약이 커지며 이 경우에도 '是…的' 형식은 분열구문으로 인식되기 쉽다. 반면, 지속성이 강할수록 다양한 시간 표현과 공기할 수는 있지만, 분열구문으로 인식되기 어려우며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이분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사의 상적 자질에 따라 분열구문으로 해석되거나,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 연속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고는 시점 표현이 출현하는 '是…的'의 형식이 분열구문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동사의 상적 특성뿐만 아니라, 해당 구문에 출현하는 시간 표현이 논항 초점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본다. '是…的' 분열구문의 특성은 대조가 아닌 논항 초점을 갖는 것이며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에서 초점 외의 다른 성분은 모두 전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시간 표현과의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전제와 논항 초점의 정보구조로 파악되는 경우는 모두 과거 시점 표현과 공기하는 경우이며 비과거 시점과 공기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는 과거 사건을 나타내는 명제가 전제와 초점의 구조를 나타내기 더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과거 사건은 이미 발생했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 중의 어느 한 논항이 초점이 되고 사건의 전체 내용은 전제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와 미래 시점은 아직 완결된 사건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어야 하고 소수의 대안 요소와의 강한 대조를 나타내는 등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한다.

6. '的'의 상적 기능

본 장에서는 우선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문법적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的'를 명사화표지, 어기조사, 시제표지로 보는 견해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의 '的'를 상표지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的'는 완정상 '了$_1$'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하나의 덩어리로 나타낸다. 둘째, '的'는 다른 상표지와 공기할 수 없다. 셋째, '的'는 완정상 '了$_1$'과 동일한 위치에 출현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了$_1$'이 문말에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한 것처럼 현재 '的'도 문말에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는 문법화 단계에 있다.

다음으로 본고는 '的'가 '了$_1$'과 마찬가지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는 문법화 단계에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7대 방언 지역의 251명의 화자가 분열구문을 사용할 때의 '的'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的'의 분포는 우선적으로 운율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방 지역으로 갈수록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경향이 강하고, 북방 관화(官话) 지역으로 갈수록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우(吴)방언에 속하는 우시(无锡)방언과 민난(闽南)방언에서 '的'는 문말에만 출현한다. 또한, Tang(2011)에 따르면 웨(粵)방언에는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李如龙(2001: 1-5), 李小凡・项梦冰(2009: 21-22), 강병규(2019: 5) 등에 따르면 북방 방언은 내부적・외부적(언어접촉)인 요인으로 인해 혼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방 방언은 성조나 어순 등 여러 측면에서 고대중국어의 흔적을 많이 갖고 있다. 또한, 남방 지역의 언어는 북방에 비해 문법화의 속도가 더디므로, 남방 화자의 언어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은 문법화의 경로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吴)방언, 민(闽)방언과 같은 남방 방언에 'V的O'의 형식이 없다는 것은 '的'가 처음에는 문말에만 출현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방언 화자들이 표준중국어를 구사할 때 방언의 영향으로 인해 발음과 형식에 있어서 자신들의 방언 체계와 유사하게 구사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吴)방언과 민(闽)방언 지역 화자들이 표준중국어로 '是…的' 분열구문을 구사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의 방언에는 없는 'V的O'의 형식보다는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형식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지리적으로 관화(官话)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웨(粵)방언 지역의 경우에는 '是…的'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북방 지역의 '是…的' 형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的’는 북방 지역에서도 초기에는 문말에만 쓰였기 때문에 현재 웨(粵)방언 지역에서도 ‘V的O’의 형식보다는 문말의 ‘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언어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북방 지역에 비해 남방 지역의 언어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더디므로, 웨(粵)방언 지역에서는 초기에 습득했던 ‘VO的’의 형식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현재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다른 상표지들과 마찬가지로 문말에서 동사의 뒤로 이동하고 있는 문법화 과정에 있으며 ‘的’의 이동은 운율적으로 제약이 덜한 유형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즉, ‘的’가 문말에서 동사의 뒤로 이동하는 것은 운율의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분포적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的’가 상표지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문법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는 고대중국어의 지시사에서 발전한 것으로, 관형어표지로 문법화한 후 명사화표지로 문법화되었다가 현재는 완정상 표지로 문법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7.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

본 장에서는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징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是…的’ 분열구문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만 쓰이는 반면, ‘是’ 초점구문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에 모두 쓰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是…的’ 분열구문은 반드시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화자와 청자에 의해 이미 확인된 과거 사건인 경우에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미래 사건에도 잘 쓰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是’ 초점구문의 전제는 부정할 수 있지만, ‘是…的’ 분열구문의 전제는 부정할 수 없다.

둘째, ‘是…的’ 분열구문에서는 반드시 ‘是’에 후행하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하지만,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할 수도 있고, 서술어-초점 구조나 문장-초점 구조로 기능할 수도 있다. 즉, ‘是’ 초점구문이 과거 사건에 쓰이는 경우 ‘S+是+XP+VP了’와 ‘O+是+XP+VP了’는 서술어-초점 구조로 기능하며 ‘是+XP+VP了’는 문장-초점 구조로 기능한다. 또한, ‘是’ 초점구문이 비과거 사건에 쓰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과거 사건의 세부 정보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이 쓰이며 현재나 미래 사건의 세부 정보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是’ 초점구문이 쓰임을 알 수 있다. 즉, 논항-초점 구조로 해석되는 경우 두 구문의 출현은 상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은 화용적으로 다르게 기능하므로, ‘是…的’ 분열구문이 쓰인 문맥에서 분열구문 대신 ‘是’ 초점구문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是’ 초점구문을 ‘是…的’ 분열구문으로 대체하기도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셋째,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명사구가 목적어로 출현할 수 없지만,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명사구가 목적어로 출현할 수 있다. 본고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목적어가 비한정 명사구인 경우 일반적으로 목적어는 초점이 되며 초점의 범위는 문말이 된다. 그러나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등 세부 정보가 초점이 되므로 초점의 범위는 동사의 앞쪽에 놓인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에 비한정 목적어가 출현할 경우 두 유형의 정보구조가 상충하게 되므로, 이러한 정보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是…的’ 분열구문에는 비한정 목적어가 출현할 수 없다. 반면, ‘是’ 초점구문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술어나, 문장 전체가 초점으로 기능하므로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목적어가 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통해 ‘是…的’ 분열구문은 ‘是’ 초점구문에 비해 시제적으로나, 정보구조적으로

더 많은 제약을 받으며 비한정 목적어와의 공기 관계에서도 제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사와의 공기 제약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본고는 4장에서 지속성이 강하거나 종결성이 없는 동사가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경우 강한 제약을 받음을 밝혔다. 즉, 상태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할 수 없다. 그러나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에서 '可爱'(귀엽다), '喜欢'(좋아하다), '爱'(사랑하다)는 모두 전형적인 상태동사들이며 이러한 동사들은 '是' 초점구문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동사 제약의 원인을 완정상 '的'의 기능과 '是…的' 분열구문의 정보구조적 제약 때문이라고 본다. 즉, '是' 초점구문에서 '是'는 초점의 앞에 부가되어 초점표지로서만 기능하지만,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的'의 완정상 기능으로 인해 사건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줌으로써 실현된 사건을 나타내게 되며 화자와 청자에게 확인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은 과거에 이미 실현된 사건에만 쓰일 수 있다. 또한,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반드시 자연 종점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동사들이 의미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기 쉽다. 따라서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동사가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쉽게 과거에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 인식된다. 반면, 동사가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자연 종점을 포함하지 않으며 지속의 자질이 강한 동사일수록 단일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동사들은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8. 결론

---- 생략 ----

〈參考文獻〉

강병규(2019),『중국어 어순의 지리적 변이와 유형학적인 의미』, 역락.

김현철, 김시연, 김태은(2019),『중국어학입문』, 학고방.

박찬욱 역(2019),『중국어 화용론의 이해』(李櫻, 2012), 학고방.

陈昌来(2003),『现代汉语语义平面问题研究』, 上海: 学林出版社.

邓守信(1985),「汉语动词的时间结构」,『语言教学与研究』第4期, 7-17.

方　梅(1995),「汉语对比焦点的句法表现手段」,『中国语文』第4期, 279-288.

黄正德(1989),「说"是"和"有"」,『李方桂先生纪念论文集』台北: 学生书局, 43-64.

李讷・安珊笛・张伯江(1998),「从话语角度论证语气词"的"」,『中国语文』第2期, 93-102.

李如龙(2001),『汉语方言学』,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李小凡・项梦冰(2009),『汉语方言学基础教程』,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刘　林(2013),『现代汉语焦点标记词研究 — 以"是"、"只"、"就"、"才"为例』, 复旦大学硕士学位论文.

刘月华・潘文娱・故韡(2001),『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马庆株(1992),『汉语动词和动词性结构』,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牛秀兰(1991),「关于"是…的"结构句的宾语位置问题」,『世界汉语教学』第3期, 175-178.

汤廷池(1981),「国语分裂句、分裂变句、准分裂句的结构与限制之研究」,『语言学与语言教学』, 台湾学生书局, 177-204.

田　泉(1996),「"是"、"的"合用及单用非句法功能初探」,『汉语学习』第5期, 29-32.

李晗・李慧敏(2020),「汉语分裂句的焦点结构与特点分析」,『中国语言文字』第4期, 36-39.

杨素英((2000),「当代动貌理论与汉语」,『语法研究和探索』第9期, 81-105.

赵淑华(1979),「关于“是……的”句」,『语言教学与研究』第1期, 57-66.
左思民(2009),「动词的动相分类」,『华东师范大学学报』第1期, 74-82.
Chao, Y. R. (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espersen, O. (1937/1969), *Analytic syntax*,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Smith, S. C. (1997), *The Parameter of Aspect*, Springer-Science+Business Media, B.V.
Tang, S.-W. (2011), On Gerundive Nominalization in Mandarin and Cantonese, *Nominalization in Asian Languag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47-160.
Teng S.-h. (1979), Remark on Cleft Sentences 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7(1), 101-114.
Wu, G. (1998), *Information Structure in Chinese*, Peking University Press.

『孟子』의동 사건의미 구의 도출과 해석*

— 유표 의동구문을 중심으로

김다래**

<目 次>

1. 서론
2. 의동 구문의 경동사 핵 해석과 구조 분류
   2.1. ‘DP_1+以+DP_2+爲+DP_3’ 구
   2.2. ‘DP_1+以+DP_2+vP’ 구
   2.3. ‘DP_1+爲+DP_2+vP’ 구
   2.4. ‘DP_1+以爲+DP_2’ 구
3. 지정어와 보충어 논항 해석
   3.1. ‘DP_1’
   3.2. ‘DP_2’
   3.3. ‘DP_3’
4. 결론

1. 서론

본고는 상고중국어 시기의『孟子』의 문장을 예로 하여 의동(意動)구[1] 구조의 도출과 통사 특성에 대해 생성문법[2]의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중국어에는 몇 가지 특수한 문형들이 있다. 이런 문형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은 동사의 사건의미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기초 어휘의 의미나 어순배열에 의거하여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어색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고대중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동구가 문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의동의 의미로 전달되는지, 어떠한 사건의미를 갖게 되어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 경동사 이론을 통해 알아보고, 유표적 의동을 나타내는 경동사 ‘以’와 ‘爲’가 포함된 구의 경동사구(vP) 도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 본 발표문은 필자의 박사 논문에서 다루게 될 주제의 일부로, 추후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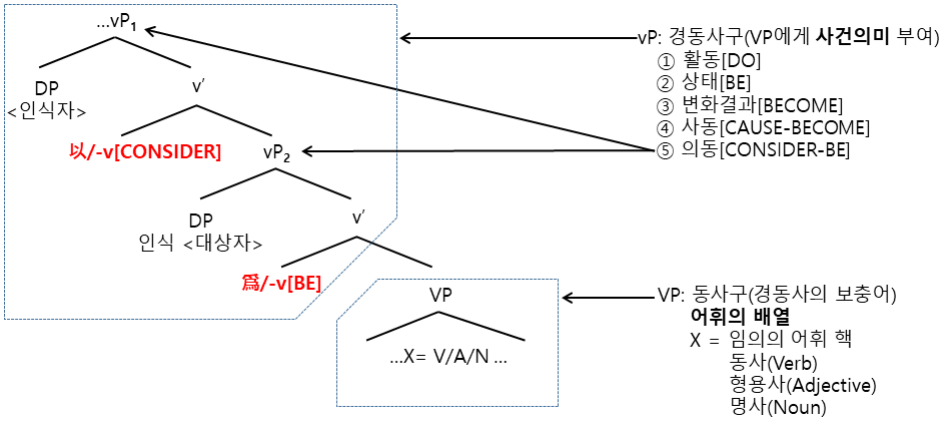
1) 주어(인식자)는 목적어(인식 대상자/ 사물 혹은 사람)가 대표하는 것이 서술어가 대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즉 (그것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평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동구’라고 한다. 이런 의동의 표현은 고대 중국어의 경우 유표 경동사 ‘以’와 ‘爲’로 실현된다.

2) 생성문법학에서 말하는 언어는 “모든 인간의 대뇌에는 이미 선천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장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이 장치는 후천적인 학습이 더해지면 새로운 문장을 무궁무진하게 파생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생득적인 장치를 일컬어 ‘언어능력(lanhuage faculty)’이라고 하며, 이는 인간의 대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언어기능을 주관한다.”

2) 연구방법

본고는 '생성문법의 최소주의 이론'중의 한 부분인 경동사(light verb, 輕動詞) 이론에 입각하여, 즉, '사건의미'[3]의 특징에 따라 고대 중국어 의동구문을 도출한다. Huang, C.-T. James(1997), Lin Tzong-Hong(2001), 馮勝利(2005), 鄧思穎(2010), 何元建(2011) 등에 의하면, 경동사란 동사구(VP)를 보충어로 병합하여 모종의 사건의미(DO, BE, BECOME, 'CAUSE-BECOME, CONSIDER-BE')를 표시하는 기능어의 하나이다. 경동사구(vP)의 도출과 사건의미는 다음과 같은 수형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경동사구(vP)의 도출과 기능, 김종호(2023)



위 그림에서 보듯, 경동사는 자신의 보충어이자 성분통어 대상인 동사구(VP)에 대해 제시된 바와 같이 모종의 사건의미(①-⑤)를 부여한다. 또, 자신의 지정어 위치(vP-Spec, 위 그림의 내주어)의 한정사구(DP) 논항에게 해당 사건의미에 부응하는 의미역을 할당한다. 이렇게 각 경동사가 최대투사된 구조체가 바로 경동사구(vP)이다. '의동' 사건의미는 주관적 '의동[CONSIDER]'을 나타내는 경동사와 인식의 '상태[BE]'를 나타내는 두 개의 경동사를 조합하여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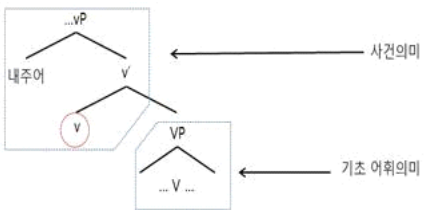
상고한어에 대한 의동 표현과 관련된 생성문법적 연구 결과는 그 수량이 매우 적다. 또 '의동' 표현의 통사 현상을 설명하는 논문은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孟子』전문을 전수조사하고 경동사 이론을 이용하여 의동구를 전면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비록 이러한 의동 현상이 출현 빈도가 낮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이는 다른 전적들과 비교해서 연구해야 할 과제로서 본 논문에서는『孟子』에 나오는 모든 용례를 전수 조사하여 제시할 것이다.

2. 의동구문의 경동사 핵 해석과 구조 분류

의동구는 어떻게 도출되고 그 구조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 본고는 경동사 이론으로 설명한다. 경동사 이론으로 의동구의 생성과 통사적 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 본질적인 문제는 이 구를 만드

3) 경동사(v)는 자신의 보충어이자 성분통어 대상인 동사구(VP)에 대해 사건의미를 부여한다. <그림 참조>



는데 관여하는 경동사의 명시성 여부 문제이다. 즉, 의동 표현은 'CONSIDER'와 'BE' 두 개의 경동사가 계층적으로 연계된 구조인데, 이때 두 경동사가 모두 비명시적(covert)인 경우는 술목(VO) 구조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CONSIDER'를 나타내는 경동사가 명시적(overt)인 경우도 있다. 이때는 상위의 경동사, 즉 '以' 또는 '爲'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의동[CONSIDER]'을 나타내는 경동사가 명시적인, 즉 유표적 의동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孟子』의 예에서 유표적으로 의동 사건의미를 나타내는 경동사는 '以'와 '爲'이다. 이 경우가 본고의 연구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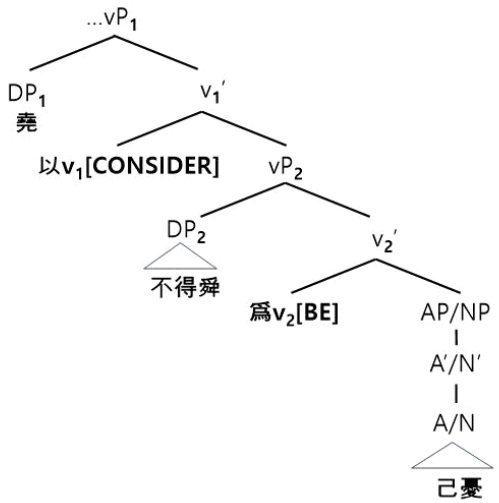
2.1. 'DP_1+以+DP_2+爲+DP_3' 구

이 경우는 의동을 나타내는 두 경동사 핵인 '以' 와 '爲'가 모두 명시적인 경우이다. 다음 예를 보자.

(2) 堯**以**不得舜**爲**己憂
(요는 순을 얻지 못함을 자기의 근심으로 여긴다.)
(3) 吾必**以**仲子**爲**巨擘焉。
(나는 반드시 중자를 최고로 여긴다.)
(4) 夫人豈**以**不勝**爲**患哉？
(무릇 사람이 어찌 이기지 못하는 것을 근심으로 여기겠는가?)
(5) 有安社稷臣者，**以**安社稷**爲**悅者也。
(社稷사직(나라의 운명)을 편안하게 하는 신하가 있는데, 사직을 편안히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이다.)

(2)~(5)의 예는 '의동(CONSIDER)'을 나타내는 두 경동사 '以', '爲'가 모두 명시적인 경우로, 'DP_1+以$_1$+DP_2+爲-v_2+DP_3'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예 (2)의 수형도를 통해 'DP_1+以+DP_2+爲+DP_3' 핵 도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堯以不得舜爲己憂' 도출 수형도



위의 수형도를 살펴보자. 먼저 하위의 경동사 '爲'는 '[BE]' 경동사로, 자신의 보충어 '己憂(자기의 근심)'에게 '~이다'라는 [상태] 사건의미를 부여한다. 즉, '爲v[BE]+己憂V'의 구조를 이루어, '근심스러운 상태이다'라는 사건의미를 나타내고, 지정어 논항 '不得舜'에게 <대상자(theme)>의미역을 할당한다. 상위의 '以'

는 의동 경동사이다. '以v[CONSIDER]'는 자립적인 경동사이므로, 하위의 경동사 응합체 '爲v[BE]+己憂V'를 자신의 자리로 당기지 않고, '-라고 여기다'라는 의동(cognitive) 사건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자신의 지정어 논항 '舜'에게 <인식자(cognizer)> 의미역을 할당한다. 따라서 두 개의 경동사 '以'와 '爲'가 융합하여, '근심스러운(憂V) 상태(爲v[BE])로 여기다(以v[CONSIDER])'는 사건의미를 나타낸다. 이로써 위의 구문은 '<인식자(堯)>가 <대상자(不得舜)>를 근심으로 여기다'로 해석된다.

2.2. 'DP_1+以+DP_2+vP' 구

이 경우는 의동을 나타내는 경동사 '以'만이 명시적인 경우이다. 다음 예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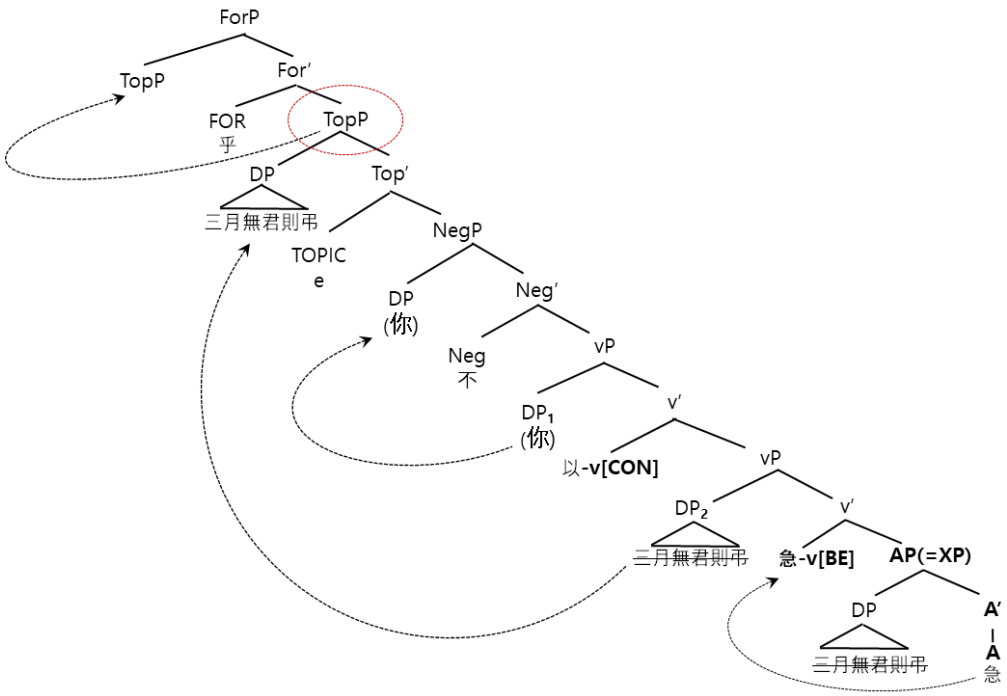
(7) 三月無君則弔, 不<u>以</u>急乎？
(3개월 군주가 없다고 조문하는 것은, (당신이 보기에) 급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8) (DP_1 ∅) <u>以</u>有若似聖人,
(∅은 유약이 성인(공자)과 같다고 여겨,)

(9) 何<u>以</u>異於鄒敵楚哉？
(어찌 鄒나라가 楚나라를 대적함과 다르다고 여기겠습니까?)

(7)~(9)의 예는 '의동(CONSIDER)'을 나타내는 두 경동사 중 '以'만 명시적으로 쓰인 경우로, 'DP_1<u>+以</u>+DP_2+vP'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예 (7)의 수형도를 통해 'DP_1+以+DP_2+vP'의 도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三月無君則弔, 不以急乎？ 도출 수형도



위의 예에서 의동 명시적 경동사로서 '以'는 [CONSIDER]의 사건의미를 가지므로, 필수적으로 하위에 [BE]를 가지며, 의동 구조를 만든다. 따라서 이때 하위의 '-v[BE]'는 비명시적 경동사이므로, 하위핵의 이

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急'는 '-v[BE]'로 이동한다. '즉 '急-v[BE]'의 구조를 이루며, 자신의 지정어 위치의 '三月無君則弔'에게 인식 <대상자> 의미역을 할당한다. 한편, 상위의 핵인 명시적 경동사 '以[CONSIDER]'는 명시적 경동사이므로 하위 핵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핵이동은 끝난다. 이 경동사 '以'는 자신의 지정어 위치에 <인식자> 의미역을 할당하는데 위 문장에서는 DP_1논항은 대화의 상대자이므로 비명시적이다. 위의 예는 이렇게 도출된 경동사구에서 의동경동사 '以' 바로 아래 한정사구(DP_2), 즉 의동 인식 <대상자>를 문두로 이동시켜 화제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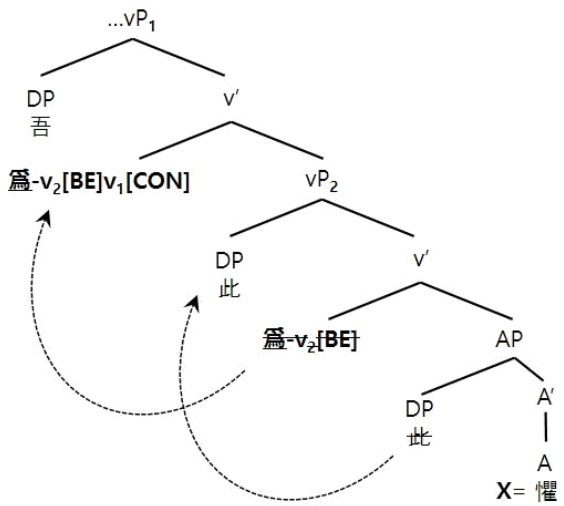
2.3. 'DP_1+爲+DP_2+vP' 구

이 경우는 의동을 나타내는 경동사 '爲'만이 명시적인 경우이다. 다음 예를 보자.

(11) 吾**爲**此懼
(내가 이것을 두렵다고 여겨,)
(12) 是尚**爲**能充其類也乎？
(이것은 또한 자신이 지키려는 것(부류)을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다고 여길 수 있겠소?)
(13) 卻之，卻之，**爲**不恭，何哉？
(예물을 돌려주는 것, 예물을 돌려주는 것이 공손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11)의 예는 '의동(CONSIDER)'을 나타내는 두 경동사 중 '爲'만 명시적으로 쓰인 경우로, 'DP_1+爲+DP_2'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예 (11)의 수형도를 통해 'DP_1+爲+DP_2+vP'의 도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吾爲此懼' 도출 수형도



위 수형도에서 경동사 爲[BE]는 명시적이므로 먼저 AP의 핵 성분 '懼'의 이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상위의 경동사 –v[CONSIDER]은 비명시적이어서 하위의 핵 '爲'의 이동을 요구한다. v'는 'DP'의 지정어 자리에 하위에서 형성된 DP '此'를 끌어당겨 인식 <대상자> 의미역을 할당한다. 그리고 하위 핵 '爲[BE]'는 핵이동을 통하여 [CONSIDER]의 자리로 올라간 후 자신의 지정어 자리에 있는 '吾'에게 인식 <대상자> 의미역을 할당한다. 이렇게 도출된 경동사구는 '내가(DP_1) 이것(DP_2)을 두렵다고 여겨'라는 의동의 해석을 낳는다.

2.4. ‘DP_1+以爲+DP_2’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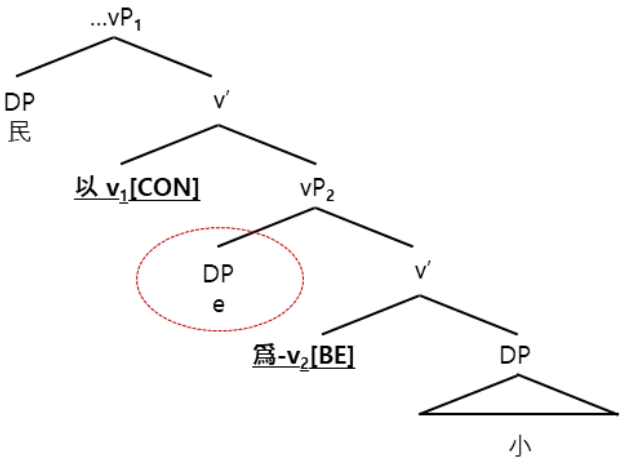
이 경우는 의동을 나타내는 두 경동사 ‘以’와 ‘爲’가 모여져 하나의 핵단어로 작동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어떤 기제에 의해 어떻게 병합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고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한다. 그 하나는 ‘以’와 ‘爲’가 모두 개별적인 경동사이고, 중간에 인식 <대상자>가 생략되어 도출되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以爲’가 하나의 동사 핵으로 작동한다는 가정이다. 우선 전자에 대해 생각해보자. 먼저 다음 예를 보자.

(13) 民**以爲**小
(백성들은 작은 것으로 여겨)
(14) 鄒人與楚人戰, 則王**以爲**孰勝?
(추인들이 초인들과 더불어 싸우면, 그러면 왕께서는 누가 이기리라 여기십니까?)
(15) 寡人之囿, 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
(과인이 동산은 사방 40리인데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여기는데 어째서입니까?)
(16) 王自**以爲**與周公孰仁且智?
(왕께서 스스로 주공과 더불어 누가 더 어질고 지혜롭다고 여기십니까?)

(13)~(16) 의 예는 ‘의동’을 나타내는 두 경동사 ‘以’와 ‘爲’가 합쳐져서 명시적으로 쓰인 경우로, ‘DP_1+以爲+DP_2’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예 (13)에 대한 다음 두 수형도를 통해 ‘DP_1+以爲+DP_2’의 도출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DP_1+以+∅+爲+DP_2’인 경우이다. 먼저 다음 수형도를 보자.

(17) a. ‘民以爲小’ 도출 수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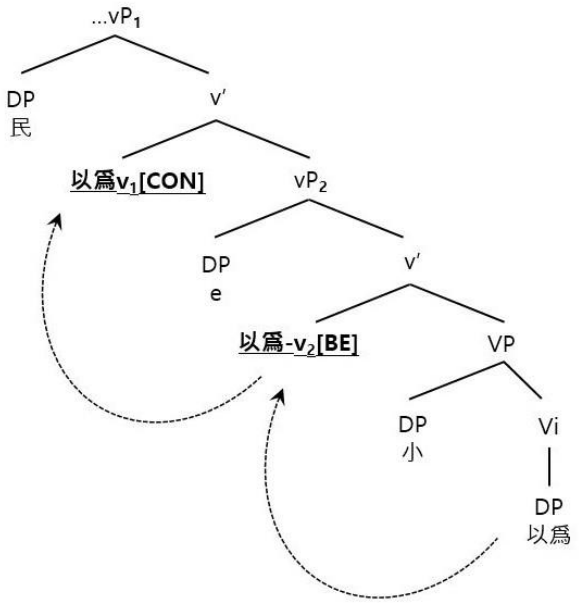


위의 수형도를 살펴보면, 경동사 爲[BE]는 명시적이어서 ‘小’의 핵이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관건적인 문제는 자신의 지정어 자리(vP2-spec)에 인식의 <대상자> 논항을 배열해야 하나, 생략되어 빈자리라는 사실이다. 이는 생략된 성분이 무엇이며 왜 생략되었는지, 또 어디로 이동하였는지 등에 대해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위 경동사 ‘以’도 명시적이므로 하위 핵의 이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지정어(Spec) 자리에는 <인식자> ‘民’을 배열하여 향후 주어로 삼을 수 있다. 이로써 ‘民以爲小’라는 구문을 도출하게 된다. 즉, 인식자인 ‘民이 (∅,이것을) 작은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DP_1+以爲+DP_2’인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以爲’가 본래 하나의 동사라고 상정한다. 다음 수형도를 보자.

(17) b. ‘民以爲小’ 도출 수형도



(17)b 수형도에서 동사 ‘以爲’는 어휘핵이 되고 그 지정어 자리에 ‘小’를 가진다. 수형도에서 보듯 ‘-v_1[BE]’와 -‘v_2[CON]’ 두 경동사 자리가 모두 비어 있으므로, 어휘핵 ‘以爲’는 ‘v_2[CON]’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동하고, 지정어 자리(vP_1-Spec)의 위치에 <인식자> 논항 ‘民’을 배열한다. 이로써 ‘民以爲小’라는 구문을 도출하게 된다.

이상 의동을 나타내는 ‘以爲’구에 대해 두 가지를 상정하여 생각해보았다. 첫째는 ‘以’와 ‘爲’를 모두 경동사로 보고 핵 이동을 하며 논항 배열을 한다. 그러나 vP_2-spec 자리의 <대상자> 논항이 생략되어 비어 있는 자리로 보고 vP를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以爲’를 하나의 동사 어휘핵으로 보고 경동사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상위 경동사 자리까지 이동한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적절한 가설인지는 학위논문에서 더 많은 검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3. 지정어와 보충어 논항 해석

3.1. ‘DP_1’

의동구문 속에서 ‘DP_1’의 의미역은 <인식자>이다. 이 ‘DP_1’은 구조 속에서 명시적일 수도 있고 비명시적일 수도 있다. 다음 예를 보자.

(18) **百姓**皆以王爲愛也。
(백성들은 모두 왕께서 아낀 것이라고 여깁니다.)
(19) **堯**以不得舜爲己憂。
(요는 순을 얻지 못함을 자기의 근심으로 여겼다.)
(20) **民**以爲將拯己於水火之中也,
(백성들은 장차 도탄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여기고)

(21) 人皆以爲賤，故從而征之。
(사람들이 모두 그를 천하게 여기고 고로 쫓아가 그에게 (세금을) 징수하였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DP$_1$'이 명사로써 의동구 내에 명시적인 경우이다.
아래 (22)~(23)은 DP$_1$이 비명시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그 주어를 찾을 수 있다.

(22) **(Pro)以**兄之祿爲不義之祿，而不食也； **(Pro)以**兄之室爲不義之室，而不居也
(형의 녹이 의롭지 못한 녹봉이라고 여겨 먹지 않고, 형의 집이 의롭지 못하다고 여겨 거기에 살지 않는다.)
(23) 工師得大木，則王喜，**(Pro)以**爲能勝其任也。
(工師가 큰 나무를 얻으면 왕께서 기뻐하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신다.)

예(22)~(23)의 주격의 영대명사 (Pro)자리는 비어 있지만, 주격을 받는 자리이다. (22)의 주어는 앞 절[4]에서 이미 제시되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앞 절의 문맥 상황을 고려할 때, (22)의 주어는 '仲子'이고, (23)의 주어는 '王'이다.

3.2. 'DP$_2$'

'DP$_2$' 의미역은 인식 <대상자>이다. 다음 예를 보자.

(24) 吾必以**仲子**爲巨擘焉。
(나는 반드시 중자를 최고로 여긴다.)
(25) 堯以**不得舜**爲己憂。
(요는 순을 얻지 못함을 자기의 근심으로 여겼다.)
(26) 以**友天下之善士**爲未足，又尚論古之人。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벗하는 것에 만족을 못 느껴 (여겨) 또 위로 옛사람을 찾아 논하게 된다.)
(27) 是尚爲**能充其類**也乎？
(이것은 또한 능히 그 부류로 잘 채워졌다고 여길 수 있겠는가?)
(28) 民以爲**將拯己於水火之中**也，簞食壺漿以迎王師;
(백성들은 장차 도탄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여기고 대바구니에 밥을 싸고 병에 장을 넣어 군사를 환영한 것이다.)

(24)-(28)의 인식 <대상자>는 '仲子(중자)', '不得舜(순을 얻지 못함)', '友天下之善士(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벗하는 것)', '能充其類(능히 그 부류로 잘 채워졌다)', '將拯己於水火之中(장차 도탄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것)'이다. 이처럼 'DP$_2$' 논항 자리에는 명사뿐만 아니라 비교적 긴 절의 형식도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3. 'DP$_3$'

'DP$_3$'는 유표적 의동구 중 'DP$_1$+以+DP$_2$+爲+DP$_3$' 구에만 출현한다. 이는 인식의 '결과'에 해당하는 논항이다. 이 논항은 명사구뿐만 아니라 두 개의 명사구, 혹은 전치사구나 절 형식으로도 나타난다. 각각의

4) 仲子, 齊之世家也. 兄戴, 蓋祿萬鍾. 以兄之祿爲不義之祿而不食也, 以兄之室爲不義之室而不居也.「滕文公章句下・10」

경우를 살펴보자.

(29) 以兄之祿爲**不義之祿**, 而不食也；以兄之室爲**不義之室**, 而不居也
(형의 녹이 의롭지 못한 녹봉이라고 여겨 먹지 않고, 형의 집이 의롭지 못하다고 여겨 거기에 살지 않는다.)
(30) 夫人豈以不勝爲**患**哉？
(무릇 사람이 어찌 이기지 못하는 것을 근심으로 여기겠는가?)
(31) 夫公明高以孝子之心爲**不若是恝**；
(저 공명고는 효자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며)
(32) 子以是爲**竊屨來**與？
(그대는 여기에 신발을 도둑질하러 왔다고 생각하는가? (여기는가?))

(29)는 명사구(不義之祿)가 DP_3로 충당된 경우이다. (30)은 명사(患)가, (31), (32)는 모두 절이 명사화(不若是恝, 竊屨來)되어 DP_3로 충당된 경우이다.

4. 결론

본고는 고대 중국어 '以'와 '爲'를 유표 의동을 나타내는 경동사로 보고, 생성문법적 관점에서 '以'와 '爲'가 포함된 구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의동구 vP(경동사구)도출 과정을 해석하여 사건의미의 역할, 그리고 DP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孟子』의동구의 예를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에서 의동구는 두 개의 기능범주의 핵 경동사 [CONSIDER]와 [BE]가 계층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난다. 고대 중국어에서 유표적으로 의동 사건의미를 나타내는 경동사는 '以'와 '爲'이다.

둘째, 두 개의 경동사 '以'와 '爲'가 (爲v[BE]) 以v[CONSIDER]) 명시적으로 출현할 경우, 爲v[BE]는 지정어 논항에게 <대상자(theme)> 의미역을 할당하고, 상위의 경동사 以v[CONSIDER])는 자신의 지정어 자리 논항에게 <인식자(cognizer)> 의미역을 할당한다.

셋째, '의동(CONSIDER)'을 나타내는 두 경동사 '以'와 '爲' 중 하나만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각각의 형식과 경동사구(vP)도출 과정이 다르다. '以'만 명시적으로 쓰인 경우, 'DP_1+以+DP_2+vP'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하위의 '-v[BE]'는 비명시적 경동사이므로, 하위핵의 이동을 요구하여 이동한다. 한편 '爲'만이 명시적인 경우, 'DP_1+爲+DP_2+vP'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하위의 '爲[BE]'가 명시적이므로 하위 핵성분의 이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위의 경동사 −v[CONSIDER] 자리가 비명시적이기 때문에 핵 '爲'의 이동을 요구한다.

넷째, 의동을 나타내는 두 경동사 '以'와 '爲'가 모여져 하나의 핵 단어로 작동('DP_1+以爲+DP_2')하는 경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① '以'와 '爲'를 모두 개별적인 경동사로 보고 중간에 인식 <대상자>가 생략되어 도출되는 구조라고 보는 것 ② '以爲'를 하나의 동사핵으로 보고 경동사 자리로 이동하여 도출되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학위논문에서 더 많은 검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종호, 한수진(2023),『공식으로 한문 텍스트 읽기』, 한티미디어.
김종호(2018),『중국어 최소주의 생성문법 13강』,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김종호(2011),『현대중국어 10문형 50구문』, 다락원.

남승호(2007),『한국어 술어의 사건구조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성백효(2010),『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이혜경(2004), 맹자『맹자』,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김리곤(1982), 「형태소(形態素) '이(以)'자(字)에 대한 고찰(考察)(1) - 「논어(論語)」「맹자(孟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0(1), 116-137.
박우수(2007), 「 I. A. 리처즈(Richards)의 맹자 해석과 번역」,『수사학』.
함영대(2019), 「『맹자』 번역의 몇 가지 문제제기 - 번역의 목적과 논리, 체재의 맥락에서」, 『고전번역연구』.
김종호(2020),「『맹자』 사동 사건의미 구의 생성과 도출 해석」,『중국학연구』 제100집.
吕冀平(1984),「现代汉语的意动句式」, 第十五届国际汉藏语言学会發表文.
冯胜利(2005),「轻动词移位与古今汉语的动宾关系」.
宋亞雲(2017),「古漢語輕動詞研究_以_發_生_爲例」,『历史语言学研究』.
苏婧, 冯胜利(2020),「上古汉语旁格述宾式的语法属性与分析」,『语言科学』.
刘忠华(2005),「古代汉语形容词使动用法与意动用法的区别问题」,『陕西理工学院学报』.
李生信(2005),「说意动式的“ 以… …为… …化”」,『固原师专学报』 第26卷第5期.
康宁(2016),「浅析使动用法与意动用法」,『沈阳师范大学学报』.
杜广慧(2019),「现代汉语中形容词意动用法研究」.
馮勝利, 蘇婧(2018),「上古漢語中的“爲”與輕動詞句法中的抽象輕動詞」,『历史语言学研究』.
刘婉(1996)「使动、意动用法辨析」,『古汉语研究』.
张亦堂, 蔡晓光(1998),「从古汉语中“以……为……”句看名词的使动用法和意动用法」,『滨州教育学院学报』.
张在云(1993),「谈古汉语中使动用法和意动用法的定义问题」,『逻辑与语言学习』.
徐世英(1986),「古汉语中的使动、意动说」,『天津师大学报』.
刘忠华(2004),「古代汉语中“为动用法”与使动、意动用法的区别」,『阴山学刊』.

중국어 보어 성어 구문의 구문화와 구문변화 연구*

김영인**

<目 次>

1. 서론
2. 보어 성어 구문의 구문화
3. 보어 성어 구문의 하위 구문
4. 보어 성어 구문의 관계적 연결
5. 결론

1. 서론

현대 중국어에서 성어는 오랜 기간의 언어 사용을 거쳐 정착된 역사성이 있는 어휘로, 의미적으로 완전하고 구조적으로 정형화된 특징이 있다. 성어는 형태와 의미에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더디어 '화석 언어'라고도 불리지만, 사실상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는 성어도 의미와 기능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1) 如果坐到硬座车厢，可以读个通宵，读个痛快，虽有拥挤之苦，但比起增长知识之甜，还是觉得不算什么，不亦乐乎?
(2) 有些人总觉得自己好得很，高明得很，而周围的一切都一塌糊涂。
(3) 虽然对医院总体经济增长有益，但非医疗目的用药增加，医生给病人看病对填写各种用药表格忙得不亦乐乎。
(4) 当时公司生产销售简直好得一塌糊涂。[1)]

위 예문 (1)과 (2)에서는 성어가 문장 내에서 독립된 구이거나 서술어 역할을 하며, 성어가 가진 고유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예문 (3)과 (4)에서 성어는 보어 역할을 하고, 성어 고유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Traugott・Trousdale(2013)에 따르면 구문(Construction)은 일종의 관습적 상징 단위이다. 즉, 본래의 의미를 지닌 어휘가 일정한 형식과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가 추가 또는 의미가 변화하거나, 품사 혹은 문장에서의 기능, 심지어 통사적인 변화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것이 관습화되어 나타나는 상징적 형태가 바로 구문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구문은 고빈도의 사용을 통해 관습화되어 정착하기도 하고, 어떠한 구문은 순간적으로 탄생했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Traugott・Trousdale은 언어 사용 과정 속에서 기존 구문의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적, 형태음운적 변화나 연어적(collocational) 제약이 생기는 것을 '구문변화(Constructional changes)', 그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의미의 쌍'이 확립되는 것은 '구문화(Construc tionalization)'라고 칭한다.

* 본 연구는 영남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중국어 성어와 서술어 결합 구문 연구: 구문 문법 및 구문화 이론에 기반하여』의 일부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사
1)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예문의 출처는 '北京语言大学' 말뭉치 BCC(http://bcc.blcu.edu.cn)이다.

구문화에 선행하여 구문화를 가능하게 하거나 구문화를 조장하는 '구문변화'는 대개 화용론적인 확장, 화용론의 의미화, 형식과 의미 사이의 불일치, 작은 분포상의 변화 등을 수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구문화 전 구문변화(PreCxzn CCs)'라고 칭해진다. 또한 구문화 이후에 구문화가 더 심화되는 구문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구문화 후 구문변화(Post Cxzn CCs)'라고 하고, 이는 대개 연어(collocations)의 확장, 즉 어휘적 결합 관계의 확장을 수반하게 된다. Traugott・Trousdale(2013)은 이러한 변화를 '배양(feed)'의 관계로 보고 구문화에 포함된 변호의 연속 단계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다.

PreCxzn CCs(구문화 전 구문변화)
↓↓
Cxzn(구문화)
↓↓
PostCxzn CCs(구문화 후 구문변화)

또한 점진적인 구문화는 미세 단계(micro step)에서 신분석(neoanalysis)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미세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난 미세 구문(micro constuction)은 허화적(procedural)인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보어 성어 구문에서 보이는 의미의 변화를 Traugott・Trousdale(2013)의 구문화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구문화 전 구문변화-구문화-구문화 후 구문변화의 배양 관계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보어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성어를 추출하고, 해당 성어가 보어로 사용된 예문 약 1만 개를 분석하여 그 점진적 구문변화와 구문화,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특수한 미세 구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아래는 빈도순 상위 20개 보어 성어와 그 출현 빈도이다.

〈표1〉 보어 성어 20개와 그 출현빈도

	성어	출현빈도		성어	출현빈도
1	一塌糊涂	2243	11	天昏地暗	386
2	一干二净	1866	12	遍体鳞伤	379
3	不可开交	1524	13	满城风雨	344
4	死去活来	1267	14	一文不值	316
5	水泄不通	1033	15	魂不附体	313
6	面目全非	729	16	粉身碎骨	312
7	头破血流	702	17	酩酊大醉	311
8	天翻地覆	481	18	七窍生烟	296
9	体无完肤	458	19	滚瓜烂熟	283
10	无以复加	441	20	走投无路	279

2. 보어 성어 구문의 구문화

전통적으로 중국어 어법 연구에서는 대부분 목적어의 유무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분류한다. 그러나 백은희(2020:438)에 따르면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 따른 타동성(Transitivity)의 정의는 행동주(agent) 주어가 동작을 통해서 피동주(patient) 목적어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Hopper・Thompson(1980:251)은 타동성에 대해 행동주로부터 피동주에게로 행동이 '수행(carried-over)'되거나 '전달(transfered)'되는, 문장 전체의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보았다. Kittilä(2002:38)는 전형적인 타동사건이 일반적으로 비대칭 관계의 두 참여자(participant), 즉 사건을 유발하는 참여자와 사건에 의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받는 참여자를 포함한다고 하였다.[2] Hopper・Thompson(1980:253)은 타동성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parame

ter) 중 하나로 목적어의 피영향성(affectedness of O)을 꼽았는데, 목적어 성분이 전적으로 영향을 입는 것(O totally affected)에 대해 타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3] 피동주가 동작의 영향을 받은 정도가 높을수록 타동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어가 가질 수 있는 목적어의 종류에 중점을 두었던 전통적 방식과 범언어적인 타동성 논의를 모두 참고하여, 강타동성, 중타동성, 약타동성, 무타동성으로의 연속 선상에서 보어 성어 구문 내 서술어의 타동성에 대해 고찰하고, 타동성 파악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2〉 서술어의 타동성 분류 기준

타동성 유형	의미역 결합
강타동성	행동주+피동주
중타동성	행동주+대상/장소/도구 등
약타동성	경험주+대상
무타동성	목적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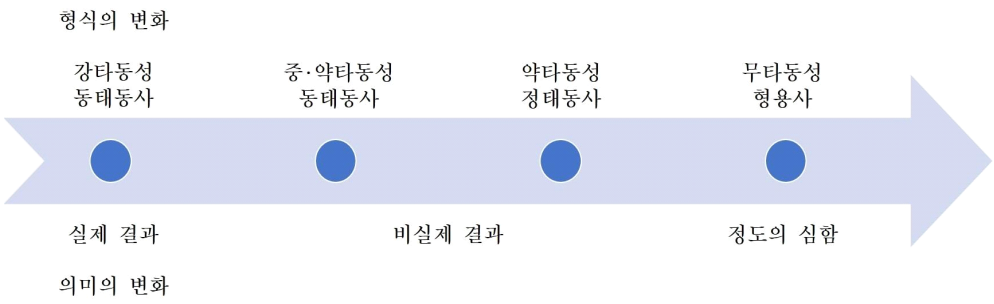
즉 서술어가 2항 동사일 때 필수 논항이 행동주와 피동주인 경우에는 강타동성으로, 2항 동사이나 필수 논항이 행동주와 피동주가 아닌 행동주와 대상, 장소, 도구 등 기타 논항인 경우에는 중타동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2항 동사이지만 필수 논항이 경험주와 대상인 경우에는 약타동성으로, 1항 동사인 경우에는 무타동성으로 분류하였다. 아래는 타동성에 따른 서술어 분류표이다.

〈표3〉 타동성에 따른 서술어 분류

	강타동성	중타동성	약타동성	무타동성
보어 성어 구문의 서술어	打 改 咬 搞 弄 喝 灌 吃 杀 烧 伤 碰 撞 忘	逼 骂 驳 贬 说 看 背 练 读 围 追 听	爱 气 激怒 感动 唬 震惊 吓 惊	哭 睡 痛 忙 挤 堵 快 消失 摔 跌 炸 闹 吵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어 성어 구문의 예문들을 고찰한 결과를 형식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1〉 보어 성어 구문의 형식과 의미의 변화 과정



보어 성어 구문은 서술어의 타동성이 약화 될수록 보어 성어가 나타내는 의미도 비실제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Traugott・Trousdale(2013)이 말한 구문의 허화적 경향과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여

2) 백은희,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타동성의 구현 방식>, ≪중국어문학지≫ 제72집, 2020. p.434, 재인용.

3) Hopper・Thompson,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Vol. 56, no.2, 1980, p.252-253. [백은희(2020), 위의 논문, p.435, 재인용.]

준다. 다만 보어 성어 구문의 허화적 경향은 통시적 개념의 점진성(gradualness)이 아니라 공시적 개념의 경사성(gradience)에 속한다. 즉 보어 성어 구문의 예문에서 보이는 현상들은 시간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동시대에 존재하는 문법적 변이 관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해당 관계는 내용적인 것에서 허화적인 것으로의 경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사성은 사실상 문법적 구문화의 특징 중 하나에 속한다.

이러한 공시적인 문법적 변이 관계는 무엇이 원형이고 무엇이 확장형인지 규정하기 어렵지만, 내용적인 것에서 허화적인 것으로의 변화 방향에 따라 내용적인 것을 원형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4] 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보어 성어 구문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심함'이라는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을 구문화와 구문변화의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원형 구문과 구문화 전 구문변화

우선적으로 보어 성어 구문의 원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Syn: Subji 把/将PPj Dynamic Verbk 得 idioml]
↕
[Sem: Agti Actionk CAUSE Patj BECOME realis Resultl]

이항동사인 동태동사가 사용되어 [행동주가 행위하여 피동주를 실제 결과에 이르게 만들다]라는 구문의 미를 갖는다. 해당 구문을 원형으로 보는 이유로는 가장 먼저 위에서 논의했듯이 내용적이라는 것을 꼽을 수 있고, 다음으로는 그 합성성(compositionality)을 꼽을 수 있다.

Traugott・Trousdale(2013:112)은 문법적 구문화를 설명하면서 도식성, 생산성의 증가와 함께 합성성의 감소를 그 특징으로 삼았는데, 즉 구문화가 이루어진 구문은 합성성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위의 원형 구문은 합성성이 상당히 높아 각 구성 성분의 의미가 구문 내에 그대로 나타난다. 위 원형 구문 도식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1) 这头公牛把一片翠绿的菜地毁得一塌糊涂。>公牛把菜地毁得+(菜地)一塌糊涂
(2) 我把苹果吃得一干二净。>我把苹果吃得 + (苹果)一干二净
(3) 两人把他打得头破血流。>两人把他打得 + (他)头破血流

위 예문의 동태동사 '毁'・'吃'・'打'는 행위를 겪는 피동주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타동성이 강하다. 이때 구문은 행위 사건(agt action)과 결과 사건(pat become realis result)이라는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고, 결과 사건 내의 성어는 피동주가 실제로 이르게 된 결과를 의미하게 된다.

아래의 예문은 비실제 결과가 나타나는 예문이다.

(4) 顾客把这个柜台围得水泄不通。>顾客把柜台围得+(柜台)水泄不通
(5) 他把我的努力说得一文不值。>他把我的努力说得+(我的努力)一文不值。
(6) 我就把食谱背得滚瓜烂熟。>我就把食谱背得+(食谱)滚瓜烂熟

위 예문의 동태동사 '围'・ '说'・ '背'는 원형 구문 내의 동태동사에 비해 타동성이 약하고, 성어는 구

4) 물론 탈문법화(degrammaticalization)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허화적인 것에서 내용적인 것으로의 변화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소수의 예가 존재할 뿐이므로 본 절의 논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문 내의 보어 위치에서 비실제 결과에 해당한다. 즉 실제로 피동주가 겪게 되는 결과가 되기 어렵다.

[Syn: $Subj_i$ 把/将PP_j Dynamic $Verb_k$ 得 $idiom_l$]
↕
[Sem: Agt_i $Action_k$ CAUSE Pat_j BECOME irrealis $Result_j$]

위의 도식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구문은 타동성의 약화가 형식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변화가 없고 의미의 변화만 발생한다. 형식과 의미 중 의미의 변화만 수반된 '구문변화'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문변화는 아래와 같이 '실제 결과'와 '비실제 결과' 사이에서 중의적인 예문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7) 他们把她逼得走投无路。>他们把她逼得+(她)走投无路

위와 같은 중의성은 사실상 동태동사가 강타동성과 약타동성의 연속 선상에서 가운데에 위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逼'라는 동사 자체적인 의미의 모호성(vagueness)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5] 즉 '逼'는 '신체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정신적으로 핍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적 차이가 곧 타동성의 차이로 나타난다. 해당 동사가 구문 내에서 타동성이 강한 '신체적으로 접근하여 미는 행위'로 작용하면 '走投无路'는 실제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실제 결과가 되고, 타동성이 약한 '정신적으로 핍박하는 행위'로 작용하면 '走投无路'는 비유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비실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맥에 대해 Traugott・Trousdale(2013)은 가교적 문맥(bridging contex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6] 가교적 문맥은 통사적 또는 의미적으로 중의적인 문맥을 의미하는데, 많은 문법화 연구자들이 문법화 이전의 발전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고, Traugott・Trousdale(2013)은 구문화 이전의 발전단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였다. 즉 가교적 문맥의 존재는 화용론적 추론에 의해 구문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맥이며, 위에서 제시된 중의적 문맥은 '실제 결과'에서 '비실제 결과'로 구문변화가 이루어지는 가교적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구문화와 구문화 후 구문변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보어 성어 구문은 행위 사건(Agt Action)과 결과 사건(Pat Become realis Result)이라는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Agt Action CAUSE Pat BECOME Result]라는 구문의미에서 암시되는 행위 사건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원인'이다. 즉 행위 사건은 결과 사건의 원인이 된다.

(8) 这头公牛把一片翠绿的菜地毁得一塌糊涂。>(因为)公牛把菜地毁得+(所以菜地)一塌糊涂
(9) 他们把她逼得走投无路。>(因为)他们把她逼得+(所以她)走投无路
(10) 顾客把这个柜台围得水泄不通。>(因为)顾客把柜台围得+(所以柜台)水泄不通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동태동사에서 정태동사로 서술어가 전환되는 형식적 변화와 함께 신분석이 발생

5) Traugott・Trousdale(2013)에 따르면 '모호성(애매성)'이란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 대한 하위적 의미가 혼합되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지칭한다. Tuggy(1993, 2007)에서는 'aunt'라는 단어가 '엄마의 누이'와 '아빠의 누이'를 지칭하는 모호성을 설명할 때 해당 용어를 사용하였다.

6) Heine(2002)은 'bridge contents', Diewald(2002)는 'critical content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는 Traugott・Trousdale(2013)의 용어를 사용한다. 해당 용어의 한국어 표현은 해당 저서의 한국어 역서인 박원기・강병규(2018)를 따른다.

한다. 사실상 동태동사에서 정태동사로의 형식적 변화의 중심에는 중의성을 가진 서술어가 사용된 가교적 문맥이 존재한다.

(11) 这破片子把我感动得一塌糊涂。>这破片子把我感动+感动得一塌糊涂
(因为)这破片子+(所以)我感动得一塌糊涂
(12) 这名字把他震惊得无以复加。> 这名字把他震惊+震惊得无以复加
(因为)这名字+(所以)他震惊得无以复加

위 예문의 '感动', '震惊'이라는 동사는 정태동사이며 이항동사로는 '감동시키다', '놀래키다'라는 의미와, 일항동사로는 '감동하다', '놀라다'의 의미가 공존한다. 이항동사로 사용되면 피동주의 존재로 인해 약한 타동성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해당 문장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영화는 나를 아주 크게 감동시켰다'와 '이 영화 때문에 나는 아주 크게 감동했다'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가교적 문맥으로도 볼 수 있고, 구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동태동사가 정태동사로 바뀌면서 형식적 전환이 이루어졌고 결과역이 정도역으로 바뀌면서 의미적 전환도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Syn: $Subj_i$ 让/使PP Obj_j $\underline{Static\ Verb_k}$ 得 $idiom_l$]
↕
[Sem: $\underline{Causer_i\ CAUSE\ Exp_j\ BECOME\ in\ State_k\ of\ Deepened\ Extent_l}$]

형식적으로는 동태동사가 정태동사로 전환되었고, 구문의미는 [원인역 때문에 경험주가 아주 심한 서술어 상태가 되다]로 전환되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내용적인 구문의 허화적 변화다. 구문화 이전에 보어 위치에서 성어는 구문 내의 결과역이라는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그 어휘적 의미는 허화를 겪지 않았다. 그러나 구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성어는 정도역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어휘적 의미가 허화되고 '정도의 심함'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되었다.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의미의 생성, 즉 구문화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문화 이전에는 구문 내의 모든 구성 성분의 의미가 구문 내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지만, 구문화 이후에는 보어 위치에서 성어의 의미가 허화되면서 합성성이 감소하였다. 이 또한 구문화의 특징 중 하나에 속한다. 또한 '정도의 심함'이라는 의미는 구문 내에서만 유효해지는 구문강요(Construction coercion)에 해당하기도 한다.

구문화된 구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중의성이 없는 정태동사와 형용사까지 다시 한번 확장된다. 서술어가 정태동사에서 형용사로 전환되는 형식적 전환이 발생하여 구문화 이후에 구문변화가 한번 더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13) 这段感情让我痛得一塌糊涂。> (因为)这段感情+(所以)我痛得一塌糊涂
(14) 这些事都让他忙得不可开交。> (因为)这些事+(所以)他忙得不可开交

[Syn: $Subj_i$ 让/使PP_j $\underline{Adj_k}$ 得 $idiom_l$]
↕
[Sem: $Causer_i$ CAUSE Exp_j BECOME in $State_k$ of Deepened $Extent_l$]

'정도의 심함'이라는 구문의미는 성어가 약타동성 동태동사와 결합했을 때는 중의적으로 나타나고, 정

태동사, 형용사와 결합했을 때는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정도의 심함’이라는 구문의미는 개별 성어가 갖는 구체적인 어휘 의미가 억제되어 허화를 보이면서 구문 내에서 발현이 된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일부 사전에서는 이들 성어의 하위 의미에 ‘정도의 심함’이라는 의미항목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고, 그 의미항목의 예시로 성어가 보어로 사용되는 예문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一塌糊涂: 表示程度之甚。(≪成语大词典≫: 1296)
天昏地暗: 形容程度很深, 非常厉害。(≪新华成语词典≫: 778)
天翻地覆: 形容非常激烈、厉害或程度深。(≪新华成语词典≫: 215)
不可开交: 含有过甚的意思。(≪成语大词典≫: 118)
无以复加: 形容达到极点。(≪成语大词典≫: 1147)

위와 같이 일부 사전에서는 ‘정도의 심함’이라는 의미를 개별 성어의 또 하나의 의미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개별 어휘의 의미 변화가 아니라 구문화를 통해 발생한 ‘구문의미’라는 것을 본 장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3. 보어 성어 구문의 하위 구문

1. 부분관계 구문

이 밖에도 원형 구문에 연결된 또 다른 하위 구문이 존재하는데, 바로 원인 사건이 없는 결과 구문이다. 해당 구문은 원인 사건이 존재하지 않고, 행위 사건과 결과 사건으로 분석된다.

(1) 我的茶园已经弄得一塌糊涂。> ∅弄我的茶园+(我的茶园)一塌糊涂。
(2) 名字被改得面目全非。> 名字被∅改+(名字)面目全非
(3) 碗里的食物已经吃得一干二净。> ∅吃碗里的食物+(碗里的食物)一干二净

[Syn: $\underline{\text{Subj}_i\ \text{Dynamic Verb}_j\ \text{得 idiom}_k}$]
↕
[Sem: $\underline{\text{Pat}_i\ \text{BECOME}_j\ \text{realis Result}_k}$]

해당 구문을 원형 구문에 연결된 하위 구문으로 보는 이유는 서술어가 동태동사이자 이항동사라는 점이 닮아있기 때문이다. 즉 원형 구문이 서술어의 논항인 행동주와 피동주가 모두 실현되는 구문이라면, 이 구문은 피동주만 실현되는 구문이다. 서술어 논항 중 피동주만 실현되었기 때문에 항상 행동주 논항은 암시되어 있다. 다만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해당 구문은 사실상 원형 구문과 철저하게 부분관계 연결(Subpart link)로 이어지게 된다. Traugott・Trousdale(2013)에 따르면, 부분관계 연결이란 ‘하나의 구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보다 큰 구문’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전자는 후자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원인 사건 없는 결과 사건이 별도로 구문을 형성하면서 이는 또 다른 구문으로 발전한다. 즉 동태동사이자 일항동사도 구문 내에 출현하게 된다. 동일하게 행위 사건과 결과 사건으로 분석된다.

(4) 其中一个青年人哭得死去活来。> 青年人哭+(青年人)死去活来
(5) 你在历史的长河中消失得一干二净。> 你消失+(你)一干二净
(6) 你会摔得粉身碎骨。> 你摔+(你)粉身碎骨

(7) 他几乎在情路上跌得粉身碎骨。> 他跌+(他)粉身碎骨

해당 구문은 타동성이 약한 동태동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상위 구문과 동일하고 의미적인 변화만 발생하는데, 바로 주어가 서술어의 피동주역에서 행동주역으로 전환되고 결과역도 실제 결과에서 비실제 결과로 전환된다. 이는 구문변화에 해당된다.

[Syn: $Subj_i$ Dynamic $Verb_j$ 得 $idiom_k$]
↕
[Sem: $\underline{Agt_i}$ $Action_j$ BECOME $\underline{irrealis\ Result_k}$]

사실상 이러한 비실제 결과 의미는 비유적 표현으로, '정도'의 의미를 함축하여 중의성을 가진다. 즉 [행동주가 행위한 것이 비실제 결과에 이를 정도이다]라는 의미가 암시된다. 이러한 의미는 '정도의 심함'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구문은 정태동사를 배치시키고 이 과정에서 또 신분석이 일어난다. 즉 행위 사건과 결과 사건이라는 두 사건으로 분석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사건으로 분석된다.

(8) 我感动得一塌糊涂。>我感动+感动得一塌糊涂
(9) 她感动得无以复加。>她感动+感动得无以复加
(10) 我们家曾闹得不可开交。>我们家闹+闹得不可开交

또한 이 통합 사건은 결과 사건이 아닌 상태 상황이며 보어 위치의 성어는 '정도의 심함'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형식과 의미에 모두 변화가 발생한 구문화에 해당한다.

[Syn: Subji Static Verbj 得 idiomk]
↕
[Sem: Expi BE Statej of Deepened Extentk]

구문은 정태동사에서 형용사로도 확장된다. 이러한 형식적 변화는 의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구문화 이후의 구문변화에 해당하게 된다.

(11) 此时的我幸福得一塌糊涂。
(12) 他实在是忙得不可开交。
(13) 速度真是快得无以复加。

[Syn: $Subj_i$ $\underline{Adj_j}$ 得 $idiom_k$]
↕
[Sem: Exp_i BE $State_j$ of Deepened $Extent_k$]

2. 특수 미세 구문

보어 성어 구문 중 일부 예시에서는 행동주 주어를 갖는 보어 성어 구문에서는 자동사가 위치하여 피동주 논항을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동주역이 출현하거나, 타동사의 필수 논항이 아닌 기타 논항이 구문의 피동주역을 부여받아 해당 논항을 결과에 이르게 만드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본 소절에서는 이들

성어가 사용된 예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현상에 대해 구문화 이론의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보어 성어 구문의 원형은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으로 구성되고, 강타동성 동태동사를 수반하며 보어 성어가 실제 결과가 되는 구문이다. 이때 구문에 의한 강요는 결과역에서만 발생하며 기타 다른 논항의 경우는 동사의 논항과 구문의 논항이 모두 일치한다.

(14) 我女儿把整个幼儿园哭得天昏地暗。
(15) 机器的轰鸣声把个小山村震得天翻地覆。

그러나 위의 예문은 동사의 논항과 구문의 논항이 불일치하는 경우로, '哭'와 '震'은 피동주역을 가질 수 없는 자동사인데도 불구하고 구문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整个幼儿园'과 '小山村'에 피동주역을 강요함으로써 각각 '天昏地暗'와 '天翻地覆'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해당 예문에서는 성어 내부의 NP 성분인 '天地'는 의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昏/暗', '翻/覆'의 의미만 나타난다. 이는 NP '天地'를 내부 성분으로 가지는 성어가 보어 성어 구문 내에 사용될 때만 발생하는 임시적인 현상이다.

Traugott・Trousdale(2013:16-17)에 따르면 미세 구문(micro construction)은 개인적 혁신(innovation)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construct)로, 실례(token)가 복사, 모사를 통해 임시적 범주화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의 실례는 보어 성어 구문 내의 특수한 미세 구문의 일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위와 같은 일부 자동사뿐만 아니라 타동사가 사용될 때도 나타난다.

(16) 他们把厨房和整个房子搞得天翻地覆。
(17) 班主任把我们班搞得天昏地暗。

'搞'는 타동사이지만 위 문장에서 '厨房和整个房子'와 '我们班'은 동사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목적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문 내에서 '厨房和整个房子'와 '我们班'는 행동주의 행위 사건에 영향을 받아 결과에 이르는 구문의 확실한 피동주역이 된다. 이때도 성어는 '뒤집어엎다', '암울해지다'라는 부분적 의미만 실현될 뿐 '天地'라는 성어 내부 NP의 의미는 실현되지 않는다.

Traugott・Trousdale(2013)에 따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수한 미세 구문은 생산성(Productivity)이 낮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실례를 생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것이 가지는 형식이 원인-결과 의미를 갖는 보어 성어 구문과 유사하다는 것으로 볼 때 원형 구문을 모방한 미세 구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text{Syn: } \text{Subj}_i \text{ 把/将PP}_j \text{ Dynamic Verb}_k \text{ 得 idiom}_l]$$
$$\updownarrow$$
$$[\text{Sem: } \text{Agt}_i \text{ Action}_k \text{ CAUSE Pat}(\underline{\text{Locative}})_j \text{ BECOME irrealis Result}_l]$$

즉 이들 미세 구문에만 사건의 발생 장소에 피동주역이 강요되고, 피동주가 반드시 '장소'여야만 보어 성어의 일부 의미인 '天地'를 대체하여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강타동성 서술어가 아닌 타동성이 낮은 서술어가 배치되거나, 혹은 강타동성 서술어를 배치하였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필수 논항이 아니라 처소역이 배치되어 구문은 비유적인 비실제 결과의 의미가 나타난다. 또한 이런 비실제 결과는 성어 자체가 가진 [+과장성]으로 인해 절대 일어

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 보어 성어 구문의 관계적 연결

보어 성어 구문 내의 구체적인 관계적 연결(Relational link)은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실제 결과 구문에서 비실제 결과 구문으로의 변화는 원형 구문이 확장되는 다의성 연결(Polysemy link)로 볼 수 있다. 다의성 연결은 한 구문의 원형적인 의미와 그것의 확장 간의 의미적 연결을 묘사하는데, 통사적인 형식은 동일한 반면 그 의미적인 면이 다른 구문 간의 연결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실제 결과 구문과 비실제 결과 구문은 서술어의 타동성 약화라는 서술어의 의미 변화와 실제-비실제라는 결과 의미의 변화는 존재했지만 그 통사적인 형식에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다의성 연결로 판단할 수 있다.

비실제 결과 구문에서 정도의 심함 구문으로의 변화는 은유적 확장 연결(Metaphorical extension link)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동태동사가 사용되는 구문에서 나타나는 원인 사건으로 인한 결과 사건의 발생은 정태동사와 형용사가 사용되는 구문에서 나타나는 원인에 의한 상태 변화 정도의 심화로 은유적 사상을 수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형 구문의 원인 사건이 제외되면서 피동주의 결과 상태만 나타나는 구문은 부분관계 연결(Subpart link)로 설명될 수 있다. 원인 사건이 없는 구문은 원인-결과가 모두 나타나는 구문의 하위부분(proper subpart)이 되는 것이다.

‘天地’를 내부 성분으로 갖는 성어가 보어 성어 구문에 출현하게 되면 처소역 논항이 구문 내에 함께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세 구문에서만 나타나는 처소역의 피동주역 강요 현상은 예시 연결(Instance link)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의 특수 구문이 다른 구문의 특수 사례(special case)가 될 때 나타나는 연결로, 생산성이 낮은 미세 구문인 ‘天地 성어’와 처소역 결합 구문이 보어 성어 구문의 특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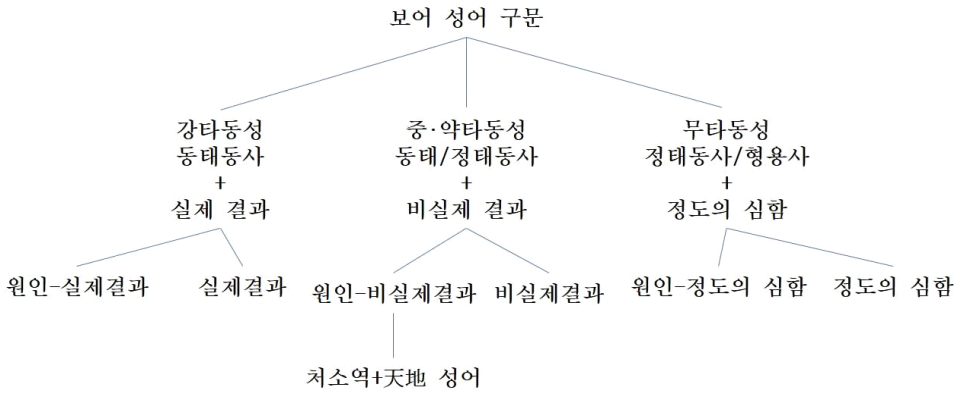
5. 결론

보어 성어 구문은 형식적으로 강타동성 동태동사에서 약타동성 동태동사와 정태동사, 무타동성 정태동사와 형용사로 전환되면서, 의미적으로도 ‘실제 결과’의 의미로 나타나는 성어가 그 내용적 의미의 감소(Bleaching)와 함께 ‘정도의 심함’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형성된다. 이러한 보어 성어 구문의 구문화는 공시적 개념의 경사성을 가지는 문법적 변이 관계이다.

구문은 [[Syn: Subji 把 Objj Dynamic Verbk 得 idioml]↔[Sem: Agti Actionk CAUSE Patj BECOME realis Resultl]]를 원형으로 하여, 타동성의 약화와 함께 [[Syn: Subji 把 Objj Dynamic Verbk 得 idioml]↔[Sem: Agti Actionk CAUSE Patj BECOME irrealis Resultl]]로의 구문변화가 나타난다. 이들 구문 사이에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가교적 문맥이 존재한다. 그 후 형식적으로 동태동사가 정태동사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여 [[Syn: Subji 把/让 Objj Static Verbk 得 idioml]↔[Sem: Causeri CAUSE Expj BECOME in Statek of Deepened Extentl]]로의 구문화가 발생한다. 구문화 이후에는 정태동사가 형용사로 전환되는 형식적 변화가 발생하여 [[Syn: Subji 把/让 Objj Adjk 得 idioml]↔[Sem: Causeri CAUSE Expj BECOME in Statek of Deepened Extentl]]로의 구문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들 간에는 공시적 개념의 경사성(gradience)을 보이는 문법적 변이 관계가 있고 구문은 관계적 연결(Relational link)을 통해 구문변화와 구문화의 과정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결과 구문에서

비실제 결과 구문으로의 변화는 원형 구문이 확장되는 다의성 연결(Polysemy link), 비실제 결과 구문에서 정도의 심함 구문으로의 구문화는 은유적 확장 연결(Metaphorical extension link)로 볼 수 있었고, 피동주의 결과 상태만 나타나는 구문은 부분관계 연결(Subpart link), '天地'를 내부 성분으로 갖는 보어 성어 구문의 특수 미세 구문은 예시 연결(Instance link)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보어 성어 구문의 관계는 아래의 계층적 관계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2〉 보어 성어 구문의 계층적 관계

본 연구에서는 구문의 구성 성분, 구문의 통사, 의미, 화용적 분석을 공시적인 각도에서 진행하였다. 그러나 구문화 이론이 통시적인 측면에서 구문의 발전 관계 연구에 긍정적 측면이 있고 통시적 연구를 통해서 그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이와 관련된 통시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韩国汉语学习者习得“再”的偏误分析

위엔리* · 왕위에신**

<目　录>

1. 绪论
2. HSK动态作文语料库中“再”的偏误分析
3. 偏误原因试分析
4. 总结

1. 绪 论

1.1 引言

副词作为一个重要的词类，因虚化的语义和多样的用法，一直是研究者关注的焦点。副词“再”在≪现代汉语频率词典≫中的词次[1]为1486，使用度[2]为1235，其较高的使用频率和较广的分布范围使“再”成为研究的重点。但是，目前学界对“再”副词小类的划分尚无定论，对“再”义项的划分以及语法化路径的看法也是各执一辞，莫衷一是。语言的应用基于本体的研究成果，对“再”本体的研究尚缺乏定论，对“再”二语教学的一些问题也需要进一步深入探讨。目前学界针对“再”的研究多集中于与其他重复义副词，如“又”、“还”等词语的对比(马真1999，陈立民・张燕密2008，毛婧雅2011，金立鑫・崔圭钵2018)，对偏误原因的分析也存在定式化的倾向，大多从母语迁移、目的语负迁移、文化因素干扰、学习策略和交际策略、教师教材等几个方面进行直接归因(金宣教2012，沈夏娜2012，廖晖2020)，从语言内部词语的具体义项出发探讨偏误产生原因的研究还有可探索的空间。因此本论文在科德(Corder)的偏误理论、赛林格(Selinker)的中介语理论和克拉申(Krashen)的二语习得理论的指导下，在前人对“再”研究的基础上，以韩国学生为例，对他们习得“再”的偏误进行标准数学范畴和语义义项分布双重统计分析，根据“再”的偏误类型和偏误语义分布情况对偏误产生的原因从语音、句法结构、语义特征、语用条件以及语言对比的角度尝试分析，以期对韩国学习者习得“再”和教师对“再”的教学有所助益。

本文选用的例句前标有星号标记的为HSK动态作文语料库2.0搜集的偏误例句，为凸显“再”的偏误，句子其他偏误本文不具体显示。例句后标注出处的均来自北京语言大学BCC语料库的“文学”和“报刊”两个子选项，部分未标注出处的为自省例句。

1.2 “再”的语义分类

许慎在≪说文解字≫中将“再”解释为“一举而二也”。≪说文解字注≫中将其解释为“一而又有加也。”≪古代汉语常用词词典≫将“再”的语义解释为“两次、第二次”，可见在上古汉语中“再”主要作为数量词，用来表达数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1) 指在所统计语料内出现的次数

2) 是综合词次、类、篇三方面因素，按一定的公式计算得出的压缩了的词次。从这个数指可以看出该词在语料中的使用程度和散布情况。使用度与词次越接近，则该词的次数分布得越均匀，说明该词使用面更广，否则反是。(引自≪现代汉语频率词典≫)

量含义。自黎锦熙(1924)将“再”归为数量副词以来，汉语学界对“再”的词类归属、语义分类、演变路径等问题展开了争鸣，让我们对“再”的特征有了整体的把握。

各学者对“再”的副词小类划分和义项分类如下表所示：

学者和著作	词性	意义及分类
王力 ≪中国现代语法≫	时间副词	表示重复，纯粹地陈说事情，不带感情色彩
丁树声 ≪现代汉语语法讲义≫	未定小类	本义：两次或第二次 1.分层次表示连续，例如：一则……再则 2.表示行为的重复或继续 3.表示假设 4.表示然后，多半和先……、等……相呼应 5.用在形容词前，表示程度，表示“比……更……”或“无论怎样”的意思 6.表另外 7.组成固定格式“再不……”“不再……”“再不……了”
北大中文系 ≪现代汉语虚词例释≫	时间副词 也可表示 程度或范围	1.表示同一动作、行为的重复或继续。动作行为未实现，有的是将要发生的，有的是假想的 2.表示一件事在另一件事之后发生，相当于“然后” 3.修饰形容词，表示程度高，相当于“更” 4.“再+(形容词)+也……”相当于“无论多么……也……” 5.表示范围的扩大，即在已指明的范围之外，更有所增益。 6.放在数量词之前，相当于另、另外 7.固定格式：再说、再则、再次、再度、再三
刘月华等 ≪实用现代汉语语法≫	重复、频率副词	1.表示同一动作的重复或继续，用于未然的情况 2.表示动作行为后延的意思，即表示某一动作现在还不想或不计划进行，往往是等到做完另一件事以后进行，常与“先”“等”一起用，有时还与“然后”连用 3.表示程度加深，范围扩大 4.与否定词连用：“再也不”、“不再”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未定小类	1.表示一个动作(或一种状态)重复或持续。多指未实现的或经常性的动作 2.表示一个动作将要在某一情况、某一时间或另一动作结束后出现 3.用在形容词前，表示程度增加 4.再和否定词合用 5.另外、又

表1. “再”副词小类归属、义项分类

除了对“再”的副词小类归属、义项分类之外，对“再”的语义演变过程各学者的认识也各有见地。有关演变路径的观点具体情况总结如下所示：

学者	基本义	演变路径
王力(1989)	两次	两次——第二次——又一次
高思欣、高思艳(2007)	添加	同类添加——异类添加——动作相继——时间推延
李秉震(2009)	两次、第二次	两次、第二次——延续义——程度变化——让步义 两次、第二次 ——承接义——主观推测义
乐耀(2015)	两次、第二次	两次、第二次——重复义——延续义——补充、添加义——次序、承接义——并列连接
殷树林、李依轩(2021)	重复	重复——承接——延续——程度变化——补充添加

表2. “再”语义演变路径

基于以上学者的对“再”副词小类归属、义项划分、演变路径的研究，结合“再”在上古时期数量词的用法，本论文将“再”的语义分为：重复义、承接义、持续义、添加义以及程度变化义。

上古汉语中“再”两次、第二次的动量语义，使得“再”经常直接出现在动词或动词结构之前，表达动作的第二次进行。若第二次进行的动作与第一次性质相同，则是现代汉语中的“重复义”，例如：

(1) 近1个月，该县已有15宗闲置公有土地得到了再利用。(人民日报海外版2004年07月12日)

例(1)中的“再”表示公有土地重复利用。

若第二次发生的动作与第一次性质不同，则表现出两个事件发生的时间先后顺序，即“承接义”，例如：

(2) 遇事先交给大家讨论后，再作定案。(人民日报1964年04月03日)
(3) 今晚先回家去，明天再乘早班车回矿。(人民日报1969年08月15日)

从上面的例(2)和例(3)我们可以看出“再”前的“交给大家讨论”、“回家”和“再”后的“作定案”、“回矿”是两个不同性质的动作，这时“再”表达的是两个事件的先后顺序，第一个事件完成，第二个事件接着进行。同时我们也可以发现，在这一类“再”中还包含有“推迟”的语义，即第二个事件在一定的条件满足后进行。本论文将这一语义也归于“承接义”例如：

(4) 他计划明年再上太行。(人民日报1993年06月10日)

上例中虽然没有出现显性的第一个事件，但是从“再”可以预设出“今年先做其他事”“今年不上太行”等第一个事件，而“上太行”这一事件推延到明年进行。

如果同质的事件一直不断地重复，在人类的认知上便呈现出了持续态，因此“再”也蕴含“持续义”，例如：

(5) 再哭就不理你。(高行健≪灵山≫)

例(5)表示“哭”这一动作的持续，可以理解为“哭下去”。

不断的重复在人的认知中便形成了量的添加，即“再”所表现出的“添加义”，与“另、另外”的意思相近，例如：

(6) 第三条山沟里也有两个单位，一个是监听局，再一个是701机关。(麦家≪暗算≫)
(7) 我的园子除了拐子四哥夫妇，再就是从周围村子里找来的帮工。(张炜≪你在高原≫)

从例(6)和例(7)中我们可以看出“再”所表现出的补充添加之义。

“再”除了用在动词和动词短语之前还可以用在形容词前，表现出“再”的“程度变化义”，有时还可以表现出“程度一直增加”的假设义。例如：

(8) 再早一点。(余秋雨≪千年一叹≫)
(9) 再冷我也受得了。(张洁≪沉重的翅膀≫)

例(8)的意思是“早”的程度更高一些；例(9)假设“冷”的程度一直加深，达到极值，结果也不会改变。这两个语义都用于形容词前表示程度的变化，用法上有一定的相似性，因此本论文将其归于“程度变化义”一类进行下行研究。

2. HSK动态作文语料库中“再”的偏误分析

作文作为一种自然语料，不像口语可以借助实时语境以及身体语言辅助理解语义，是语言学习者经过充分思考并在语言规则的监控下构建的自然语言，能够较全面地反映学习者的语言水平(刘询　　2000)。因此本文将“HSK动态作文语料库2.0”[3]作为语料的来源，主要考察了韩国汉语学习者习得“再”的偏误情况。本文通过语料库系统“字符串一般检索”检索主题字“再”，并在考生国籍选项选择“韩国”，共收集语料625例，其中“再”使用正确的语料509例，存在偏误的语料共116例。从搜集的语料来看，“再”的偏误多为显性偏误，即明显带有结构形式错误的偏误，且在“再”的各个语义分类上呈现一定的规律性。本论文从标准数学范畴[4]入手，对“再”的偏误类型进行了分类，其次根据上一章对“再”的义项划分，对“再”偏误的语义类型分布进行了统计，情况如下：

“再”偏误类型及语义类型分布状况(单位：例)							
	承接义	重复义	添加义	持续义	程度变化	其他	总计
误代	24	18	18	6	1	7	74
遗漏	20	2	3	3	1	0	29
错位	1	4	0	2	0	0	7
误加	1	2	3	0	0	0	6
总计	46	26	24	11	2	7	116

表3. “再”偏误类型分布

2.1 误代

“再”的偏误主要集中在误代，占偏误总数的63.8%。偏误在“再”的语义义项分布上从高到低依次为：承接义、重复义、添加义、持续义、程度变化义。其中，与同音字“在”的误代出现频率最高，占误代偏误总数的51.4%，偏误散见于“再”的各个义项上。其次是“又”，偏误主要集中在“重复义”。接着是“才”，误代偏误主要集中在“再”的承接义。最后是与“还”、“更”的误代，主要集中在“再”的“添加义”。由于与“要”、“就”、“而”、“会”的相互误代偏误数量较少，需要补充资料，另作讨论，因此这里只描写与前四个词语的误代情况。

2.1.1 承接义

在这一语义中，“再”主要出现了与“在”、“才”的误代，例如：

(10) *我们必须通过所有手段来确保每一个人都不会挨饿，然后在(再)考虑绿色食品。
(11) *我们先要满足最基本的生理需求,然后再(才)能去面对更高层次的问题。

例(10)本该用“再”表示“考虑绿色食品”“确保每一个人都不会挨饿”这两个事件的先后承接关系，却误代为“在”；例(11)表示“面对更高层次的问题”是要在“满足基本生理需求”的前提条件下，才能实现。应该用“表示只有在某种条件下，或由于某种原因、目的，然后怎么样[5]”义的“才”，而用了仅表示承接的“再”，无法满足整个语义的要求。

3) “HSK动态作文语料库2.0”是母语非汉语的外国人参加HSK高等水平考试的作文答卷语料库，收集了1992-2005年的部分外国考生的作文答卷。

4) 周小兵(2007)认为：“标准数学范畴分类法主要拿偏误形式跟正确形式进行对比，概括出二者的区别。一般分为五类：误加、遗漏、错位、误代、杂糅。”

5) 吕叔湘(1999)≪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精装)≫145

2.1.2 重复义

在“重复义”中，“再”主要出现了与同音词“在”的误代，和近义词“又”的误代。

与“在”的误代，例如：

(12) *下一次，在(再)给你们写信。

例(12)本来应该用表示“给你们写信”这一表在将来重复动作的“再”，但却错误使用了同音字表示动作正在进行的“在”。

与“又”的误代，例如：

(13) *最后一次，又(再)相信我吧。

例(13)句子本意是“相信”这一未然动作在将来的重复进行，却使用了“又”这一表示已然动作重复的词语，造成偏误的产生。

2.1.3 添加义

表示添加义的“再”偏误出现了与同音字“在”，近义词“更”、“还”的相互误代。例如：

(14) *没有一个人愿意死，听说到死的时候所有的人希望在(再)一次生活下去。
(15) *还有，这不是只有我的问题，再(更)涉及到人类的健康问题。
(16) *爸爸，还(再)替我问候哥哥。

例(14)-(16)是添加义的“再”与“在”、“更”、”还“的误代，例(14)表示“生活”的机会多一次，理应用“再”；例(15)本该用有递进意味的“更”却用成了“再”；例(16)本想表示“问候哥哥”这一行为动作在句中未出现的隐性动作，可能是“问候妈妈”、“问候奶奶”等事件的基础上的添加，却使用了“还”。

2.1.4 持续义

持续义的“再”只出现了与同音字“在”的误代，例如：

(17) *我想将来的人类可以不在(再)挨饿，并且能吃上“绿色食品”。

例(17)表示“挨饿”这一动作一直持续的状态，应该使用表示持续义的“再”，但却使用了表示正在进行义的“在”。

2.1.5 程度变化

这一义项的“再”也只出现了一例与“在”的误用，如下：

(18) *我母亲曾经跟我说过：“不是绿色食品的在(再)洗也洗不掉农药，所以对我们的身体没有好处。”

例(18)想要表达“洗”这个动作无论重复多少次，农药还是不会掉，在这里可以理解为程度变化后，结果仍然不会改变，应该用表示程度变化的“再”，却使用了“在”。

2.1.6 其他

“再”还出现了其他情况，这一情况主要是与“在”的误用，本论文将其归纳为对“在”的语义的理解上。例如：

(19) *我现在再(在)中国非常想念你们。
(20) *很多国家和记忆人民再(在)挨饿之中。

类似例(19)、(20)的偏误，本文都归为了对“在”表示“人或事物存在的处所、位置”，或“引申的处于时间、状态的某个节点”这样的语义理解上，总共有7例。

以上是“再”的误代情况，是“再”出现频率最高的偏误类型，主要分布在承接义与“在”、“才”，重复义与“在”、“又”，添加义与“在”、“更”、“还”；以及持续义和程度变化义与“在”的误代；还包括7例对“在”的语义理解上的偏误。

2.2 遗漏

“再”的第二大偏误则为遗漏，占总偏误数的25%，主要分布在“再”的承接义上，占遗漏偏误总数的68.9%，其次为添加义、持续义，接下来是重复义，最后还出现了1例程度变化义的偏误，我们分别来看例句。

2.2.1 承接义

“再”在承接义上的遗漏偏误最多，如：

(21) *我认为应该先解决贫穷国家的饥饿问题，然后(再)追求“绿色食品”。
(22) *反过来子女也先想一想父母的立场以后，(再)主张自己的意见的话，这代购是不值得成为问题。
(23) *先考虑三次然后(再)去做吧，这样就不会吵架，也不会出现社会问题。

例(21)表示“追求‘绿色食品’”这一行为动作，要发生在“解决贫穷国家的饥饿问题”之后，例(22)表示子女“主张自己的意见”应该发生在“想父母的立场“这一行为动作之后，而(23)则是“做”在“考虑”之后，这三个例子都是用来说明两个动作的先后顺序，仅用线性分布的前后未能表现出充足的先后承接关系，应该使用“再”，明确表明两个动作的先后顺序，但上述例句中都未出现“再”，造成了语义的缺失。通过语料的统计我们还发现，在学习者出现遗漏偏误的全部句子的前一部分都出现了“首先” “先”等表示顺序的词，或者临近“再”的地方有“然后”、“以后”等词语。

2.2.2 添加义

“再”的添加义，可以表示性质不同的两个事件内在逻辑的补充和添加，也可以表示时间上的添加，也出现了遗漏偏误。如：

(24) *我(再)过两个月就可以回到你们的身边了，到那时候你们还是要注意着你们的身体，别担心我。
(25) *可是(再)加一个的时候，三个人只顾自己安逸，把应该做的事相互推脱，不干了，终于没水喝。

例(24)表示在过去到现在这么长时间的基础上还有两个月，应该用“再”来表达添加的语义；例(25)表示和尚人数在之前的基础上的增加，也需要用“再”，而在这里都未使用，造成了遗漏。

2.2.3 持续义

“再”在持续义上也出现了遗漏的现象，如下：

(26) *原来的和尚很高兴，还有一个人，他不是孤单的，而且不(再)是每天到山底自己一个人挑水喝。
(27) *拼命地完成自己的任务已经不(再)是某些现代人--大部分是年青人--的主要想法。

例(26)用“再”可以表示之前这位和尚“每天一个人到山底挑水喝”，而现在这一情况不继续进行；例(27)则是说明“拼命的完成任务”之前是年轻人的主要想法，而现在不是了，这一现象不再继续存在，用“再”表示“拼命的完成任务”这一想法从过去到现在的一直是年轻人的主要想法，但是以后不继续。

2.2.4 重复义

重复义的“再”遗漏偏误举例如下：

(28) *我入中学的时候，我父亲说：“你已经长大了，你成了一个大人，所以今后，我不想(再)打你。”我很高兴。
(29) *所以决定不(再)写信给父母。

例(28)表达“打”这一动作在将来的重复，例(29)表示“写信”这一动作行为在将来的重复，理应用“再”来表达重复之意，却没有使用，造成遗漏。

2.2.5 程度变化

这一语义的“再”也出现了1例偏误，如下：

(30) *从此以后，那个壶里的水(再)喝也不干了。

例(30)应该是“再……也不……了”格式，而在这一格式中“再”可以表示动作一直重复，一直添加，程度一直加深直到极值，而后边的结果不会改变，理应用“再”，在这里却缺失没用。

以上为“再”的遗漏偏误，下面我们来看错位。

2.3 错位

错位相较于“误代”和“遗漏”来说，出现频率较低，仅占偏误总数的6.0%，在结构形式上包括与能愿动词、介词结构、否定副词以及动词的错位，在语义上重复义出现错位最多，其次是持续义，最后是承接义。例如：

(31) *不知何时再能看见他的健步如飞的样子啊！
(32) *我不会再烦你们像小孩子似的。
(33) *最好的方法是戒烟，戒烟对你有好处，也可以再不影响别人。
(34) *我们再下面看，自然之声给人们带来一些什么样的好处：第一，给人们精神上的安定。

例(31)为能愿动词“能”和“再”的错位，一般情况下，“再”用在能愿动词之后，而此例中则位置错误造成偏误，这一例句为“再”的重复义偏误，表示“看见它的健步如飞的样子”这一事件在某一时刻的重复发生。例(32)“像小孩子似的”这一介词结构应该放在“再烦你们”之前，这里的“再”表示“烦你们”的动作行为重复出现，为重复

义。再来看例(33)，实际上“再”和“不”有两种不同的语序，表达不同的语义，“不再”既可以表示客观上对重复或持续的否定，也可以表示主观上的否定；“再不”则通常指主观上否定行为或情状的重复或持续，语意坚决，有“绝对不再”或“永远不再”的意思。例(33)在陈述“戒烟”这一行为的好处，为客观行为，因此应该用“不再”而不该用“再不”。例(33)表示“影响别人”这一行为动作从现在开始不继续进行，应该归于“再”的持续义。最后例(34)从语义距离上，“再”和动作“看”的距离应该比“下面”的更近，因此“再”应该紧挨着“看”，从后文的“自然之声给人们带来一些什么样的好处”可以看出，前文应该先一起看了“自然之声”的其他方面，这里继续看“自然之声”的好处，所以这里将其归入“再”的承接义。

以上则是错位的具体情况，接下来再看“再”的最后一个偏误类型。

2.4 误加

误加是不应该用某一词语或结构的地方却使用了这一词语或结构，造成了偏误。“再”也出现了这一类型的偏误，但是偏误率较低，仅为5.2%。出现的偏误在“再”的语义上分布上有“添加义”、“重复义”、“承接义”。我们分别来看。

(35) *绿色食品与饥饿的问题，换句话再说，这就是拥有健康和拥有生命的选择问题。
(36) *有的人看了老人的错误，批评他们，但是过了以后才明白，我们也是再犯了一样的错误。
(37) *应该在解决基本问题以后，才再重视吃的品质。

例(35)“换句话说”无需加“再”表达内在的补充和添加，表示“再一次说明“的意思，“换句话说”已经具有这一语义，因此在这里造成了语义重复。例(36)中，“也”已经表明了“犯了一样的错误”这一行为动作，同样是发生在我们身上的事件，无需用“再”来表示重复，在这里将其归于“重复义”的偏误。例(37)这一句中的“才”用于后一小句，表示只有在某种条件下，或由于某种原因、目的，然后怎么样。“解决基本问题”为前提条件，这一条件满足之后，“重视吃的品质”这一事件才会发生，本身句意已经很充分，无需用“再”表示承接的关系，因此将其归入“承接义”的偏误中。

由以上对韩国学习者“再”习得偏误类型的分类发现，“再”的偏误分为误代、遗漏、错位、误加四种类型，误代偏误中承接义偏误率最高，主要与“在、才”发生了误用偏误，其次是“重复义”与“在、又”的互代偏误，接着是“添加义”上与“在、更、还”三个词语的偏误，最后是“持续义”和“程度变化”这两个义项，只与“在”发生了偏误。在遗漏这一类型的偏误中，偏误出现频率语义义项依次为“承接义”、“添加义”、“持续义”、“重复义”、“程度变化”；错位偏误和误加偏误的偏误频率较低，错位偏误主要出现的偏误义项为“重复义”“持续义”和承接义；误加的主要偏误语义微“添加义”“重复义”“承接义”；这两类偏误在剩下的其他两个义项上均无偏误出现。

3. 偏误原因试分析

Ellis(1994)对偏误的来源有这样的认识，　他认为大量的偏误是语内偏误而不是语际偏误。刘询(2000)认为语内偏误是学习者由于对目的语规则掌握不全面或因为过度泛化而造成的偏误，而语际偏误则是受到母语干扰而产生的偏误。当然偏误的产生原因纷繁复杂，可能是多种因素在起作用。由于“再”多样的句法形式、多重的语义和多种语用特点，本论文认为韩国留学生在“再”的使用过程中所产生的偏误主要由对“再”的掌握不全面造成的，也就是语内偏误，而少部分是受到母语影响而造成的语际偏误。

3.1 误代原因分析

3.1.1 与“在”误代的原因

首先，从语言内部来看，汉字是表意文字，对采用表音文字国家的学生来说，汉字是汉语学习路上比较大的“绊脚石”，尤其是同音异形多义词。“在”与“再”便是其中一组。这种偏误产生的原因首先且多数考虑“字音干扰”。陈宝国、宁爱华(2005)的同音效应实验发现，语言的形、音、义加工存在着交互作用，当汉语学习者在听到语音，提取汉字时，认知中会出现其同一语音范畴中的很多字，也就是同音字，学习者一般会优先提取其认知过程中的高频字，因此产生同音效应，造成偏误。“在”在≪现代汉语频率词典≫中的词次总数为16921次，而“再”的词次为1486次，足以看出“在”在现代汉语中的使用程度远远高于“再”，“字音干扰”不仅使同音字的判断时长长于单音词，也是造成同音字误代偏误的一个重要的原因。

另外，句法功能的相似性也可能成为造成误代偏误的原因之一。第二语言学习者学习语法不同于母语学习者，李泉(2018)曾表示：“对外语学习者来说，语法存在于语言事实当中，语言的用法即为语法。”这里语言的用法，具体来说就是语言单位的句法功能。“在”和“再”除了语音相同外，在用法上也呈现出了相同之处。

虽然目前学界对“在”的词类的划分各执一词，但是各学者均认同“在”可以用在动词前，即“在+VP”，表示动作反复进行或长期持续(吕叔湘1999:672)，即体范畴中的“进行体”。例如：

(38) 他在练钢琴。

例(38)“在”用在“练钢琴”这一动词短语的前边，可以表示他一直在重复“练钢琴”这一动作，或者说“练钢琴”的这一动作持续进行。

而“再”在上古汉语时期的用法上文也提到是“两次”、“第二次”的意思。例如：

(39) 故智者不再计，勇士不怯死。(≪战国策 齐策六≫)

例(39)中的“再”既可以解释为“计算两次”也可以理解为“计算第二次”。“再”在上古时期主要表达数量范畴的意义。由于其数量范畴的用法，使“再”的句法功能也呈现为直接用于动词前，即“再+VP”，表达重复、承接等多种语义。例如：

(40) 他没有再看秦震，目光集中桌面。(刘白羽≪第二个太阳≫)

例(40)“再”后跟“看秦震”这一动词结构。可以理解为重复或持续“看秦震”这个动作。

由于“在”和“再”都可以用于动词结构前，且读音同为“zai4”，可以认为这两个词语的误代主要由“字音干扰”和“句法位置”这两个方面的相似性造成了韩国汉语学习者产生大量的误代偏误。

3.1.2 与“才”、“又”、“还”、“更”误代的原因

“再”除了与“在”的误代以外，与“才”、“又”、“还”、“更”也出现了误代偏误。从上一章的统计结果来看“再”与“才”、“又”、“还”、“更”集中出现的语义并不相同。“再”与“才”的误代则主要出现在“承接义”，与“又”的误代主要集中于“重复义”，而与“还”和“更”的误代主要出现在“添加义”。以往对“再”的研究重点都集中于重复义上与近义词“又”、“还”、“更”的对比。针对韩国学习者的教学也主要是对比“再”在重复义上与其他近义词的异同。因此这里根据误代偏误出现的语义类别，分别对此类偏误进行讨论。

句法结构的复杂性固然是导致偏误产生的一个重要的原因，但就具有多重义项的近义词来讲，语义表达上

微小的差异可以看作是导致偏误产生的一个更为重要的原因。我们这里分别来看。

现代汉语中，“再”和“才”都可以连接两个事件，表现事件之间的逻辑关系，这两个词语在表现事件关系时的语义差异，造成了韩国汉语学习者这两个词语的部分误代偏误，我们先来看两个偏误例句：

(41) *绿色食品问题也是先解决人类生存问题后，我们才(再)想办法。
(42) *我们先要满足最基本的生理需求,然后再(才)能去面对更高层次的问题。

从逻辑语言学的视角来看“再”和“才”，“再”主要用来强调前后两个事件的先后顺序关系，而“才”所连接的两个事件则是条件关系，相比“再”而言，“才”凸显的是逻辑上条件的重要性(张谊生 2000)。正如上两例中，例(41)单纯表示“解决人类生存问题”之后，“想办法”这个事情接着发生；而例(42)则强调的是“满足最基本的生理需求”这一前提条件后，“才”能面对更高层次的问题。

韩国学生对“再”和“才”的误代偏误同样也出现在了“时间+再/才+VP”这一构式中，例如：

(43) *查词典查了半天再(才)意识到是我已经知道的字。
(44) *那时候我再(才)发现他的杰出的成就就是因为不断的努力工作、严格的生活管理。

上两例都是应该用“才”而使用了“再”。我们发现，言者选择使用“才”还是“再”是有表意侧重的。当言者使用“才”意味着在言者的认知中，句中动作实现的时间晚于听者认知中的动作实现的时间。就像例(43)、(44)中，“意识到”“发现”这一动作的实现时间“半天”“那时候”是晚于听者认知的动作实现的时间，因此这类句子一般用“才”来表现动作实现的晚，无关乎动作实现与否。而“再”则表现出的是言者希望动作实现的时间晚于听者认知中动作实现的时间(史金生1993)，吴中伟(1997)将这一语义概括为“对某一事件的安排”。例如：

(45) 明天再来。

例(45)便是通过“再”表现出“言者希望动作实现的时间，晚于听者认知中的时间。”也就是对“来”这一动作的安排。

再来看“又”。现代汉语中，“再”和“又”都可以表示重复。例如：

(46) 这本书我想再看一遍。
(47) 这本书我又看了一遍。

对“再”和“又”在重复义上的区别，学界有统一的看法，认为这两个词语主要的区别在于“体范畴”的差异，“再”主要用于未然体，而“又”主要用于已然体(金立鑫 崔圭钵 2018)。如上例(46)“看这本书”的动作还未实现，而例(47)则很明显地表现出“看这本书”的动作已经完成。而“又”也可以用于未然体，但这类用法对句类有较高的限制，主要用于感叹句、疑问句，表现出了言者吃惊、怀疑或抱怨的态度[6]。例如：

(48) 这本书又让看一遍！
(49) 这本书怎么又让看一遍？

例(48)、例(49)分别是感叹句和疑问句，并表现出了言者抱怨、怀疑的态度。

6) 金立鑫, 崔圭钵. ≪复续义“又、再、还、也”的句法语义特征≫

从“再”和“又”误代偏误例句也可以看出，韩国学习者主要是对这两个词语所表现出的“体范畴”差异把握不准确而导致了大量的偏误，因此，针对这两个词语的误代，如若能够在教学时，利用语境将二者使用的体范畴差异清晰地展示给学习者，应该能够很好地避免此类偏误的产生。

“还”和“更”也具有多重语义[7]，但也都可以用来表示“添加”，正如“再”。因而造成了韩国汉语学习者的与“再”在“添加义”上的误代偏误。那么这三者在表现“添加义”时有何区别呢？

先来看“还”，吕叔湘(1999)认为“还”的一个义项是表示项目、数量增加，范围扩大，唐敏(2003)也认为“还”具有在原有信息基础上添加新信息的语义。吴长安(2008)将“还”的这种用法归纳为补充增量。虽然“再”和“还”同为添加，但还是有细微的差异，因而造成误代，例如：

(50) *有的人说在中国的某一个农村，孩子有一百块钱的话可以上小学，还(再)有一百块钱可以吃一年饭。
(51) 超市里有苹果、香蕉、橘子，还有凤梨。

例(50)是韩国学习者出现的偏误，这句话本该用“再”表示单纯金钱量上的添加，却使用了“还”。“还”在表添加时，主要强调所引出的部分与前一部分相同、同类的一面(陈立民，张燕密 2008)，正如例(51)示例的内容，强调了苹果、香蕉、橘子和凤梨同为水果的内在一致性。而“再”表添加时，主要强调事件对立、相反的一面，因而“再”连接的前后两个事件都是独立的，就像例(50)，前一个“一百块钱”和后一个“一百块钱”，并没有内在连续性，仅仅指数量上的增多。

再看“更”。对“更”的研究学界并没有像“再”、“又”、“还”的研究那样繁多，稍显不足，但是也让我们对“更”有了基本的把握。

吕叔湘(1999)认为“更”表示程度增高，用于比较。邓根芹、陈风(2005)也从信息论的角度认为“更”并非完全拷贝信息，而是部分性拷贝信息，然后由“更”添加新的信息。并将这种部分性拷贝功能分为同质性拷贝、补充性拷贝和对立性拷贝。其中补充性拷贝中“更”添加的新信息是在前项的基础上的进一步深入。我们来看一个偏误例子：

(52) *如今，自产业革命兴起了以后，自然就受到大大的污染，所以避免再(更)坏的状况，使用化肥和农药是不合理的。

“再”表示客观的量的添加，而“更”含有比较，对比的意味，如例(52)“更坏的情况”则是比前项“自然受到大大的污染”更严重的结果。下一例偏误也出现了对比项：

(53) *还有，这不是只有我的问题，再(更)涉及到人类的健康问题。

在这一例句中，“人类的健康问题”很显然比“我的问题”更为重大，程度更高，通过这两个例子，我们能清晰地感受到“更”所表现出的比较和程度进一步加强的意味。这就与“再”表添加义呈现出了很明显的区别。

“再”和“才”在承接义上，和“又”在重复义、和“还”“更”在添加义上的这些细微的语义差异，若非母语者是无法从句法结构准确感知的，只有教师在教学的过程中，通过语境具体例证展示这些微小的区别，才能构建学习者对这几个词语差异的认知，进而正确使用。

7) 吴长安≪“还”和“更”研究≫，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

3.2 遗漏、误加原因分析

“遗漏”即应该使用某一语言点的句子却没有使用，而造成句子不完整。“误加”是不该使用某一语言点的句子却使用了某一语言点，造成句子赘余。这两种偏误的出现，可以认为主要是学习者对语言点的语用条件不清晰造成的，也就是说如果学习者清楚地知道某一语言点在什么样的语言条件下使用，那么就可以避免此类偏误的产生，那么接下来我们一起来看“再”的使用条件。

首先，“再”出现的句子，往往预设两个事件，且第二个事件为未然事件。例如：

(54) 后来，我又听见他们在收子的声音，接着是冠军棋手在说：“我们再下一盘吧？”(麦家≪暗算≫)
(55) “我有一个建议”他说“希望你至少听一听，再满怀好意替我想想”。(赫尔曼黑塞≪玻璃球游戏≫)

例(54)中“再下一盘棋”预设着之前“下过一盘棋”，而现在的这一盘棋还并未“下”；而例(55)则预设着在“满怀好意替我想想”之前需要完成“听一听”这一事件，而“再”后的“替我想想”是言者希望对方做的事情，并未完成。

从上面两例中可以看出，“再”前后的两个事件可以是同质事件，如例(54)都是“下棋”；也可以是异质事件，如例(55)前一事件为“听”，后一事件为“替我想”。而且，有时两个事件可以不同时出现，如例(54)，只出现了第二个事件。也有只出现第一个事件，而第二个事件用其他的词语代替的情况，比如“你先吃饭，我一会再说”。连接了“你吃饭”和“我吃饭”两个事件，而后面的“我吃饭”则用“说”来代替，这里的“说”并不是“用嘴讲述”的意思，而指代“吃饭”这一事件。

其次，“再”还可以用来表示对某一事件的安排(吴中伟 1997)，这一语用意义是在连接两个事件，且第二个事件为未然的条件下，表达言者认为听者“可能建议的时间”或者“当下时间”不做这件事，在未来某个特定的时间再做这件事。这样的句子，往往有表示时间的成分，结构为“时间+再+vp”。例如：

(55) 达嫂问他们：“有热水了，姑爷和小姐是现在洗脚还是待会儿再洗？”(林语堂≪朱门≫)

例(55)这一例句中的两个事件为同质事件“洗脚”，未发生，句中有“待会儿”这样的时间词。再如“明天再去。”这一小句虽有歧义分别归属于“再”的“重复义”和“承接义”，但两种情况都预设着两个事件，表示对明天未实现的事件的安排。如若理解为：“今天去了，明天再去一次。”则预设的是“去”这一同一事件，可能是言者自言自语，安排自己“去”这一动作明天重复进行；如若理解为“今天不去，推到明天再去。”则预设的是“不去”和“去”两个事件，将听者纳入言语之中，表达对听者可能建议的时间的否定，将“去”安排在言者意愿的时间“明天”。

由于“再”具有对事件的安排这样的语义，“再”后的动词基本上为自主动词，即这些动词具有[+可控制]的特征。我们看下面两个例子：

(56) 这件事过几天再商量。
(57) *你过几天再生病。

“商量”具有[+可控制]，而“生病”却不受人的控制，即[-可控制]，因此“再”的语用条件还应该包含[+可控制]的语义。

由以上的分析可以知道，“再”的语用条件包括：预设两个事件，两个事件可以是同质也可以是异质，但第二个事件必须还没有发生，是未然事件，同时“再”后的事件具有[+可控制]的语义。韩国的汉语学习者如若能够清楚地掌握“再”的使用条件，应该可以在一定程度上减少遗漏和误加的偏误产生。

3.3 错位原因分析

在韩语中与“再”最为接近的词语为“다시”，在≪中韩辞典≫对“再”的解释第一个义项便是“재차. 다시(한 번)”。对于错位这一偏误的原因，本论文认为可能主要是受到“다시”这一近义词用法的影响。“再”主要处于谓词性词语前在句子中充当状语、不能出现在句首和句尾、要用在能愿动词之后、可处于否定副词的前后两种位置表达不同的语义。例如：

(58) 许三观让许玉兰再去洗一次脸。(余华≪许三观卖血记≫)
(59) 总不能比这里再坏些。(矛盾≪锻炼≫)
(60) 我想再为教育奔走几年。(冰心≪我自己走过的路≫)
(61) 据原来说好的，少平不再上井送她。(路遥≪平凡的世界≫)
(62) 从那以后她再不上我家了。(谭恩美≪喜福会≫)

例(58)、(59)的“再”分别处于动词“去”和形容词“坏”的前边，作状语；例(60)“再”用在能愿动词“想”的后边；例(61)和例(62)是否定副词和“再”连用的两种情况，表达不同的语义，“不”用在前，表示“某一时间以后，事件不继续进行，而“不”用在后，则表示事件再也没有发生过。“再”出现的位置不同，它的重复辖域不同。而“다시”的位置较为灵活。

“다시”修饰动词时，可以出现在句首，也可以出现在宾语之后。例如：

(63) a. 나는 다시 학교에 간다.
b. 나는 학교에 다시 간다.
c. 다시 나는 학교에 간다.

上述例(63)中的a、b、c三个例句虽然“다시”位置不同，但均表示“我去学校”这个事件再次发生。

韩语的能愿动词多借助-것,-지,-수,-리,-줄等依存名词，以及-겠,-려고,-고,-기等词尾，还有-싶다这样的形式与动词结合来表示，所以动词和这些词的关系较为紧密，一般不可以插入其他的成分。因此 “다시”的位置除了句首和句尾以外，只能出现在主要动词之前。例如：

(64) a. 다시 나는 공부하려고 한다.
b. 나는 다시 공부하려고 한다.
c. 나는 공부하려고 한다, 다시.

以上例(64)的a、b、c三个例句分别为“다시”的位置。

由于“다시”的位置较为灵活，而“再”因为重复辖域的限制位置相对固定，因此对韩国汉语学习者来说造成了一定的影响，形成错位的偏误。在教学中，如果可以让学习者清楚的知道“再”可以出现的位置，并详细阐明“再”的位置不同其语义辖域有别，应该在一定程度上可以避免此类偏误。

4. 总结

学界对“再”已经进行了广泛而又深入的研究，让我们对“再”的句法、语义、语用以及“再”的历时演变过程和机制动因都有了基本的把握。二语教学界也主要针对“再”和近义词“又”“还”“更”等其他词的对比以及国别化教学进行了考察和分析。但是就目前的研究现状来看，对“再”的偏误分析除了多集中于与重复义近义副词的对比

分析之外，对偏误产生的原因也存在定式化分析的倾向，多从母语、目的语、学习策略、学习环境等几个方面进行分析。本论文在前贤们研究成果的基础上，从传统的标准数学范畴和“再”的义项两个方面，对韩国留学生习得“再”的偏误进行统计分析，发现了一些规律性的表现。标准数学范畴的偏误率由高到低依次为：误代、遗漏、错位、误加；“再”的义项偏误率由高到低依次为：承接义、重复义、添加义、持续义、程度变化义。对于误代偏误，我们发现，“再”和“才”“又”“还”“更”的误代偏误并非都集中于重复义，而是根据这几个词自身语义的不同着重分布在相应的语义上。由此，我们发现，韩国学习者对这一组词是有认知范畴划分的，并非都归于“重复”这一语义。对这类偏误以及遗漏和误加偏误本文主要从语言内部的句法结构、语义差异和语用条件进行分析。针对错位偏误，本文主要从语际角度来分析，认为这一偏误主要是受到汉语重复辖域会随词的句法位置的改变而改变，而韩语中意义相近的词“다시”的位置相对灵活的影响。当然，学习者的学习策略、交际策略，学习环境包括教师的讲解、教材的安排对韩国汉语学习者对“再”的习得也有一定的影响。但是，偏误从根本上来说还是学习者对所学语言点的具体的句法特点、语义特征和语用条件没有全面深入的了解和把握，因此本文希望通过对韩国学习者“再”偏误的研究，对汉语教师对“再”更好地教学，韩国学生对“再”更好的习得发挥一定的积极作用，并能对其他语言点的偏误分析有所启发。

〈摘要〉

“再”的语义繁杂，用法多样。对“再”偏误的分析，大多集中在重复义上与近义词的对比，偏误归因也存在定式化分析的倾向。本论文以韩国汉语学习者为例，在对偏误进行标准数学范畴归类的基础上，进一步对“再”偏误出现的语义分布也做了统计归纳，发现韩国汉语学习者“再”的习得偏误的语义分布规律，偏误率由高到低依次为：承接义、重复义、添加义、持续义和程度变化义。并根据具体的偏误类型和语义分布状况主要从句法、语义、语用以及语言比较等方面尝试分析原因，以期对多义词的教学、习得研究有所启发。

关键词: 再，韩国学习者，偏误，语内，原因分析

〈Abstract〉

The meaning of “zai4” is complex and its usage is varied. Most of the analysis of “zai4” bias focuses on the contrast between repeated meaning with synonyms, and the bias attribution tends to be formalized analysis. So, this paper taking Korean Chinese learners as an example, makes a statistical induction of the semantic distribution of “zai4” bias not only based on standard mathematical categories but also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meaning of “zai4”, and finds out the semantic distribution rule of “zai4” bias acquired from Korean Chinese learners. The bias rate on the Classification of meaning from high to low is as follows: ordering meaning, repeating meaning, adding meaning, continuing meaning and degree changing meaning. According to the specific types of bias and semantic distribution, the author tries to analyze the reasons mainly from the aspects of syntax, semantics, pragmatics and language comparison, so as to provide some inspiration for the teaching and acquisition of polysemous words.

Keywords: zai4；Korean learners; bias; intralingual; cause analysis

〈参考文献〉

北京语言学院语言教学研究所，≪现代汉语频率词典≫，第1版，北京：北京语言学院出版社，1986.
张谊生，≪现代汉语副词研究≫，第1版，上海：学林出版社，2000.
王力，≪古代汉语常用字字典≫，第5版，北京：商务印书馆，2016.
黎锦熙，≪新著国语文法≫，上海：上海书店出版社，2010.
王力，≪中国现代语法≫，北京：商务印书馆，2014.
吕叔湘，≪现代汉语八百词≫，北京：商务印书馆，1999.
丁树声，≪现代汉语语法讲话≫，北京：商务印书馆，1999.
北京大学中文系，≪现代汉语虚词例释≫，北京：商务印书馆，1996.
高思欣，高思艳，≪也谈副词“再”的语义≫，<暨南大学华文学院学报>，2007，第4期：55-59.
李秉震，≪从认知图式看“再”的语义演变≫，<语言教学与研究>，2009，第4期：34-39.
乐耀，≪北京口语中具有连接作用的“再”≫，<当代语言学>，2105，第4期.
殷树林，李依轩，≪“再”的词义演变动因≫，<语言教学与研究>，2021，第2期：93-102.
刘珣，≪对外汉语教学引论≫，北京：北京语言大学出版社，2000.
周小兵，≪对外汉语教学导论≫，北京：商务印书馆，2009.
马真，≪关于表重复的副词“又”“再”“还”≫载陆俭明、马真著≪现代汉语虚词散论≫，语文出版社，1999.
金立鑫，崔圭钵，≪复续义“又、再、还、也”的句法语义特征≫，<语言教学与研究>，2018，第4期：34-42.
陈立民，张燕密，≪释“再”、“又”、“还”≫，<语言研究>，2008，第3期：26-36.
毛婧雅，≪“还 、再、又、也”重复义的比较与二语习得的偏误分析≫，华中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11.
金宣教，≪韩国留学生习得重复义“还”、“再”、“又”的偏误分析≫，吉林大学硕士学位论文，2012.
SIM HANA(沈夏娜)，≪副词“还、再、又”重复义研究以及对韩教学对策≫，山东大学硕士学位论文，2012.
廖辉，≪韩国学生使用“还”、“再”、“又”表复续义的偏误分析≫，南京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20.
陈宝国 宁爱华，≪汉字识别中的同音字效应：语音影响字形加工的证据≫，<心理学探析>，2005，第4期.
李泉，≪语法知识教学与语法事实教学——语法教学的深化与拓展≫，<语言文字应用>，2018，第4期：105-114.
史金生，≪时间副词“就”“再”“才”的语义、语法分析≫，<绥化师专学报>，1993，第3期：58-65.
吴长安，≪“还”和“更”研究≫，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2008.
吴中伟，≪论副词“再“的“推延义”-兼论加强对汉语副词的语用研究≫，<世界汉语教学>，1997，第3期：18-25.
唐敏，≪副词“还”语义网络系统的形成和发展≫，上海师范大学硕士论文，2003.
邓根芹，陈风，≪副词“更”的句法、语义分析-拷贝型副词研究之三≫，<常熟理工学院学报>，2005，第5期：75-79.
高大民族文化研究院，≪中韩辞典≫，首尔：高丽大学民族文化研究院，2004.
박선희，≪중복의부사“재(再)”여“다시”적대비분석≫，<중국언어연구>，2014，第52期：435-457.

构式语法视角下的汉语数量词构式研究

LI MINGYUE*

<目　录>

1. 绪论
2. 名量词构式“Num+NCL+X”的形式与语义泛化
3. 动量词构式“X+Num+VCL”的形式与语义泛化
4. 数量词构式的构式演变及构式化过程
5. 数量词构式泛化的理据
6. 结论

1. 绪论

朱德熙(1982)、刘月华(2010)等学者表示：“名量词的主要语法功能是修饰名词，表示事物的数量；动量词通常出现在动词后面，主要表示动作的次数”，这些语法功能决定了典型名量词构式“Num+NCL+N”和典型动量词构式“V+Num+VCL”的形式。但在现代汉语中不仅存在典型数量词构式，还存在一些看似违反句法规则的新兴非典型数量词构式“Num+NCL+A/V”、“A/N+Num+VCL”。本文将这种非典型新兴用法称为数量词构式的泛化(Generalization)[1]现象。首先观察以下非典型名量词构式和非典型动量词构式的例句。

(1) a. 他们全把它当作一个幽默。
　　b. 怀念过去，总是一堆美好。
　　c. 传说灵魂是21克，那么，要是能少一克宏大，...是不是会显得更有质量？
(2) a. 但这只是一个想象。
　　b. 小四跟在马旁，叽哩咕噜的说了一堆抱怨。
　　c. 你的爱情是几克拉?一克宽容,...，一克倾诉，...。
(3) a. 选择吃个酸甜口的冷面，让生活美好一下吧！
　　b. 鸟语花香的节日里尽情地欢乐一番。
　　c. 我以为相机到了，结果是钱包，让我白高兴一场。
(4) a. 大半夜杀出来火锅一下。
　　b. 湛国扬google一番之后，提到的极少。
　　c. 不枉我断浪与他兄弟一场。

通过例(1)和(2)可以发现名量词不仅可以修饰名词，还可以修饰形容词“幽默”、“美好”、“宏大”和动词“想象”、“抱怨”、“倾诉”。数量词与名词搭配使用时语义功能表现的是对这个名词的计量功能，但与形容词和动词连用时各数量词体现出的语义功能却是不一致的，此时体现了一种评价或描述功能。如不说“*两个幽默”、“*两个想象”。“一克宏大/倾诉”虽然表示“宏大”、“倾诉”的量是“一克”，不过能够明显感受到此构式与度量词修饰名词的原型构式(如“500克蔬菜”)之间的区别。通过例(3)和例(4)的例句可以发现，动量词除典型用法外还可位于形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박사 졸업생. 안동대학교 중국어문・문화학과 초빙교원.

1) 根据Goldberg(2019)，泛化是指跨越自身特征约束从而可以使用在多种本不兼容构式中的情况。

容词“美好”、“欢乐”、“高兴”或名词“火锅”、“google”、“兄弟”的后面。“X”为动词时，构式语义表示对动作的计量，如“跳三下”、“哭一/两场”[2]。但动量词与形容词结合由于其计量对象的改变，其构式语义也发生了变化。如不把“美好一下”说成“*美好两下”。“X”为名词时同样并不单纯表示计量动作的功能，此时它们已经丧失了原有的部分特征，受到构式特征的压制被赋予构式部分特征，并匹配于动量词构式。“火锅一下”表示“吃火锅的一下”；“google”与动量词连用后表示“用google这种工具行动一番”；“兄弟一场”表示“作兄弟一场”。

综上所述，可以发现数量词构式具有多功能性，除了计量语义功能外，还表现出修饰或描写等多种语义功能，这并不仅仅取决于数量词本身或数量词前后的成分，更取决于数量词整个构式的语法功能。本研究在以上问题存在的基础上，认识到“构式”对数量结构语义及形式泛化程度的重要影响。构式语法可以解决一个词汇“肆意”活用的说法，打破了词汇与构式之间的界限，可以揭示构式语义与词汇语义之间的关系。因此本文欲从构式语法(Construction Grammar，简称CxG)的角度揭示多功能性数量词构式的内在规律及其泛化现象，探索其构式演变及构式化过程，并对其构式演变原因进行理论上的解释说明。本文数量词构式中的量词如下所示：

量词		数量	详细
名量词(19)	个体量词	8	个/本/件/段/层/份/片/团
	集合量词	5	种/类/堆/派/副
	不定量词	2	点/些
	度量词	4	吨/克/米/公里
动量词(10)	计数动量词	4	次/回/下/把
	持续动量词	2	番/阵
	整体动量词	4	场/遍/顿/趟

〈表 1〉数量词构式中的量词范围

并且从结构上看，本文的数量词构式具有一定的开放性，属于Goldberg(2006)的半固定构式(Partially filled construction)。其中的固定成分由数词和量词组成的数量词构成，而非固定成分“X”主要由名词、形容词以及动词构成。本文又根据与量词的搭配关系将数量词构式的名词分为具体名词、抽象名词以及专有名词；根据可否进入“S1：NP+很+A”、“S2：NP+已经+A+了/S3：NP+没+A”句式将形容词分为典型性质形容词、可变性质形容词以及状态形容词；根据Smith(1997)等学者的观点将动词分为动作动词、结果动词以及状态动词。

本文展开正式研究前，分别从句法、语义、语用、语法功能、类型学以及构式语法的角度对数量词构式的研究进行了考察。通过先行研究分析我们发现(1)存在很多对数词、量词、数量词的句法、语义功能等研究，从构式语法的角度对数量词进行分析的研究相对来说占少数；(2)对数量词构式进行研究的论文大多为特殊构式研究，如王刚(2016)对“V+得+一M+NP”等构式进行了研究；(3)即使存在从构式语法角度对数量词构式进行分析的研究，也大多与本文的切入点或观点不同，如林秀京(2019)研究了“一下”，而本文是对包含“一下”在内的所有专用数量词构式进行分析，并且在一些观点上也是不一致的；(4)在前人研究中将名量词和动量词构式结合起来，对数量词构式进行系统研究的论文相当少见，仅发现几篇用类型学理论研究动量词和名量词构式语序相关关系的论文(石毓智2006，金兆桃2015)，因此几乎可以说没有从构式语法角度且系统地分析数量词构式的研究。

2. 名量词构式“Num+NCL+X”的形式与语义泛化

2.1 名量词构式嵌入成分“X”的分布规律

本文在BCC语料库中检索“一+VCL+N/A/V”，统计出其类型频率(非例频率)并抽取其所有语料。因典型名量

2) “一番”体现的是动作的持续时间，因此构式中数词不可由除“一”以外的数词替换，但“大吃一番”仍表示动作“吃”的持续。

词构式类型频率较多，因此本文分别提取名量词中使用频率较高的有效类型语料500条进行分析；而非典型名量词构式则对其进行穷尽式排查。并将输出的名词、形容词、动词按之前所叙述的分类进行划分，结果如下[3]：

Num+NCL+N		具体N			抽象N			专有N
个体	个	320	64.0%	字/苹果	180	36.0%	原因/机会	1729
	本	488	97.6%	杂志/书	12	2.4%	典范/初衷	22
	件	343	68.6%	衣服/裙子	157	31.4%	事情/生意	6
	段	271	54.2%	视频/话	229	45.8%	感情/时光	13
	层	396	79.2%	薄膜/窗户	104	20.8%	意思/关系	1
	份	263	52.6%	报纸/早餐	237	47.4%	爱情/真心	4
	片	379	75.8%	云/面包	121	24.2%	记忆/真情	13
	团	322	77.0%	烟雾/纸	96	23.0%	怒火/正气	-
集合	种	55	11%	人/食品	445	89.0%	智慧/方式	-
	类	337	67.4%	网站/家具	163	32.6%	情意/事情	-
	堆	457	91.4%	东西/垃圾	43	8.6%	寒气/问题	-
	派	118	54.6%	成员/军队	98	45.4%	生机/喜气	-
	副	415	83.0%	眼镜/筷子	85	17.0%	重担/神气	-
不定	点	174	34.8%	粮食/资料	326	65.2%	意见/问题	-
	些	237	47.4%	朋友/照片	263	52.6%	事情/细节	-
度量	吨	484	96.8%	水泥/大米	16	3.2%	规模/项目	-
	克	498	99.6%	蔬菜/白糖	2	0.4%	爱情/灵魂	-
	米	426	97.5%	蝶泳/冠军	11	2.5%	标准/水平	-
	公里	274	97.2%	公路/航道	8	2.8%	范围/目标	-

〈表 2〉名量词构式"X"为名词时的类型频率

Num+NCL+A		典型A			可变性质A			状态A		
个体	个	397	67.9%	香/可爱	187	32.0%	激动/心酸	1	0.1%	笔直
	本	10	71.4%	乐观/真实	4	28.6%	糊涂/伤感	-		-
	件	10	66.7%	幸福/偶然	5	33.3%	意外/遗憾	-		-
	段	41	68.3%	美好/精彩	19	31.7%	平静/沉默	-		-
	层	95	65.1%	光辉/寂静	51	34.9%	忧郁/犹疑	-		-
	份	306	82.3%	宁静/天真	66	17.7%	清醒/成熟	-		-
	片	415	80.9%	茫然/凄凉	98	19.1%	紧张/绝望	-		-
	团	48	63.2%	和睦/喜悦	28	36.8%	糊涂/骄傲	-		-
集合	种	834	74.5%	快乐/宁静	285	25.5%	痛苦/成熟	-		-
	类	5	62.5%	奇异/欢愉	3	37.5%	痒/自由	-		-
	堆	6	54.5%	纯粹/美好	5	45.5%	混乱/寂寞	-		-
	派	57	73.1%	斯文/温和	21	26.9%	严肃/紧张	-		-
	副	16	57.1%	真诚/庄严	326	26.2%	冷漠/暧昧	-		-
不定	点	586	75.8%	快乐/自信	187	24.2%	委屈/紧张	-		-
	些	485	71.4%	曲折/浪漫	194	28.6%	遗憾/困惑	-		-
		度量			性质					-
度量	吨	1	100%	重	0	0%	-	-		-
	克	1	17.0%	重	5	83.0%	浪漫/难忘	-		-
	米	6	100%	远/高/宽	0	0%	-	-		-
	公里	6	100%	长/深/厚	0	0%	-	-		-

〈表 3〉名量词构式"X"为形容词时的类型频率

3) bcc语料库将专有名词识别为nr(人名)或ns(地名)，因此本文并不将其算入n的百分比，而是将其独立出来。并且专有名词表示特有的事物，一般不与数量词连用，特殊情况下只可与部分个体量词连用。同时度量词与形容词连用式存在独特的规律，其形容词可以分为度量衡形容词和性质形容词。

Num+NCL+V		动作V			结果V			状态V		
个体	个	473	67.6%	香/可爱	97	13.8%	激动/心酸	130	18.8%	期待/喜欢
	本	4	67.0%	乐观/真实	0	0%	糊涂/伤感	2	33.0%	满足/通
	件	7	100%	幸福/偶然	0	0%	意外/遗憾	0	0%	-
	段	118	80.3%	美好/精彩	9	6.1%	平静/沉默	20	13.6%	爱/放纵
	层	29	63.0%	光辉/寂静	0	0%	忧郁/犹疑	17	37%	羞愧/怨恨
	份	134	62.0%	宁静/天真	13	6.0%	清醒/成熟	69	32.0%	希望/感动
	片	120	65.2%	茫然/凄凉	12	6.5%	紧张/绝望	52	28.3%	震惊/红肿
	团	5	62.5%	和睦/喜悦	0	10%	糊涂/骄傲	3	37.5%	热爱/爱
集合	种	754	71.3%	享受/修行	130	12.3%	遇见/结束	173	16.4%	尊重/放松
	类	16	100%	学习/咳嗽	0	0%	-	0	0%	-
	堆	23	71.9%	唠叨/总结	2	6.2%	死/僵死	7	21.9%	抱怨/关心
	派	6	85.7%	胡扯/胡闹	0	0%	-	1	14.3%	不在乎
	副	3	60%	傻笑/斗气	0	0%	-	2	40.0%	雀跃/不在乎
不定	点	492	71.3%	安慰/帮助	54	12.3%	改变/牺牲	136	16.4%	宽容/后悔
	些	654	77.4%	探讨/一轮	74	8.8%	妥协/缓解	117	13.8%	怀疑/满足
度量	吨	-	-	-	-			-	-	-
	克	6	54.5%	倾诉/认错				5	45.5%	宽容/体谅
	米	5	100%	加速/慢跑				-	-	-
	公里	3	100%	步行/赛跑				-	-	-

〈表 4〉名量词构式"X"为动词时的类型频率

本文发现名量词修饰的成分在语法上呈现出一致的倾向性。名词上，具体名词>抽象名词>专有名词。这与名量词的基本功能以及具体名词所具的'可计量性'、'可分离性'有关[4]。形容词上，典型性质形容词>可变性质形容词>状态形容词。这与典型性质形容词的匀质性[+individual-level state]特征、可变性质形容词的异质性[+stage-level state]特征以及状态形容词自身所呈现的"程度性"、"+有界性"特征有关。动词上，动作动词>状态动词>结果动词。这与结果动词的[-可控性]、[+有界性]和动作动词比状态动词有更强的可控性、更易于被具体化有关。

2.2 名量词构式的形式与语义配对关系

语义聚类分布特征不仅体现在嵌入成分"X"的语义上，还体现在包含嵌入成分"X"的整体构式的语义上。随着名量词构式语言形式的创新和扩张，构式的语义也随之发展，在原始构式计量语义功能的基础上扩展出评价功能和描述功能。最终我们得到个体量词、集合量词以及不定量词构式的"Form-Meaning"配对关系如下所示[5]：

[[Num NCL $N_{concrete}$]$_i$]⟷["SEM[Measure concrete objects"]$_i$]
[[Num NCL $N_{abstract}$]$_i$]⟷["SEM[Measure or describe abstract objects"]$_i$]
[[Num NCL N_{proper}]$_i$]⟷["SEM[Emphasis on the subject(proprietary)"]$_i$]
[[Num NCL $A_{typical/change/state}$]$_i$]⟷["SEM[Measure attributes or subjective evaluation"]$_i$]
[[Num NCL V_{action}]$_i$]⟷["SEM[Measure or describe an action"]$_i$]
[[Num NCL V_{state}]$_i$]⟷["SEM[Measure or describe a state"]$_i$]
[[Num NCL V_{result}]$_i$]⟷["SEM[Measure or describe a result"]$_i$]

但是同属于数量词下位构式的度量词构式是比较特殊的情况，虽其形式扩张明显(即"X"的多样性)，但其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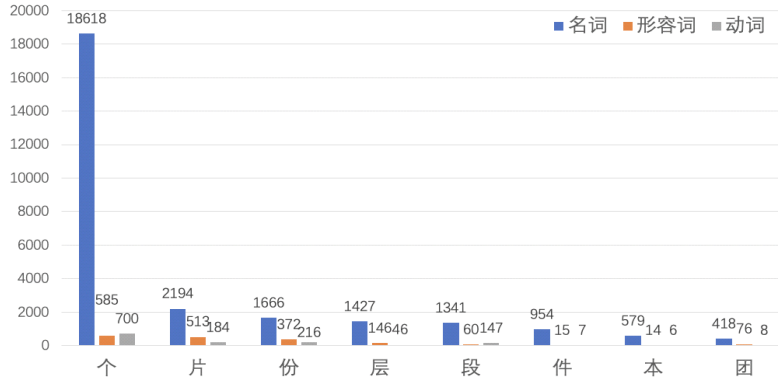
4) 而抽象名词体现的是'可度量性'，更易被表示种类的"种"以及表示模糊量的不定量词修饰，这也是为何上表中"种"、"点"、"些"所修饰的名词中抽象名词更多的理由。

5) 各含义的具体例句如下所示。具体名词-计量：一/两/几个字。抽象名词-计量：一/两/几件事情；描述：一片深情/一团气质。专有名词-强调：一层欧莱雅。形容词-计量：万种遗憾；评价：一个快乐。动作动词-计量：两个回答；描述：一个笑。状态动词-计量：两份感激；描述：一份感动。结果动词-计量：两个发现；描写：一个结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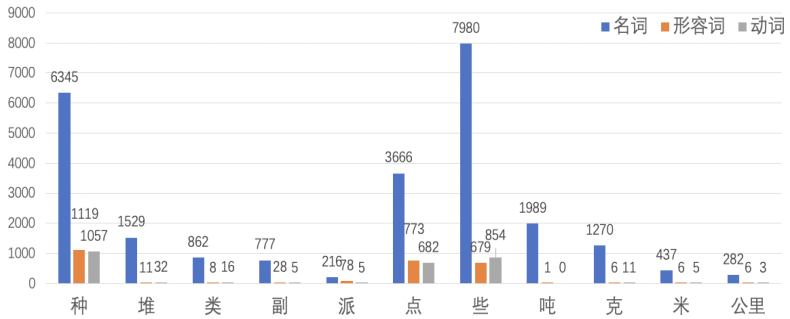
义发展较弱，它的语义功能主要集中体现在“计量”上。其形式语义配对关系为[[Num NCL$_{measure}$ X]$_i$]⟷[“SEM [Measure concrete objects/abstract objects/attributes/action/state”]$_i$]。在计量对象的扩张上，度量词“克”尤为显著，其中对“属性(一克浪漫/幸福)”和“状态(一克体谅/了解)”的计量仅出现在度量词“克”上。

2.3 名量词构式的能产性、图示性及组合性

能产性增强。通过下表可以发现这些名量词都存在扩张性用法，并且其类型频率与例频率的增长体现出一定的规律性：①构式的扩张性发展主要体现在个体量词、集合量词以及不定量词上，度量词的扩张现象虽存在但并不普遍。②被名量词修饰的“X”有“名词>形容词>动词”的倾向，但这并不是绝对的。如在19个名量词中有6个名量词与动词连用的类型频率是多于与形容词连用的类型频率的，这6个名量词是个、段、堆、类、克、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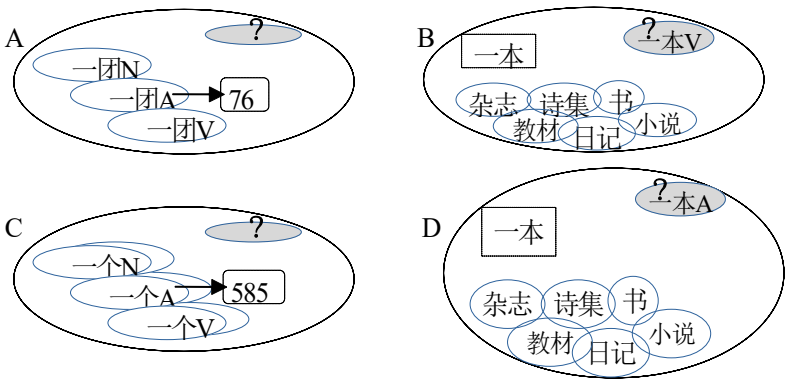
〈图 1〉个体量词搭配频率图



〈图 2〉集合量词、不定量词、度量词搭配频率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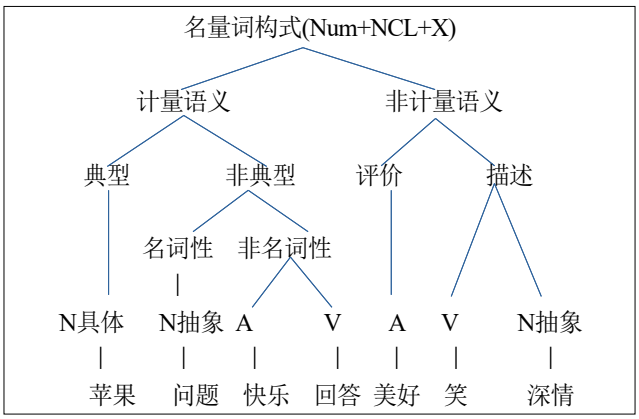
名量词构式在已认证好的群体“Num+NCL+N”中加入新表现形式“Num+NCL+A”和“Num+NCL+V”，随着使用频率的提高，新的语言表现形式被人们所接受，“错配”得以解决，处于不断向外延伸发展的过程，外延发展过程中会存在很多不确信构例需要匹配。这与Goldberg(2019)阐释的各发展因素之间的关系相一致，如下所示[6]：

6) 具体表现如下所示：①类型频率高，能产性也高。以个体量词“个”和“团”作对比，可以通过上图中A的类型频率小于C的类型频率这一点上来看，在能产性上A<C。②类型频率高，可变性也高。使用频率的提高会导致图示扩展，如高类型频率的“个”、“种”、“点”、“些”生产出更多与形容词、动词连用的例句。在可变性上，同样A<C。③可变性高，能产性也高。B<C。B中有6个书本类名词；假设A中有六个可以分为名词、形容词、动词的词语，很明显可以看出B中“本”的搭配倾向比较集中，而“个”的可变性较高，搭配较自由，事实证明“个”无论在内部扩展还是外部扩展上都有着更高的能产性。④类型频率高，新表达接受度也高。假设图A和C中问号部分表示的是构式“Num+NCL+A状态”，只有类型频率最高的“个”修饰状态形容词时是可被接受的，即A<C。⑤可变性低，即使类型频率高，其泛化也会受到限制。如上图中的D，“本”与名词搭配类型是高于图A中的“团”的，但是由于“本”仅限于与书本类名词连用，当出现新表现想要成为其群体的一员时，它的高使用频率反而固定了它的使用方法，从而泛化受阻，限制了新表达式的加入。



〈图 3〉类型频率、可变性、语义相似性等因素对名量词构式的影响

图式性增强。从典型构式向非典型构式的扩展伴随着图式性的增强。图式性关注语言在多大程度上能够在一系列更具体的构式间捕捉到更普遍的模式(Tuggy,2007)，这个普遍模式是抽象的且与一般语义密切相关。因此本文可得出名量词构式之间的图式等级梯度关系：



〈图 4〉名量词构式的图式等级关系

组合性缩减。根据Francis、Michaelis(2003)对组合性特征的描述，可以发现构式“Num+NCL+N”是组合性(Compositional)的，只要听者理解语言序列中的每个个体的意义，那么听者就可以理解整体构式的意义[7]。而构式“Num+NCL+A”和“Num+NCL+V”是非组合性(Non-compositional)的，即使听者了解每个组合部分的意义，但对个别要素或构式的整体意义可能会存在误解。如形容词的“一个幽默”、“一个激动”中的“一个”没有了数量常规的内容性特征，此时数量词功能得到扩展。从典型构式到非典型构式的扩展，其组合性特征缩减了。

3. 动量词构式“X+Num+VCL”的形式与语义泛化

3.1 动量词构式嵌入成分“X”的分布规律

本文在BCC语料库中检索“V/A/N一VCL”，并统计其类型频率(并非例频率)对其进行人工排查，输出其使用频率≥3的所有有效语料。因动量词与同一类型动量词搭配具有很大的重复性，因此本文去掉其重复数据对其进行统计。并且本文将输出语料中的动词分为动作V、结果V以及状态V；形容词分为可变性质A、典型性质A以及

7) 当然“Num+NCL+N”中再细分的话也存在非组合性构式，但是相比与形容词、动词连用的构式来说，组合性更强。

状态A。但当“X”为名词时，本文根据“X”槽位的名词语义特征，将这些名词分为工具名词、活动名词以及程度性名词[8]。分析结果如下所示。

V一VCL	动作V	结果V	状态V	典型性质A	可变性质A	状态A	工具N	活动N	程度性N
计数	2826	754	188	186	270	-	41	65	104
	75%	20%	5%	41%	59%		19.5%	31%	49.5%
	检查	出现	放纵	欢乐	犹豫		地图	桑拿	土豪
持续	968	149	61	50	242	-	1	9	8
	82%	13%	5%	17%	83%		6%	50%	44%
	欣赏	变化	感动	忙碌	难过		google	游戏	文艺
整体	802	168	28	13	48	-		44	-
	80%	17%	3%	21%	79%			100%	
	演练	引发	喜欢	苦闷	紧张			灾难	

〈表 5〉动量词构式“X”为V、A、N时的类型频率

上表构式中动词选择倾向都呈现出“动作动词>结果动词>状态动词”的趋势，这是因为各类动词所含有的“动态性”也呈此趋势。形容词呈现出“可变性质形容词>典型性质形容词>状态形容词”的倾向。这与形容词内部的动性梯度有关，可变性质形容词的异质性[+stage-l evel state]特征为其进入动量词构式提供便利，而状态形容词的[-动态性]、[+程度性]，[+有界性]特征对其产生限制。“X”为名词时的分类并不均匀，计数动量词更倾向与程度性名词连用，持续动量词与活动名词、程度性名词连用程度相似，而整体动量词只可与活动名词连用。

3.2 动量词构式的形式与语义配对关系

随着动量词构式形式的扩张，其语义功能也得到发展。动量词虽然还表示计数或计时，但整体构式的语义结构却根据嵌入成分的不同而具有多种表征。总体来说，语义上存在从典型的原始语义“DO”向非典型语义结构“BECOME”以及“CAUSE-BECOME”的扩张。最终我们得到计数动量词构式、持续动量词构式以及整体动量词构式的“Form-Meaning”配对关系如下所示[9]：

$[[(SUB)[V_{action}\ Num\ VCL]_i] \longleftrightarrow [\text{“SEM[Measure an action”}]_i]$ (DO)
$[[(SUB)[V_{result}\ Num\ VCL]_i] \longleftrightarrow [\text{“SEM[Measure a result”}]_i]$ (BECOME)
$[[(SUB)[V_{state}/A_{change/typical/state}\ Num\ VCL]_i] \longleftrightarrow [\text{“SEM[(Measure)Cause-into a state”}]_i]$ (CAUSE-BECOME)
$[[(SUB)[N_{instrument}\ Num\ VCL]_i] \longleftrightarrow [\text{“SEM[(Measure)Do with instruments”}]_i]$ (DO)
$[[(SUB)[N_{activity}\ Num\ VCL]_i] \longleftrightarrow [\text{“SEM[(Measure)Do activities”}]_i]$ (DO)
$[[(SUB)[N_{degree}\ Num\ VCL]_i] \longleftrightarrow [\text{“SEM[(Measure)Cause-have a attribute”}]_i]$ (CAUSE-BE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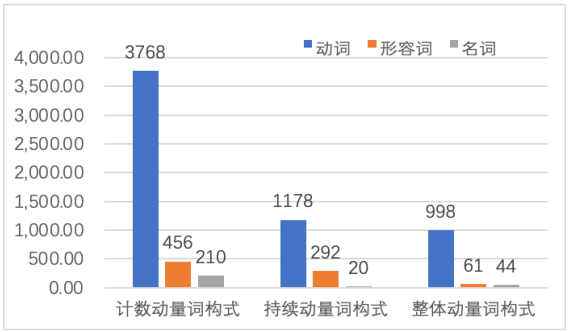
3.3 动量词构式的能产性、图示性及组合性

能产性增强。动量词构式从典型构式到非典型构式的扩展伴随着类型频率(和例频率)的增长(图5)。且动量词构式能产性的增强，符合Goldberg(2019)的“Coverage”中所涉及的概念，在超次元概念空间中的表现如图6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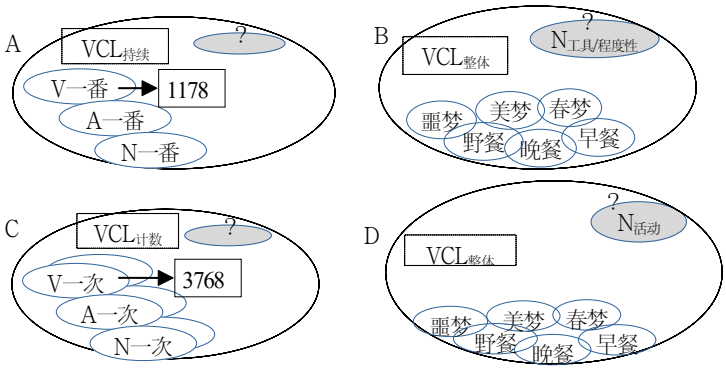
8) 其中工具名词主要指完成或达到目的时所需要借助的工具，如“微波炉”等家用电器或“百度”等搜索引擎工具。活动名词又可以细致分类为食物、娱乐生活以及事件名词。其中的事件名词带有一定的动性，邓盾(2021)将事件名词定义为“形态上与动词有同源关系，语义上指称事件发生过程的名词”，如“暴雨”、“战争”等。程度性名词是指体现出‘性质’程度性的名词。

9) 例句如下所示。动作动词：打一下。结果动词：出现一次。状态动词：醉一场。形容词：失望一遍/甜美一番/雪白一下。工具名词：微波炉一下。活动名词：游戏一场/美食一阵。程度性名词：淑女一番。

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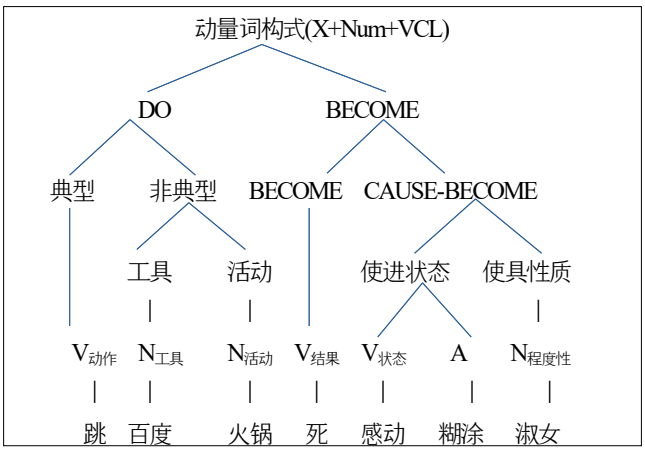


〈图 5〉名量词构式中"X"的类型频率对比图



〈图 6〉类型频率、可变性、语义相似性等因素对名量词构式的影响

图式性增强。动量词构式图式性的增强同样体现在出现了更多更普遍的模式来涵盖一些具体的构式，且与语义密切相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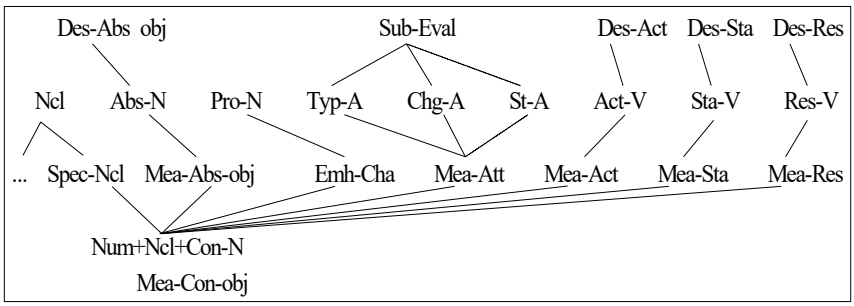


〈图 7〉动量词构式间等级关系梯度

组合性缩减。虽然在构式"V+Num+VCL"内部也存在组合性梯度，但就构式"X+Num+VCL"整体而言，可以知道构式"V+Num+VCL"是组合性的，而构式"A+Num+VCL"、"N+Num+VCL"是非组合性的。从构式的发展过程来看，表示对动作计量的动量词构式在新的动量语义被常规化时，经历了组合性的缩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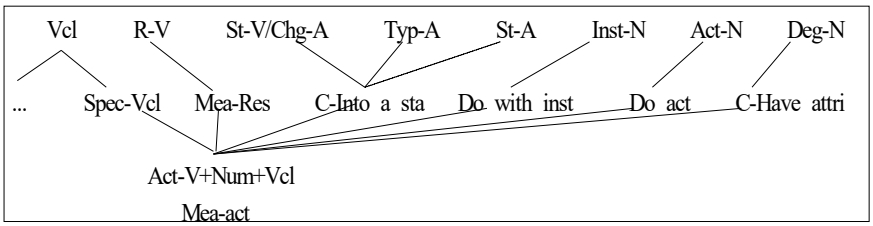
4. 数量词构式的构式演变及构式化过程

Traugott、Trousdale(2013)表示构式演变主要涉及语用扩展、语用扩展的语义固化、形式语义的错配以及一些细小的形式分布变化，而构式化是形式-语义都要产生新的变化，从而形成节点(Node)。根据研究结果，在名量词构式和动量词构式中都分别存在构式演变和构式化的过程。在名量词构式中，从对具体事物的计量，到对抽象事物、专有事物、性质、动作、状态、结果等成分的计量这一过程中产生了“形式新-语义新”的配对关系，发生了构式化过程，并在网络链接中形成了新的节点。但从对抽象事物、动作等成分的计量功能到描述功能的扩张、从对性质的计量功能到主观评价功能这一过程仅存在语义上的变化，并不存在形式上的变化，因此此时属于构式演变，没有在网络上形成新的节点[10]。具体表现如下图所示：(取各英文的缩写表示在下图中)



〈图 8〉名量词构式“Num＋NCL＋X”的网络链接

在动量词构式中，从一种“动作”到“结果”、“使进入一种状态”、“使用工具做某事”、“做活动”以及“使具特征”的发展过程中，形成了“形式新-语义新”的符号配对关系，是构式化过程；但在可变性质形容到典型性质形容词(以及状态形容词)的发展过程中，语义并没有发生改变，此时只是构式演变过程。图式化如下图所示：



〈图 9〉动量词构式“X＋Num＋VCL”的网络链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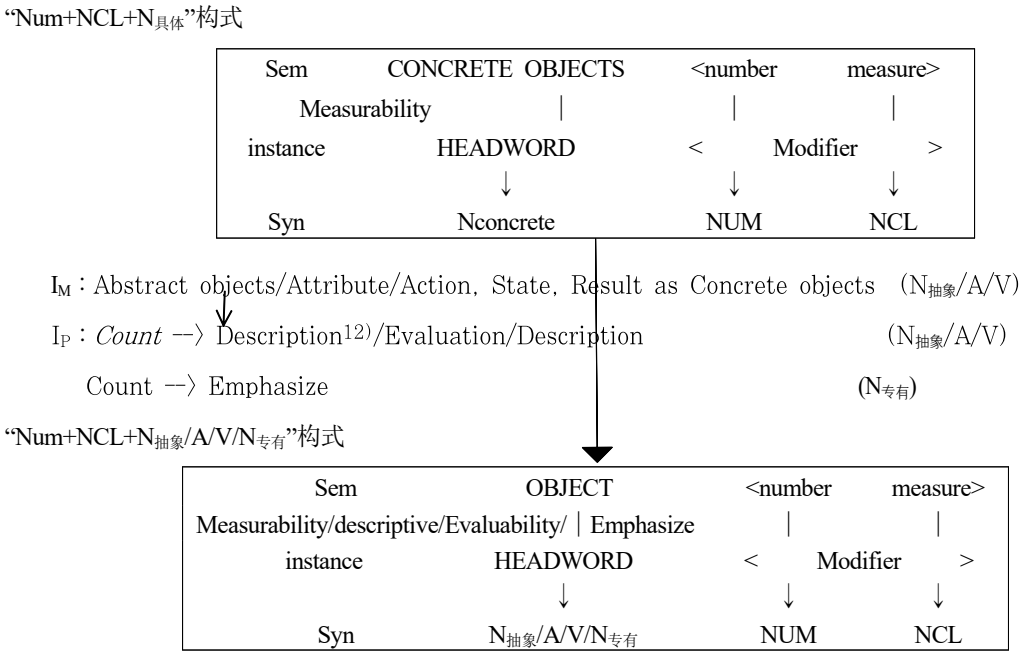
5. 数量词构式泛化的理据

5.1 数量词构式的内部继承关系

根据数量词构式的共时语义特征规律，本文确认了各构式间的继承关系。Goldberg(1995)详细阐述了继承链接的不同类型，即多义链接(Polysemy)、子部分(Subpart)链接、实例(Instance)链接以及隐喻扩展(Metaphorical extension)链接[11]。在名量词构式中共存在“I_P”和“I_M”两种继承关系。如下图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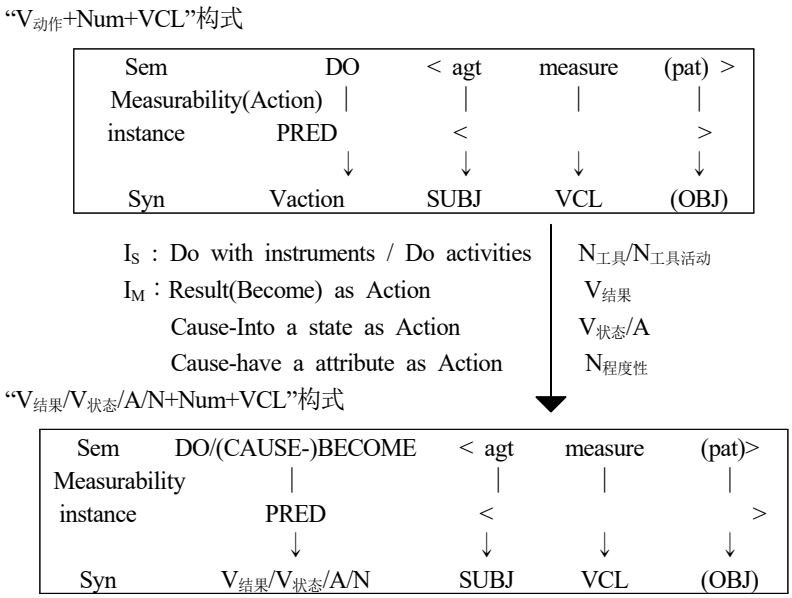
10) 本文对数量词构式的考察体现为Traugott、Trousdale(2013)主张的语法虚化倾向中共时层面的梯度(Gradience)考察，而非历时层面的渐变性(Gradualness)考察。

11) 其中多义(IP)链接描述构式的某个特定意义和以该意义为基础的扩展意义之间的语义关系的性质；子部分(IS)链接是指一个构式是另一个构式固有的一个子部分并且独立存在的情况；隐喻扩展(IM)链接是指两个构式通过隐喻映射相连的情况。



〈图 10〉名量词构式的继承关系

在动量词构式的内部继承关系中共存在"I_S"和"I_M"两种继承关系。



〈图 11〉动量词构式的继承关系

5.2 影响数量词构式一般化的因素

Goldberg(2019)的'CENCE ME'原则、语用上的凸显、新分析(Neoanalysis)[13]、类比思考(Analogical

12) "Count --> Description"表示在计量含义的基础上发展构式扩展出了"描述"意义。

13) 在语法化中往往使用"重新分析"这个术语，但是Traugott、Trousdale(2013)指出语言使用者在对一些不具有内化情况的构式产出不同的理解时，重新分析并没有发生，因此主张在构式化中用"新分析"代替"重新分析"。杨旭(2016)引用Lightfoot(1999)的观点表示"重新分析"更注重宏观层面的演化，而"新分析"会对微观形式和意义的演化都进行分析。因此"新分析"比"重新分

thinking)和类比化(Analogization)、构式和词汇的双向压制(Coercion)等因素都对数量词构式的泛化起到了重要的影响。

5.3 认知发展机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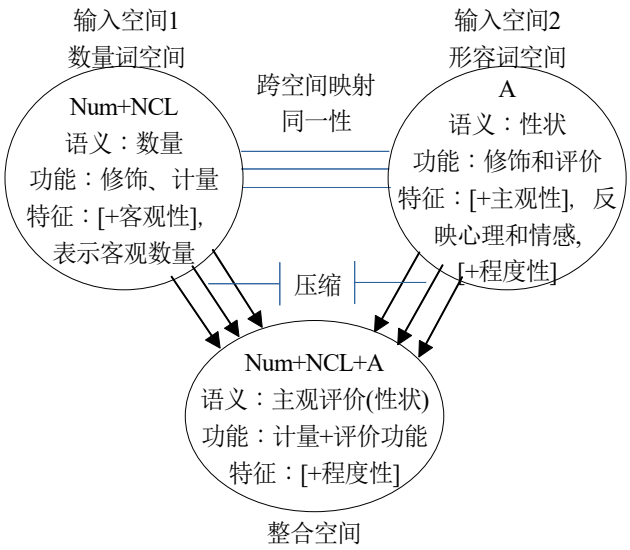
在名量词构式中，除典型构式“Num+NCL+N具体”到表示强调语义的构式“Num+NCL+N专有”是通过转喻机制发展来的以外，剩下其它所有非典型构式都是通过隐喻认知机制来不断发展的。具体投射如下所示：

转喻　　隐喻
具体事物---------->事物特有名称　　具体事物---------->抽象事物/性质/动作/状态/结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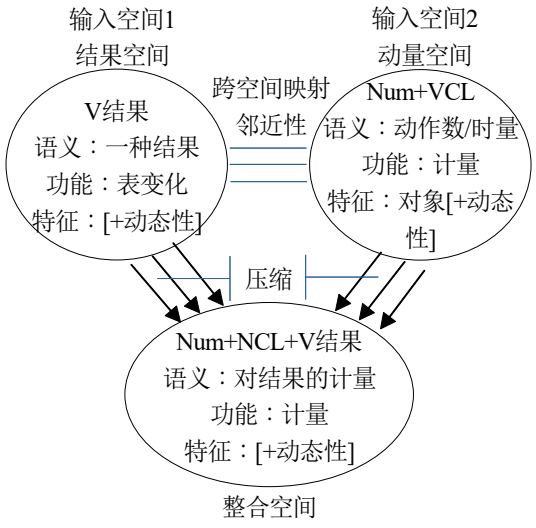
在动量词构式中，原型构式“$V_{动作}$+Num+VCL”向发展构式“$N_{工具}$+Num+VCL”、“$N_{活动}$+Num+VCL”以及“$V_{结果}$+Num+VCL”扩展的过程中发生了转喻认知机制的投射，而其向“$V_{状态}$+Num+VCL”、“A+Num+VCL”以及“$N_{程度性}$+Num+VCL”构式的发展过程中发生了隐喻机制的投射。具体投射如下所示：

转喻　　隐喻
动作---------->动作方式/动作对象/动作结果　　具体事物---------->状态/属性

除转喻与隐喻外，概念整合(Conceptual blenging)也对数量词构式的发展起到了重要的影响。



〈图 12〉“主观评价”义的整合网络



〈图 13〉“BECOME”的整合网络

以名量词构式“主观评价”义的整合网络和动量词构式“BECOME”的整合网络为例，如图12-13所示。本文认为从典型名量词构式到非典型名量词构式在计量语义范围的扩张上体现了隐喻和转喻机制的作用，而从计量语义到“特指或强调某种特征”、“主观评价”以及“描述”语义则是概念整合的结果。在动量词构式的语义扩张上，同样其隐喻或转喻投射仅可以为构式中“X”成分之间的关联性做出解释，对新构式整体意义的说明还需概念整合理论的补充说明。

析”更适合数量词构式的解读。

6. 结论

本研究确认了数量词构式的发展(或发展方向)是具有普遍性的，而并非仅发生在个别特殊量词词汇上。本文总结出数量词构式形式及语义功能的扩张虽然以不同的程度出现在各类别数量词构式上，但是其扩张自身以及扩张的方向在各类别数量词构式上呈现出一致的倾向性特征，并且本文对其特征规律进行了理论上的解释说明。语言是具有流动性的，数量词构式的泛化趋势会随着语言使用者的使用而继续不断地发展下去。构式演变和构式化是一个循环的系统，纵观漫长的数量词构式演变系统，在构式间的继承关系、构式化动因以及各种认知发展机制转换过程的不断刺激下，数量词构式的发展也是一个不断循环进化的过程。

〈参考文献〉

Adele E. Goldberg,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Adele E. Goldberg, ≪Constructions at Work≫, The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Adele E. Goldberg, ≪Explain Me This · Creativity, Competition, and the Partial Productivity of Construc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Carlota S. Smith,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Kluwer Acade mic Publishers, 1997.

Traugott、Trousdale,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李明月，<构式“X+Num+VCL”的演变及构式化研究-以计数动量词‘下’、‘回’、‘次’为中心>，≪中国言语研究≫，第89辑，2020.

王寅，≪构式语法研究≫，上海：上海外语教育出版社，2016.

4月 29日(土) 15:30~17:40

발표논문

현대문학분과

현대문학과 문화

— [인문2관 104호] —

청샤오칭(程小青) 탐정소설 연구*

— 근대 인식과 서사전략을 중심으로

박은혜**

<目 次>

1. 서론
2. 중국 탐정소설의 형성 배경과 발전 과정
3. 청샤오칭의 서구 탐정소설 이념과 장르문법 수용
4. 청샤오칭 탐정소설의 현실 비판 의식과 공리성
5. 청샤오칭 탐정소설과 근대적 시공 감각
6.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민국시기를 대표하는 탐정소설 번역가이자 작가이며, 이론가였던 청샤오칭[1]이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창작한 탐정소설을 '근대성 인식'과 '서사전략'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탐정소설은 1896년 상하이(上海)에서 창간된 잡지 『시무보(时务报)』에 동시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의 셜록 홈스 시리즈 중 4편이 번역되어 실리면서 처음 중국에 소개되었다. 탐정소설이 신문학 진영으로부터 구파소설로 분류되며 단순한 '오락거리'로 치부되기 전까지, 중국에서 번역 또는 번안된 외국의 탐정소설은 수백여 종에 달할 정도였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한 대도시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독자층으로 부상한 시민 계급에게 서구의 탐정소설은 새로운 장르적 즐거움과 지적 유희를 제공했다. 하지만 탐정소설은 단순히 재미로만 소비되지 않았다. 중국의 독자들과 지식인들은 서구의 탐정소설에서 중국의 전통소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서사와 근대의 표상인 과학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수사 방식에 주목했다.

청말민초 서구의 탐정소설이 중국에 소개되고 큰 반향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구 근대적 이념과 가치가 선사하는 '새로움'의 감각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탐정소설 작가들은 새로운 형식의 서사, 과학과 합리성, 근대 도시문화에 대한 수용과 비판을 통해 근대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수립하였고, 또 독자들이 그러한 수용과 비판 정신을 통해 바람직한 근대적 주체로 개조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청샤오칭이 창작한 탐정소설을 '근대성 인식'과 '서사전략'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청샤오칭의 탐정소설은 대부분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 시리즈를 오마주한

* 이 발표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2022년 7월 졸업)을 요약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1) 청샤오칭(1893-1976)은 대표하는 작가로, 그가 쓴 훠쌍 시리즈는 중국 문단에 출현한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탐정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샤오칭은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 시리즈뿐 아니라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 S. S. 밴 다인(S. S. Van Dine) 등 여러 서양의 탐정소설을 번역하며 탐정소설 창작의 기초를 쌓았다. 그러면서 그는 홈스와 그의 파트너이자 소설의 화자인 존 왓슨(John Watson)을 모방하여 상하이와 쑤저우(苏州) 등지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탐정 훠쌍과 그의 파트너 바오랑을 탄생시켰다. 청샤오칭의 소설은 훠쌍과 바오랑이라는 캐릭터의 특성, 서사의 전개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셜록 홈스 시리즈의 빚을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소설의 본토화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켰다.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탐정소설이 셜록 홈스 시리즈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정교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유럽문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과학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산업혁명의 결과로 엄청나게 팽창한 영국 자본주의 근대성의 명암을 보여주는 셜록 홈스 시리즈의 특징이야말로 청샤오칭이 탐정소설에 매료된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본고는 셜록 홈스 시리즈가 활용하고 있는 다채로운 장르 문법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근대적 가치와 이념이 청샤오칭의 창작 과정에 어떻게 융해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새로운 장르의 수용 과정에서 청샤오칭이 새로이 녹여낸 시대 인식과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본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텍스트는 청샤오칭이 창작한 탐정소설, 즉 탐정 훠쌍(霍桑)이 그의 동료인 바오랑(包朗)과 함께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훠쌍 시리즈다. 훠쌍 시리즈는 셜록 홈스 시리즈처럼 훠쌍이 등장하는 모든 소설의 통칭이다. 이 훠쌍 시리즈에 포함된 소설들은 통속 잡지 또는 신문과 같은 간행물에 연재되면서, 매번 다른 이름의 단행본이나 전집의 형식으로 출간된 바 있다. 본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청샤오칭의 탐정소설은 췬중출판사(群众出版社)에서 출간된 『훠쌍탐안집(霍桑探案集)』[2]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이 전집의 작품들 외에도, 『훠쌍탐안집』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47년 『중미주보(中美週報)』 제242기부터 제266기에 연재된 중편소설 『안개 속의 꽃(雾中花)』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2. 중국 탐정소설의 형성 배경과 발전 과정

제2장에서는 청말민초 서구의 탐정소설이 처음 중국에 유입되었을 때부터 1920-30년대 창작 탐정소설과 탐정소설 전문 잡지가 성행하게 될 때까지, 청샤오칭의 탐정소설의 서구 탐정소설 수용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배경 하에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고찰했다. 1절에서는 청말민초 서구 탐정소설의 수용과 범죄 담론이 상품화되는 과정을 논했다. 청말민초 서구의 탐정소설은 계몽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유했던 근대적 지식인들에 의해 과학과 인권으로 무장한 '신소설'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소설을 통해 사회를 개조하고 국민을 계몽시키고자 했던 구상이 실현되지 못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탐정소설은 오히려 사회 개조와 국민 계몽에 방해가 되는 소설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탐정소설에 가해진 이같은 비판은, 결국 탐정소설이 중국 사회에서 계몽과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길 바랐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사회가 점점 근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범죄 행위가 『점석재화보』와 『시사신보』의 '흑막모집 공고', 그리고 『중국흑막대관』과 같은 근대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됐다. 이를 통해 대중들은 내 이웃의 범죄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고, 범죄를 오락거리와 유희로 소비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판시장에서도 '범죄'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소재로 인식되었다.

2절에서는 출판시장의 상업화와 통속화로 인한 탐정소설 관련 전집과 간행물의 발행, 그리고 이를 소비하는 새로운 독자층의 부상에 대해서 논했다. 1896년 코난 도일의 탐정소설이 중국에서 최초로 번역되어 소개된 이래, 상하이의 대형 출판사들은 앞다투어 서구 탐정소설을 번역·번안한 전집[3]을 출판하기 시작

2) 『훠쌍탐안집』에는 훠쌍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총 74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서국(世界书局)에서 발행한 전집에 수록되었던 것들이다. 74편의 소설은 장편, 중편, 단편 등 다양한 편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설이 최초로 발표된 시기는 1920년대 초부터 1945년까지다.

3) 가장 인기가 많은 시리즈는 단연 셜록 홈스와 아르센 뤼팽이었다. 중화서국은 1916년 셜록 홈스 시리즈 중 4편의 장편과 40편의 단편을 총 12권으로 만들어 번역, 출간했다. 1923년에는 대동서국(大同書局)이 앞서 중화서국에서 미처 싣지 못한 9편의 단편을 총 4권으로 출간했다. 이후 1926년 세계서국에서는 장편소설 4편과 단편소설 50편을 실은 『셜록 홈스 전집(福尔摩斯侦探案全集)』을 출간했다. 청샤오칭에 의해 백화문으로 재번역된 이 전집은, 신식 표기부호가 사용된 백화문으로 번역된 최초의 셜록 홈스 전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했다. 1920년대 이후부터는 청샤오칭의 탐정소설[4] 외에도, '탐정소설'로서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비교적 완성도가 있는 창작 탐정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장비우(张碧梧, 1891-?)의 쑹우치 시리즈(宋梧奇探案), 루단안(陆澹安, 1894-1980)의 리페이 시리즈(李飞探案), 쑨랴오훙(孙了红, 1897-1958)의 동방의 뤼팽 시리즈(东方罗苹奇案), 자오탸오쾅(赵苕狂)의 후셴(胡闲)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또한 『정탐세계(侦探世界)』, 『대정탐(大侦探)』 등 탐정소설 전문 잡지들은 외국의 탐정소설을 중국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독자들과의 상호 작용을 중요시하며 당시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시민 계층의 독자들을 포섭하려 노력했다.

3. 청샤오칭의 서구 탐정소설 이념과 장르문법 수용

제3장에서는 청샤오칭 탐정소설의 서구 탐정소설 이념과 장르문법 수용을 고찰했다. 3장 1절에서는 청샤오칭이 서구 탐정소설로부터 수용한 이념을 과학수사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성, 추리 기법과 추론 방식을 수용한 논리성, 탈미신화와 탈신비화를 강조한 합리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서구 탐정소설이 실제로 '과학적'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샤오칭에게 '과학적인 수사 방법'은 탐정소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그는 「죄가 없는 살인자(无罪的凶手)」, 「사건 속의 사건(案中案)」 등의 소설에서 과학 기술이 사건 수사에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을 구현하려 애썼다. 또한 청샤오칭 탐정소설의 주인공인 탐정 훠쌍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증거와 정보를 취합하여, 가추법이라는 추론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다. 하지만 이같은 훠쌍의 추론은 결국 청샤오칭이 원하는 결말을 위해 세심하게 구상된 것이며, 그 결말에 부합하지 않는 가설 또는 가능성은 검증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폐기된다. 때문에 훠쌍의 추론은 종종 단서의 조합이 지나치게 인위적이거나 추론의 결과가 상상에 가까운 비약에 이르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흰색 옷을 입은 괴물(白衣怪)』 「수상한 별장(别墅之怪)」 등의 소설은 여전히 봉건적이고 미신적인 사고 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 방식을 강조한다. 이 소설들에서 훠쌍과 바오랑은 의뢰인이 가져온 미스터리하고 기이한 사건을 인과 관계가 분명하고 실체가 있는 사건으로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3장 2절에서는 청샤오칭이 서구 탐정소설로부터 수용한 서사 전략 중, 가장 대표적이라 생각되는 다양화된 범죄 트릭과 서술의 중개 방식을 중심으로 연구 텍스트를 분석했다. 청샤오칭은 서구 탐정소설의 탐독과 번역을 통해 탐정소설 고유의 장르적 특징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자신의 소설에 이식하려 애썼다. 본 절에서는 특히 '범행 시간에 관한 트릭', '머리 없는 시신 트릭' 등의 범죄 트릭과 바오랑이라는 관찰자 및 화자를 활용한 중개 방식의 서술 형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청샤오칭의 탐정소설이 이러한 장르문법을 수용한 양상과 그 배경을 파악하려 시도했다. 청샤오칭은 탐정소설의 유희성과 오락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것이 독자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다양한 범죄 트릭과 서사 기교 역시 독자들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체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샤오칭이 그의 탐정소설에서 현실 비판 의식과 문학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의 공리성을 강조하는 주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4) 청샤오칭의 훠쌍 시리즈는 1920년대 상하이문화미술도서공사(上海文华美术图书公司)에서 『훠쌍탐안회간(霍桑探案汇刊)』이란 이름으로 12권이, 『훠쌍탐안외집(霍桑探案外集)』라는 이름으로 6권이 출간되었으며 1932년도에는 대중서국에서 총 16편의 작품이 실린 전집이 출간되었다. 세계서국에서는 1942년부터 1945년까지 『포켓형 훠쌍탐안총간(霍桑探案袖珍丛刊)』이라는 이름으로 전집을 출간했다.

4. 청샤오칭 탐정소설의 현실 비판 의식과 공리성

제4장에서는 청샤오칭의 탐정소설이 서구의 탐정소설이라는 근대적 가치와 이념, 그리고 서사 전략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녹여낸 시대 인식과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탐정소설의 서사 전략을 이같은 주제의식과 어떻게 연결시켜 활용했는지 고찰했다. 청샤오칭이 그의 탐정소설을 통해 강조한 현실 비판 의식과 공리성은 여러 양상으로 발현된다. 1절에서는「댄스홀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舞宫魔影)」,「댄싱퀸의 최후(舞後的归宿)」,「회색 옷 입은 사람(灰衣人)」 등에서 범죄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등장하는 '댄싱퀸'과 '모던걸' 형상 분석을 통해, 근대 도시를 퇴폐적 공간이자 범죄의 온상으로 비판하는 청샤오칭의 도시 인식을 고찰했다. 또한「바퀴 아래 피(轮下血)」,「신발 한 짝(一隻鞋)」 등의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청샤오칭이 탐정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어떻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주식 시장 또는 보험과 같은 금융 자본주의의 폐해를 비판했는지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청샤오칭 탐정소설이 재현한 윤리관과 민족의식을 반전 장치로서의 위선적 지식인 형상과 고착된 윤리와 사법 제도의 탈주, '반제(反帝)' 의식과 '민족주의자' 탐정 캐릭터의 구현이라는 소주제로 분류해 분석했다. 청샤오칭은 그의 탐정소설을 통해 외우내환의 위기에 처한 민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할 지식인들이 겉으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뒤로는 향락에 빠져 살거나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는 현실을 비판했는데, 이 같은 비판 의식은 '신분의 전환' 또는 '예상치 못한 범인'이라는 '반전'을 통해 구현되었다. 사법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과 그것이 갖는 모순과 이중성 역시 결말의 여러 유형을 통해 표현된다. 청샤오칭 탐정소설에서 민족주의 정서와 구망의 긴급성은 소설 속 인물 간의 대비, 그리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훠쌍의 윤리의식 및 인권 인식을 통해 강조된다. 하지만 청샤오칭의 탐정소설 속에서 '인권'의 가치는 크게 중시되지 못하고, 사회 공동체의 이익과 '공도(公道)'라는 집단윤리에 의해 억압되는 양상을 보인다.

5. 청샤오칭 탐정소설과 근대적 시공 감각

제5장에서는 청샤오칭 탐정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시공 감각에 대해 분석했다. 1절에서는 시공 감각의 변화와 근대적 매체의 등장을 중심으로 청샤오칭의 탐정소설을 분석했다. 시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각에 대한 강조는 근대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다.「건물 위 사람 얼굴(楼头人面)」,「피 묻은 칼(血匕首)」 등의 소설에서처럼, 시간을 이용하여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행위나 시간과 관련된 표식의 등장은 독자들에게 근대적 시간을 각성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용한다. 근대의 범죄자들은, 범죄가 일어난 시공간의 비밀을 홀로 강력하게 장악할 목적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편집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또한「칼날에 맺힌 푸른 피(霜刃碧血)」,「두 번째 사진(第二张照)」 등의 분석을 통해, 작품 신문, 전보, 사진과 같은 근대적 매체가 전통적인 시공 감각을 근대적인 시공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혔다.

2절에서는 청샤오칭의 탐정소설에서 범죄 공간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시선이 어떻게 근대적 공간, 특히 범죄 공간의 사물에 투사되는지, 또 그것이 탐정소설이라는 장르의 독특성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탐색했다. 작중 훠쌍과 바오랑은 사건이 주로 벌어지는 실내의 범죄 공간을 마치 카메라의 렌즈가 사진을 찍듯이 세밀하게 관찰한다. 실내뿐 아니라 발터 벤야민이 언급한 '도시 산책자'로서의 훠쌍과 바오랑은 상하이라는 대도시의 면면을 포착하고, 군중 속에 숨은 범죄자를 뒤쫓는다. 교통 수단의 발전과 여행의 산업화에 따라 범죄 공간도 확장되면서, 훠쌍과 바오랑은 기차와 여관이라는 근대적 공간에서도 범죄 사건과 맞닥뜨린다. 이렇듯 청샤오칭의 탐정소설은 '시간'이라는 근대적 인식 범주와 상하이라는 대도시,

그리고 기차와 여관과 같은 확장된 근대의 범죄 공간을 구석구석을 살피는 시선을 통해 풍부한 근대적 감각을 드러낸다.

6. 결론

청샤오칭의 탐정소설은 서구 탐정소설의 장르적 기법을 충실하게 수용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서사전략을 통해 작가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고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청샤오칭의 탐정소설은 뚜렷한 사회성을 보이며 범죄의 양상뿐 아니라 범죄의 동기에도 천착한다. 청샤오칭의 작품 속 탐정은 서구 탐정소설의 탐정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지식과 뛰어난 관찰력을 바탕으로 하는 추론 능력을 선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일에 남다른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며 애국주의자의 면모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의 모델이었던 홈스와 사뭇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청샤오칭의 작품은 범죄 발생 공간과 범죄자의 캐릭터가 비교적 제한적이며, 탐정소설 장르로서의 예술성과 작품성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노정하기도 한다. 또한 추론 방식에서도 과도한 상상력의 발휘에 따른 비약과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기도 하며, 일부 작품에서는 아예 '추리' 또는 '추론' 과정이 보이지 않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탐정소설 고유의 장르적 특징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근대적 의미를 자신의 작품 안에 농후하게 반영하고 당대 상하이의 현실을 여실하게 재현함으로써, 중국 현대문학에 다채로운 풍경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청샤오칭 문학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민국 시기 탐정소설이 신문학 또는 혁명문학 진영 외부에서 '근대성' 문제를 어떻게 사유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지평에서 '중국 근대의 풍경'을 재현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탐정소설과 신문학의 관계, 그리고 탐정소설과 기타 통속소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등 중국 현대문학 연구의 씨줄과 날줄을 보다 촘촘하게 직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중국 신월파와 영미 문학의 교류 양상과 영향 연구

전 영*

<目 次>

1. 서론
2. 파라텍스트로서의 서신과 문학 교류에의 영향
3. 동서 문화교류에 존재한 서구 중심주의의 대응
4. 동서교류의 문화 자본과 신문학에 대한 영향

1. 서론

일찍이 20세기 초기부터 서구와의 교류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문학적 논의를 진전시킨, 대표적인 현대 작가군으로 신월파(新月派) 작가들을 들 수 있다. 신월파 작가들은 근현대사적 관점에서 전통문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서구 문화를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적 가치를 서구에 전파한 최초의 근대적인 문화 전파자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서구에서 유학하여 서구 문학사조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이었다. 영어로 읽고 쓰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그들은 서구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낭만주의, 페미니즘, 유미주의, 모더니즘, 자유주의 등 문학 이론을 정립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신월파 작가들과 서구 작가와의 교류 상황은 그들의 자서전이나 전기, 혹은 관련 문학사 기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당시 교류 당사자들이 남긴 가장 직접적인 증좌이자, 작품과 또 다른 독자적인 텍스트로서 기능하는 서신을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라르 주네트(Gérard Genette)는 텍스트가 책으로서 대중에게 인식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텍스트 이외의 메인 텍스트(본문)를 보완하는 텍스트를 파라텍스트라고 이름 붙인 바 있다.[1] 파라텍스트로서 서신은 작가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상호교류의 수단으로서, 지식인의 문학적 대화에 결정적인 매개체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창작배경을 가늠케 하고, 작품의 이해에도 더욱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다.

신월파 작가들은 서구와의 활발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작가 당대에 부르주아 작가로 폄하되어 주류 문학사 담론에서 배제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한동안 타락한 작가로 폄하되어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1980~90년대 이후로 신월파에 대한 연구가 점차 객관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동서 문학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문학적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 본고는 그동안 현대문학의 중심을 좌익문학에 맞춰왔던 시선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던 부르주아 작가의 활동 양상과 그 연원에 주목해, 신월파 작가가 서구 지식인·작가와의 교류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사조와 문화를 흡수하고,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냈는지 논하고자 한다. 더불어 신월파 작가들과 서구 지식인 사이의 문학사적 관계망을 추적하고, 그들의 교류 산물로서 형성된 담론이 중국에서 문학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서구 모더니즘이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에서 수용되었는지,

* 남서울대학교

1) 파라텍스트는 제라르 주네트의 ≪문턱 *Seuils*≫에서 처음 제기된 이론이다. 파라텍스트는 책의 판형, 표지, 제목과 같이 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부에 존재하며 책을 둘러싸고 있는 페리텍스트(peritext)와, 책에 대한 논평이나 일기문 등 간접적으로 관련되며 책 바깥에 존재하는 에피텍스트(epitext)로 나뉜다. Gérard Genette,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1-3, 참조.

거꾸로 중국 문학은 어떤 방식으로 서구인들에게 제시되었는지, 더 나아가 그들의 행위는 또 중국 현대문학의 세계문학 진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2. 파라텍스트로서의 서신과 문학 교류에의 영향

최근 연구의 흐름을 보면, 근대 지식인 사회의 사상・철학・인적 교류에 주목하고, 지성의 역사를 생생하게 살려내 오늘날의 지식사회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서신, 일기 등과 같은 파라텍스트는 한편 상당한 큰 모호성과 복잡성을 드러낸다. 서신이라는 개성화된 기록에서 여러 문학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대화와 대치, 대립 및 의견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중국과 서구의 시대 상황 및 작가의 내면에서 우러난 사유를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 지식인들이 수용했던 문학사상을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서신은 지식인들의 문학적 대화의 매개체로서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파라텍스트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독자는 현재 시점을 바탕으로 과거의 시간과 연결하여 텍스트를 해독하는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인물의 전기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시대 배경을 재현하고 작가의 내면의 사유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월파 작가들의 영문 서신은 문학 텍스트와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연결하여 중국 문학의 범주를 넘어 세계문학으로 향하게 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할 것이다.

5・4운동 이후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고취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외국 사조가 거센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문화 담론의 범위 역시 확대되었다. 지식인들은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주와 과학을 선양하고 자각적으로 국민성을 개조하는 역사적 사명을 떠안게 되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했다. 이 시기 문학연구회, 창조사 등 문학단체들이 잇달아 출현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살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구문화에서 '살롱(Salon)'은 '응접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지식수준이 높은 남녀 지식인들이 모여 담화를 나누거나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비정식 모임을 지칭한다. 살롱은 개방적인 사교모임으로, 여러 사회 구성원이 모이지만 평등한 관념을 지니고 있으며 계층과 성별의 경계를 인식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상 교류의 장을 이루었다.[3] 문학과 예술, 철학이나 정치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살롱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학작품을 낭송하거나 연출하는 것이었고, 점차 응접실 문학 즉 살롱문학을 형성했다. 살롱의 흥성은 작가들에게 풍부한 창작 소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념의 발원지로 문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18세기의 위대한 문필가들중 먼저 이러한 담론으로, 즉 아카데미에서의 강연과 무엇보다도 살롱에서의 담론으로 먼저 자신의 기본 생각을 토론에 부치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다."라 했다.[4] 새로운 작품은 그것이 비록 음악작품이라 하더라도 먼저 이 포럼에서 자신을 정당화하여야 했다. 살롱의 문화형식은 "문화를 상품형태로 전화시킴으로써 문화를 비로소 토론능력을 갖춘 문화로 만들어 낸 동일한 과정이 공중의 원칙적 비폐쇄성을 가져온다"[5]라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이 가진 제도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2) 일례로 앤서니 그래프턴(Anthony Thomas Grafton)은 ≪편지 공화국≫(2021)에서 17~18세기 유럽 지식인들이 어떻게 지식을 공유해 왔는지를 '편지 교신'의 흔적으로써 탐색하는, 인류 문화사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편지 공화국의 '시민'들은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공식적인 사교 단체 혹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서로의 뜻과 학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했다. 그 치열한 토론을 바탕으로 근대 유럽은 거대한 지식의 체계를 갖추어나갔고, 이는 바로 서구 학문과 사상의 근간이 되었다. 앤서니 그래프턴 저, 강주헌 역, ≪편지 공화국≫, 21세기북스, 2021, p.6.

3) 費冬梅, ≪沙龍：一種新都市文化與文學生產≫, 北京大學出版社, 2016, pp.7-11.

4) 위르겐 하버마스 저,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2001, pp.104-105.

5) 위르겐 하버마스, 위의 책, p.108.

중국 현대문학단체 중 서구식 살롱의 형식을 띤 문학단체는 많지 않다. 신월파 지식인들은 자신의 공간에서 회식 모임, 연극이나 문학 토론을 진행했고 공공의 영역을 형성했다. 그들은 1928년 ≪신월≫ 잡지를 창간하여 새로운 문학 토론의 공간을 구축했다. 신월파의 살롱은 그들이 향유한 문화 자본과도 연결되며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축적한 상징적 힘과 감성적인 자산을 포함한다. 살롱은 20~30년대 지식인들의 정신적 문화적 생활의 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경파(京派)와 해파(海派) 등 문학 유파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편으로 살롱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필요하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여론 분위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전쟁이 횡행하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과 서구와의 물리적 거리는 원래 실존하는 모임의 장을 서신이라는 매개체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살롱에서 진행했던 문화토론의 공간을 서신이라는 '종이' 살롱의 형식으로 새롭게 구현하기 시작했다. 지식인들의 서신 교류는 '무형(隱形)'의 장으로 지식인들 사이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으며, 하나의 문학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신월파 작가들은 이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 고리로 중국 작가들의 책의 출판, 서구 지식인의 중국 강연 초청 등 중요한 내용을 서신을 통해 교류하였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서신은 지식인 문학 토론의 공간으로서 '문학 살롱'의 기능을 지속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20년대의 문단은 루쉰, 저우쭤런을 대표로 하는 신문학 대표주자들과 문학연구회, 창조사 등 문학 유파가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구 유학을 경험한 엘리트 지식인들로 구성된 신월파 작가들은 새로운 지식 담론으로 성장하고 있는 젊은 세력들이었기에 기존 문화 권력만큼의 인지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구 문학적 권위와의 교류를 통해 획득한 상징자본으로 중국 문단에서의 문화적 지위를 높이고 일정 정도의 발언권을 가져와야만 했다.

신월파 작가들은 서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당시 문단에서 교량 역할을 담당했으며 신월사와 함께 서구문학 사상을 도입하는 데 힘썼다. 신월파 작가와 서구 유명 작가들과의 교류는 결코 개인적인 교류에 그치지 않았고, 그 영향력을 중국 문학의 모더니즘 수용으로 확장하였다. 그들은 서구의 선진적인 문학 이념을 중국에 구현하려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훌륭한 작품을 영국에 출판하는 등 동서간의 문화 교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즉 신월파 작가들은 서구에서 영향력 있는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 자본과 문화 권력을 획득하여 중국 문단에서의 문학적 권위를 높일 수 있는 포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3. 동서 문화교류에 존재한 서구 중심주의의 대응

20세기 초기 영국과 중국의 관계는 무역이나 선교 활동 혹은 식민주의 약탈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에 대한 동경에서도 비롯된다. 영국의 식민주의가 쇠퇴하고 신흥 제국주의가 흥기한 시기, 중·영 두 나라의 지식인들, 특히 블룸즈버리그룹과 신월파 작가들은 상대 나라의 전통문화, 미술, 예술, 종교 등에 대해 열정적으로 탐색했다. 이를 통해 1920~40년대의 문학적 교류와 대화는 서구와 중국의 현대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신월파 지식인들에게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인정과 탈식민주의적 사고가 혼재해 있었으며, 문화 매개자로서 서구문학에 대한 동경과 서구중심주의에의 대항이라는 모순된 심경도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서구문학을 참조함으로써 중국 문학의 모더니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세계문학에서 중국 문학이 차지한 주변부 위치로 인해, 서구문학의 모방과 이식이라는 한계 또한 피할 수 없었다. 중국의 현대문학에 드리워진 서구중심주의의 그늘에는 이에 대한 전복과 노골적 선망이 늘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신월파 지식인들은 중국의 현대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여 서구에서 출판하는 문학실천을 하였다. 일반적인 문학의 번역과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 주변부에 처해있는 문학은 중심부 문학의 작품을 번역하여, 자민족 작가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문학 형식과 수법을 도입한다. 그리고 중심부 문학의 전통이 지닌 명망을 이용하여, 자민족 문학 자원을 충족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마련이다. 신월파의 번역과 수용이 바로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화번역'[6]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문화번역'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대체하는 일반적인 번역이 아닌, 타자의 언어와 행동 양식, 가치관 등에 내재화된 문학적 의미를 파악하여 '맥락'에 맞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일컫는다.[7]

예컨대, 신월파 작가 링수화의 영문소설 창작과 소설 영역의 과정 역시 중국문학 텍스트에 내재한 고유의 양식과 가치관 등의 문화적 의미를 서구 독자들의 기대에 맞게 재창조해가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0세기 초기까지도 영국 지식인들은 문학창작에서 중국에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이고 짐승 같은 이미지를 부여했다. 중국인을 완전히 야만적인 '타자'로 위치시킨 것은 서구문화의 우월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947년 영국에 정착한 링수화는 이국에서 영국인의 이러한 시선을 체감했다. 링수화는 작품을 통해 낙후하고 부정적인 중국의 현실을 회피하고 야만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동양의 이국적 정취를 통해 중국의 이미지를 미화하고, 동양의 유토피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서구 작가들이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중국을 관찰하고 연구했지만, 그들은 모두 중국을 자신과 상이한 '타자'로 보았다. 그들은 중국을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 공간으로 보고 자신의 유토피아 상상을 중국에 투영시키고자 했다. 20세기 서구 작가들은 자국 문화에서 느낀 위기감으로 인해 완전히 상이한 '타자'에 매료되었고, 그것을 자국 문화를 성찰하는 거울로 삼았다. 그러나 그들이 자국 문화 속성에서 벗어나 중국문학과 '융합'할 수는 없었다.

비록 신월파 지식인과 서구 지식인들의 교류 과정에서 서구중심주의 시선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서구식' 건의가 있었기에, 또한 대상 독자의 기대 지평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수용하여 서사 전략을 부단히 조정할 수 있었던 점도 수긍할 수 있다. 그들의 서구중심주의는 한편으로 중국 현대문학이 민족 문학의 경계를 넘어 세계문학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신월파 작가들의 번역과 창작은 오랜 기간 오리엔탈리즘의 특유의 사고방식과 동양 문학 번역의 쇠퇴 심지어 번역의 공백이라는 상황을 변화시키며, 중국의 현대문학을 통해 세계문학으로의 진입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세계화 과정을 거치며, 민족과 국가의 경계는 점차 희미해지고 민족주의가 쇠퇴하며, 문화간 교류는 단순히 지배와 피지배라는 이분법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식민 대 피식민, 중심과 주변의 명확한 구별이 점차 무의미해지면서 문화적 교류와 소통 또한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국가 안에서 형성된 개인들의 문화적 삶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원화되는 것이 세계문학의 주된 배경이 된다. 물론 세계화 담론에는 세계문학의 구축이 문화 제국주의의 종식과 문화의 탈식민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강력한 문화지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존재한다. 세계문학에 '서구문학'과 '비서구 문학'을 포괄시켜 볼 경우, 이를 비서구 문학의 세계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심부를 차지하는 서구문학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보아야 할지도 살펴볼 문제이다. 신월파 작가들은 한편으로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탈식민주의의 강한 욕구가 충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작가들과

6) 벤야민은 ≪번역가의 과제≫라는 글에서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모방하고 반복하는 작업, 즉 '원문의 의미에 동화'되어 가는 작업이라기보다 애정을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원문의 표현방식을 번역 언어 속에 체화하는 가운데 언어적 경계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이다. 호미 바바는 제3의 혼종적인 문화공간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들을 번역 대상으로 놓고 분석하는 문화들의 번역 대신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태혜숙, <문학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젠더번역'에 대한 탐색>, ≪젠더와 문화≫ 제6권 1호, 2013, pp.89-91, 참조.

7) 김현미, ≪문화번역: 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넘어≫,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05, p.48, 이형진, <일본 현대문학의 영어권 수용과 문화번역 —'곁문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65집, 2015, p.300. 재인용.

의 교류를 통해 세계문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곧 서구문학을 세계문학으로 인정하는 서구중심주의 관점과, 그에서 벗어나려는 탈식민주의적 시도가 근원적으로 봉착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이기도 했다.

4. 동서교류의 문화 자본과 신문학에 대한 영향

부르디외는 사회학적 시각에서 문학·예술 창조의 주체가 한 개인의 천재성이나 집단의 의식이 아닌 장(champ)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의 공간이라고 말한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상징자본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권위와 명예의 재생산에 투입되는 의례와 전략까지도 포함한다.[8] 또한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인정되며 합법화된 자본의 형식으로서 명예, 명망, 신용, 인지도 등 은형의 자산을 포함하는 명예체계로 구성된 상징 관계이다.[9] 이러한 상징 관계는 무형의 힘으로 표현되어 경제 자본, 사회자본, 혹은 문화 자본으로 전환된다. "이 몇 가지 자본은 각기 '사회적 장들'을 이루고 이 사회적 장들의 다차원적인 복합관계가 '사회공간'을 구성한다."[10] 대체로 상징자본의 유동은 단방향 혹은 쌍방향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평론가, 번역자, 출판사 등은 한편으로 번역이나 공신력의 인정을 통해 상징자본을 부여하며, 다른 한편으로 행동의 주체 자체가 더 많은 상징 권력을 획득한다.

신월파 작가들이 향유한 '자본'들은 그들의 문학교류 활동을 통해 상징자본을 더 증가시키게끔 한다. 서구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신월파 작가의 작품 창작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서구 작가들의 인정과 긍정적인 평가는 복잡한 역사적 담론에서 상징자본을 획득하는 중요한 일환이 되었다. 권위적이고 선진적인 문학 영역의 전문가의 평가와 인정은 그들의 사회자본과 상징자본을 더 많이 축적하여 세계문학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역할을 해주었다. 이런 상징자본은 권력의 영향을 받으며 상징자본이 형성되면서 상당한 주체성을 띨 수 있었다.

신월파 작가들의 영문 서신은 단지 물리적 의미의 종이로 된 기록이 아니라, 사회학적 의미에서의 인정과 교류의 수단이기도 하며 문화 권력과 상징자본을 의미하는 문학의 장이기도 하다. 이는 신월파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개인의 문화 자본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그들은 풍부한 문화 자본을 향유했기에 문단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서구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획득한 상징자본을 중국 문단에 공유할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은 문화살롱을 등을 통한 신인 작가의 추천 및 서구 작가와의 교류로부터 얻은 문학적 영감으로 서구 문학사조를 '중국화'하는 것이었다.

문학 번역에 있어 외국 작품의 번역은 주로 당시 주류 이데올로기에 의해 좌우된다. 신월파 작가의 작품의 서구에서의 소개와 번역 과정은 상징자본의 재생산 과정이기도 하다. 신월파 작가들의 작품을 서구에서 출판한 것은 서구 지식인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기대와 전복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서로 다른 문화 담론 간 교류와 대화는 신월파의 세계문학에서의 상징자본의 생산, 유통과 발전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신월파 작가와 서구 지식인, 출판사 등은 모두 문화 상징자본의 소유자로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한 문화의 융합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동서양 지식인들이 서신 교류와 문학적 대화를 통해 상징자본의 축적과 재생산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월파 작가들은 고전문학 소양과 서구 현대문학의 세례를 받아 충분한 문화 자본을 지니고 있다. 이는 대부분 그들의 가정 교육환경 및 학교 교육과 연관된다. 그들의 교육환경과 학력 및 문화적 취향은 물질적 자산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문화적으로 상징적인 힘을 행사한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자본의 형식은

8) 현택수 등,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나남출판사, 1998, p.33, 참조.
9) 현택수 등, 위의 책, p.33, 참조.
10) 현택수 등, 위의 책, p.37.

상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 자본, 사회자본 및 자신의 문화 자본은 후세에 문화 자본을 계승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친다. 20세기 초 서구 유학 경험이 있는 신월파 작가들은 중국의 전통문학의 소양과 서구 문학사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중국어 및 영어로 글쓰기가 가능한 작가였다. 그들은 대부분 풍요로운 경제 자본과 이에 따른 사회자본을 향유했고, 자연스럽게 공신력을 얻으면서 문학적 권위의 인정을 받고 상징자본과 상징 권력의 획득이 가능했던 것이다.

신월파 지식인들은 혼란스러운 시대 배경에서 서구 모더니즘으로부터 수용한 '개성'과 '자아'를 고취하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고양했다. 그러나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이나 개인의 상상 혹은 자아의 감성까지 둘러볼 여유가 없었다. 이러한 감상주의는 개인주의로 빠지게 하여 국가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해있고 백성들이 고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개인의 감정은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상대적으로, 신월파 지식인들은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을 동시에 향유했기에, 작가로서의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현실을 벗어난 낭만주의 상상이나 자유주의의 서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엘리트 지식인의 입장에서 비롯된 자유주의 사상은 대중들이 절박하게 해결하기를 요구한 사회현실과 분명 괴리가 있었으며, 이런 사회현실을 토대로 형성된 당시 주류사상은 그들이 문학작품과 서신을 통해 표출한 인도주의 사색과 모순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지닌 문화 자본은 한편으로 동서 간의 문학적 대화를 통한 세계문학에의 진입을 가능케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현실과 유리된 엘리트 의식으로 범주화되어, 보다 광범위한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서구로부터 유입된 낭만주의, 모더니즘, 유미주의와 데카당스, 자유주의 등 낯선 문학사조가 신월파 지식인들에 의해 수용되었을 무렵, 중국은 5·4 신문학운동 이후의 과도기에 처해있었다. 대부분 지식인과 독자들은 이미 성숙한 발전을 거친 서구 문학사조를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와 감상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거나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그것은 어쩌면 서구에서의 유학 경험이 있는 신월파를 비롯한 문화 자본을 지닌 엘리트 지식인들만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엘리트 지식인으로서 그들이 지닌 문화 자본은 한편으로 대중과의 괴리감을 형성했다. 이것은 그들이 지닌 상징자본의 이면성, 내지는 불완전성을 방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지식인들과의 서신 교류와 문학적 대화는 중국 모더니즘의 발전과 세계문학으로의 진입에 적지 않은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또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전통 지식인들은 매체와 공공여론에 대한 통제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세계문학과 단절된 상태로, 영향력이 크게 제한되어 이러한 사명을 짊어지지 못했다. 상징자본을 거머쥔 신월파 지식인들은 그에 비하면, 이러한 조건을 두루 구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작가, 학자, 학술 전파자, 번역가 등 여러 신분을 지니고 있는 문화의 창조자로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의 방식으로 중국의 현대문학뿐만 아니라 모더니즘의 자기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신월파 지식인들은 서구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획득한 상징자본으로, 국가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속박에서 벗어나 현대 자유주의 지식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중국 향토 서정소설의 서사미학 연구

왕 연*

<目 次>

1. 머리말
2. 전제와 연구 대상
3. 향토 서정소설의 형성과 변천
4. 향토 서정소설의 서사성과 심미성
5. 맺음말

1. 머리말

향토 서정소설은 향토 문학의 큰 범주로서 5·4운동 문단 특유의 문학 현상이다. 중국 현대 문학사에서 볼 때, 루쉰은 향토 서정 소설의 창작 풍토를 개척하였다. 그가 5·4를 전후해 지은 <고향 故鄉>, <술집에서 在酒樓上>, <상서 傷逝>, <아큐정전 阿Q正傳> 등은 모두 최초의 향토 서정소설로 볼 수 있다. 특히 <고향>과 <마을 연극 社戲> 두 소설은 1920년대 중국 향토 서정소설의 길을 열었다.

향토 서정 소설의 연구는 먼저 '향토'에 기반한 연구이며, '서정 전통'은 현대 주체 구성의 중요한 방향이다. 본 논문은 '향토'와 '서정 전통'의 두 가지 측면에서 1920-1930년대 향토 서정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향토'는 중요한 문학 창작의 원형으로서 문학가들에게 강한 생명력을 부여받았다. 향토 서정소설의 발생에 대한 논의는 우선 근대 '향토' 개념의 전환에 입각해야 한다. 근대 '향토' 개념은 사회 현실과 추억의 동경을 되새기는 정신적 고향이며, 민족적·국가적 상상을 강하게 부여받았다. 근대 향토 개념의 전환은 독일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근대문학에는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발전된 문학·예술 사조와 유파가 병존한다. 2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일본에는 계몽주의·낭만주의·자연주의의 발전과 진화가 이루어졌다. 독일에서 유래한 '향토'의 개념이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에서 성행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근대 독일의 '향토' 개념이 중국에 도입된 데에는 일본이 수행한 '다리'와 '연결고리'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일본은 자신이 흡수한 서양 문명을 중국에 소개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일본은 현대화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를 도입하기 위한 '섭취의 통로'[1]이기도 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향토문학이 20세기 현대문명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했지만, 중국에서의 '향토'의 발견, 근대 '향토'의 개념, 중국 향토문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일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띵판(丁帆)은 ≪중국 향토소설사 中國鄉土小說史≫[2]에서 향토소설의 세계적 발전을 서술하며 미국·영국·프랑스의 향토문학은 언급했으나, 독일과 일본의 향토문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2023년 2월 졸업)을 요약함.

1) [中]嚴紹璗, [日]中西進主編, ≪中日文化交流史大系≫(6), 浙江人民出版社, 1996, 372쪽.

2) 丁帆, ≪中國鄉土小說史≫, 北京大學出版社, 2007, 1-9쪽.

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는데, 독일의 향토문학과 일본의 그것이 후기 파시스트 체제로 편입됐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독일 향토문학이 강조하는 '토지애(土地愛)'는 제 3제국의 '혈연 토지문학'의 근원으로 여겨져 의도적으로 잊혔으며, 문학사에도 드물게 기록됐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이유로 독일과 일본의 향토예술・향토교육을 등한시한다면 이들이 중국 근대 향토문학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즉, 중국 근대 향토문학의 기원과 변천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시대와 상황에 대한 맥락, 특히 독일과 일본의 사회・역사, 문학적 공간을 세밀하게 참고해야 그 전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우선 중국 근대 향토개념의 역사적 발전상을 명확히 한 후, 독일의 근대 향토개념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일본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루쉰과 저우쭤런이 제시한 향토문예 이론, 민속학적 고찰, 가요운동, 아동문학, 국민성등이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한 향토문학의 외부 연구를 전개할 것이다. 중국 향토소설은 세계 향토소설의 일환일 뿐 아니라 세계 향토이론 및 소설 창작과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 20세기 초, 중국 향토소설 창작 열풍은 세계 향토소설 창작 열풍에 발맞추어 형성됐다. 이러한 문학 내부 연구와 외부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향토소설의 연구 방식을 넓히고자 한다.

향토 서정소설 연구의 두 번째 측면은 서정적 전통이 향토문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 즉, 민족과 국가의 혁명 담화 외에 향토 서정 소설이 어떻게 서정 전통에서 그 미학적 추구나 정치적 표현을 실현하고 다양한 담론 관계를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다.

천스샹(陳世驤) 학자는 <중국의 서정적 전통 中國的抒情傳統>이란 글에서 "중국 문학의 영광은 서사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고 서정적 전통에 있다"[3]고 지적한 바 있다. 그가 제시한 '서정적 전통'론은 중국 문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패러다임 중 하나가 되었다. 이후 대만 학자 가오유궁(高友工)은 중국 문학은 물론 중국 예술의 총체적 정신을 '서정미전(抒情美典)'이라는 용어로 요약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정 전통은 중국 유사 이래의 서정시 위주로 형성된 하나의 전통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이 전통에 내포된 서정 정신은 가는 곳마다 스며들고 깊고 넓기 때문에 중국 전통 아악부터 서예, 회화까지 모두 이러한 서정 정신을 반영하여 서정 전통의 중추가 되었다. 왕더웨이(王德威)는 '서정적 전통'에서 '서정'과 '역사시(史詩)'의 두 가지 측면을 발굴하여 당대 중국 사실주의가 주도하는 맥락에서 서정적 주체의 처지와 활로를 논의한다.

현대 서정 소설은 형성 초기에 서양 현대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루쉰과 저우쭤런 형제는 일찍이 이 소설 형식의 변혁 기운을 느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이 번역한 ≪역외소설집 域外小說集≫의 원작 선택에서도 이런 조짐을 읽을 수 있다. ≪역외소설집≫은 현대 중국 소설 '시화 서사의 본보기이자 선례'[4]로서 현대 서정소설의 전통을 여는 동시에 루쉰 소설에서 '서정적 전통'의 발단을 표시한다. 서정 화풍의 역외소설집부터 미적 선택은 소설 창작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국민적 비판 등 이성적 의식이 강화되더라도 서정시의 의미는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며, 때로는 계몽의식을 넘어 서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향토와 서정 전통이라는 두 가지 큰 차원에서 향토 서정 소설의 형식을 분석하고, 향토 서정 소설의 저자가 향토와 서정 전통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차원에서 향토 서정화의 세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3) 陳世驤, <中國的抒情傳統>, ≪陳世驤文存≫, 遼寧教育出版社, 1998, 2쪽.

4) 楊聯芬, ≪晚清至五四：中國文學現代性的發生≫, 北京：北京大學出版社, 2003, 156쪽.

2. 전제와 연구 대상

본 논문에서 명확히 해야 할 연구 대상과 범위는 '향토소설'의 개념과 지표이다. 루쉰은 ≪중국 신문학 대계・소설 2집 서문≫에서 최초로 '향토문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해석을 내놓았다. 루쉰의 향토문학 개념에는 지식인의 주체성이 강조됐다. 지식인들은 짧은 시간 동안 현대로 진입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전통에서 현대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이때 감정심리상의 거대한 분열과 함께 서구 현대문명이 가져온 충격과 향촌에 대한 감정적 체험을 복합적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지식인들은 현대 도시생활의 물질적 풍요를 체험하면서도 향촌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고, 현대적 변혁 속에서 전통적인 농촌의 파탄과 국가 위기에 대한 우려를 품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이 쓴 작품에서 농민은 전통문화의 상징이 됐고, 지식인 작가들은 정신적인 향수를 표현하며 국민에 있어서의 침묵의 영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

현대 중국 향토 서사는 두 가지 다른 발단 경로가 있다. 하나는 향토의 빈곤, 우매함, 심지어 병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비판 또는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향토를 서정적인 고향으로 추적하고 추억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논하는 향토 서정소설 작가는 루쉰・페이밍・선충원・스퉈・샤오훙이다. 이들 작가의 향토 서정소설은 줄거리가 담담하고 서정적인 의미가 강한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설은 더 이상 서사를 구조적 중심으로 삼지 않으며, 소설의 서사적 성분은 기능적으로 작가의 감정적 서사에 기여한다. 그들의 향토 서정 소설은 소설의 형식적 특징과 함께 서정시의 정신적 내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

향토소설의 창작이 20세기 중국문학의 주요한 맥락 안에서 굴곡과 기복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1920년대의 문학 창작은 5・4운동 발발부터 퇴조까지를 포괄하며, 1930년대 문학은 기본적으로 1927년부터 1937년 10월 사이, 대략 10년간의 작품을 지칭하다.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시간 범위를 대략 5・4시기부터 1937년 전후로 설정하였다. 또한 일부 작가들의 창작상의 통일성, 예를 들면 선충원・샤오훙・스퉈와 같은 작가들의 창작 통일성을 고려하여, 1937년 이후의 창작 일부도 분석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본고는 루쉰이 내린 '향토문학'에 대한 정의에 따르고자 한다. 루쉰의 '향토문학' 개념은 '이주민의 타향 거주'와 '향수'를 부각한다. 또한 현대 향토작가를 1920~30년대의 사회역사적 배경, 문화사조, 문학유파, 문학관념의 범주에서 두루 고찰하고, 문화적 컨텍스트 분석, 텍스트 세독, 비교분석, 심리분석 등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현대 향토작품에 내포된 심미 가치를 해석하고자 한다.

3. 향토 서정소설의 형성과 변천

향토는 사회공간적으로 종족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가국동체(家國同體)'의 관념은 결국 '애국'이라는 정신적 공간을 형성토록 하였다. 향토개념의 근대화는 독일에서 시작되어 일본으로 그 영향이 확장됐다. 근대국가 건설 과정에서 '향토' 개념은 국가와 지방으로 변하여, 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로 확장됐다. 청 정부는 독일의 향토 교육제도에 영향을 받은 일본의 향토 교육제도를 따랐는데, 향토 교육관은 향토의식과 국가관을 담은 질서의식의 결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향토문학은 결국 민족국가 상상의 매개체가 된 것이다. 또한 현대 서정소설에 영향을 끼친 중국 서정전통과 해외 현대소설의 번역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토'의 발견이 한편으로는 현대 중국 사회 변혁의 중요한 측면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발견이 문학에서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게 된 것임을 명확히 할 것이다. 중국 지식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향토'는 중국 현대문학 작가와 향토문학 간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 중국 향토 소설 이론은 서구의 향토 소설 및

일본 향토 이론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마오둔과 저우쭤런은 초기 중국 향토 문학 발전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 두 가지 방향은 후에 루쉰에 의해 비교적 완전한 향토 문학 이론, 즉 향토에 대한 그리움, 민생의 배려, 향토 비판을 아우르는 향토 문학관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향토 서정소설의 발전 과정과 다양한 역사적 시기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정리하였다. 1920년대 초기 탐구에서 1930년대 성숙에 이르기까지 향토 서정소설은 대체로 이런 발전 과정을 거쳤다. 전체적으로 볼 때 향토 서정소설은 사회적 삶을 심미적 자기반성의 방식으로 바라보며, 시대적 흐름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4. 향토 서정소설의 서사성과 심미성

향토 서정소설은 주제 방면에서 나름의 특색을 형성하였다. 예컨대, 추억, 고향, 어린 시절 주제 등이 향토 서정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다. 이러한 주제는 일찍이 그 자체의 현실적 의의를 초월하여 보다 광범위한 현대적 미적 지향점이 되었으며, 그 심층적 의미는 현실적 차원을 뛰어넘어 향토 서정소설 작가들이 추구하는 일종의 정신적 지향점이 되었다.

중국 문학의 전통에는 고유의 향수와 향수의식이 있지만, 근대 향토 서정소설의 '고향'이라는 소재의 등장은 일본의 향수소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20년대 일본에서는 향수 소설이 번성했고, 루쉰과 저우쭤런이 이 시기 일본에서 발표된 대표적인 향수소설들을 번역했다. 1919년 가토 다케오의 첫 단편 소설 <향수>가 발표되자 저우쭤런은 이 작품에 주목했다. 저우쭤런은 1920년 1월에 이 소설집을 구입해,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빠르게 번역을 하고, 16일에 번역 후기를 썼다.[5] 1921년 1월에 <향수>의 번역문을 ≪소설월보≫ 제12권 1호에 발표하였으며, 루신과 함께 번역한 ≪현대 일본 소설집≫(上海商務印書館, 1923)에 수록했다.[6]

한편 루쉰의 <고향>은 1921년 1월에 쓰여, 5월 1일자 ≪신청년≫(제9권 제1호)에 발표됐으며, 1923년 출간된 단편집 ≪외침 吶喊≫에 수록됐다. 루쉰이 <고향>이라는 소설을 쓴 데에는, <향수>라는 소설이 루쉰의 <고향>의 창작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향수>라는 글은 담담하게 향수를 담고 있으며, <향수>에 담겨 있는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고향>의 서사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시기 사토 하루오가 1918년 발표한 소설 <전원의 우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초기작 <풀베개 草枕>(1906) 등은 모두 향수를 담고 있는 향토소설이다. <전원의 우울>은 사토 하루오와 아내의 은둔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도시의 소란을 피해 아내와 개를 데리고 가나가와 현 시골로 은거했다가 다시 불안과 우울에 빠지는 청년 '그'의 이야기이다. ≪전원의 우울≫이 대표적인 '향수소설'로 여겨지는 이유는 소설 속 무사시노가 주인공의 고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외딴 마을이 그에게 고향의 정을 주기 때문이다. 주인공 '그'는 자신을 '돌아온 떠돌이'로 여겼다. 나츠메 소세키의 초기작 <풀베개>도 주인공이 도시의 번화함을 견뎌내지 못하고 깊은 산속의 온천마을로 들어오게 된 이야기이다. 루쉰의 <고향> 은 이러한 일본 향토 소설과 '귀향 서사'와 '사라진 고향'이라는 서사 패턴과 구조를 공유한다. 이 작품들 모두 추억 속 '고향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고향>·<향수>·<전원의 우울>·<풀베개> 등의 작품에서 '고향'은 인생 귀로의 이미지라기보다, 인생에서 지나치는 '과객'에 더 가깝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 자체가 이들의 '귀향 서사'가 일종의 '사라진 고향' 서사 모델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루쉰은 1935년 <≪중국 신문학대계≫소설 2집 서문>에서 '향토문학'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루쉰이 말한 '향토'는 작가의 현재 거주지에서 공간적·시간적으로 먼 곳인 고향을 뜻한다. 때문에 루쉰의 '향토문학'은 수동적 혹은 능동적으로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이 타지에 머물면서 멀리 떨어진 고향의 사람과 사

5) 周作人, ≪周作人日記≫(影印本)(中冊), 大象出版社, 1996, 156-157쪽.

6) 梁艷, <加藤武雄作品在中國的翻譯與接受>, ≪日語教育與日本學研究≫, 2015, 192쪽.

건을 떠올리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의미한다. 루쉰이 <고향>이라는 소설을 쓰고 나서 14년이 지나서 '향토문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향토문학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1920년대에, 루쉰은 일본 향토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떠남', '타지에 거주하는 이주민' 등의 서사를 참고해, 고향을 멀리 떠난 후 생기는 '향수'를 중심으로 중국 향토문학 이론을 정립했다고 할 수 있다.

향토 서정소설에서도 어린 시절은 흔한 주제다. 많은 향토 서정소설 작가들에게 어린 시절은 그들의 내면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자 통로가 되었다. 루쉰, 페이밍, 샤오훙 등의 작가는 모두 어린 시절을 주제로 삼거나 어린 시절을 시점으로 향토 서정소설을 창작한 적이 있다. 그만큼 어린 시절이라는 주제는 상당수 향토 서정소설 작가들에게 관심을 갖고 몰입할 만한 화제다. 왜 지역 서정소설 작가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버리기 어려운지, 어린 시절 세계가 시화소설에 어떤 서정적 차원을 부여했는지는 더 논의할 가치가 있다. 향토 서정소설의'어린 시절'주제는 단순한 의미의 장년의 추억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삶의 함의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어린이를 최초로 연구한 이들은 루쉰과 저우쭤런이다. 루쉰은 1913년 일본 심리학자 우에노 요이치(上野陽一, 1883-1957)의 <아동의 호기심 兒童之好奇心>을 번역하였다.

우에노 요이치의 논문 <아동의 호기심>은 1913년 11월 ≪교육부 편찬처 월간 教育部編纂處月刊≫ 제1권 제10권에 실렸는데, 번역자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약 9,000자 분량의 이 글은 어린이가 갖는 호기심의 발전 단계, 무익한 부분, 변태적인 부분, 호기심과 문명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이 글에서 어린이가 갖는 호기심의 기형적인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호기심 결핍으로, 흔히 백치라고 부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호기심의 과잉이다. 이 논문은 호기심과 문명 발달의 관계에 집중하여, "호기심은 종교발달의 요소여야 한다"며 호기심이 "사회 진보의 동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7)]

1914년 11월 27일에 쓴 루쉰의 일기를 보면, "밤에 <아동 관념계의 연구>를 번역했다"라는 글을 찾을 수 있다. 루쉰이 번역한 이 글은 1915년 3월 교육부 ≪전국어린이예술전람회 기요 全國兒童藝術展覽會紀要≫에 게재됐으며 역시 번역자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다. 루쉰의 번역문 제목 아래 에는 "일본 다카시마 헤이자부로(高島平三郎)가 쓴 ≪아동학 요강 兒童學綱要≫에서 번역한 것"이라는 첨언이 있다. <아동 관념계의 연구>는 여러 저자들의 글을 모은 ≪아동학 요강≫이라는 책에 실린 것으로, 다카시마 헤이자부로는 1920년대 초 도쿄 고분 학원(東京弘文學院)과 여자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어린이를 노래한 문학 歌詠兒童的文學≫, ≪어린이 연구 兒童研究≫ 등을 저술한 바 있다.[8)] 다카시마는 아동(인류)의 관념적 세계가 정(情)·지(知)·의(意)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아동(인류)이 사람과 소통하면서 감정을 일으키고, 아동(인류)이 지리적 풍경과 같은 사물을 접함으로써 지식을 확장하고, 본능적 욕구(의미)를 만족시킨다고 하였다.[9)]

1912년에 저우쭤런이 초안을 작성하고 루쉰이 수정하여, 저우수런(周樹人)·저우젠런(周建人)이라는 저자명으로 <소학교 유지 의견 維持小學之意見>이라는 글을 ≪월탁일보 越鐸日報≫에 발표하였다. 이 글은 초등교육을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샤오싱현(紹興縣) 의회 의장에게 보낸 의견서였다. 신생 공화정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 및 대중교육의 보급이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다.[10)]

저우쭤런은 1911년에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고향 샤오싱으로 돌아온 후, 아동 문제에 대한 연구와 창작에 착수했다. 그는 이미 1906년에 다카시마 헤이사부로가 편찬한 ≪어린이를 노래한 문학≫과 ≪어린이 연구≫를 접하면서 일본 아동문학의 발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

7) [日]上野陽一, ≪兒童好奇心≫, 魯迅譯, ≪魯迅譯文全集≫ 第8卷, 福建教育出版社, 2008, 53쪽.

8) 王家平, ≪≪魯迅譯文全集≫ 翻譯狀況與文本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8, 119쪽.

9) 王家平, 위의 책, 120쪽.

10) 姜彩燕, <從"立人"到"救救孩子"——魯迅對≪兒童之好奇心≫ 等論文的翻譯及其意義>, ≪魯迅研究月刊≫, 2009, 36쪽.

≪취향서 旨趣書≫에는 “어린이와 국가의 관계는, 10여 년 후 그들이 어른이 된 후의 국가의 성쇠와 유관하다”[11]라는 내용이 있는데, ≪취향서≫의 이러한 관점은 아동교육에 대한 저우쭤런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아동이 미래의 새로운 국민임을 인식하고 있던 루쉰과 저우쭤런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아동교육이 국가의 미래 흥망성쇠와 관련된다는 사상적 공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의 호기심≫은 루쉰의 아동관과 교육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의 문학 창작에도 적지 않은 영감을 주었다 했다. 아마도 이 논문의 묘사가 루쉰의 기억을 되살려 루쉰의 창작에 영감을 제공했거나, 루쉰이 훗날 창작에서 당시의 이 번역문 중의 일부를 기억했을 것이다. 요컨대 이 번역문의 예시에서 묘사된 일부 정경들이 반복적으로 루쉰의 이후 창작에서 재현되고 있다.

루쉰 형제는 일본 동화와 관련한 연구를 번역해 아동학에 관한 이론을 이해했는데, 아동관・아동교육관・아동문학관 등에서 비슷한 점이 많았다.

1918년 12월, 저우쭤런은 <인간의 문학 人的文學>을 발표했는데, 개성해방의 요구에서 출발한 이 글은 인성의 전면적인 발전과 아동・부녀의 ‘발견’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또한 “조상은 자손을 위해 생존한다.”[12]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어 루쉰은 ≪신청년≫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할 것인가 (我們現在怎樣做父親)>를 발표했는데, 이 글에서 루쉰은 저우쭤런의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후대의 생명은 이전 대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완전에 가깝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고 귀중하다. 전대의 생명은 그를 위해 희생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루쉰과 저우쭤런이 아동 이론에 관한 일련의 책을 번역하며, 그들은 결국 “사람”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아동이 “축소된 성인”이자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음을 내세우며,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통해 아동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지지하는 것은 아동 중심주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모두 아동교육 이론이 루쉰과 저우쭤런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롯한 주장들이었으며, 실제로 일본 향토소설은 루쉰의 향토소설 속 인물의 형상화 및 서사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향토작가마다 자신이 쌓은 향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과 미적 흥취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향토 문인들이 공감하는, 개성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취미주의(趣味主義)는 이 문화 집단의 거의 모든 문학적 개념, 창작과 실천이 추구하는 예술적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한다. 향토 서정소설의 서정화는 향토 작가들의 자각적 추구였다. 향토소설은 향토의 자연 인성에 입각하여 민중의 발견에 집중하고, 신구변혁 속에서 과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종의 긍정적인 향수를 표현하며 ‘심미적 현대성’을 보여주었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우선 ‘향토’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중국 전통의 ‘향토’ 공간에 대해 살펴봤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은 종족의 토지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지역감정과 맥락적 유전자가 형성되어 가족, 씨족 및 국가의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 전통적인 ‘향토’의 ‘가족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개념은 결국 ‘애국’의 사회 정신적 공간을 형성했다. 이는 본고에서 밝히는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인데, 즉, 근대 ‘향토’ 관념의 유입으로 전통적인 중국 농촌에 이미 ‘애국’이라는 사회문화적 토양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본고는 근대 ‘향토’ 개념의 도입에 있어, 독일과 일본의 사회・역사적 동인이 중국에 미친 영향에 주목

11) 胡從經, ≪一片冰心在於菟——魯迅早期的兒童文學活動≫, ≪晚清兒童文學鉤沈≫, 上海 : 少年兒童出版社, 1982, 226-227쪽.

12) 魯迅, <我们现在怎样做父亲>, ≪從百草園到三味書屋≫, 万卷出版公司, 2014, 111쪽.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지역 예술과 지역 문학이 일본으로 옮겨가 뿌리를 내렸다. 또한 근대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향토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청 정부는 독일과 일본의 국가의식과 민족개념을 포함한 질서의식으로서의 향촌 교육 경험을 따랐다. 향토교육은 근대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향토교육제도는 중국 향토문학의 건설을 촉진했다. 결국 중국 향토문학은 민족국가 상상의 매개체가 되었다.

20세기 초 일본의 '향토' 발견은 통일되고 균질한 기억을 창출하여 국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향토'는 애국을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향토' 개념의 주체는 정치권력이었다. 중국도 20세기 초 '향토'와 '애국'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했다. 향토지(鄉土志)의 저자에게 향토는 실제로 전체 질서의 원형이며 국가와 동형으로 인식됐다. 근대 교육제도의 틀을 구축한 상층부부터, 하층부의 학교를 운영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지방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제도와는 다른 '향토' 질서의 관점을 제시했다. 이런 종류의 '향촌' 내부 질서는 당시 중국이 직면했던 질서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본고는 또한 중국의 '향토' 개념 구축의 주체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작가와 향토문학의 관계에 대해 논하였다. 중국의 향토개념의 핵심은 지식층이 '향토'를 자신들의 정신적·정서적·문화적 근원으로 인식해 왔다는 점이다. 일본의 '향토'와 일본 당국의 의도는 식민 시스템 하의 정치적 상황과 유관하다. 그러나 중국 '향토' 개념의 기저에도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지식인 계층의 정신적, 정서적, 문화적 요인에 따르는 상상적 측면이 더 강하며, 대부분이 중국문화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이해되었다. '향토'의 발견은 한편으로 중국 현대사회 변혁의 중요한 측면을 드러내며, 또 한편으로는 문학의 새로운 가치를 구현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 지식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향토'는 중국 현대문학 작가와 향토문학 간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다.

본고는 중국의 1920~30년대 향토소설 이론, 향토문학 창작, 아동문학, 향토문학의 '취미'가 모두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일본의 향토문예운동은 저우쭤런의 향토이론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바탕으로 저우쭤런의 향토이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향토적 취미'를 제외하고, 민족주의 문화의 입장은 은폐했다. 이는 일본 향토이론 사조의 영향으로부터 진일보한 저우쭤런의 민족주의 문화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민속학'과 '서구 사조'의 이론을 보완한 것이었다. 저우쭤런의 일본 문학 번역 작품은 언어적으로 일본어 문법에 가장 가깝고, 풍격적으로도 일본 문학의 온화하고 담백한 특징을 살려, 중국 향토 소설가의 향토 서술과 글쓰기에 다소간 영향을 미쳤다. 루쉰의 향토문학 창작도 일본 향수소설의 발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문학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업을 통하여 일본 향수소설이 루쉰 소설의 주제와 미적 구성에 모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전통, 향촌운동, 향토교육, 사회적 문화토양 등과 결합하여 향토문학을 살펴보면, 중국의 향토문학이 중국과 서구, 도시와 농촌, 민족과 세계를 강하게 대비하는 가운데 강렬한 공간성 및 사회성을 배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사조와 '향토' 사이의 함축적인 공동의 산물이며 문학의 경계를 넘어 현대 민족국가와 중국문화의 현대성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향토문학은 본디 강한 세계성과 본토성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 중국 향토 서사는 두 가지 다른 발전 경로가 있다. 하나는 향토의 빈곤, 우매함, 심지어 병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비판 또는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향토를 서정적인 고향으로서 추억하는 것이다. 1930년대의 향토 서정소설은 현대소설의 서정화 전통 중 일부이자 그 절정기로, 많은 전형적인 작품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향토 중국의 문학적 상상을 재건함으로써 미학적 현대성을 구현하였다. 또한 1940년대로부터 당대에 이르는 작가의 작품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 문체의 실험성과 첨단성은 이후의 많은 작가들로 하여금 문체 혁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엿보게 하였다.

한중일 웹소설의 상업모델과 위치 비교

김하나*

<目　次>

1. 서론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와 연구대상
2. 상업화 과정을 통한 웹소설의 위치 비교
(1) 한국 웹소설: 콘텐츠 중 하나
(2) 중국 웹소설: 중심 콘텐츠
(3) 일본 웹소설: 원천콘텐츠 중 하나
3. 결론

1. 서론

인터넷을 통해 '읽고 쓰는' 소설인 웹소설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모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높은 접근성과 간편함으로 이용자의 지지를 받으며 부단한 시장 확장을 이뤄나가고 있다. 그러나 웹소설이 세 나라에서 갖고 있는 위치는 각각 다르다. 본 발표는 상업모델의 관점에서 웹소설의 세 나라에서의 위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웹소설이 인터넷에서 '읽고 쓰는' 소설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2013년, 네이버가 '웹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유료 소설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다. 그전까지 한국에서 인터넷에 '읽고 쓰는' 소설들이 사이버소설, 온라인소설, 컴퓨터소설, 인터넷소설 등 매체적 특징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렸던 것을 고려한다면,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웹소설의 보통명사화는 분명히 대형 포털사이트가 지닌 영향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웹소설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보급은 인터넷에서 '읽고 쓰는' 소설 자체의 변화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에서 '읽고 쓰며' 인터넷을 통해 바로 수익을 내는 '자급자족' 시장의 확립이다.

네이버의 '웹소설'은 인터넷을 통해 '읽고 쓰는' 소설에 인터넷 연재 자체로 수익을 내는 '유료연재' 모델을 도입했고, 이를 계기로 기존에 소설을 무료로 서비스하던 사이트들뿐만 아니라 출판사, 서점 등 전통적인 출판사업자들까지 '유료연재' 소설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유료연재' 소설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웹소설이라는 명칭의 보급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한국에서 웹소설은 단순히 인터넷에 연재되는 소설이 아니라, 연재와 수익을 연동시킨 '상업'소설임을 이름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읽고 쓰는' 소설을 가리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고, 중국에서는 인터넷문학(网络文学), 일본에서는 넷소설(ネット小説), 웹소설(ウェブ小説) 등의 명칭으로 불리지만, 본 발표는 이들이 모두 인터넷에 공유될 뿐만 아니라 각자의 환경에 맞게 상업화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괄적으로 '웹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 삼육대학교 중국어학과 강사

(1) 문제제기

현재 중국에서 웹소설은 중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될 만큼 매우 크고 무거운 기대를 받는 위치에 있다. 중국의 웹소설 관련 연구나 매체 보도, 정부 문건에서는 중국 웹소설을 '독보적(風景獨好)'[1]이라고 평하는 경우가 자주 보이며, 심지어 일본 애니메이션, 한국 드라마, 미국 할리우드와 함께 '세계4대문화현상(世界四大文化奇觀)'[2]이 되었다고 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밖에서 바라보는 중국 웹소설은 위의 평가와는 많이 다르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웹소설을 영어로 번역해서 업로드하는 사이트 무협세계(Wuxiaworld.com)는 2016년 한 해에만 인민일보, 신화망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될 정도로 화제의 중심에 섰지만, 같은 해 사이트 운영자 라이징핑은 중국 외의 매체의 인터뷰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3] 라이징핑이 미국인이고, 주요 방문자가 주로 북미쪽에서 발생함을 고려한다면,[4] 이같이 '일방적인' 주목은 중국 웹소설의 중국에서의 위치가 중국 밖에서의 그것과 상당한 낙차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중국 웹소설은 중국 밖에서 보는 그것과 상당한 낙차가 있다고 할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일까?

(2) 선행 연구와 연구대상

중국 웹소설을 '독보적', '세계적4대문화기관'이라는 높은 위치에 올려두는 근거로, 중국 연구자들은 대체로 중국 웹소설의 방대한 내용과 이용자, 방대한 이용자와 내용을 축적하며 만들어온 팬문화, 그리고 IP화, 유료연재등 적절한 상업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확장을 제시하고 있다.[5] 중국 웹소설의 이같은 특징들은 한국의 중국 웹소설 연구에서도 이미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6]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중국 웹소설이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위치에 주목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물론 중국 웹소설은 중국 국내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가파른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7] 해외로 뻗어나가는 자국 문화콘텐츠를 통해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문화콘텐츠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숏폼영상 플랫폼 '틱톡'으로 대표되는 화려하고 직관적인 '그림' 미디어가 국내외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것이다.[8] 이같은 상황 속에서 문자중심이기에 필연적으로 그림보다 덜 직관적이며, 번역량도 더 많은 웹소설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높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중국이 꼽은 '세계4대문화기관'에서 중국의 웹소설을 제외한 다른 '세계기관'이 모두 '그림' 중심인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임을 고려한다면, 중국에서 웹소설은 문자중심임에도 직관적인 '그림' 콘텐츠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갖

1) 李朝全(2015).

2) 欧阳友权, 罗亦陶(2022).

3) 莫琪, 陈诗怀(2016).

4) similarweb 검색 결과 2023년 3월 29일 기준, 무협세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21.65%)으로, 2위인 브라질(5.64%)보다 10% 이상 높다.

5) 邵燕君(2017), 徐晨(2022)

6) 중국 웹소설의 역사를 돌아보고, 중국 웹소설이 부단히 내용과 이용자를 축적하며 자체적인 수익화뿐 아니라 IP산업의 원천콘텐츠로 활용되어 왔음을 추적하는 연구는 이건웅・위군(2017), 유정원(2018)이 있다. 중국 웹소설의 원천콘텐츠로의 활용에 따른 시장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로는 왕이소・신현덕(2021), 웹소설 플랫폼의 상업모델에 대한 연구로는 서봉교・이화진(2022), 이화진(2023)이 있다.

7) 지난 십 년간 중국 웹소설의 중국 내 수익은 24.5억에서 267.2억 원으로 증가했고, 해외시장 수익은 2018년 4억 원에서 2021년 29.05억 원으로 증가했다. 孙海瑞(2021).

8) 2021년, 중국 숏폼 영상 이용자 규모는 10.31억 명, 같은 해 중국 웹소설 이용자는 4.92억 명으로 집계되었다.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2023, p55).

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웹소설은 이같은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일까?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발표는 한국, 일본 웹소설과 중국 웹소설의 상업화 과정을 추적하고, 이들의 상이한 상업화과정을 비교하여 중국 웹소설의 중국에서의 위치를 진단하고자 한다.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웹소설이 서로 다른 형태로 상업화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화의 관점에서 세 나라의 웹소설을 비교하기로 한 이유는, 웹소설의 상업모델은 단순히 웹소설을 판매하기 위한 기제가 아니라, 웹소설이 속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그 환경에서의 웹소설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웹소설은 2000년대 초, 출판이 아닌 인터넷 연재 그 자체로 수익을 내는 '유료연재' 모델을 확립하며 출판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한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다시 이용자에게 아무런 과금 요구를 하지 않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는 '무료' 모델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현재 중국 웹소설의 상업모델은 유료와 무료모델이 병행하는 상태인데, 이는 물론 대자본의 진입으로 인한 시장 확장의 결과이지만, 웹소설을 다른 미디어의 '내용원천'으로 활용하는 판권(IP, intellectual property)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웹소설 자체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웹소설이 웹소설이 아닌 다른 미디어로의 전환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멀티미디어'환경은 웹소설 자체 수익에 대한 부담을 덜어냄과 동시에 웹소설의 이용자를 분산시키는 수많은 '경쟁' 상대를 가져왔다. 위에서 언급한 틱톡 등 영상 플랫폼의 약진은 중국 웹 환경의 미디어 다양화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중국 웹소설의 '무료'모델 도입은 과거보다 격렬해진 '경쟁' 속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문턱 낮추기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일괄적인 유료체제가 가능했을 때와는 달리, 현재 중국 웹소설은 문턱을 낮추어야 할 만큼 다양한 '경쟁'상대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에 본 발표는 한・중・일 웹소설이 각 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 세 나라 웹소설의 상이한 상업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읽고 쓰는' 소설은 인터넷만 있다면 생겨날 수 있고, 이들은 얼마든지 상업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 웹소설 사이트 wattpad(wattpad.com), 태국 웹소설 사이트 2read(2read.digital)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연재되는 소설은 모두 사이트 내에서 판매 가능한 '상업' 소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한국, 일본을 중국과 비교하기로 한 이유는, 한・일 웹소설과 비교할 때, 중국 웹소설의 상업화 과정이 매우 특수해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 중, 일의 주요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웹소설 회차별로 연재되는 장편소설 중심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터넷에서 회차별로 연재된다는 특징을 고려한다면, 가장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바로 회차별로 판매하며 '자급자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소설의 각 회차를 유료로 서비스하는 '유료연재' 모델을 도입한 소설 사이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한국에서 인터넷에 연재되는 소설에 '유료연재' 모델이 활성화된 것은 2013년, 네이버라는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한국에서 '유료연재' 모델은 대략 10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같은 지연의 이유로는 무료에 익숙해진 이용자 습관, 기존 출판시장과의 알력다툼을 들 수 있다.[9] '유료연재' 소설과 기존 출판시장의 알력다툼은 일본 웹소설의 사례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일본 웹소설의 상업모델은 아직까지 출판 중심이며, 심지어 출판사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절대로 유료화를 하지 않을 거라는 사이트가 등장하기까지 했다.[10]

9) 대표적인 예로 소설사이트 조아라는 2006년, 동의하는 작가에 한해 소설을 회차별로 판매하는 유료모델을 도입했지만 출판사들의 반대에 직면하며 다시 무료로 전환했다. 「"우리 사이트에 글 써 연 1억 이상 번 사람 10명 있어요", 조아라 이수희 대표」, 조선일보, 2016.11.28.

10) カクヨム(2019).

그러나 일본에는 2023년 현재까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한국에서는 2013년 이후에야 확립된 웹소설의 '유료연재' 모델은 중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확립되었다.

그렇다면 중국 웹소설은 대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앞서서 '유료연재' 모델을 확립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같은 '앞서감'은 위에서 언급한 중국 웹소설의 중국에서의 '독보적'인 위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2. 상업화 과정을 통한 웹소설의 위치 비교분석

(1) 한국 웹소설: 수많은 콘텐츠 중 하나

현재 한국에서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을 따로 '노블코믹스'라는 이름으로 분류할 정도로 그 수가 많다. 이들 '노블코믹스'들은 웹툰에는 방대한 '내용원천'을, 웹소설에는 수입원과 이용자 유입 창구를 제공하며 웹소설과 웹툰의 '상호호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웹소설의 해외수출에도 먼저 웹툰을 통해 수출한 뒤, 다시 웹소설을 통해 수출하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11] 이같은 '상호호환'은 의심의 여지 없이 소설을 영화, 게임의 원천콘텐츠로 활용하던 OSMU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한국의 웹소설과 웹툰이 비슷한 시간동안 내용과 이용자를 축적해 유사한 상업모델을 확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문자중심인 웹소설은 그림중심인 웹툰보다 인터넷 사양에 대한 요구가 더 낮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소설이 먼저 인터넷에 공유되며 이용자의 지지를 얻었다. 대표적인 예로 1993년부터 PC통신 하이텔에 연재되었던 소설 「퇴마록」을 들 수 있는데, 「퇴마록」은 1994년부터 출간되어 엄청난 판매량을 올리며 인터넷상의 인기를 출판시장까지 이어갔고, 영화, 게임 등 다른 미디어의 원천콘텐츠로 활용되며 문화산업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 「퇴마록」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연재소설'들은 PC통신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사이트로 공간을 옮겼고, IMF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도서대여점을 통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출간되게 되었다. 영화, 드라마 등 미디어의 '원천콘텐츠화'와 빠른 출간을 기반으로, '인터넷연재소설'은 꾸준히 이용자를 모으며 시장을 확장했다. 이를 증명하듯, 2000년대부터는 출판이 아닌 '인터넷 연재' 자체로 수익을 내는 상업모델을 확립한 '인터넷연재소설'사이트들도 등장한다.[12] 그러나 이들은 사이트 내 자체적인 상업모델 확립에 그쳤으며, 출판 중심의 시장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같은 상황은 네이버가 2013년, '웹소설'을 출시할 때까지 이어졌다. 2013년, 네이버의 '웹소설' 출시를 기점으로, 출판 중심의 시장은 연재와 동시에 수익을 내는 '유료연재'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네이버가 '웹소설'을 출시할 당시,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상당했다는 사실은,[13] 네이버의 시장 진입 전에도 '인터넷 연재 소설'이 '상권'이라 불릴 만큼 부단한 시장 성장을 거듭했음을 드러내며, 위에서 언급한 상업모델 확립에 성공한 소설사이트는 이같은 시장 성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2013년, 출판 중심의 시장이 연재와 동시에 수익을 내는 '유료연재' 중심으로 바뀐 것은 이미 자체적인 상업모델 확립에 성공한 사이트가 등장할 만큼 소설시장이 '성숙'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이 네이버의 시장 진입을 계기로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국 웹소설에 그동안 포털사이트같은 이용자가 집중되고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음악, 그림, 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자유롭게 송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문자중심인 웹소설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과 관계가 있다. 이같은 환경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바로 인터넷

11) 「[창간 9주년] 웹소설 원작 웹툰화 '노블코믹스' 한류 꽃 활짝」, 『GAMETOC』, 2021.4.5.

12) 「"우리 사이트에 글 써 연 1억 이상 번 사람 10명 있어요", 조아라 이수희 대표」, 『조선일보』, 2016.11.28.

13) 「'인터넷 골목 상권' 집어삼킨 네이버, 이번엔…」, 『중앙일보』, 2013.1.16.

시장 선점을 위한 포털사이트의 콘텐츠 경쟁이다. 1990년대말, 한국은 IMF로 대표되는 기존 시장의 정체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정책적 지원과 '새 시장'에 대한 갈급함 속에서 2000년대 초반,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터넷 보급률과 세계 순위권에 들어가는 인터넷 속도를 확보하게 되었다.[14] 이같은 환경은 다양한 포털사이트를 등장시킴과 동시에 이들의 경쟁을 심화시켰다. 이 '경쟁'은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의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드러났는데, 전형적인 예로 1999년, 포털사이트 다음이 출시한 개인 영상 제작 서비스,[15] 2000년, 네이버가 게임회사 '한게임'과의 합병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강화한 것을 들 수 있다.[16] 그리고 이 시기, 포털사이트의 경쟁 수단 중 하나로 채택된 콘텐츠가 바로 인터넷에서 읽기 편한 세로 스크롤 방식과 컷분할을 도입한 '인터넷 만화', 웹툰이다.

게임, 웹툰을 통한 경쟁이 가능할 만큼 당시 한국 인터넷은 그림, 영상 등 '무거운' 콘텐츠를 자유롭게 송출할 수 있는 인터넷 속도를 갖추고 있었고, 이같은 환경속에서 문자중심이기에 그림이나 영상보다 직관적이지 못한 소설은, 게임, 웹툰 등 '그림' 콘텐츠가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가 집중되는 포털사이트에 자리잡은 것과는 달리,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개인사이트, 전문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었다.

그러나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가 집중되는 공간은 아니었지만, 소설은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축적하며 이용자 기반을 닦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네이버 '웹소설' 출시 이전에 이미 상업화를 시도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즉, 포털사이트에 자리잡은 '그림' 콘텐츠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소설은 지속적인 이용자와 내용 축적을 통해 부단히 수익성을 증명했고, 포털사이트가 웹소설을 출시하는 것을 계기로 '접근성 좋고, 이용자가 집중되는 공간'에서 '그림' 콘텐츠가 누적한 이용자 기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바로 네이버의 '웹소설'이다. 네이버는 '웹소설'을 출시할 때, 이미 웹툰을 유료화한 상태였고, 웹툰을 통해 이용자에게 익숙해진 상업모델을 도입하여 '웹소설'을 출시한다. 주기적으로 한 회차를 무료로 공개하고, 무료 회차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독자에 한해 사이트 내 상점에서 유료로 회차를 구입하게 하는 상업모델이 그것인데, 이는 2000년대 초반, 포털사이트가 만화잡지의 주기적 발간 체제를 참고하여 만든 '요일제'를 토대로 하는 상업모델로,[17] 먼저 웹툰에 도입되었다가 웹소설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네이버의 '웹소설' 출시를 기점으로 한국의 '인터넷 연재 소설'이 인터넷 연재 자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유료연재' 모델을 확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웹소설 자체의 시장 '성숙'이나 포털사이트의 영향력 말고도, 웹툰이 만든 이용자 습관이 있다.

즉, 한국 웹소설은 다양한 콘텐츠가 공존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수많은 콘텐츠 중 하나'로 상업화했다. 이같은 상업화는 현재까지도 한국 웹소설을 '수많은 콘텐츠 중 하나'로, 웹툰으로 대표되는 다른 콘텐츠의 협업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게 만들었다. 앞에서 언급한 '노벨 코믹스'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잦은 웹툰화와 웹툰을 이용한 해외수출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 중국 웹소설: 중심 콘텐츠

'수많은 콘텐츠 중 하나'로 상업화한 한국 웹소설과는 달리, 중국 웹소설의 상업화는 다른 콘텐츠보다 압도적으로 먼저 진행되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말,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중국에서도 웹소설은 다양한 베스트셀러를 배출

14) 「인터넷 보급률・IT 경제 기여도 OECD국가중 1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04.12.15.

15) 「내모습 담긴 비디오편지 보낸다」, 매일경제, 1999.06.15.

16) 강준만(2007, p.635).

17) 「지난 10년, 작가들의 성장과 함께했다」, 씨네21, 2014.07.24.

하며 출판시장의 '무시할 수 없는 풍경'으로 떠올랐다.[18] 2000년대에는 이미 도시를 순회하며 사인회를 열 정도로 인기 있는 웹소설 작가가 등장하였으며,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어 오프라인으로 진출한 작가뿐만 아니라, 기성 작가의 인터넷 진출 역시 빈번하게 일어났다.[19]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양한 전문 소설사이트가 설립되어 이용자를 모으기 시작했고,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사이트 내부에서 소설을 이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급자족' 상업화를 모색하는 사이트가 생겨났다. 그러던 중, 유료 이용자에게 소설뿐만 아니라 개인책장, 소설 추천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와 사이트를 보다 긴밀하게 엮는데에 성공한 상업모델이 나타났는데, 'VIP제도'라고 이름 붙여진 이 상업모델은 2003년 기점중문망(起点中文网)에 도입된 것을 계기로 다른 소설사이트들에도 차용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중국 웹소설은 인터넷 연재 자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유료연재' 모델을 활성화시키게 되었다.

'유료연재' 모델은 작가와 사이트에게는 즉각적인 수익원을, 독자에게는 좋아하는 작가를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들며 참여성을 강화했고, 이는 중국 웹소설에 방대한 내용과 이용자를 축적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현재 중국 웹소설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변주되며 '내용원천'으로 각광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와 같은 상업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자급자족' 시장의 확립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VIP제도를 포함한 기점중문망의 상업모델이 중국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

기점중문망의 VIP제도 도입과 함께 중국 웹소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유료연재' 모델을 확립한 이유는 물론, VIP제도가 이용자를 사이트의 'VIP'로 묶으며 소설 유료화에 대한 반감을 줄임과 동시에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충성도를 높였기 때문이다.[21] 그러나 VIP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VIP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VIP제도가 도입된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인터넷 환경과도 관계가 있다.

2003년, 기점중문망이 VIP제도를 도입할 당시,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10%에도 못 미치는 상태였다.[22] 이를 고려한다면 VIP제도의 도입과 함께 중국 웹소설이 인터넷 연재 자체로 수익을 내는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것은 가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적'은 사회주의체제의 현실주의 소설 전통 아래 오랫동안 결여되어 있던 오락소설의 영역을 웹소설이 채웠기 때문이라고 분석된 바 있고,[23] 필자도 그 분석에 동의하는 바이나, 이는 당시 중국 인터넷 환경이 '문자' 중심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이 2000년대 초반, 게임, 영상 등 콘텐츠를 통한 포털사이트 경쟁이 촉발될 정도로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보급률을 갖춘 것과 비교해, 당시 중국 인터넷은 아직 게임, 영상 등 '무거운' 콘텐츠를 자유롭게 송출할만한 속도와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를 등장시킬 만큼의 보급률을 갖추지 못했다. 당연하게도, 인터넷 환경의 이같은 차이는 두 나라의 면적, 인구, 지리적 차이와 관계가 있으나, IMF특수 속에서 인터넷이 경제 위기를 타파할 '새 시장'으로 주목받았던 한국과는 달리 시장경제 전환이 1990년대에 본격화된 중국에서 인터넷은 개척해야 할 '수많은 시장' 중 하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중국의 인터넷 속도 제고와 보급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는 '낮은 속도와 높은 비용'이 중국 인터넷의 오랜 문제로 자리하고 있던 것에서 확인 가능한데,[24] 오랜 시

---

18) 刘伟见(2000, p.7).

19) 痞子蔡(본명蔡智恒)가 학창시절 학교BBS에 연재했던 소설『첫번째 친밀한 접촉(第一次亲密接触)』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000년, 중국 6개 도시를 돌며 진행된 그의 사인회는 그 인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著名网络写手痞子蔡上海行幕后星闻揭秘」, 新浪文教, 2000.10.16.

20) 邵燕君(2019).

21)「中国网络文学崛起的历史细节——起点中文网创始人宝剑锋访谈录」(邵燕君、肖映萱(2020, pp.176-187)

22) 기점중문망이 VIP제도를 도입하던 2003년, 중국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6.07%였다. 中国网络信息中心(2004).

23) 邵燕君(2019).

24) 중국 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가 1997년에 발표한 첫 번째 보고서부터 2015년 총리 리커창이

간 동안 지속된 '낮은 속도와 높은 비용'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증가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인터넷에 '문자' 중심의 내용 축적이 이뤄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인터넷 이용자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2003년, 중국 웹소설에 인터넷 연재 자체로 수익을 내는 '유료연재' 모델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자' 중심 인터넷 환경의 반영이다.

'문자' 중심 환경에서 먼저 내용과 이용자 축적을 이룬 웹소설은 인터넷에 숏폼영상으로 대표되는 문자보다 화려하고 직관적인 '그림' 콘텐츠가 이용자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있는 현재까지도, 먼저 상업화한 '선배'로서, 후발주자가 피해갈 수 없는 이용자 습관을 제공하고 있다.

⑶ 일본 웹소설: 수많은 내용원천 중 하나

일본 웹소설은 아직 한국, 중국처럼 인터넷 연재 자체로 수익을 내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 일부 사이트에서 '유료연재'모델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유료연재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작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 웹소설이 한국, 중국처럼 상업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1990년대말[25]부터, 일본에는 핸드폰이 급속도로 보급되며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휴대폰 소설'이 '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이들은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어 인터넷 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출판사까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파되는 소설을 주목하게 만들었다.[26] 그리고 현재, 일본 출판사들은 웹소설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레이블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웹소설의 출판을 가속화하고 있다.[27]

즉, 일본 웹소설은 인터넷 연재 자체로 수익을 내는 '자급자족'은 불가능하지만 출판시장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화를 하고 있다. 바꿔 말해, 일본의 출판시장은 웹소설이 굳이 인터넷에서 '자급자족'하는 상업모델을 확립하지 않아도, 웹소설의 수익화를 보장할 만큼 탄력적으로 웹소설을 수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같은 탄력은 일본이 한국, 중국보다 먼저 산업화하여, 출판 시장이 인터넷이 일본에 보급되기 훨씬 전부터 구매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 브랜드를 만들 정도로 '성숙'했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1970년대말, 「기동전사 건담」의 방영과 함께 출간된 소설판「건담」을 들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소설화는 물론 인기를 얻은 애니메이션이 관련 상품을 만들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건담」이 완구회사를 제작사로 둔, 어린이, 청소년에 로봇 완구를 파는 것이 주요 제작 목적 중 하나인 '어린이, 청소년'용 애니메이션이며, 소설판 건담을 출간한 소노라마문고(ソノラマ文庫)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SF, 판타지소설을 출간하는 전문 레이블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건담」의 소설화는 인기를 얻은 애니메이션이 으레 진행하는 '미디어 믹스'가 아니라, '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내용을 필요로 하는 소설 출판사가 본연의 내용에 맞는 내용을 취사 선택하여 진행한 전문적인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에는 최소 1970년대 말부터 '소년'을 목표독자로 전문 레이블을 출시하는 출판사가 존재했고, 이 레이블은 '소년'의 취향에 맞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그림중심인 애니메이션이든, 문자중심인 소설이든 상관 없이 흡수할 만큼의 탄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소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28] 이같이 문자와 그림을 넘나드는 탄력은 이들의 내용적 다양성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다양성은 이 소설의 정의를 쉽지 않게 만들었다. 전형적인 예로, 평론가 아즈마 히로키의

발표한 특별 담화까지, 모두 '낮은 속도와 높은 비용(速度慢,费用高)'을 중국 인터넷의 주요한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中国网络信息中心(1997), 中国互联网信息办公室,「总理都看不下去的网费和网速什么样？」, 2015.4.16.

25) 総務省(2019, p.10)

26) 杉浦由美子(2008, p.69)

27) 대표적인 예로는 알파폴리스, 미디어웍스문고 등이 있다. 이이다 이치시는 일본 웹소설이 '넓은 의미의 라이트노벨'로서, 기존에 '라이트노벨'을 판매했던 출판사들에서 출간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이이다 이치시(2020, pp.144-151)

28) 일례로,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소설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코발트문고'는 1965년 창간되었다.

경우 이들을 '내적 기준이 없는 소설'이라 정의한 바 있다.[29]

이 소설들은 '소년', '소녀'가 주 독자라는 특징에 따라 '영어덜트', '쥬브나일 소설'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필요에 따라 판타지, 미스터리, SF 등 장르로 세분화되기도 하였으나, 주 독자가 소년, 소녀라는 특성상, 일반 판타지, 미스터리, SF 소설과는 달랐다. 이같은 호칭 문제는 1990년대말, 인터넷 공간으로까지 이어져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 소설'에 대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르렀으며, 이 토론은 현재 일본에서 이들 소설을 가리키는 단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인 '라이트 노벨'을 파생시켰다.[30]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킬 만큼 뜨거운 인터넷 토론과 그 토론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른 영역으로까지 광범위하게 뻗어나가는 과정은, 이 소설에 '호명될 필요'가 있을 만큼 많은 독자와 큰 시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 소설들이 글과 그림을 넘나드는 다양한 내용으로 애니메이션, 만화등 다양한 미디어로 활용되며 독자층을 부단히 넓힌 것과 관계가 있으며, 이같은 독자층 확장에는 앞서 언급한 독자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라면 그것이 문자든 그림이든 상관 없이 자유롭게 흡수할 수 있는 일본 출판시장의 탄력을 빼놓을 수 없다.

1990년대말, 인터넷 공간에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 소설'에 대한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오랜 시간동안 '젊은층'의 성장을 함께한 라이트 노벨은, 일본 출판시장이 인터넷 보급 이전에 이미 문자와 그림을 넘나들며 독자의 취향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탄력을 갖췄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같은 탄력은 인터넷 보급 이후에도 이어져 일본 웹소설을 출판시장의 '내용원천'으로 상업화하게 만들었다.

즉, 일본 웹소설의 출판시장의 '내용원천'으로의 상업화는, 인터넷 보급 이전에 이미 애니메이션, 소설 등 다양한 형식을 넘나들며 독자의 수요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설, '라이트노벨'을 등장시킬 정도로 '성숙'해진 일본의 '오프라인' 멀티미디어 환경의 반영이며, 현재까지도 일본 웹소설은 출판을 통해 '라이트노벨'로 대표되는, 일본이 '오프라인'에서 이미 갖고 있던 글과 그림을 넘나드는 멀티미디어 환경과 연결되고 있다.

3. 결론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한국, 중국, 일본에서 웹소설은 모두 부단한 시장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세 나라의 상이한 환경으로 인해 이들의 상업화에는 차이가 생겼고, 이들의 상이한 상업화는 각 나라에서의 웹소설의 상이한 위치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한국, 중국보다 먼저 산업화하여 인터넷 보급 이전에 이미 독자의 수요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애니메이션, 소설 등 다양한 형식을 넘나들며 독자의 수요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이트노벨을 등장시킬 정도로 성숙한 출판시장을 확립하였고, 이는 일본 웹소설을 출판시장에 의지하며 수익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본 웹소설은 인터넷 보급 이전에 이미 애니메이션, 소설 등 멀티미디어 형식을 넘나드는 소설을 등장시킬 정도로 '탄력'적이었던 출판시장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누적한 멀티미디어 환경의 '내용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 중국 웹소설은 모두 인터넷에서 연재되며, 인터넷 연재를 통해 수익을 내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일본 웹소설의 출판시장을 통한 상업화가 인터넷 보급 이전에 이미 성숙한 출판시장을 갖췄기 때문이라면, 한국, 중국 웹소설의 인터넷 '자급자족' 상업화는 이들의 출판시장이 일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IMF특수 속에서 인터넷을 '새 시장'으로 보고 2000년대 초, 게임,

29) 東浩紀(2007, p.32).

30) 一柳廣孝, 久米依子(2009, p.13).

영상 등 콘텐츠를 통한 포털사이트 경쟁을 촉발시킬 만큼 빠른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을 갖춘 한국과 달리, 1990년대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중국에게 인터넷은 '개척해야 할 수많은 시장 중 하나'였고, 이는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의 제고와 보급으로 이어져 중국 인터넷에 오랜 시간동안 '문자' 중심의 내용 누적이 이뤄지게 만들었다. 이같은 환경의 차이로 인해 한국 웹소설은 다양한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수많은 콘텐츠 중 하나'로 상업화했으며, 중국 웹소설은 다른 콘텐츠를 압도할 만큼 우선적으로 상업화하게 되었다.

'수많은 콘텐츠 중 하나'로 상업화한 한국 웹소설은 현재까지도 다른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노벨코믹스'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잦은 웹소설의 웹툰화는 한국 웹소설의 '수많은 콘텐츠 중 하나'인 '위치'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웹소설과 마찬가지로 중국 웹소설도 미디어의 다양화와 함께 영화, 드라마 등 다른 미디어의 내용 원천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숏폼영상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형식의 다양화로 인해, '내용원천'화는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콘텐츠를 압도할 만큼 우선적으로 상업화한 중국 웹소설은 중국 인터넷에 콘텐츠가 나날이 다양화하는 현재까지도 먼저 상업화하여 내용과 이용자를 집중시킨 '선배'로서, 다른 콘텐츠에 무시할 수 없는 이용자 습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중국 웹소설의 중국에서의 '독보적' 위치는, 웹소설이 다른 콘텐츠를 압도할 만큼의 내용과 이용자를 축적했기 때문이며, 이같은 '압도적 축적'은 오랜 시간 '문자' 중심이었던 인터넷 환경을 드러낸다.

〈참고문헌〉

이건웅・위군. 2017.「한중 웹소설의 발전과정과 특징」.『글로벌문화콘텐츠』0권31호.

유정원. 2018.「중국 웹 소설 성장에 대한 소고(小考)」.『중국인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6호.

왕이소・신형덕. 2021.「OSMU의 진화 경로: 한국과 중국의 웹소설과 웹툰을 중심으로」.『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22권2호.

서봉교・이화진. 2022.「중국 플랫폼과 앱 사업자의 협력과 강제: 웹소설 콘텐츠 앱 사례를 중심으로」.『현대중국연구』23권4호.

이화진. 2023.「무료플랫폼 약진에 따른 중국 웹소설 플랫폼의 대응 - 텐센트 웨원그룹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0권67호.

강준만. 2007.『한국대중매체사』. 인물과사상사.

이이다 이치시. 2020.『웹소설의 충격』. 요다.

欧阳友权・罗亦陶. 2022.『天津社会科学』2.

邵燕君. 2017.「网络文学：中国这边风景独好」.『学习时报』8.

徐晨. 2022.「中国网文的成风破浪之旅」.『文艺报』4947.

刘伟见. 2000.「2000年度图书热点剖析」.『中国图书评论』12.

邵燕君. 2019.「网络文学的"断代史"与"传统网文"的经典化」.『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7.

邵燕君、肖映萱. 2020.『创始者说』. 北京大学出版社.

杉浦由美子. 2008.『ケータイ小説のリアル』. 中央公論新社.

一柳廣孝,久米依子. 2009.『ライトノベル研究序説』. 青弓社.

東浩紀. 2007.『ゲーム的リアリズムの誕生』. 講談社.

総務省. 2019.「令和元年版 情報通信白書」.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2023.『第51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https://www.cace.org.cn/NEWS/COUNT?a=4034(검색일2023년4월14일)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2004.『第13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调查报告』. http://www.cac.gov.cn/files/pdf/hlwtjb

g/hlwlfzzkdctjbg013.pdf(검색일2023년4월14일)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1997.『第1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调查报告』. http://www.cac.gov.cn/2014-05/26/c_126547412.htm
中国互联网信息办公室,「总理都看不下去的网费和网速什么样？」, 2015. 4. 16. http://www.cac.gov.cn/2015-04/16/c_1114991445.htm
「[창간 9주년] 웹소설 원작 웹툰화 '노블코믹스' 한류 꽃 활짝」,『GAMETOC』, 2021. 4. 5, https://www.gamet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27(검색일2023년4월14일)
「网络文学走出去风景这边独好」,『人民日报』, 2015. 1. 6, http://media.people.com.cn/BIG5/n/2015/0106/c40606-26332464.html(검색일2023년4월14일)
「独家丨中国网文在海外：爆款网文背后的"民间翻译组"们」,『澎湃新闻』, 2016. 12. 14,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579344(검색일2023년4월14일)
孙海瑞. 2023.「我国2021年网络文学市场营收超267亿元」, 中国新闻出版广电网, https://www.chinaxwcb.com/info/587031(검색일2023년4월14일)
「"우리 사이트에 글 써 연 1억 이상 번 사람 10명 있어요", 조아라 이수희 대표」,『조선일보』, 2016. 11. 28, https://jobsn.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8/2016112800947.html(검색일2023년4월14일)
カクヨム. 2019.「カクヨム誰でも収益化にて『一部有料化』は絶対に実装しないだろうという根拠」, https://kakuyomu.jp/works/1177354054883409598/episodes/1177354054889157421(검색일2023년4월14일)
「'인터넷 골목 상권' 집어삼킨 네이버, 이번엔…」,『중앙일보』, 2013. 1. 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10430110(검색일2023년4월14일)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04.「인터넷 보급률・IT 경제 기여도 OECD국가중 1위」,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65084152(검색일2023년4월14일)
「내모습 담긴 비디오편지 보낸다」, 매일경제, 1999. 6. 15, https://www.mk.co.kr/news/economy/2094633(검색일2023년4월14일)
「지난 10년, 작가들의 성장과 함께했다」,『씨네21』, 2014. 7. 14., http://m.cine21.com/news/view/?mag_id=77479(검색일2023년4월14일)
「著名网络写手痞子蔡上海行幕后星闻揭秘」,『新浪文教』, 2000. 10. 16, https://edu.sina.com.cn/wander/2000-10-16/13824.shtml(검색일2023년4월14일)

프룻 챈 영화의 홍콩인 정체성과 타자 재현 연구*

여신(呂晨)**

<目 次>

1. 서론
2. 홍콩 문화정체성과 타자 재현
3. 스테레오타입의 해체와 재구성: 프룻 챈 영화의 대륙인 재현
4. 응시받지 못한 타자: 프룻 챈 영화의 소수종족 재현
5. 결론

〈연구 요약〉

이 연구는 홍콩 감독 프룻 챈(Fruit Chan, 陳果)의 영화에서 나타난 타자 재현과 정체성 구성의 문제를 홍콩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다룬다. 자아 정체성은 타자와의 차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타자 재현은 곧 자기 재현이며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을 전제로 하여, 이 연구는 대상 텍스트가 대륙 중국인 및 소수종족 타자를 재현하는 방식을 국족(國族)/종족, 계급, 젠더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영화의 타자 재현 방식은 식민지배자의 타자 구성 방식과 매우 유사하고, '탈식민'의 일환으로서의 정체성 정치는 역설적으로 차별을 생산하는 식민지배를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탈식민'은 영국의 오랜 식민통치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의 반환' 또는 '중국의 재식민화'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두 가지 '탈식민'이 모두 타자에 대한 배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홍콩인의 정체성 정치가 여전히 식민주의 안에 갇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타자 재현은 '외부 타자'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소외와 배제를 재생산하고, 내부의 식민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연구는 '차이'에 의한 정체성 구성이 어떻게 차별로 전화(轉化)하는지, 그 내부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각축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그 의미와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1. 서론

■ 문제의식

아편전쟁 이래 홍콩인은 강대국의 식민과 재식민을 겪으며 '타자'로서 존재해 왔다. '홍콩인'에 가해진 수식어는 늘 침울하고 무기력한 뉘앙스를 띤다. 홍콩은 "빌려온 공간"[1]이고, 홍콩문화는 "소멸하"[2]거나 "죽었"[3]으며, 홍콩인은 "소수자"요 "디아스포라"이고[4], "호모사케르"요 "생정치 인간"[5]이다. 홍콩인 정체

* 이 발표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2022년 2월 졸업)을 요약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1) Richard Hughes, *Borrowed place, borrowed time*: *Hong Kong and its many faces*, London: Deutsch, 1976.

2) Ackbar Abbas, *Hong Kong: Culture and the Politics of Disappeara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3) 朱耀偉,『香港研究作為方法』, 中華書局(香港)有限公司, 2016: 11-12쪽.

4) 류영하,「'소수'로서의 홍콩인」,『중국현대문학』71, 2014: 173-204쪽.

성에 관한 연구에서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뿌리없음'(rootlessness), '주변성'(marginality), '틈새성'(in-between-ness)', '혼종성'(hybridity) 등이 암시하듯이, 홍콩인에게 '정체성'은 늘 어떤 불확실한 것이고, 동시에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어떤 본질적이고 동질적인 것이며 욕망의 대상이다.

다수의 문화 텍스트를 검토한 결과, 그동안 홍콩인은 끊임없이 독자적인 정체성 구축을 시도해 왔고, 그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 즉 피억압 혹은 '권력 없음(powerlessness)[6]'은 역설적으로 이런 정체성 정치에 더 큰 권력, 혹은 적어도 더 강력한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 단순한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더 복잡하고 중층적인 요인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홍콩인의 정체성 정치에서 자주 동원되는 전략은 자신을 '피억압자'로 재현하는 것이다.

스스로가 피억압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억압자가 필요하다. 재현의 과정에서 억압자의 역할은 종종 추상적인 거대 권력을 은유하는 구체적인 '타자'가 맡게 된다. 문제는 적어도 '영화'라는 이데올로기 장치에 한해서, 재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은 언제나 텍스트의 생산자이고, 재현의 대상은 언제나 생산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거나 대변되는 위치에 있다. 이 연구의 대상 텍스트에 한정해서 미리 밝히자면, 재현의 대상이 되는 대륙인 타자는 대륙 정권을 은유하는 보조관념으로 기호화되면서 발화권을 철저하게 상실하게 되는 경우이고, 부차적 타자로서의 소수종족[7]은 아예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거나 홍콩인의 우월성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비교대상으로 전락되는 경우이다.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이 흑인의 정체성 정치에 관한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어떤 영화는 흑인이 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 없"고, "흑인의 경험을 다룬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반드시 '진보적'으로 되지는 않는다".[8] 본 연구자는 홍콩인의 동정할 만한 정치적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 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연구를 수행했다. 상호참조적 층위에서 홍콩과 비슷한 역사적 궤적을 거쳐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5) 임대근,「희미한 흔적과 대체된 상상: 한국의 대중과 함께 홍콩을 문제화하기」,『중국현대문학』 제71호, 2014: 154쪽, 157쪽.

6) 홍콩 출신의 재미 학자 레이 초우(周蕾, Rey Chow)는 자신의 '권력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하는 집단을 가리켜 "오리엔탈리스트들의 특수한 동료"라 부른다. 양자의 공통점은 지식 생산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초우는 미국 대학에서 만난 백인 교수 가운데 자신이 제3세계 출신임을 주장하거나 억압당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들의 자기 극화(self-dramatization)는 모두 자기 서발턴화(self-subalternization)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 노선은 갈수록 권위와 권력을 획득하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 지식인들은 '억압'이 원래 가지고 있는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함의를 빼앗고, 억압당한 자들로부터 그들이 가져야 할 항의와 정치적 소구의 언어를 빼앗았다." (周蕾, 米家路 외 역,『寫在家國以外』, Oxford Unversity Press(China), 1995:30쪽, 19쪽)
한편, 낸시 암스트롱(Nancy Armstrong)과 레너드 테넨하우스(Leonard Tennenhouse)는 저서『재현의 폭력(The Violence of Representation)』서문에서 소설「제인 에어」가 자신의 '권력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타인을 지배하는 폭력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독법을 제시했다. 그들에 따르면, 모범적인 주제로서의 제인 에어의 지위는 "오직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종의 진실에 대한 그녀의 주장에 달려 있다." (Nancy Armstrong·Leonard Tennenhouse, "Introduction: Representing Violence, or "How the West Was Won"", *The Violence of Representation,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Violence*, Routledge, 1989: 8쪽.)

7) 이 연구에서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등 홍콩에 체류하는 비(非)중국계 출신 주민을 '소수종족'으로 지칭한다. 홍콩에서는 이 집단을 '소수족예(少數族裔, ethnic minority)'로 지칭하는데, ethnic(명사형은 ethnicity)을 '종족(種族)'으로 번역한 것은 장정아에 따른 것이다. 장정아는 여러 국내 학자의 논의를 검토한 후, 'ethnicity'가 한 국가 내의 소수민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민족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하는 용어인 점에서 '소수민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종족'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쓰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민족'으로 번역할 경우 'nation'과의 구분이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ethnicity가 논의되는 맥락들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에 '종족'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자도 장정아의 주장에 동의하여 '종족'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한다. (장정아,「홍콩인: '국제도시의 시민'에서 '국민'으로」, 김광억 외,『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2005: 293-294쪽.)

8) 스튜어트 홀, 임영호 편역,「새로운 종족성」,『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컬처룩, 2015: 535쪽.

■ 연구의 차별성

이 연구는 국족/종족, 계급 및 젠더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홍콩영화의 타자 재현에 주목하는 점, 그동안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던 소수종족 문제, 영화와 사회의 상호작용, 홍콩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광둥어 대사에 주목하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홍콩 감독 프룻 챈이 참여 제작한 네 편의 '혼종 독립영화'[9]이다. 프룻 챈 감독은 '가장 홍콩적'이면서도 소외계층에 대해 휴머니즘적인 관심이 강한 감독으로 평가되어 온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수의 문화 텍스트를 검토한 결과, 홍콩인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주요 타자는 대륙 중국인이고 부차적 타자는 소수종족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홍콩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되 비(非)홍콩인에 초점을 맞춘 <리틀챙>(細路祥, Little Cheung, 1999), <두리안 두리안>(榴蓮飄飄, Durian Durian, 2000), <할리우드 홍콩>(香港有個荷里活, Hollywood Hong Kong, 2001), <스틸 휴먼>(淪落人, Still Human, 2018)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외 참조 대상으로 홍콩 영화 46편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4편을 포함시켰다.

연구방법은 구성주의적 관점에 부합하면서 텍스트의 내적 모순을 밝히는 데에 유용한 이데올로기 비평 방법을 채택하고, 텍스트를 구조화하는 방법으로는 임대근의 트랜스아이덴티티 이론 등을 활용했다.

2. 홍콩 문화정체성과 타자 재현

제2장은 정체성과 재현에 관한 구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홍콩인 정체성이 어떻게 타자에 대한 배제를 통해 구성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제1절은 홍콩의 문화정체성을 반드시 자아와 타자에 대한 변증법적 사유를 통해, 자아-타자의 권력관계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에 의한 피지배자'와 '내부 타자에 대한 지배자'라는 모순적 위치에 있는 홍콩인이 정체성 문제에서 봉착한 가장 큰 난제는, 어떻게 홍콩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타자들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정체성의 경계를 유연하게 설정하는가라는 문제임을 밝혔다.

제2절은 홍콩영화의 타자 재현을 중심으로, 홍콩인의 주요 타자인 대륙 중국인이 각 역사적 국면에서 어떻게 재현됐는지를 살펴보았다. 찾을 수 있는 영상자료에 의하면, 1960년대까지 홍콩영화의 대륙 중국인 재현에는 지역 차별에 대한 약한 충동과 민족 화합을 향한 강한 열망이 공존했다. 1970~80년대에 들어서 홍콩과 대륙 간 커지는 빈부격차와 정치적 갈등에 따라, 영화 속 대륙인들은 홍콩인과는 명백히 다르게 가난, 무지, 게으름, 후진성, 야만성, 폭력성 등 특징을 지닌 열등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거부와 소멸의 대상으로 재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주권반환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홍콩영화 속 대륙인물은 더는

9) 본 연구자는 상업영화와 독립영화의 성격을 두루 가진 '혼종 독립영화'가 매우 적합한 연구대상이라고 보았다. 홍콩 영화학자 웬디 간(Wendy Gan)은 홍콩의 독립영화를 시험적 성격이 강한 '순수 독립영화' 및 상업영화와 일정한 유대를 유지하는 '혼종 독립영화'로 나눈다. (Wendy Gan, *Fruit Chan's Durian Durian,*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5: 18-19쪽.) 홍콩 연구자 에스더 청은 이런 '혼종 독립영화'는 비록 상업영화로부터 자금, 인력, 기술 등의 지원을 받고 상업 유통망을 통해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제작자가 지배 헤게모니에 대항하여 자기 뜻을 진정성 있게 표현했다면 독립영화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Esther M. K. Cheung, *Fruit Chan's Made i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9: 21-38쪽.) 나는 이런 '혼종 독립영화'야말로 홍콩인의 정체성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홍콩인 감독의 상대적 자율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홍콩영화의 상업적 유전자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조롱이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홍콩을 동경하고 모방하며 홍콩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명화의 대상'으로 재전환되었다. 1997년 주권반환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화 속 대륙인물의 이미지도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들을 바라보는 영화의 시선은 호감과 비호감, 동정심과 호기심, 경계심과 두려움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인물형상을 생산해 낸다.

3. 스테레오타입의 해체와 재구성: 프룻 챈 영화의 대륙인 재현

제3장는 텍스트의 의식과 무의식 간의 모순에 주목하여 대륙인물에 관한 세 편의 영화를 분석했다.

제1절은 유토피아와 이데올로기의 변증법적 관점에서 <리틀챙> 속 홍콩인 어린이 챙자이(祥仔)와 대륙 불법체류 아동 아펀(阿芬)의 관계, 그리고 아펀과 어머니의 형상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홍콩영화에서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홍콩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로서, 홍콩인과의 갈등을 통해 재현됐다. 이와 달리, <리틀챙>은 불법체류자 가족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들에 대한 홍콩 이웃의 포용적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재현이 유토피아적이라면, 대륙인물과 홍콩인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우열대립은 영화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보여준다. 타자 열등화를 대가로 그들에 대한 현실적 배제를 은연중에 정당화하는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적 열망은, 소외계층에 대한 감독의 휴머니즘적 태도와 유토피아 서사를 구현하는 온정주의와 '어린이 효과'에 의해 억압하고 은폐된다.

제2절은 사실주의적 재현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중심으로 <두리안 두리안>의 대륙 매춘부 친옌(秦燕)을 분석했다. 영화는 대륙 매춘부의 도구적인 스테레오타입을 해체하는 한편, 홍콩과 대륙의 경제적·도덕적 이원대립을 통해, 친옌을 '인간성이 파괴된 신자유주의적 인간'으로 재정형화한다. 사실주의적 재현 방식은 이러한 새로운 스테레오타입을 사실화하고 자연화하는 이데올로기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영화가 타자의 것으로 묘사한 신자유주의적 속성은 사실 홍콩인 스스로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친옌에 대한 타자화는 기실 자신의 결점을 타자에 이식함으로써 타자 배제를 통해 이상적인 자아를 구성하는 욕망의 징후이다.

제3절은 <할리우드 홍콩>의 대륙 여성 인물과 홍콩 남성 인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영화는 상상적 스펙터클을 통해 대륙에 관한 부정적 담론을 재생산하는 한편, 사악하고 공격적인 여성-대륙과 구별되는 선량하고 평화지향적인 남성-홍콩 정체성을 향한 이데올로기적 열망을 만족시킨다. 이런 열망의 배후에 남성중심적이고 식민주의적인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 일반까지 타자화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4. 응시받지 못한 타자: 프룻 챈 영화의 소수종족 재현

제4장은 홍콩영화 연구에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 왔던 '소수종족'의 인물형상을 분석했다.

제1절은 홍콩 대중매체에서 소수종족의 재현 방식을 통시적으로 고찰했다. 분석 결과, 소수종족의 형상은 시대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고, 대체로 '흉악한 범죄자', '순종적인 하인' 또는 '가벼운 웃음거리'로 재현된다. 범죄자와 하인 형상은 소수종족을 외모적, 지능적, 도덕적 측면에서 열등하게 재현함으로써, 그들을 문명화와 지배의 대상으로 고착화시킨다. 또한, 소수종족을 가벼운 웃음거리로 재현한 것은 인종차별의 윤리성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한다.

소수종족을 노골적으로 열등화한 기존의 영화와 달리, 이 연구의 대상 텍스트는 적극적인 반인종주의 전략을 펼친다. 예컨대, 제2절에서 살펴본 영화 <두리안 두리안>은 남아시아 인물을 성실한 노동자로 재현하여,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상상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남아시아인을 ‘야만인’과 ‘폭도’로 가정하는 무의식적인 인종주의적 편견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타자’에 대한 ‘우리’의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충동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절은 영화에서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감독의 이중적 오리엔탈리즘 이데올로기와 함께, 국제영화제를 겨냥한 영화의 셀프-오리엔탈리즘적 성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제3절에서 살펴본 <리틀챙>과 <스틸 휴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된다. 두 영화는 필리핀 가정부에 대한 긍정적 형상화와 계급/종족을 초월한 동고동락 서사를 통해, 현실적인 인종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을 상상적으로 해결하는 유토피아적 서사를 구성한다. 그러나 인물 묘사에서 여전히 피부색에 따른 인종서열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존재하고, 가정부의 자발성을 부각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합리화하고 문화적 배제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한계가 발견된다.

5. 결론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대상 텍스트는 홍콩인을 억압했던 식민지배자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타자를 재현하고, 그들을 내부 피식민자로 만들고 있다. 타자와의 대비를 통해 자아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타자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자아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식민주의적 타자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식적으로 타자화를 경계하는 대상 텍스트에서조차도 이러한 징후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해온 지배 이데올로기가 구성원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암시한다.

프룻 챈 영화 속 홍콩인 정체성 재현의 딜레마는, 동일한 재현 체제 내에서 발화자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위치를 동시에 차지한 데에 있다. 이런 딜레마는 대상 텍스트에서 다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대항적 입장에서, 자신을 안티-오리엔탈리즘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둘째, 식민지배의 잔재인 강력한 서구 지향성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한 결과 자신을 셀프-오리엔탈리즘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셋째, 내부 식민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충동으로 인해, 타자를 오리엔탈리즘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것은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무의식적인 모방이기도 하다.

상기 분석 결과는 타자와의 ‘차이’를 통해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타자를 환대해야 한다는 발화자의 성찰적 의식과 우월성에 대한 무의식적 열망 사이의 긴장이 서사 속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충돌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자기모순은 이상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열망에서 기인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열망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봉쇄시킨다. 이를테면, 문명화되고 포용적인 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기획은 타자에 대한 열등화와 배제로 인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체성의 문제는 곧 인정의 문제이다. 타자화를 통한 정체성 구성은 타자의 정체성 훼손을 대가로 하기에, 상호인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상호인정은 차이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차이 속 동일성을 찾아내어 서로 교차하는 연대를 구성할 때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홍콩-대륙 사이의 상호인정을 어렵게 만든 주요갈등은 국족 정체성 갈등이다. 인간이 다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정체성들 사이에서 유연하게 전환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홍콩과 대륙의 화해는 반드시 국족 정체성의 통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홍콩인과 대륙인, 홍콩인과 소수종족뿐만 아니라, 여타 집단도 단일한 정체성에서 벗어난다면, 다양한 정체성을 통한 새로운 연대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탈중심화된 유연한 연대는 서로 교차하고 소통하면 장기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화해와 통합을 이끌어낼 힘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류영하, 「‘소수’로서의 홍콩인」, 『중국현대문학』 71, 2014.

임대근, 「희미한 흔적과 대체된 상상: 한국의 대중과 함께 홍콩을 문제화하기」, 『중국현대문학』 제71호, 2014.

장정아, 「홍콩인: ‘국제도시의 시민’에서 ‘국민’으로」, 김광억 외,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2005.

스튜어트 홀, 임영호 편역, 「새로운 종족성」,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컬처룩, 2015.

Ackbar Abbas, *Hong Kong: Culture and the Politics of Disappeara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Esther M. K. Cheung, *Fruit Chan's Made i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9.

Nancy Armstrong·Leonard Tennenhouse, “Introduction: Representing Violence, or “How the West Was Won” ”, *The Violence of Representation,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Violence*, Routledge, 1989.

Richard Hughes, *Borrowed place, borrowed time*: *Hong Kong and its many faces*, London: Deutsch, 1976.

Wendy Gan, *Fruit Chan's Durian Durian*,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5.

周蕾, 米家路 외 역, 『寫在家國以外』, Oxford Unversity Press(China), 1995.

朱耀偉, 『香港研究作為方法』, 中華書局(香港)有限公司, 2016.

4月 29日(土) 15:30~17:40

발표논문

어 학 2 분 과

어법과 중국어사

— [인문2관 105호] —

현대중국어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 연구

양 류*

<目 次>

1. 들어가기
2.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 통사・의미적 특징
3.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의 특징
4. 나오면서

1. 들어가기

중국어 조동사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범위는 주로 동사 기원 조동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연구 주제는 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조동사들의 품사 규명과 양태 의미 및 이에 따른 분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형용사 기원 조동사를 연구한 논문이 존재하지만 주로 현대중국어에서 쓰이는 ‘可/可以’, ‘好’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타동 구문에서 사용된 ‘可/可以’의 양태의미 및 ‘好’의 품사, 양태의미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중국어 중간 구문에 관한 연구는 과거에 주로 중국어의 중간 구문은 무엇인지 또는 중국어 중간 구문의 범위 설정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주로 ‘NP+V起來+Adj.’구문, ‘NP+好/容易V’구문 두 가지 구문을 연구해왔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미진했던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可/可以, 足, 宜, 好’와 같은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 및 이러한 조동사들로 구성된 한 가지 구문, 즉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1)]

(1) 请不要误导大家狗肉不可吃。
개고기는 먹을 수 없다고 대중을 오도하지 마십시오.
(2) 相机可以买，好姑娘是买不来的。
카메라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좋은 아가씨는 살 수가 없다.
(3) 天坛防疫处首批疫苗足供百万人使用。
천단 방역처의 첫 번째 백신은 백만 명이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4) 有的品种宜内销，有的品种宜外销。
어떤 품종은 내수 판매에 적합하고, 어떤 품종은 수출 판매에 적합하다.
(5) 电老虎的屁股不好摸。
‘전기호랑이’의 엉덩이는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1)~(5)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간과하였다.

1) 어휘 의미를 보면 위 예문에서 나타난 조동사 ‘可, 可以, 足, 宜, 好’는 모두 ‘(~하기에) 적합하다’의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강사

1) 본고에서 사용된 예문은 모두 말뭉치에서 추출한 것으로 주로 北京語言大學 언어지능연구소의 ‘BCC 코퍼스’에 수록된 예문이다. BCC 예문이 아닌 경우, 출처를 따로 표시하였다.

의미를 가지고 '적합'류 의미장에 속한다. 또한, 이들의 기원은 모두 형용사다.[2)]

2) 통사적으로 위 예문들은 모두 'NP+조동사+VP'구조이고, 주어 '개고기', '카메라', '백신', '품종', '엉덩이'의 의미역은 모두 동사 '먹다', '사다', '사용하다', '판매하다', '만지다'의 수동자이고 행위자가 아니다.

3) 구문은 상태성(Stativity) 혹은 '비사건성(Non-Eventivenss)'을 가진다. 구문의 기능을 보면 총칭성을 가지고 어느 단일 사건을 묘사하지는 않는다. 전체 문장에 나타나고 있는 시제(Tense)는 모두 현재시제이다. 이러한 제한 조건들은 일반적인 타동 구문이나 화제 주어 구문과는 구별된다.

4) 양태(Modality) 의미를 살펴보면 위 예문에서 나타난 조동사들은 모두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나 상태 발생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상기 언급한 공통점은 Yoshimura&Taylor(2004)이 말하는 중간 구문에 보이는 특징들과 일치한다. 그에 따르면 중간 구문은 주어 실체의 안정적인 특성(특히 그 동사가 지칭하는 사건에 참여하는 경향)을 단언하고 전형적으로 단순 현재시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상태 해석을 하며 일반적으로 지칭된 특성의 잠재력을 명시하는 부사어(well, easily 등)을 필요로 한다.[3)] 이에 본고는 위와 같은 형용사 기원 조동사로부터 형성된 구문을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으로 보며 이들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어휘 의미를 보면 단일 조동사 연구 혹은 단일 양태 하위 분류에 속하는 조동사에 관한 연구를 넘어, 조동사의 기원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여 중국어의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로서 중국어 조동사 연구에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제공한다.

2) 현대중국어에서 타동 구문 및 중간 구문에서 나타나는 형용사 기원 조동사의 양태의미를 체계적으로 묘사하여 분류하는 연구로 가치를 지닌다.

3) 중간 구문은 세계 각 언어에서 독특하거나 완전히 일치한 구조가 없는 반면, 의미 영역인 중간 의미는 언어적 보편성을 가진다. 본고의 연구를 통하여 조동사 '可, 可以, 足, 宜, 好'로 형성된 중간 구문이라는 구문 형식을 규정하고 중국어에서도 능동 구문이나 피동 구문과 구별되는 중간 구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이에 본고의 연구는 유형론적인 연구 가치를 지닌다.

2.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 통사·의미적 특징

우선, 조동사의 정의로부터 본고에서 논의하는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의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자. 중국어 조동사에 관한 연구는 马建忠(1998)의『马氏文通』에서 시작되어, 학자마다 각각 '助動字', '助動詞', '能詞', '能願動詞', '情態動詞', '情態助動詞'와 같이 각각 다르게 명명하였다.[4)] 趙元任(1979[2012:294])는 조동사는 동사, 부사와 여덟 가지의 통사적 특징 차이가 보이며 그는 '可以, 好, 想, 爱, 值得' 등을 포함되는 총 43개의 조동사를 제시한 바 있다. 朱德熙(1982)에서는 趙元任이 제시한 통사

2) 太田辰夫(1958), 李明(2001[2017:181]), 丁海燕·张定(2012)를 참조하였다. 太田辰夫는 1958년에 출판된 저서『中国语历史文法』에서 처음으로 조동사를 동사계(动詞系)와 형용사계(形容詞系)로 분류하였다. 李明(2001[2017:181])은 상고중국어부터 청대까지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조동사의 기원에 대하여 논의한 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어 조동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하나는 일반 동사 기원 조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형용사 기원 조동사이다. 형용사 기원 조동사에는 '足, 可, 宜, 中, 好'가 있으며 '可, 宜, 中'의 본의(本義)는 모두 '적합하다'이다.

3) Ewa Dabrowska & Dagmar Divjak (2018:785)를 인용하였다.

4) 章士钊(1935), 黎锦熙(1955), 丁声树(1961), 汤廷池(1976), 赵元任(1979), 朱德熙(1982), 周小兵(1996), 허성도(2005[2010]), 최재영(2008) 등 많은 학자들은 '助動詞/조동사'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王力(1943), 刘月华(1983), 黄郁纯(1999), 崔希亮(2003), 김정필(2012) 등 학자들은 '能願動詞'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Tsang(1981), 王伟(2000), 谢佳玲(2002), 李明(2003), 박재승(2017) 등은 'modal verb', 'modal auxiliary' 'modals'의 중국어 용어로 '양태동사/情態動詞'나 '양태조동사/情態助動詞'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통시적인 시각으로 출발하여 '보조성 동사(辅助性的动词)'란 의미로 '조동사(auxiliary verbs)'라는 용어를 택한다.

적 특징 중의 네 가지 특징을 동의하여 이외에도 한 가지 특징을 추가하여 총 5가지 구별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최재영(2008)은 刘坚(1960), 丁声树等(1961), 赵元任(1968[1979]), 胡裕树(1981), 朱德熙(1982), 刘月华等(1983[2001]), 汤廷池(1988), 傅鱼贤・周小兵(1991), 黄伯荣・廖序东(1991), 孙德金(1996) 등 대표학자들이 제시한 조동사의 통사적 특징을 11가지로 종합하여 개괄하였다. 다음과 같다.

1) 용언목적어만을 수반할 수 있으며 체언목적어를 수반할 수 없다.
2) 중첩할 수 없다.
3) 뒤에 동태조사 '了', '着', '过'를 수반할 수 없다.
4) 'X不X'형식 안에 넣어서 정반의문문을 형성할 수 있다.
5) '不'로 부정할 수 있다.
6)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7) 목적어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말할 수다.
8) 서로 다른 조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9) '没'로 부정할 수 있다.
10) '不X不'형식을 구성할 수 있다.
11) 'X怎么样?'의 형식으로 질문할 수 있다.

최재영(2008)은 1)부터 7)까지의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전형적인 조동사로 보고 적어도 1)~3) 이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전형적 조동사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다.

통사적 특징으로 조동사를 정의하는 것과 동시에 의미적 특징으로 조동사를 정의하는 노력도 있었다. 王力(1989[2016:242-254])는 '能願式 조동사'의 명칭으로 '能, 可, 得, 會, 欲, 願, 敢'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의미적으로는 '가능성'과 '의지'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밝혔다. 朱德熙(1982[2014])는 양태의미를 갖는 것이 조동사의 특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동사를 양태 의미 기준으로 크게 7가지로 나누었다. 郭鋭(2010:28)는 朱德熙(1982[2014]) 등의 관점을 발전시켜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郭鋭(2010)에 따르면, 조동사를 구별하려면 우선 통사적 특징을 기준으로 부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양태 의미를 지니고 다른 동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것은 확인되면 조동사로 판별한다는 것이다. 郭鋭(2010)의 관점은 위에서 제시한 11개의 통사적 특징 기준에 양태의미라는 의미적 특징을 추가한 것으로 조동사의 특징 분석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본고는 '好'가 대표하는 형용사 기원 조동사를 부사, 동사, 형용사와 구별할 수 있는 통사적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조동사와 동사의 통사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통사적 특징	조동사	동사
1) 용언성 목적어만을 수반할 수 있으며 체언성 목적어를 수반할 수 없다.	+	-
2) 중첩할 수 없다.	+	-
3) 뒤에 동태조사 '了', '着', '过'를 수반할 수 없다.	+	-

〈표 1〉 조동사와 동사의 통사적 차이

조동사와 부사의 통사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통사적 특징	조동사	부사
4) '不'로 부정할 수 있다.	+	-
5) 'X不X' 정반의문문을 형성할 수 있다.	+	-
6)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	-
7) '是……的'구문에서 나타날 수다.	+	-
8) 단독으로 말할 수 있다.	+	-

〈표 2〉 조동사와 부사의 통사적 차이

또한 현대중국어의 'NP+조동사+VP'구문에 출현하는 형용사 기원 조동사와 전형적인 형용사의 통사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통사적 특징	조동사	형용사
9)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	-
10)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	-
11) 중첩할 수 없다.	+	-

〈표 3〉 조동사와 형용사의 통사적 차이

위와 같은 통사적으로 구별성 특징을 가지고 현대중국어의 'NP+조동사+VP'구문에서 출현하는 '可, 可以, 足, 宜, 好'의 품사 부류를 고찰한 결과, '可, 可以, 足, 宜, 好'는 특징 1)~3)을 충족하여 일반 동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可, 可以, 足, 宜, 好'는 특징 4)~7)을 가지고 있으며 부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또한, 특징 9)~11)으로 인해 일반 형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可以' 이외의 나머지 형용사 기원 조동사들은 특징 8)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형이론의 관점으로 '可以'는 가장 전형적인 조동사라고 볼 수 있고 '可, 足, 宜, 好'는 비교적 전형적인 조동사로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의 어휘 의미를 살펴보자. 현대중국어에서 '可/可以, 足, 宜, 好' 등의 의미항목은『現代漢語詞典』(제7판, 商務印書館)에서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조동사	사전 의미	예문
可	適合；符合(적합하다)	这回～了他的心了。
	表示许可或可能	榆木～制家具。
	表示值得。	这出戏～看。
可以	表示可能或能够	这片麦子已经熟了，～割了。
	表示许可	你～走了。
	表示值得(~할만하다)	那篇文章写得不错，很～读一读。
	<口>好；不坏	这篇文章写得还～。
	<口>厉害	你这张嘴真～。
足	充足；足够 (충분하다)	劲头很～。
	够得上某種数量或程度	这些事有三小时～能做完。
	足以；值得，多用于否定式(~할만하다)	不～为憑丨微不～道。
宜	合適(적합하다)	权～之计丨因地制宜
	应當，多用於否定式	事不～迟。
	<書> 當然；無怪	～其無往而不利。
好	優點多的，使人满意的(좋다)	庄稼长得很～。
	合宜；妥當(적합하다)	不知跟他说些什麽～。
	用在动词前，表示使人满意的性质在哪方面(좋다)	～看丨～聽丨～吃
	容易，限用於动词前(쉽다)	那個歌～唱。丨 这個问题很～回答。

	便于	地整平了～種莊稼。
	<方>应该；可以	我～进来吗?
	常容易(发生某種事情)(쉽다)	刚会骑车的人～摔跤。

〈표 4〉『現代漢語詞典』에 제시한 '可/可以, 足, 宜, 好'의 의미

위 표를 통해 예문 '榆木～制家具', '这片麦子已经熟了, 可以割了'에서 나타나는 조동사 '可/可以'는 '느릅나무 목재가 가구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 '밀이 익었으니 이제 베기에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동작과 행위를 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알맞다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나타난다. '宜'는 현대중국어에서 숙어에 많이 쓰이지만 '宜'는 '적합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足'는 '일이나 조건 따위에 알맞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정도다'라는 의미로 다른 형용사 기원 조동사보다 더욱 충분한 정도를 나타낸다.

여러 낱말의 의미 항목들 중에는 서로 공통된 것도 있고 대립되는 것도 있다. 공통된 의미 항목을 가진 낱말을 모은 집합을 의미장(語義場)이라고 한다. 위 표를 통해 형용사 기원 조동사들은 서로 같은 의미 항목을 가진 유의어 관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공통적인 의미 자질은 바로 '적합하다'의 의미다. 다시 말해 형용사 기원 조동사들은 '적합'류 의미장을 형성한다. '적합'류 의미장에는 '적합하다', '좋다', '충족하다'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포함된다. 이러한 '적합'류 의미장은 범언어적으로도 존재한다.

Heine & Kuteva(2002:390)는 'to be sufficient, enough, to be fitting, to be(적합하다)'의미를 가진 성분은 공통적으로 '적합하다'의 의미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들의 문법화 경로를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합하다 의미를 가진 형용사 성분은 범언어적으로 능력(Ability)이나 의무(Obligation)양태 의미로 발전되었다. Bybee et al(1994:181)은 의무 양태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의 어휘적 기원을 연구하였으며 Mwera어와 Lahu어의 경우에는 'be fitting, be proper'의 어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로부터 발전하였으며 Palaung어의 경우에는 '좋다'을 의미하는 어휘로부터 발전하였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범언어적인 연구 성과는 형용사 기원 조동사 '可, 可以, 足, 宜, 好'를 하나의 의미장에 귀속시켜 연구하는 범언어적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양태의미의 측면에서 현대중국어 형용사 기원 조동사들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태(modality)'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Lyons(1977:452)는 '화자가 문장을 통해 나타내는 명제나 명제가 묘사하는 상황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이다'라고 한 바 있다. 彭利贞(2005:2)은 양태는 화자가 문장을 통해 표시한 명제의 참가나 사건의 현실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라고 하였고, Palmer(1986:16)는 '양태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와 관점의 문법적인 구현이다'라고 보았다.

Palmer(2001)는 양태의미를 크게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 의무양태(Deontic Modality), 동적양태(Dynamic Modality) 3가지로 분류하였다. 彭利贞(2005)은 현대중국어 조동사에는 전형적 양태조동사, 비교적 전형적인 양태조동사, 준(準)양태조동사와 같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고, 그들을 인식양태, 도의(道義)양태, 동적(动力)양태로 분류하였으며 그에 따르면 무정물 주어의 용도와 유정물 주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동적[능력]양태에 포함하였다. 巫雪如(2012:82)는 기존 연구의 성과와 선진 중국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인식양태, 도의양태, 동적양태, 조건양태'와 같은 네 가지 하위 분류로 구선된 선진 중국어 양태 체계를 설정하였다. 李明(2017:7-13)은 상고 시기에서 청대까지 나타난 조동사들을 하나의 양태 체계로 정리하고. 그에 따르면 고대 중국어의 양태조동사는 '인식, 도의, 조건, 평가'와 같은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기존 연구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선행 학자들의 합리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중국어 조동사의 양태의미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중국어 형용사 기원 조동사의 양태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tr><td colspan="3">사건 양태</td><td colspan="2">명제 양태</td></tr>
<tr><td rowspan="5">동적 양태</td><td colspan="2">능력</td><td rowspan="5">인식 양태</td><td>인식 가능</td></tr>
<tr><td rowspan="3">조건</td><td>조건 가능</td><td rowspan="3">인식 개연</td></tr>
<tr><td>조건 개연</td></tr>
<tr><td>조건 필연</td></tr>
<tr><td colspan="2">의지</td></tr>
<tr><td rowspan="2">도의(道義) 양태</td><td colspan="2">허가</td><td rowspan="2">인식 필연</td></tr>
<tr><td colspan="2">의무</td></tr>
</table>

〈표 5〉 본고의 중국어 조동사의 양태의미 분류

<표 5>의 분류 체계에 따라, 현대중국어에서 조동사 '可'와 '可以'는 동적[능력]양태, 동적[조건 가능], [조건 개연], 도의[허가]양태를 나타낸다. 현대중국어에서 '足'는 주로 부사로 쓰이고 조동사로 쓰일 때 제한적인 동사와 결합한다. 조동사로서 '足'는 주로 '충분하다'의미로 쓰이거나 부정 형식에서 '할 만하다'의미로 쓰이며 동적[조건 가능], [조건 개연]양태를 나타낸다. 조동사 '宜'는 주로 문어에서 쓰이고 '居'와 결합하여 가장 많이 쓰인다. 주로 '적합하다'의 의미로 동적[조건 개연]양태를 나타내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의 의미로 도의[허가], [의무]양태를 나타낸다. 조동사 '好'는 '~하기 쉽다/적합하다'와 '~할만하다' 두 가지 어휘 의미로 주로 동적[조건 가능], [조건 개연]양태, 도의[허가]양태를 나타낸다.

3.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구문의 특징

전형적인 중국어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은 '今年票好买(올해는 표를 사기 쉽다)'와 같은 문장을 말한다. 본 장에서는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 주어의 특징, 구문의 기능, 구문의 유형 및 의미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간 구문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흔히 영어의 'My bicycle rides easily(cf. 천호재(2002:213)'와 같은 문장을 예문으로 들어 제시한다. 중간 구문을 설명하고자 하면 통사적으로 동사의 목적어가 구문의 주어가 되며, 동작의 행위자는 함축되어 통사적으로 독립된 논항으로 기호화되지 못한다. 의미상으로 수동문이지만 형태적으로는 동사에 수동표지를 붙이지 않고 능동문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영어의 중간 구문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이해는 인도-유럽어(그리스어 등)의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중간 구문 혹은 중간태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 전통문법의 시각으로 진행된 중간 구문 연구에서 Kemmer(1993)의 연구는 중간 구문에 관한 통찰력이 있는 연구로 뽑힐 수 있다. Kemmer(1993)는 범언어적 고찰을 통하여 중간 구문에 나타난 동사를 의미적으로 12가지로 분류하였고 중간 유형과 기타 상황 유형들 간의 의미 관계를 의미 공간(semantic space)으로 구축하여 의미 지도(semantic map)형식으로 제시한 바 있다. Kemmer(1993)는 타동성(transitivity)의 연속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간 관련 의미를 크게 재귀 영역(reflexive domain)과 나머지 네 개의 영역, 즉 1) 상호 상황 유형(reciprocal type). 2) 정신 사건(mental event). 3) 자발적 사건(spontaneous event). 4) 수동-유사 중간 상황 유형(passives-like middle situation type)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이분화 시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에 따라 타동성 차원에서 재귀와 중간이 단일참여자와 두 참여자 사건 사이에 있는 중간적인 의미 범주로 자리 잡고 있다.

Kemmer(1993)가 타동성의 차원에서 중간 의미를 고찰하려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그가 구축한 중간 의미 관련 개념공간은 범언어적으로 보편성을 지닌다. 중국어의 경우, '적합하다' 의미를 가지고 잠재적 가능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기원 조동사로 구성된 중간 구문의 특징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는 질물,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왜 함축되는지, 수동 의미와 가능 의미가 왜 가지는지 등 질문에 관해서는 그

의 연구는 좋은 계시가 되었다.

타동성의 차원에서 현대중국어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의 주어의 의미역을 관찰했을 때, 주어의 의미역은 모두 비행위자(Non-AGENT)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어의 의미역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수동성'과 '변화성'이 강한 광의 수동자(수동자/결과/목표는 포함됨) 의미역, 둘째 '수동성'과 '변화성'이 없는 사격에 속하는 의미역인 재료/도구/처소/시간 등과 같은 의미역, 셋째 대상(theme)/관계자(relevant) 의미역과 같다. 주어의 비행위자성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즉 동사의 행위자는 구문의 통사 구조에서 나타나지 않고 함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어 현상은 '행위자 함축'이라 부른다. Kemmer(1993)에 따르면 어떤 언어에서는 흔히 인간이 외적인 원인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화자의 시점에서 볼 때 수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어서 화용적으로 덜 강조되는 상황(pragmatically deemphasized)을 표현하는 경우 중간 구문을 쓸 수 있다. 즉 발화 시 화자가 중간 구문이라는 구문 형식을 선택할 것은 회용적인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는 중간 구문은 피동문 혹은 화제주어구문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주어는 사역성(Causative)을 가지고 있다. 사역성은 사역 동사 등과 같은 동사로 인해 가진 것이 아닌 의미적으로 주어의 속성으로 인해 가진 것이다. 다시 말해 주어가 지닌 속성으로 인해 주어는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의 발생 원인이며 의미적인 사역주(causer)라고 볼 수 있다.

타동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위와 같은 주어의 두 가지 특징은 중간 구문의 논항 실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중국어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다음 'NP+好+VP'중간 구문을 통해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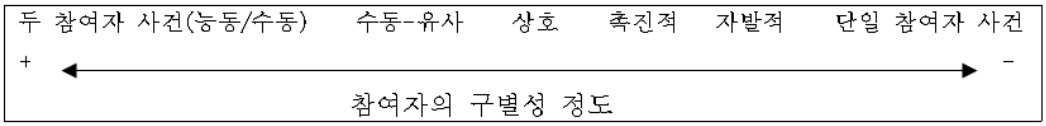
(6) 名人家的东西好卖。 (수동-유사 사건 유형, passive-like event type)
유명인의 물건은 잘 팔린다.
(7) 女人跟女人好说话。(상호 사건 유형, reciprocal event type)
여자끼리는 말하기 편하다.
(8) 还是幼兒园好混。(촉진적 사건 유형, facilitative event type)
역시 유치원이 지내기 편하다.
(9) 冰好融化，疏远的朋友却难以再交好。。(자발적 사건 유형, spontaneous events)
얼음은 쉽게 녹지만 소원해진 우정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위 예문의 주어의 의미역은 각각 수동자, 동반자, 처소와 관계자이다. 타동성 연속체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문(6)와 같은 수동-유사 사건 유형의 구문의 경우 주의의 피영향성이 가장 강하고 주어의 의미역은 광의 수동자이므로 동사는 모두 타동사이고 동사 뒤에 다시 목적어가 출현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은 범언어적으로 영어와 이탈리어 예문인 'My bicycle rides easily', 'Questo tavolino si trasporta facilmente(이 테이블은 쉽게 옮겨진다)'와 가장 유사하고 기존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전형적인 중간 구문으로 논의를 해왔다. 사건의 참여자 측면에서 구문을 통해 표현된 사건은 두 참여자 사건과 가장 유사하다. 즉 '유명인의 물건', '물건을 파는 사람'과 같은 두 가의 참여자가 있지만 동작 '판매하다'의 행위자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고 통사구조적으로 논항으로 실현되지 못한다.

예문(7)~(9)는 모두 비전형적인 중간 구문에 속한다. 예문(7)과 같은 상호 사건 유형 중간 구문의 경우 '여자끼리' 즉 두 명의 여자인 참여자가 존재하고 두 참여자는 '대화하다'와 같은 행위를 하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다. 예문(8)과 같은 촉진적 사건 유형의 경우, '유치원을 다니는 자'만 단일 참여자 사건과 유사하다. 단, '유치원'과 같은 주어는 마치 타동사의 행위자처럼 촉진자로서 그 존재가 사건의 발생, 즉 '다니다'라는 일에 있어서 적합한 조건이 된다. 예문(9)와 같은 자발적 사건 유형 중간 구문

의 경우, 동사는 주로 '融化(녹다)' 등 자발적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타동성을 살펴볼 때 사건은 단일 참여자 사건과 두 참여자 사건 사이에 위치하며 인간의 인지 속 주어 이외에는 주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다른 참여자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특정되지 않은 날씨, 자연 환경, 물리적 원리에 속한다.

타동성과 수동 의미 연속체 차원에서 보았을 때, 본고는 분류한 수동-유사 사건, 상호 사건, 촉진적 사건, 자발적 사건은 모두 타동성과 수동 의미 연속체에 위치한다. 중국어 전형적 및 비전형적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의 타동성을 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현대중국어 형용사 기원 중간 구문 세분 유형의 참여자 구별성 정도

전형적 중간 구문, 즉 수동-유사 중간에서 비전형적 중간의 방향으로 이동하며 참여자의 구별성 정도는 점차 감소한다. 많은 비전형적 중간 구문에서 특히 자발적 사건 구문의 경우, [-유정]주어가 출현되고 [의지성]이 약한 자동사가 출현된다. 자발적 사건은 단일 참여자 사건 구문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본고는 위와 같은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 의미는 'X는 어떤 사건 E의 발생에 적합한 조건이다(X is a suitable condition for the occurrence of event E)'와 같이 정의하고, 현대중국어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의 '형식-의미' 도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Non-AGT]SUBJ [AUX V] ↔ [SEM cause 'doing V' become suitable by property of Non-AGT]]

〈도식 1〉 현대중국어 형용사 기원 중간 구문의 '형식-의미' 도식

4. 나오면서

본고는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적합하다(suitable)' 의미장으로 출발하여 중국어의 '可, 可以, 足, 宜, 好'로 구성되는 '狗肉不可吃', '有的品种宜内销', '名人家的东西好卖'와 같은 구문의 공통점을 주목하며, 중국어의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라는 한 가지 종류의 조동사 및 이러한 조동사가 가지는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밝혔다. 양태의미 체계를 세워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가 나타나는 양태의미도 분류하였다. 또한, '名人家的东西好卖'와 같은 구문에서 주어의 비행위자성과 사역성을 주목하고 구문의 기능은 주어의 어떤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러한 구문은 중국어의 '적합'류 형용사 기원 중간 구문이라는 것을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타동성의 시각으로 중국어 '적합'류 형용사 기원 중간 구문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양류(2022b)에서 중국어 '적합'류 형용사 기원 중간 구문에 속하는 'NP+好+VP' 중간 구문은 한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는 많은 중국어 'NP+好+VP' 중간 구문은 한국어의 피동 표현(피동접미사로 인해 파생된 피동, '-되다'형 피동, '-어지다'형 피동 등)과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어에는 'NP+好+VP' 중간 구문 형식으로 중간 의미를 부호화하는 방식과 달리, 한국어에는 다양한 피동 표현이 중간 의미의 부호화 책략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한국어와의 대조 연구를 통하여 중국어 '적합'류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의 중간 의미를 다시 한번 고증되었다.

〈參考文獻〉

Bernd Heine & Tania Kuteva 저, 龙海平・谷峰・肖小平 역,『语法化的世界词库』,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北京公司, 2014.

Bybee & Pagliuca, & Perkins 저, 陳前瑞 역,『語法的演化: 世界語言的時, 體和情態』, 北京：商務印書館, 2017.8

Ewa Dabrowska & Dagmar Divjak 저, 임지룡・김동환 역,『인지언어학 핸드북』, 서울: 박이정, 2018.

Palmer. F. R., *Mood・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SHIBATANI(1985), Passive and Related Constructions: a prototype analisis, *Language* Dec., 1985, Vol. 61, No. 4, pp. 821-848.

Suzaan Kemmer 저, 백미현 역,『중간태』, 서울: 한국문화사, 2003.2.

YANG LIU,「중국어 형용사 기원 조동사 중간 구문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양류(2022),「중국어 'NP+好+VP'중간 구문과 한국어 대응 표현 대조 연구」,『中语中文学』제90집.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現代漢語詞典』(第7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郭锐 저,『现代汉语词类研究』, 北京：商務出版社, 2010.8.

李明 저,『汉语助动词的历史演变研究』, 北京：商務出版社, 2017.9.

太田辰夫 저, 蒋绍愚・徐昌華 역,『中国语历史文法』, 北京：北京大学出版社, 2003.11.

朱德熙 저,『语法讲义』, 北京：商務印書館, 2014.

趙元任 저, 吕叔湘 역,『汉语口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2012.11.

丁海燕・张定(2012),「汉语形源助动词形成的句法机制」,『古汉语研究』2012年第3期.

彭利贞(2005),「现代汉语情态研究」, 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

최재영(2008),「현대중국어 조동사의 특징, 범위, 하위분류를 중심으로」,『中國研究』43輯.

천호재,『중간 주문의 개별 언어 분석 및 범언어적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09.

중국어『신약성경』'把' 사동구 연구*

— 사복음서 '把' 사동구 후속 절 성분 생략 현상 해석

한수진**

<目 次>

1. 서론
2. 把 사동 복문 후속 절 성분 생략 해석
2.1. '<원인자>' 생략
2.2. '<원인자>+把' 생략
2.3. '把+<대상자>' 생략
2.4. '<원인자>+把+<대상자>' 생략
2.5. '<원인자>+把+<대상자>+[vP2]' 생략
3.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인간이 여러 행태 속에서 보이는 경제성 원칙(Economy Principle)'이 언어에 적용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즉, 인간이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어 표현을 최소화하여 사용하려는 현상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전세계적인 스테디셀러(Steady seller)이자 유구한 신학적 역사 기록서라고 평가받는 성경에서 발생하는 '생략(ellipsis)'[1] 현상에 대해 주목한다. 따라서, 중국어『신약성경』중에서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기록된 '사복음서'[2]를 텍스트로 하여, 중국어 유표 사동표지인 '把'자문의 후속 절에서 발생하는 생

---

* 본 발표문은 필자의 박사 논문에서 다루게 될 주제에서 일부를 개괄한 것으로, 추후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1) 생략은 일반적으로 이전 화맥에서 언급된 요소가 후행 화맥에서 음성적으로 발화되지 않는 현상으로, 의미는 있으나 소리는 결핍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생략은 복원가능성 조건(recoverability condition), 동일성 조건(identity condition), 평형성 조건(parallelism requirement) 등 여러 조건을 준수한다. 생성문법적 관점에서 다루는 생략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DP생략, VP생략, 공백화(gapping), 유사공백화(pseudo-gapping), 수문(sluicing), 조각문(fragments) 등이 이에 속한다. 박명관(2005:103) 참조.
생략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한다.
①개괄생략(概括省略): 어떤 성분을 생략한 것으로, 생략되어도 문장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독자가 앞·뒤 문장의 문맥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②승전생략(承前省略): 뒷 문장의 성분이 앞 문장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면, 뒷 문장 속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는 것이다.
③몽후생략(蒙後省略): 승전생략과 반대의 유형으로, 앞 문장의 성분이 뒷 문장에 나오면, 앞 문장의 성분을 생략하는 것이다.

2) 신약 성경에 속한 27권의 책 중에서 처음부터 배열된 순서대로「마태복음」,「마가복음」,「누가복음」,「요한복음」의 네 권을 묶어 사복음서라고 한다. 각 권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복음서의 기자로 알려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름을 각각 표제로 붙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 예문으로 사용한 판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최근에 번역되었다는 점과 초판의 번역 원칙을 고수하고, 원문의 뜻을 각 언어의 문법에 맞게 정확하고 쉬운 현대어를 사용하여 번역한 원칙에 근거하여, 각각 중국어 성경 '和合本修訂本(2010)'과 한국어 성경 '성경전서 새번역(2001)'으로 선정함을 밝힌다. 또한, 예문에서 원문 및 언어별 대조 시 다음의 판본을 인용하였다. 헬라어 원문은『네슬-알란트 28판(28th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한국어는『성경전서 새번역』, 중국어는『和合本修訂版』, 영어는『The Holy Bible, New Testaments in the King James Version, KJV』와『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를 각각 사

략 요소에 대해 분석한다. 생략법은 고대 중국어에서부터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王力(2010)에 따르면, 생략은 언어의 필수요소로써, 문장 해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신약 사복음서 전체에서 '把'자 사동 복문을 대상으로 하여, '把'자의 복문에서 절과 절이 병합될 때, 후속하는 절에서 생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생성문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석한다.

1.1. 연구목적

본고는 '把' 사동구 복문에서 후행하는 절에서 선행절의 어느 성분이 왜, 어떻게 생략되었는지에 대해 생성문법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어로 번역된 중국어『신약성경』사복음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把' 사동구 복문에서 후행하는 절이 선행절의 전제하에 생략될 때, 후행절 역시 사동구로 해석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把' 사동구 복문에서 후행하는 절에서 선행절의 어느 성분이 생략되지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생략된 성분을 밝혀 그에 따른 통사적 구조와 구조 성분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생략 성분이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를 비롯하여, 한국어와 영어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각 언어마다 기술하는 방식의 차이도 알 수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고는 중국어『신약성경』사복음서에서 선행절인 '把' 사동구 성분이 후속 절에서 생략되는 순서를 선행절 성분의 배열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즉, 소위 'A+把+B+VP' 구조의 배열순서에 따라 크게 'A' 요소 생략, 'A+把' 요소 생략, 'A+把+B' 요소 생략, 'A+把+B+VP'의 순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A, B의 의미역[3]을 적어 표시한 것이 본고 2장의 목차이다.

이상의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과 방법으로 생략 현상을 해석한다.

우리는 중국어『신약성경』사복음서의 '把'자 사동 '복문(complex sentence)'[4]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그 생략 현상을 해석한다. 그 분석 결과 복문을 구성하는 명시적(overt)인 '把'자 구는 모두 447개가 있으며, 이들 명시적인 '把'자 구에 후속하는 비명시적(covert)인 '把'자 구는 총 174개의 예가 있다. 명시적 '把'구문이 가장 많이 출현한 것은「누가복음」이고, 비명시적 '把'구문이 가장 많이 출현한 것은「마태복음」이다. 또한, 두 경우를 모두 합친 구문은「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5] 본고는 이러한 예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 두 실체, 특히 후속 절에서 '把' 및 그와 관련된 논항들이 생략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생성문법의 최소주의(the Minimalist Program)적 관점으로 푼다.

먼저 중국어 복문의 도출 및 생략과 관련하여 두 절간의 병합에 보이는 관계 설정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에 대해 鄧思穎(2010:242-258)은 N. Zhang(2009)을 인용하여, 연합구조가 단층적 구조가 아니라

용하였다. 또한, 한국어-헬라어 대조본은『로고스성경5 신약』을 사용하였으며, 중국어-헬라어 대조본은 '和合本2010-BHS/NA28(https://wd.bible/exegesis)'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그 외에 추가로 다른 판본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사용한 판본에 대해 출처를 밝혀두기로 한다.
각 판본에 대한 번역 원칙은 대한성서공회(https://www.bskorea.or.kr/index.php)와 香港聖經公會(https://www.hkbs.org.hk/)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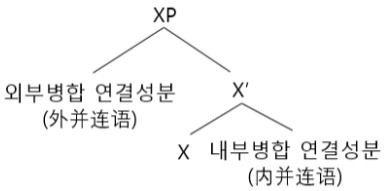
3) 음성형식을 가진 명사구는 격 여과에 의해 일정한 격을 부여받는다. 또한 하나의 논항에 두 개 이상의 의미역이 부여되거나, 하나의 의미역이 두 개 이상의 논항에 부가될 수 없으며, 어떠한 의미역도 부여되지 않는 논항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즉 하나의 논항은 의미역과 반드시 일대일 대응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촘스키 언어학 사전(2003:707) 인용.

4) 소위 "기저구조(d-structure)"에서 두 개 이상의 문장(sentence)을 가지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명시적(overt)으로는 단문으로 보이는 'I want to go.'는 실제로 복문이다. 이는 '[s_1 I want [s_2 PRO to go]]'의 두 절(s_1, s_2)을 가지기 때문이다. 'PRO'는 격을 가지지 못하는 영대명사이다. 이정민・배영남(1990:825) 참조.

5) 사복음서에서 출현하는 '把'자구문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층차가 있음을 말한다. 즉, '외부병합 연결성분(外並連語)'과 '내부병합 연결성분(內並連語)'이 층차적으로 비대칭적인 위치에 있으며, 전자가 후자보다 높은 층차에 위치함을 말하며,[6] 그 구조를 아래와 같은 수형도로 개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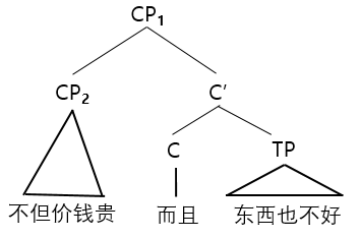
(1) 접속사에 의한 두 성분의 병합 관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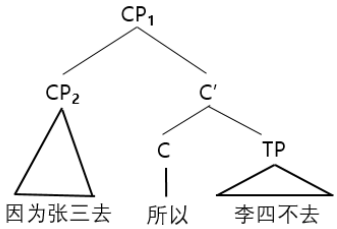
X는 접속사이고, '외부병합 연결성분'은 지정어 자리에 위치하며, '내부병합 연결성분'는 접속사(X)의 보충어이다. 이 세 성분이 복문의 한 형태, 즉 '연합구조'를 구성한다. 이 관점에서 鄧思穎(2010:249)은 절을 연결하는 'X'요소로 보문사(complementiser)를 설정하고, '而且'로 구성되는 '연합구조'와 보문사 '所以'로 구성되는 '수식구조'를 설명한다. 다음 수형도를 보자.

(2) 보문사로 구성되는 구의 구조화와 층차

a. '而且'로 구성되는 연합구조



b. '所以'로 구성되는 수식구조



구분 / 성경	명시적 '把'구문	비명시적 '把'구문	'把'구문 합계
마태복음	129(52.8)	115(**47.2**)	**244**
마가복음	78(75.7)	25(24.3)	103
누가복음	**138**(86.3)	22(13.7)	160
요한복음	102(**89.5**)	12(10.5)	114
총합	447	174	621

상기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복음서에서 명시·비명시 '把'구문은 모두 621회 출현하였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출현하였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명시적 '把' 구문이 가장 많이 출현한 것은 「누가복음」이고, 비명시적 '把'구문이 가장 많이 출현한 것은 「마태복음」이다. 또한, 전체 비율 중에서 명시적 '把'구문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텍스트는「요한복음」이며, 비명시적 '把'구문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텍스트는 「마태복음」이다.
본고에서 다음과 같이 把자를 사용하지만, '把字句'가 아닌 예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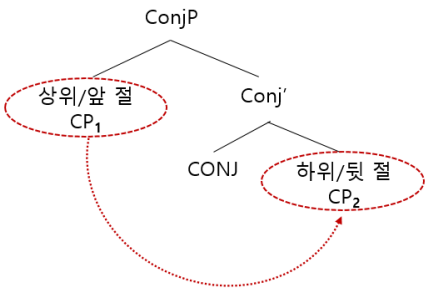
他們無法當著百姓在他的話上抓到**把柄**，又因他的對答而驚訝，就閉口不言了。 路加福音 20:26

6) 층위와 관련하여 N. Zhang(2009), Munn(1987), Larson(1990), Zoerner(1995), Johannessen(1998), Vries(2006) 등 참고. 복문에서 두 절간의 층차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높은 층차의 것이 하위 층차에 대해 성분통어(c-command)를 통해 모종의 의미적, 통사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즉,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해 하위 층차의 동일/중복 성분에 대해 생략현상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鄧思穎(2010:242) 인용.

a, b의 그림은 에서 각각의 보문사(C, complementizer) '而且'와 '而且'를 핵으로 하여 복문의 보문사구(CP_1)를 구성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고는 복문구조가 층차성을 가진다는 鄧思穎(2010)의 견해에는 동의하나, '而且'나 '所以'를 보문사로 보는 견해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즉, X 요소인 '而且'나 '所以' 등이 보문사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겠고, 그것들은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conjunction)기능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수형도 모식으로써 복문의 구조를 설명한다.

(3) 접속사 핵에 의한 복문의 구성[8)]



위 수형도는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CONJ) 핵이 중간투사 단계에서 내부병합된 절(CP_2)을 보충어로 가지며, 그 지정어 자리(ConjP-Spec)에 외부병합된 절(CP_1)을 가진다. 이로써 접속사구(ConjP), 즉 복문으로 투사된다. 이를 '把' 사동구에 적용하면, 앞 절, 즉 상위 층차에 'A把B' 구조의 독립적인 절이 존재하고, 하위 층차인 후속 절을 성분 통어(c-command)함으로써 동일 성분 생략 현상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把' 사동구의 후행절에서 일어나는 생략 현상을 해석하고자 한다.

1.3. 기존연구

'把'자 구문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黎錦熙(1924)가 목적어 전치설을 주장하였으며, 王力(1945[1985])이 '把'구의 속성에 대해 '처치식(處置式)'이라 언급한 이래, 呂叔湘(1948), 李臨定(1984) 등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단문의 범위 내에서, '把' 아래 명사구의 한정성 문제, '把'가 동사인가 전치사인가 하는 품사성 문제, 동사구의 복잡성 문제, '把'와 기타 사동 표지와의 차이점 등등의 연구 범위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생성문법의 출현이래, 沈陽(1997), 馮勝利(2009), 鄧思穎(2010), 何元建(2011), 黃征德(2013), 蔡維天(2016), 熊仲儒(2015)등등 적지 않은 학자들이 '把'구의 연구 영역을 넓혔다. 그들은 경동사 이론(light verb theory), 사건의미(eventuality) 개념, 논항(argument)의 의미역(θ-role)과 정보 배열의 층차(hierarchy), 병합(merge)과 이동(movement) 등의 개념을 써서 '把'구의 생성 문제를 논하였다. 그러나 모두 단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하여 '把字複句與省略('把'자 복문과 생략)'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볼 때,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본고는 생성문법적 연구의 기초 위에 『신약성경』에서 사복음서를 텍스트로 하여, '把'자 사동 복문의 후행절에서 보이는 어휘 요소들의 생략 현상에 대해 해석하고자 한다.

8) 아래 수형도에서 사용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 XP: 임의의 절 ConjP: 접속사절, CP_1: 1번/상위 절, Conj' 접속사절의 중간투사, X: 임의의 핵, CONJ: 접속사 핵, CP_2: 2번/하위 절

2. 把 사동 복문 후속 절 성분 생략 해석

2.1. ‘〈원인자〉’ 생략

이 생략은 다음과 같이 표찰달기(labelling)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4) $[_{ConjP}$ $[CP_1$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 V-v’$_2$ [VP...]]]], CONJ’
$[CP_2$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text{-}2}$ V-v’$_2$ [VP...]]]]

‘把’자 구의 후속 절에서 ‘<원인자>’ 만을 생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상·하 두 절의 동일한 <원인자>인 A 요소가 생략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후속 절도 역시 사동구이다.[9] 그렇다면 A요소만 생략된 까닭은 무엇인가? 다음을 통해 살펴보자.

2.1.1 ‘把’ 사동문인 경우

다음 예를 보자.

(5) (彼拉多$_i$)又**把**他們所要求的那因作亂和殺人而下在監裏的人$_j$釋放[V]了，而(A_i)把耶穌$_k$交[V]給他們，隨他們的意思處置[10]。路加福音 23:25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6) 他們$_i$把驢駒牽[V]到耶穌那裏，(A_i)把自己的衣服搭[V]在上面，路加福音 19:35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5)의 후행절에서 <원인자> ‘彼拉多’는 선행절의 ‘彼拉多’와 같으므로 생략되었다. (6)의 후행절에서 생략된 <원인자>는 선행절의 ‘他們’과 같으므로 생략된다.

2.1.2 ‘使’ 사동문인 경우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7) 那人$_i$出去，倒說許多的話，(A_i)**把**這件事$_j$傳揚[V]開[V]了，(A_i)**使**耶穌$_k$不能再公開進[V]城，馬可福音 1:45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8) 他$_j$正來的時候，那鬼$_i$**把**他$_j$摔倒[V]，(A_i)**使**[V]他$_j$重重地抽風[V]。[11] 路加福音 9:42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

9) 후속 절의 사건의미가 변화결과[BECOME]인 구문이 오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 방향은 후속 절이 사동문일 경우에 한하며, 다음의 예와 같은 경우는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연구 과제로 두기로 한다.

鬼$_i$**把**那人$_j$摔倒在眾人中間，(A_i)就出來[V]了，卻沒有傷害他。 路加福音 4:35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10) 헬라어 원문에서는 ‘處置’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11) 馬可福音 9:18에도 같은 구절이 있다.

예(7)-(8)은 '使'를 쓰는 사동구 후행절에서 선행절의 동일 <원인자>인 '那人'과 '那鬼'가 각각 생략된 것이다.

2.1.3 비명시적 사동문인 경우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9) 那靈$_i$屢次**把**他$_j$扔[V]在火裏、(扔在[V])水裏，(A_i)要治死[V]他。[12] 馬可福音 9:22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10) 士兵$_i$**把**耶穌$_j$帶[V]進總督府的庭院裏，(Ai)叫齊[V]了全營的兵。馬可福音 15:16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 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예(9)-(10)은 비명시적 사동구인 후행절의 주어 자리에서 선행절의 동일 <원인자>가 생략된 것이다.

2.1.4 기타 형식의 사동문인 경우

다음 예를 보자.

(11) 鬼就央求耶穌$_i$，說："若(A_i)要**把**我們$_j$趕出去[V]，(A_i)就打發[V]我們進入[V]豬群吧！" 馬太福音 8:31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 보내주십시오."

(12) 別人$_i$要**把**你$_j$束上，(A_i)帶[V]你$_j$到不願意去的地方。 約翰福音 21:18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13) 他講完了，對西門$_i$說：「(A_i)**把**船$_j$開[V]到水深的地方(A_i)下網[V](A_i)打魚[V]。[13] 路加福音 5:4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14) 他們$_i$都**把**病人$_j$放[V]在街市上，(A_i)求[V]耶穌讓[V]他們摸一摸[V]他的衣裳縫子，馬可福音 6:56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11)-(12)의 후행절은 연동 구조를 통한 사동문이고, 예(13)-(14)의 후행절은 명령문 혹은 기원문이기 때문에 각각 사동의 의미가 드러난다. 따라서 후행절의 동일 <원인자>의 생략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

12) '火裏、水裏' 부분에 대한 새번역 해석에서는 불과 물로 묶지 않고, '던지고'라는 술어를 두 번 사용하여, 두 문장으로 풀이하였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여러 성경 판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헬라어(네슬-알란트 28판): καὶ πολλάκις καὶ **εἰς(에이스: 속으로, 裏) πῦρ(퓌르:불, 火) αὐτὸν(아우톤: 그를, 他) ἔβαλεν(에발렌: 던졌습니다, 扔) καὶ(등위접속사 '카이': 또, ∅) εἰς(에이스: 속으로, 裏) ὕδατα(휘다타: 물들을, 水)** ἵνα ἀπολέσῃ αὐτόν ἀλλ' εἴ τι δύνῃ βοήθησον ἡμῖν σπλαγχνισθεὶς ἐφ' ἡμᾶς.
2. 한국어 성경(개역개정):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3. 영어 성경(NIV): 'It has often thrown him into fire or water to kill him.'
4. 영어 성경(KJV): And ofttimes it hath cast him into the fire, and into the waters, to destroy him: but if thou canst do anything, have compassion on us, and help us.
5. 중국어 성경 번역: '그를 불과 물에 자주 던져서, 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13) 아래와 같이 중국어 성경 新標點和合本 新約聖經에서는 '開到'와 '下網' 사이에 컴마가 있다. 판본에 따라서 두 개의 절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講完了，對西門說：「把船**開到**水深之處，**下網**打魚。」

먼저 제기한 후행절에서 ‘A’요소만 생략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5)-(14)의 각 예문을 통해 보듯, ‘把B’의 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2. ‘〈원인자〉+把’ 생략

이 생략은 다음과 같이 표찰달기(labelling)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15) $[_{ConjP}$ $[CP_1$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text{-}1}$ V-v’$_2$ [VP...]]]], CONJ’
$[CP_2$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text{-}2}$ V-v’$_2$ [V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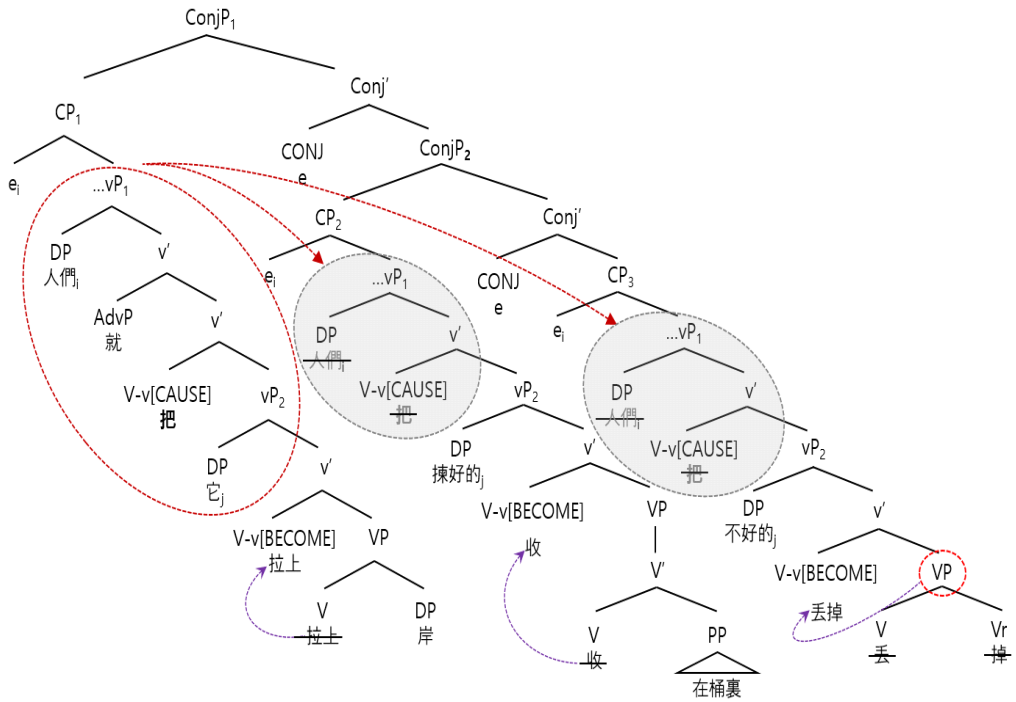
‘把’자구의 후속 절에서 ‘A把’ 구조를 생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후행절에서 ‘B’요소만 남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B’요소인 <대상자> 논항이 다르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16) 人們$_i$就把它$_j$拉上岸，坐下來，(A_i把)揀好的$_k$收在桶裏，(A_i把)不好的$_l$丟掉。馬太福音 13:48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예(16)에서 후행절의 ‘A把’ 선행절의 ‘人們把’와 같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그러나 <대상자> 논항인 ‘揀好的(좋은 것들)’과 ‘不好的(나쁜 것들)’은 선행절의 ‘它(배)’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는다.

위의 예(16)에 대한 다음 수형도를 통해서 ‘A把’ 생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7) ‘人們就把它拉上岸，(A_i把)揀好的收在桶裏，(A_i把)不好的丟掉’의 수형도



수형도에서 보듯, 세 개의 절 CP_1, CP_2, CP_3가 생성된다. 여기서 지정어 위치의 CP_1은 CP_2와 CP_3를 성분통어하므로, 후행절에서 동일한 요소는 경제성 원칙에 입각하여 생략(Deletion)된다. CP_1, CP_2, CP_3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원으로 표시된 ‘人們就把’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후속 절에서 ‘A把B’가 함께 생략된다.

그러나 각 절에서 ‘B’, 즉 <대상자> 의미역을 가지는 성분들이 모두 다르다. CP_1에서는 내용상 ‘它’이고, CP_2에서는 ‘揀好的’이고, CP_3에서는 ‘不好的’이다. 따라서 각 절에서 ‘B’ 요소 성분은 서로 상이하므로, 생략할 수 없다.

2.3. ‘把+〈대상자〉’ 생략

이 생략은 다음과 같이 표찰달기(labelling)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18) $[_{ConjP}$ $[CP_1$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 V-v’$_2$ [VP...]]]], CONJ’
$[CP_2$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 V-v’$_2$ [VP...]]]]

먼저 ‘把B’가 생략된 다음 예를 보자.

(19) (衛兵$_i$)**把**頭$_j$放[V]在盤子裏，拿來[V]給[V]那女孩，她$_j$就(把頭$_j$)給[V]她母親。[14] 馬可福音 6:28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20) 「(你們$_i$)**把**缸$_j$倒[V]滿水。」他們$_k$就(把B$_j$)倒[V]滿了，直到缸口。約翰福音 2:7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19)-(20)은 후행절의 <원인자> ‘她’와 선행절의 ‘(衛兵$_i$)’과 다르기 때문에, 후행절에서 <원인자>는 남겨두고, 선행절과 동일한 ‘把B’만 생략된다.[15] 예(20)은 명령문이기 때문에, 선행절에서 <원인자> ‘(你們i)’은 생략된다. 또, 후행절의 원인자 ‘他們j’은 선행절의 ‘你們’과 동일 지시 대상이지만 사용된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생략 후 발생할 의미전달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인자> ‘他們’은 남겨두고, 동일한 ‘把缸’만 생략되었다.

2.4. ‘〈원인자〉+把+〈대상자〉’ 생략

이는 ‘把’자구 후행절에서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생략 현상이다. 다음과 같이 표찰달기(labelling)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21) $[_{ConjP}$ $[CP_1$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 V-v’$_2$ [VP...]]]], CONJ’
$[CP_2$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 V-v’$_2$ [VP...]]]]

14) 해당 중국어 예문에 대응하는 헬라어 원문과 각 단어의 품사는 다음과 같다.

∅	**把**	∅	頭	**放**	∅	在	盤子	裏,	拿來	∅	**給**	∅	那	女孩	∅	她	就	**給**	∅	她	∅	母親
καὶ	**τὴν**	∅	κεφαλὴν	**Ø**	αὐτοῦ	∅	πίνακι	ἐπὶ	ἤνεγκεν	καὶ	**ἔδωκεν**	αὐτὴν	τῷ	κορασίῳ	τὸ	κοράσιον	καὶ	**ἔδωκεν**	αὐτὴν	αὐτῆς	τῇ	μητρὶ
·	·	det	noun	·	pron	·	noun	prep	verb	conj	**verb**	pron	det	noun	det	noun	conj	**verb**	pron	pron	det	noun

본 구절에서 헬라어 원문과 대조해보면, 중국어의 경우 헬라어 원문에 없는(∅) ‘把’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원문에 없는(∅) 동사 ‘放’도 추가되었는데,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도 ‘담아서’라는 동사를 추가로 삽입하였다. 또한 예문에서 생략된 마지막 절 ‘她拿去給她母親’에서 한국어 ‘어머니에게’에 해당하는 헬라어 ‘μητρὶ(메트리)’는 Noun - Dative Singular(여격 단수 명사)로, 해당 단어 안에 ‘-에게(to)’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선행절의 ‘給那女孩’와 같이 ‘給’를 직접 추가하여 ‘給母親’으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給’는 ‘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ἔδωκεν(에도켄)’로 헬라어에 대응하는 동사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헬라어와 각 해당 언어 대응 번역 텍스트는 Logos9 성경소프트웨어(https://app.logos.com/)와 微度聖經(https://wd.bible/) 참조.

15) 해당 예문에서 마지막 절의 원인자는 ‘她’로 앞 두 절의 원인자 ‘衛兵$_i$’와 다르다. 한국어 성경(새번역)과 영어 성경(NIV)에서는 ‘把頭’의 해석에서는 각각 ‘그것을’과 ‘it’으로 번역된다.

이 생략 현상은 후행절에서 'DP_A BA(把) DP_B'를 생략한 후 남는 술어 성분 '[V-v'$_2$[VP...]]'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2.4.1 보충어가 없는 생략식

이는 '把'자구 후행절 생략 시 술어 뒤에 보충어 성분을 남기지 않는 방식이다. 따라서 술어는 보충어 성분이 없는 '[V-v'$_2$[VP...]]'이다. 그러나 이 술어 속에는 사동사건의미 'v[CAUSE]-v[BECOME]'의 후속 성분인 경동사구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교적 복잡한 형태이다. 이때 'DP_A BA(把) DP_B'가 생략된 후행절은 선행절의 술어와 연속된다. 여기서 선행절과 후행절을 쉼표(,)로 구분한 경우와 붙여 쓴 경우가 있다.

1) 두 절이 구분된 경우

이는 선행절의 뒤, 후행절의 술어 앞에 쉼표를 사용한 경우이다. 다음은 후행절의 술어 뒤에 방향표시어[16]가 부가된 경우이다.

(22) (你們$_i$)**把**牠$_j$解開，(A_i把B_j)牽來[V]。[17]馬可福音 11:2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23) 你們$_i$**把**他$_j$抓住，(A_i把B_j)穩妥地帶走[V]。馬可福音 14:44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24) 我感謝你！因為你$_i$**把**這些事$_j$向聰明智慧的人隱藏起來[V]，而(A_i把B_j)向嬰孩啟示出來[V]。 路加福音 10:21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22)-(23)에서 보듯, 후행절의 술어 '牽來'와 '帶走'는 모두 '동사+방향 표시어' 구조의 술어구이고, 예(24)의 술어 '隱藏起來'와 '啟示出來'는 '동사+복합 방향 표시어' 구조의 술어구이다. 특히 예(23)-(24)의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는 각각 부사어 '穩妥地'와 '向嬰孩'가 삽입되어 선행절의 술어와 후행절의 술어가 잘 구분된다.

다음은 후행절의 술어 뒤에 '결과 표시어'가 부가된 경우이다. 다음 예를 보자.

(25) 若是你$_i$的右眼使你跌倒，(A_i)就**把**它$_j$挖[V]出來，(A_i把B_j)丟[V]掉。馬太福音 5:29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26) 他$_i$**把**耶穌的身體$_j$取[V]下來，(A_i把B_j)用細麻布裹[V]好，路加福音 23:53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베로 싼 다음에,

예(25)-(26)에서 보듯, 후행절의 술어 '丟掉'와 '裹好'는 모두 '동사+결과 표시어' 구조의 술어구로, 후행절 술어 동사 뒤의 '掉'와 '好'는 모두 '결과 표시어'이다.

16) 본고에서 '방향 표시어'와 '결과 표시어'로 표기한 것은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소위 '보어'이다. 이들이 술어와 독립적인 성분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보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17) 路加福音 19:30에서도 아래와 같이 같은 형식의 구절이 등장한다.

說：「你們往對面村子裏去，進去的時候會看見一匹驢駒拴在那裏，是從來沒有人騎過的，把牠解開，牽來。

2) 두 절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A把B' 생략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연속되어 하나의 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먼저 다음 예를 보자.

(27) 於是，彼拉多$_i$命令把耶穌$_j$帶[V]去(A_i把B_j)鞭打[V]了。[18] 約翰福音 19:1
그 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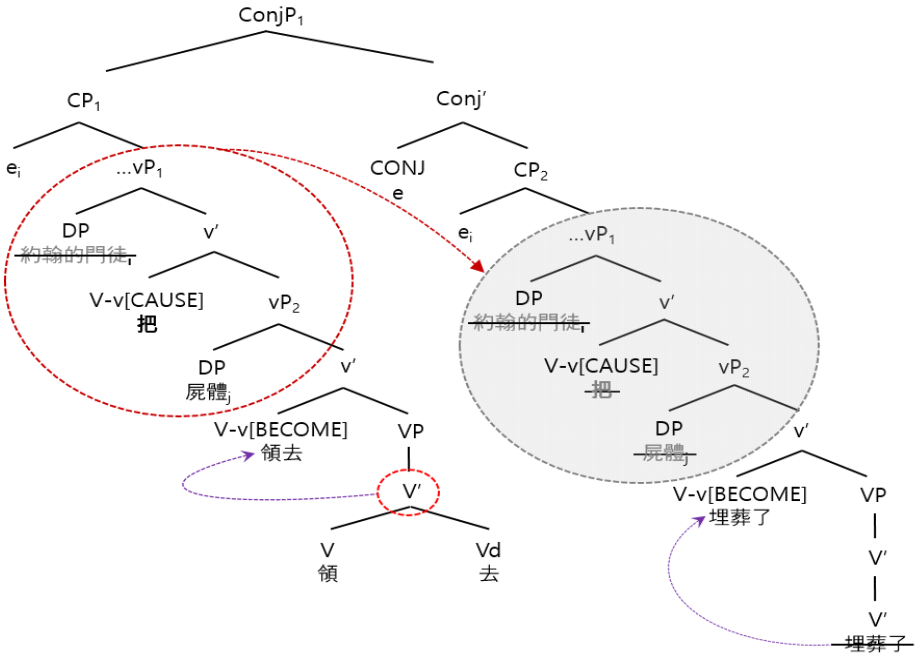
(28) 約翰的門徒$_i$來，(A_i)把屍體領[V]去(A_i把B_j)埋葬[V]了，[19] 馬太福音 14: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29) (僕人$_i$)**把**那肥牛犢$_j$牽[V]來(A_i把B_j)宰[V]了，我們來吃喝慶祝；[20] 路加福音 15: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선행절의 술어와 후행절의 술어 사이에 쉼표(,) 없이 하나의 술어처럼 묶였다. 특히, 선행절의 술어 속에는 이미 방향성의 의미가 사라지고, 연결성의 의미가 있는 '來'와 '去'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주어가 같은 두 사동구에서 술어가 긴밀히 연결된 소위 '연동구'이다.

이제 예(28)의 수형도를 통해 이러한 구조가 도출되는 과정을 보자.

(30) '(A_i)把屍體領去(A_i把B_j)埋葬了'의 도출 수형도



18) 해당 중국어 예문에 대응하는 헬라어 원문과 각 단어의 품사는 다음과 같다.

∅	於是	∅	彼拉多	命令	∅	把	耶穌	**帶去**	**∅**	**鞭打**	了
Τότε	οὖν	ὁ	Πιλᾶτος	∅	τὸν	∅	Ἰησοῦν	**ἔλαβεν**	**καὶ**	**ἐμαστίγωσεν**	∅
adv	conj	det	Name	·	det	·	Name	**verb**	**conj**	**verb**	·

위 표에서 헬라어 원문과 대조해보면, 동사 **'ἔλαβεν(엘라벤: 帶去, 데려갔고)' 'ἐμαστίγωσεν(에마스티고센: 鞭打, 채찍질하였다)'의 동사 사이에** 중국어에서 생략한(∅) 등위접속사 **'καὶ(카이: 그리고)'**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어에서 '逗號(,)'가 없더라도, 두 문장이 하나로 연결된 복문으로 볼 수 있겠다. 헬라어와 각 해당 언어 대응 번역 텍스트는 Logos9 성경소프트웨어(https://app.logos.com/)와 微度聖經(https://wd.bible/) 참조.

19) 위와 마찬가지로, '領取'와 '埋葬' 사이에 등위접속사 **'καὶ(카이: 그리고)'**가 있다.

20) 헬라어 원문에서는 'φέρετε(牽來)'과 'θύσατε(宰)' 사이에 **쉼표(,)**가 있다.

위의 수형도에서 먼저 선행절 CP_1의 도출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방향보어(Vd) '去'는 동사 '領'과 병합하여 느슨한 단어형태인 동핵구조[21] '領去'를 이룬다. 이 동사 융합체는 사동(causative)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먼저 변화결과 사건의미를 나타내는 경동사 v[BECOME] 핵과 병합하하여 '領去[V_1]-v[BECOME]'를 이루고, 그 지정어(vP2-Spec) 자리에는 <대상자>를 '屍體' 배치시켜 vP_2를 구성한다. 이어서 원인의 사건의미를 나타내는 경동사 v[CAUSE]가 핵이 되어 경동사구(vP_2)를 보충어로 취하고, 하위 핵 '領去[V1]-v[BECOME]'을 당겨 병합하고, 그 지정어(vP2-Spec) 자리에는 <원인자>를 'A_i(約翰的門徒)'를 배치시킴으로써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 시체를 가져가게 되다'는 사동의 의미를 완성한다. 즉 , 방향보어 '去'가 '領'과 더불어 동핵구조를 이루어 하나의 단어로 처리되어야 정문이 도출되고, 후속하는 절에서 '約翰的門徒把屍體'라는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

이어서 후행절 CP_2의 생략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CP_2도 원래는 완전한 복문이므로 필요한 해당 성분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로 도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도출된 후에는 상위 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있다면, 경제성 원칙에 따라 음운형식부(Phonetic Form, PF)에서 생략된다. 즉, '(A_i)把屍體'는 CP_1에서 이미 도출되었고, CP_1은 CP_2를 성분통어하므로, 동일한 어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삭제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선행절 '領取'와 후행절 '埋葬'이 하나로 이어져 연동 구조를 이룬다.

2.4.2 보충어가 있는 생략식

본고는 술어가 가지는 보어와 목적어를 통틀어 보충어(Complement, 補足語)라고 한다. 먼저 A把B가 생략된 후행절의 술어 뒤에 보어를 남기는 생략식을 살펴보고, 이어서 목적어를 남기는 생략식을 보자.

1) 보어를 남기는 생략식

첫째, 장소 보어

앞 절에 유표적인 경동사 '把'를 사용하고, 후속하는 절에서 술보구를 남기되, 전치사구(PP) 보어를 남기는 방식의 예를 보자.

(31) 天使$_i$要出來, (A_i)把惡人從義人中分別出來[V], (A_i把B_j)丟[V]**在火爐裏**C。馬太福音 13:49-50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32) 沒有[V]人$_i$**把**新衣服$_j$撕[V]下一塊來[V](A_i把B_j)補[V]**在舊衣服上**C, [22] 路加福音 5:36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33) 這時, 有些人$_i$用褥子抬[V]著一個癱子, 要**把**他$_j$抬[V]進去(A_i把B_j)放[V]**在耶穌面前**C, 路加福音 5:18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34) 就上了房頂, (A_i)從瓦間**把**他$_j$連[V]褥子縋[V]到當中, (A_i把B_j縋)**在耶穌面前**C。 路加福音 5:19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35) 於是亞那$_i$**把**耶穌$_j$綁著(A_i把B_j)押解[V]解**到大祭司該亞法那裏**C。約翰福音 18:24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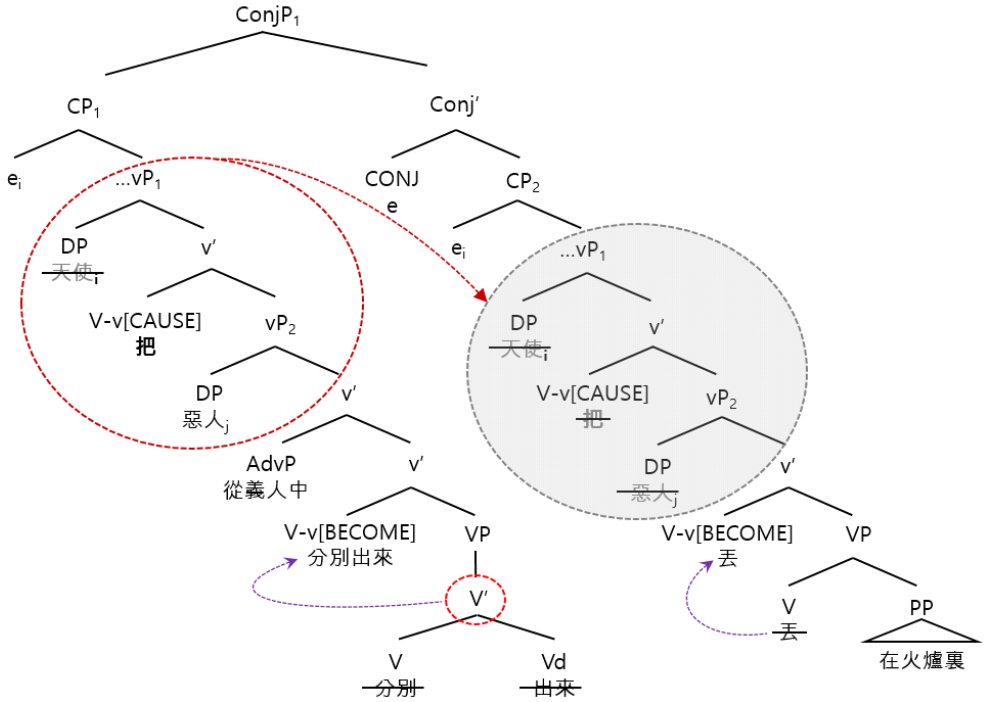
예(31)-(35)에서 보듯, 후행절에서 선행절과 동일한 'A把B'가 생략된다. 이어진 각각의 술어 뒤에는 장소

21) 방향보어와 결과보어는 독립된 술어 성분이 될 수 없다. 何元建(2011:182-195) 참고.

22) 술어 '沒有'의 보충어절인 '人把新衣服撕下一塊來, 補在舊衣服上' 안에서 'A把B'가 생략된 경우이다. 한중병음성경(KOREAN CHINESE BIBLE) 판본에는 '來'와 '補' 사이에 '逗號(,)'가 있다.

보어구 ‘在火爐裏’, ‘在舊衣服上’, ‘在耶穌面前’, ‘到大祭司該亞法那裏’를 남긴다. 특히 예(34)의 경우는 선행절의 ‘A把B+V’ 전체가 생략되고, 장소보어 ‘在耶穌面前’만 남겼다.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23]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예(35)은 도착점(<Goal>)을 표시하는 전치사 ‘到’를 사용한 장소보어이다. 다음 예문(31)에 대한 수형도를 통해 ‘A把B’ 생략과 술어 뒤 장소보어 도출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36) ‘(A_i)把惡人從義人中分別出來[V], (A_i把B_j)丟[V]在火爐裏’의 수형도



위 수형도에서 동일성분 A把B가 삭제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즉, CP_2에서는 CP_1과 동일한 구조인 ‘A把B’에 해당하는 ‘天使把惡人’이 생략되고, CP_2에서는 술어 ‘丟’와 삭제된 <대상자> 논항 ‘惡人’이 존재하는 장소 보어 ‘在火爐裏’만 남은 형태이다.

다음은 장소 보어에서 전치사가 비명시적인 경우를 보자.

(37) (A_i)**把**約翰$_j$抓[V]住(A_i把B_j)綁[V]了, (A_i把B_j)關[V]進(TO)監獄。馬太福音 14:3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38) 他們都吃, 並且吃飽了。門徒$_i$**把**剩下的碎屑$_j$收拾[V]起來[24], (A_i把B_j)[25]裝[V]滿了(AT)十二個籃

23) 1. 헬라어 원문과 그에 해당하는 한국어 및 품사는 다음과 같다.

ἀναβάντες	ἐπὶ	τὸ	δῶμα	διὰ	τῶν	κερράμων	καθῆκαν	αὐτὸν	σὺν	τῷ	κλινιδίῳ	εἰς	τὸ	μέσον	ἔμπροσθεν	τοῦ	Ἰησοῦ
올라가서	위로	그	지붕을	벗기고	그	기와들을	그들이 내려보냈다	그를	함께	그	침대와	안으로	그	가운데	**앞에**	**그**	**예수의**
동.분.2과.능.주.남.복.	전.목.	관.목.중.단.	명.목.중.단.	전.소.	관.소.남.복.	명.소.남.복.	종.직.1과.능.복3.	대.인.목.남.3단.	전.여격	관.여격.중.단.	명.여격.중.단.	전.목.	관.목.중.단.	형.대.목.중.단	**전.소.**	**관.소.남.단.**	**명.소.남.단**

2. 영어 성경(KJV)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hey went upon the housetop, and let him down through the tiling with his couch into the midst **before Jesus.**

24) 헬라어 원문에는 ‘門徒’와 ‘起來’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子。 馬太福音 14:20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39) 你們自己$_i$**把**他$_j$帶[V]去(A_i把B_j)釘[V][26](AT)十字架吧！ 約翰福音 19:6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40) 有一隻船是西門的，耶穌就上去，請[V]他$_i$**把**船$_j$撐開$_{[V]}$，(A_i把B_j)稍微離$_{[V]}$(FROM)岸O，[27] 路加福音 5:3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뭍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예(37)-(40)의 술어 뒤 장소 보어 앞에는 TO, AT, FROM과 같은 비명시적인 전치사[28]가 존재한다.

둘째, 목적격 보어

다음은 소위 목적격 보어를 남기는 예이다.

(41) 士兵$_i$**把**耶穌$_j$釘[V]在十字架上以後，(A_i)**把**他的衣服拿來(,A_i把B_j)分為[V]四份， 約翰福音 19:23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42) 他$_i$不但替這民族死，(A_i)還要**把**神四散的兒女$_j$都聚集[V]起來，(A_i把B_j)合成[V]一群。約翰福音 11:52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예(41)에서 ‘A把B’가 생략되고 남은 보어 성분 ‘四份’은 목적어 성분인 ‘他的衣服’가 나뉘어져 만들어진 보어이고, 예(42)에서 ‘一群’은 선행절의 목적어 성분인 ‘神四散的兒女’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보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한다. 여기서 ‘為’와 ‘成’는 변화결과[BECOME]의 사건의미를 나타낸다.

2) 목적어를 남기는 생략식

이제 선행절에 유표적인 경동사 ‘把’를 사용하고, 후행절에서 목적어를 남기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

25) 馬可福音 6:43, 約翰福音 6:13에서도 동일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모두 A把B 생략으로 볼 수 있다. ‘A把B 생략’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路加福音 5:7의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他們就來，A把魚裝[V]滿了兩隻船，船甚至要沉[V]下去。 路加福音 5:7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26) 술어 ‘釘’의 뒤에 비명시적인 내부경동사 AT인 ‘在’가 있어서, 뒤에 논항 ‘十字架’를 자신의 보충어로 가진다. 다음 예문은 명시적인 내부경동사 또는 전치사가 있는 경우이다.

他們就在那裏把他**釘在**十字架上，還有兩個人和他一同被釘，一邊一個，耶穌在中間。約翰福音 19:18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27) 이중사역구문으로, ‘他$_i$**把**船$_j$**撐開[V1]**，(A_i把B_j)稍微**離[V2]**岸’’는 두 개 사건으로 구성된 請의 절 목적어이다. 목적어로 쓰인 사건은 두 개, 즉 ‘**撐開[V1]**’와 ‘**離[V2]**’이다.

28) 이에 대해 蔡維天(2018, 2019)등은 명시적인 내경동사로 처리한다. 아래의 예와 같이 내경동사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비명시적일 수도 있다.

1. 비명시적인 경우: 你切(用: USE)這把刀。
2. 명시적인 경우: 你**用(USE)**這把刀切。

첫째, 간접 목적어

이는 목적어를 '把'구문의 후행절 뒤에 남기는 방식이다. 다음 예는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방식으로 '給'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29)

먼저 전치사 給를 사용한 다음 예를 보자.

(43) 於是他$_i$**把**書$_j$捲[V]起來, (A$_i$把B$_j$)交[V]還**給管理人**30), (A$_i$)就坐下。 路加福音 4:20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시고, 앉으셨다.

(44) 一到早晨, 眾祭司長、長老、文士, 和全議會的人大家$_i$商議[V], 就(A$_i$)**把**耶穌$_j$綁[V]著, (A$_i$把B$_j$)解[V]去, (A$_i$把B$_j$)交[V]**給彼拉多**。馬可福音 15:1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예(43)-(44)는 'V+給+여격 명사'의 구조이다. 여기서 여격(Dative) 명사 '管理人'와 '彼拉多'는 소위 '간접 목적어'이다.

이어서 동사 '給'를 사용한 예를 보자.

(45) 我願王$_i$立刻**把**施洗約翰的頭$_j$放[V]在盤子裏(A$_i$把B$_j$)**給**[V]我。馬可福音 6:25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46) (希律$_i$)**把**頭$_j$放[V]在盤子裏, (A$_i$把B$_j$)拿[V]來(A$_i$把B$_j$)**給**[V]那女孩, 她(把B$_j$)拿[V]去**給**[V]她母親。31)
馬太福音 14:11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예(45)-(46)의 경우, 후속 절에서 'A把B'를 삭제하고, 수여동사 '給'를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어 자리에 'B'요소, 즉 <대상자> 논항이 수여되는 '간접 목적어' '我'와 '那女孩'를 남긴다. 예(46)의 세 번째 절에서는 <원인자> 논항이 바로 앞 절의 목적어인 '她(那女孩)'로, 비록 선행절과는 다른 <원인자> 주어이다. 그러나 이 역시 수여동사 '給'를 사용하여, 자신의 보충어 자리에 여격(Dative)의 목적어인 '她母親'을 남긴다. 다음 수형도를 통해 후행절에서 'A把B' 삭제와 <대상자> 목적어가 도출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

29) 다음과 같은 '給'는 헬라어에서는 능동태로, 한국어에서는 사동 표지('-이/히/리/기/우/구/추')를 사용하여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용법은 차후의 연구 과제로 삼는다.

父親卻吩咐僕人$_i$:『(僕人$_i$)快**把**那上好的袍子拿出來**給**他**穿**, 路加福音 1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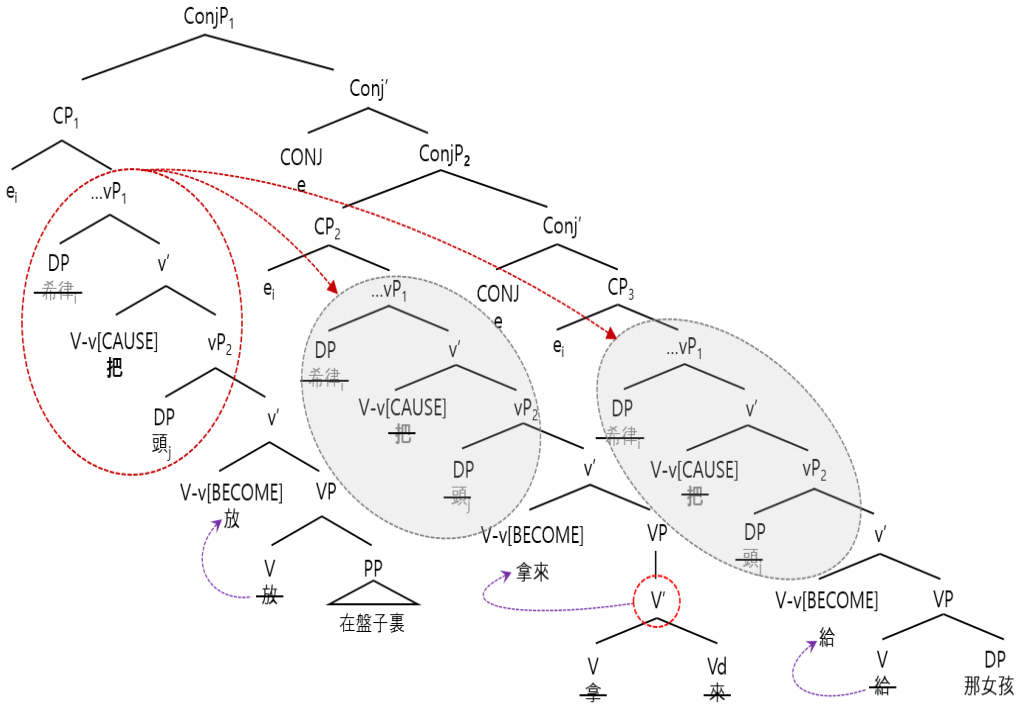
30) 중국어 '給管理人'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와 한국어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여기서 중국어 '給'는 여격 명사를 표시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ὑπηρέτῃ(휘페레테)
noun(명, 여격, 남, 단)
給 管理人(맡은 자에게)

31) 상술한 예문(19)와 같은 형식의 구절이다.

(19) (衛兵$_i$)**把**頭$_j$放[V]在盤子裏, 拿來[V]給[V]那女孩, 她$_i$就(把頭$_j$)給[V]她母親。馬可福音 6:28

(47) ‘把頭放在盤子裏, (A_i把B_j)拿來(A_i把B_j)給那女孩’의 수형도



위 수형도 (47)에서 보듯, CP_1에서 나타내는 ‘(希律i)把頭’는 CP_2와 CP_3에서 모두 삭제된다. 후행절 CP_3에서 최종적으로 여격(Dative)의 목적어 ‘那女孩’이 남겨진다.

둘째, 출현・소실의 〈대상자〉

이는 목적어를 ‘把’구문의 후행절 뒤에 출현과 소실의 <대상자> 논항을 남기는 방식이다. 먼저 다음 예를 보자.

(48) 後來有世上的憂慮、錢財的迷惑, 和別樣的私慾i進來, (A_i)**把**道j擠[V]住了, (A_i把B_j)結[V]不出**果實**。馬可福音 4: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32)

(49) 其中有一個人i**把**大祭司的僕人j砍[V]了一刀33), (A_i把B_j)削[V]掉了**他的右耳**。34) 路加福音 22:50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48)의 후행절에서 ‘果實’는 출현의 <대상자>이고, 예(49)의 후행절에서 ‘他的右耳’는 소실의 <대상자>이다.

셋째, 기타 〈대상자〉

32) 한국어 성경(개역개정)에서는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로 해석되어 있다.

33) 헬라어 원문, 영어, 한국어 성경에는 一刀에 해당하는 성분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술어를 보충하는 중국어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34) 馬可福音 14:65에서도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50) 祭司長們和我們的官長$_i$竟**把**他$_j$解[V]去，(A_i把B_j)定[V]了**死罪**，(A_i把B_j)釘[V]在十字架上。 路加福音 24:20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51) (A_i)為甚麼不**把**這香膏賣三百個銀幣$_j$去[V](,A_i把B_j)賙[V]濟**窮人**呢？[35] 約翰福音 12: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50)의 후행절에서 '死罪'는 판정의 <대상자>이고, (51)의 후행절에서 '窮人'는 수혜의 <대상자>이다.

2.5. '〈원인자〉+把+〈대상자〉+[vP2]' 생략

이 생략은 다음과 같이 표찰달기(labelling)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52) $[_{ConjP}$ $[CP_1$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text{-}1}$ V-v'$_2$ [VP...]]]], CONJ'
$[CP_2$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text{-}2}$ V-v'$_2$ [VP~~...]]]]

이는 후행절에서 'A把B+vP' 전체가 생략되는 방식이다. 다음 예를 보자.

(53) 我請[V]過你的門徒$_i$**把**那靈$_j$趕[V]出去O，**他們**卻不能(A_i把B_jvP)。 馬可福音 9:18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54) (她們$_i$)**把**這些事告訴使徒的S[36]有[V]抹大拉的馬利亞、約亞拿，和雅各的母親馬利亞，(A_i把B_jvP)還有跟她們在一起的婦女。 路加福音 24: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위의 예(53)는 선행절 'A把B'가 후행절의 목적어절로 사용되고, 예(54)은 선행절의 'A把B'가 후행절의 주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두 예문에서는 모두 생략되었다. 예(53)의 경우 선행절의 원인자는 '你的門徒'이고, 후행절의 원인자는 '他們'이다. 그러나 표면적 어휘는 다를지라도 두 어휘가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하므로, 같은 <원인자>이다.[37] 특히 후행절 '他們卻不能' 뒤에 생략된 성분은 선행절에서 생략된 '把那靈趕出去'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경동사구인 'A把B+vP' 전체가 생략된 구조라 하겠다.

---

35) 이 예문 예수가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씻는 장면 중 나오는 구절이다. 여기서 문맥상 'A'요소에 해당하는 <원인자>는 마리아를 지칭하는 '你' 또는 '她'에 해당하겠다.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중국어 성경 원문 約翰福音 12:1-4절은 다음과 같다.

1. 逾越節前六天，耶穌來到伯大尼，就是他使拉撒路從死人中復活的地方。
2. 有人在那裏為耶穌預備宴席；馬大伺候，拉撒路也在同耶穌坐席的人中間。
3. **馬利亞**拿著一斤極貴的純哪噠香膏，抹耶穌的腳，又用自己頭髮去擦，屋裏充滿了膏的香氣。
4. 有一個門徒，就是那將要出賣耶穌的加略人猶大，

36) '把'자구가 관계절화하여 주어로 사용된 경우이다.

37) 상술한 예(20)에서와 같이, 지칭하는 대상이 같을지라도 사용한 어휘가 달라서 생략되지 않은 경우이다.

耶穌對用人說：「(你們$_i$)**把**缸$_j$倒[V]滿水。」**他們$_k$**就(把B_j)倒[V]滿了，直到缸口。約翰福音 2:7

3. 결론

본 연구는 언어의 ‘경제성 원칙(Economy Principle)’이 중국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把’자 사동구에서 반복되는 어휘 요소들을 표현하지 않고, 생략하는 현상을 통해서 어떠한 성분이 생략되고, 또 통사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 구 구조와 논항 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생략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언어적 현상이다. 따라서 본고는 세계에서 오랫동안 가장 많이 읽힌 고전인『성경』중에서 중국어『新約聖經』의 ‘사복음서’를 텍스트로 하여, ‘把’자 사동 복문(causative complex sentence)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그 후행절에서 발생하는 생략 현상을 생성문법적으로 해석한다.

분석 결과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성분 통어와 경제성 원칙으로 인하여 생략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동일한 사동 구문일 때 후행절에서 반복되는 일련의 어휘 요소들이 생략된다. 구체적인 생략 현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인자〉’ 생략 형식이다. 이를 표찰달기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_{ConjP}\ [CP_1\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 V\text{-}v'_2\ [VP...]]]]$, CONJ’
   $[CP_2\ (DP_e)\ C'[_{vP1}\ \sout{DP_A}\ BA(把)[_{vP2}\ DP_{B\text{-}2}\ V\text{-}v'_2\ [VP...]]]]]$

2. ‘〈원인자〉+把’ 생략 형식이다. 이를 표찰달기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_{ConjP}\ [CP_1\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text{-}1}\ V\text{-}v'_2\ [VP...]]]]$, CONJ’
   $[CP_2\ (DP_e)\ C'[_{vP1}\ \sout{DP_A\ BA(把)}[_{vP2}\ DP_{B\text{-}2}\ V\text{-}v'_2\ [VP...]]]]]$

3. ‘把+〈대상자〉’ 생략 형식이다. 이를 표찰달기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_{ConjP}\ [CP_1\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 V\text{-}v'_2\ [VP...]]]]$, CONJ’
   $[CP_2\ (DP_e)\ C'[_{vP1}\ DP_A\ \sout{BA(把)}[_{vP2}\ \sout{DP_B}\ V\text{-}v'_2\ [VP...]]]]]$

4. ‘〈원인자〉+把+〈대상자〉’ 생략 형식이다. 이러한 생략 형식의 예는 그 수량이 가장 많다. 보충어가 없는 생략식과 보충어가 있는 생략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표찰달기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_{ConjP}\ [CP_1\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 V\text{-}v'_2\ [VP...]]]]$, CONJ’
   $[CP_2\ (DP_e)\ C'[_{vP1}\ \sout{DP_A\ BA(把)}[_{vP2}\ \sout{DP_B}\ V\text{-}v'_2\ [VP...]]]]]$

5. ‘〈원인자〉+把+〈대상자〉+[vP2]’ 생략 형식이다. 이를 표찰달기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_{ConjP}\ [CP_1\ (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text{-}1}\ V\text{-}v'_2\ [VP...]]]]$, CONJ’
   $[CP_2\ \sout{(DP_e)\ C'[_{vP1}\ DP_A\ BA(把)[_{vP2}\ DP_{B\text{-}2}\ V\text{-}v'_2\ [VP...}]]]]]$

〈참고문헌〉

김재성(2009),「공관서 병행 본문 번역에서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조화 -『표준새번역』과『새번역』을 중심으로」,『성경원문연구』24: 72-92.

김종호(2018),『중국어 최소주의 생성문법 13강』, HUIN.

_____(2019),『한문 해석 공식: 촘스키가 논어를 읽는다면』, 한티미디어.

김종호・한수진(2022),「중국어『성경』「마태복음」‘把’ 사동구의 후속 절 생략 현상 해석」,『언어와 언어학』

97(0), 1-24.
김혜영(2017), 「서양 개신교 선교사들의 중국어 성경 번역과 쉬운 문어체의 의의」, 『중국어문학』 76: 325-350.
남양우(2020),「파자구(把字句)에 대한 구문문법적 해석」,『중국연구』82: 19-37.
녕춘암 저, 김종호 외 역(2015),『생성문법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노암 촘스키 저, 박명관 · 장영준 역(2001)『최소주의 언어이론』, 한국문화사.
樸建榮(2001),「把-구문의 유형별 의미 분석」,『중국학논총』12: 151-173.
박명관(2005),「영어 생략구문에서의 이동과 생략의 상호작용: 생략에 의한 개선(Repair by Ellipsis) 효과를 중심으로」,『영어영문학연구』47(3): 103-132.
송홍기(2005),「중국어 동사 전 목적명사구 및 수동형태소 명사구의 예외적 양태와 그 함축의미」,『생성문법연구』15(3): 293-310.
原口莊鋪・中村捷 편저, 강명윤 역(1998[2003]),『촘스키 언어학 사전』, 한신문화사.
유복곤(2020),『헬라어 분해대조 로고스 성경5 신약 마태복음~요한복음』, 오앤오.
조경환(2010),「구문으로서의 파자구(把字句)」,『중국학논총』30: 79-97.
최규발, 조경환 (2006),「파자구(把字句)와 상(Aspect)」,『중국언어연구』23(0): 387-413.
모리슨 편집부(2019[2009]),『개역개정 한중병음성경(KOREAN CHINESE BIBLE)』, 도서출판 모리슨.
蔡維天(2016),「論漢語內、外輕動詞的分布與詮釋」,『語言科學』15(4): 362-376.
鄧思穎(2010),『形式漢語句法學』, 上海教育出版社.
馮勝利(2005),「輕動詞移位與古今漢語的動賓關係」,『語言科學』4(1)(總第14期): 3-16.
馮勝利(2009),『漢語的韻律、詞法與句法(修訂本)』, 北京大學出版社.
郭銳(2003),「"把"字句的語義構造和論元結構」,『語言學論叢』28: 152-181.
何元建(2011),『現代漢語生成語法』, 北京大學出版社.
黃正德(2007),「漢語動詞的題元結構與其句法表現」,『語言科學』6(4): 3-21.
黃正德 & 李艷惠 & 李亞非 著. 張和友譯(2013),『漢語句法學』, 世界圖書出版公司北京公司.
黎錦熙(1924[1998]),『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李臨定(1984),「動詞的賓語和結構的賓語」,『語言教學與研究』03: 130-143.
陸儉明(2003),『現代漢語語法研究教程』, 北京大學出版社.
呂叔湘(1948[1993]),「把字用法的研究」,『韓語語法論文集(呂叔湘文集 第1卷)』, 商務印書館.

沈陽(1997),「詞短語的多重移位形式及把字句的構造過程與語義解釋」,『中國語文』06: 402-414.
沈陽 & 黃新駿榮(2017),「現代漢語的新型使動結構和意動結構」,『閱江學刊』9(4): 20-32 .
王力(1943),『中國現代語法』, 商務印書館.
_____(2010)『漢語史稿』, 中華書局.
_____(2014),『中國現代語法』, 王力全集 第7集, 中華書局.
熊仲儒(2003),『現代漢語中的致使句式』, 博士學位論文, 語言學及應用語言學, 北京語言大學.
_____(2015),「從"把"看數量名序列的句法結構」,『安徽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43(01): 76-82
_____(2022),「"V-起來AP"的結構分析」.『漢語學習』02: 3-15.
張伯江(2000),「論" 把" 字句的句式語義」,『語言研究』01: 28-40.
朱德熙(1982),『語法講義』, 商務印書管.
C.-T. James Huang & Y.-H. Audrey Li & Yafei Li. (2009) *The Syntax of Chine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omsky, Noam.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IT Press.
_____.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 work*, Cambridge, MIT Press.
Feng, Sheng li. (2003) *Light verb syntax in classical Chinese*, New York, Paper presented in the Conference on

Research and Pedagogy in Classical Chinese and Chinese language History, Columbia University.

Norbert Hornstein. (2009) *A Theory of Syntax: Minimal Operations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ang, C.-T. James. (1997) “On lexical structure and syntactic projection”, *Journal of Chinese Languages and Linguistics* 3: 1-45.

Radford, Andrew. (2004/2012) *Minimalist Syntax: Exploring the structure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th edn.

Tzong-Hong Lin. (2001) “Light Verb Syntax and the Theory of Phrase Structure”, Ph. D. dissertation UC Irvine,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Victoria Fromkin. (1974), 謝富惠 외 역(2011[1999]), *An Introduction to Language(語言學新引)*, CENGAGE Learning, 台北, 文鶴出版有限公司.

Wei-Tien Dylan Tsai. (2015), *The Cartography of Chinese Syntax: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ume Ⅱ*,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인터넷 자료>

대한성서공회(https://www.bskorea.or.kr/bible/korbibReadpage.php)(검색일: 검색일: 2023년 4월 17일)

Logos9 성경소프트웨어(https://app.logos.com/)(검색일: 검색일: 2023년 4월 17일)

다국어성경 HolyBible(http://www.holybible.or.kr/)

香港聖經公會(http://rcuv.hkbs.org.hk/)(검색일: 검색일: 2023년 4월 17일)

微度聖經(https://wd.bible/)(검색일: 검색일: 2023년 4월 17일)

한국 한자음을 통해 보는 止蟹섭 합류의 開合 차이

장준익*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한국 한자음 止蟹섭운 역사 층위 분석
3. 止蟹섭 합류의 開合 차이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역사적인 韻圖 자료(『韻鏡』, 『七音略』, 『四聲等子』, 『切韻指南』, 『切韻指掌圖』)를 참고하면 止섭은 內轉에 속하며, 蟹섭은 外轉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韻圖 내 內外轉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1] 중고음 內外轉 3, 4등운에 속하는 각 섭의 운들이 어떤 역사 변화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역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표1) 內外轉 3, 4등운의 역사 변화

韻攝 / 시대	內轉			外轉			
切韻 601	支脂侵眞A幽 *i/iu(ɛ)	支脂侵眞B *ɯi/ɯiu(ɛ)	之微文臻蒸 *ɨ	齊添先青蕭 *e/ue	祭鹽仙A清宵 *iɛ/iuɛ	祭鹽仙B *ɯiɛ/ɯiuɛ	廢嚴(凡)元庚 *iɐ/iuɐ(ia/iua)
慧琳音義[2] 807	止深臻流3(A) *i/iu	止深臻曾流3(B) *i/iu		蟹咸山梗效3(A), 4 *iɛ/iuɛ		蟹咸山梗效3(B) *iɛ/iuɛ	
四聲等子 北宋	止深臻曾/梗流 *i/iu			蟹咸山效 *iɛ/iuɛ			
切韻指掌圖 南宋	支思 *ɿ/ʅ	止/蟹深臻曾/梗流 *i/iu		咸山效 *iɛ/iuɛ			
中原音韻 1324	支思 *ɿ/ʅ	蟹合 *u	止/蟹深臻曾/梗流 *i/y	咸山效 *iɛ/yɛ			

일반적으로 外轉 3, 4등에 속하는 韻들의 모음은 '*ɛ' 류의 전설 모음이고, 이들과 대응되는 內轉 3등운의 모음은 '*i' 류의 고모음이다. 예외는 支운[3]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慧琳音義』(807)에서 바로 다른 止섭 운들과 합류하게 된다.

그리고 표1)에서 보듯이 중국어 역사적으로 曾梗섭, 止蟹섭을 제외하고 外轉 '*ɛ' 류의 전설 모음은 內轉 '*i'와 합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山섭의 '見'[*kiɛn]이 역사적으로 臻섭의 '巾'[*kin]과 합류하지 않는

* 남경대학교 문학원 졸업

1) 董同龢(1948), 許世瑛(1966), 王力(1963), 杜其容(1968), 薛鳳生(1985), 李新魁(1986) 등은 內外轉이 韻書의 反切과 韻圖 구조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門法적 용어라고 봤다. 반면 羅常培(1933), 周法高(1968), 高明(1971), 高福生(1983), 兪光中(1986), 嚴學窘(1990), 余迺永(1993), 張玉來(2009) 등은 內外轉이 실질적으로 중고음 모음 음가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활용된 용어라고 봤다.

2) 玄應의 『一切經音義』(649)와 구분하기 위해 慧琳의 『一切經音義』(807)를 『慧琳音義』로 약칭한다.

3) 潘悟雲(2000)에 따르면 支운의 모음은 '*ɛ'다.

것이다. 그런데 蟹섭의 '鷄'[*kiɛi]는 역사적으로 止섭의 '其'[*ki]와 합류하게 된다. (*kiɛi > *ki)

또한 止蟹섭 3, 4등 開口呼운은 합류 과정에서 支思운(*ɣʅ)이 독립해 새로운 모음이 나타나기도 하며 止蟹섭 3, 4등 合口呼운은 다른 3, 4등 合口呼운과 달리 개음 'i'가 탈락하는 특이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止섭운자 '思'(*si)와 '師'(*ʂi)의 근대음 모음은 '*ɣʅ'가 되는데 다른 內轉운에서는 이러한 모음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그리고 山섭의 '鵑'[*kiuɛn]과 臻섭의 '君'[*kiun]의 개음 'i'는 역사적으로 합구호 개음 'u'와 융합해 촬구호 개음 '*y'가 되는데 (*iu > *y) 반해 蟹섭의 '圭'[*kiuɛi]와 止섭의 '規'[*kiui]의 개음 'i'는 합구호 개음 'u' 앞에서 소실된다. (*iu > *u)

물론 표1)의 다른 3, 4등 合口呼운(山臻曾梗)에서도 개음 'i'가 소실되는 예외가 존재하기는 한다. 예를 들어 '遵'(*tsiun > *tsun)의 예가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俊'(*tsiun > *tsyn)의 반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예외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반면에 止蟹섭 3, 4등 合口呼운의 경우에는 앞서 든 '圭'(*kiuɛi > *kui), '規'(*kiui > *kui)의 예가 일반적인 예에 속한다. (圭畦閨, 葵窺闚 등)

본고에서는 한국 한자음의 역사 층위 분석을 통해서 止蟹섭이 왜 일반적인 內外轉섭과는 다른 역사적 분합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 한자음 止蟹섭운 역사 층위 분석

河野六郎(1968), 伊藤智ゆき(2007), 위국봉(2015) 등에 따르면 한국 한자음의 주요 역사 층위는『慧琳音義』로 대표되는 후기 중고음이다. 그러나 일부 한국 한자음은 후기 중고음 이외의 중국어 역사 층위를 반영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한자음을 활용해 止蟹섭운의 합류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2) 止蟹섭 3, 4등 開口呼운의 한국 한자음

慧琳音義 / 한국한자음	止섭		蟹섭	
	支脂A *i	支脂B之微 *ii	齊祭A *iɛi	祭B廢 *iɛi
ㅣ	伎企岐歧蚑棄耆枳你尼怩地池墀遲持知智……	鬐其技妓庢芰忮嗜彌糜縻麋眉湄美靡媚丕卑……	泥犁提麑迷米篦算茞蜺鎞鼷批鈚	
ㅢ	祁篌蒠偲緦廝醨緇輜鰭	奇羇羈騎琦錡飢肌基棊冀箕期祺錡麒綦……	嘶	
ㅖ	鸝		鷄稽笄計繫繼薊髻溪鷑谿啓契系係谿禊……	乂刈艾2
ㅖ			低抵弤柢詆底邸黎藜蠡厲礪蠣癘勵罹戾渻荔西……	
ㅟ				偈憩揭
·ㅣ	寐屣梓滓笫	魅	嚏	
·	絲蒸鷥斯思私蓰司詞伺嗣飼死似祀祠笥徙璽……		撕沛	

伊藤智ゆき(2007)와 權仁瀚(2009)은 15, 16세기 한국 한자음 자료를 수집했고, 본고는 이를 활용했다. 反切 및 韻圖 내 위치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脣喉牙音을 제외한 설치음자의 重紐 구별에 대해서는 각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린다.[4]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일부 止섭운 설치음자의 개음 내지 모음 'i'는 다른 3등

4) 周法高(1948), 李榮(1956)은 重紐운에서 설치음이 모두 A류에 속한다고 봤다. 반대로 邵榮芬(1982)은 모두 B류에 속한다고 봤다. 陸志韋(1947), 平山久雄(1966)는 莊조(*tʂ), 知조(*ʈ) 성모 및 来모(*l)만 重紐 B류에 속한다고 봤다. 黃笑山(1996)은「王三」의 통계를 근거로 莊조(*tʂ)는 重紐 B류에 속하는 것이 맞지만 知조(*ʈ) 성모 및 来모(*l)는 重紐 A류자를 反切下字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重紐 A류에 속한다고 봤다.

운 설치음자의 개음 혹은 모음 ‘i’와는 다른 역사 변화를 겪는다. (*i > *ɿ/ʅ)

이렇듯 설치음자의 重紐 구별이 불분명하고 한국 한자음이 중고음과는 다른 역사 층위를 반영할 수도 있기에 논의의 편의상 본고에서는 설치음의 경우에는 특별히 重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重紐 A류에 편입시킨다.

다만 일부 止섭운 精, 莊조 성모자의 한국 한자음 운모가 다른 重紐 B류자와 동일하게 ‘ㅢ’고,[5] (篧蔥偲緦厮釃緇輜鰭) 일반적으로 止섭운 精, 莊조 성모자의 한국 한자음 운모는 ‘ㆍ’인데, (思斯私司詞伺嗣飼死 등) 이들이 重紐 B류에 속했다가 운모 변화를 거쳤음을 암시하고 있다. ‘*ɯi > *ii > *ɿ/ʅ’

그 외의 開口呼운을 보면 한국 한자음에서 止섭 重紐 A류의 운모 ‘*i’는 ‘ㅣ’로, 重紐 B류 및 非重紐 3등운의 운모 ‘*ɨi’는 ‘ㅢ’로 반영되었으며 일부 ‘*ii’가 ‘*i’로 합류한 경우는 ‘ㅣ’로 반영되었다. (脣音 및 일부 喉牙音)

蟹섭 重紐 A류 및 4등운의 운모 ‘*iɛi’는 ‘ㅖ’ 혹은 ‘ㅕ’로 重紐 B류 및 非重紐 3등운의 운모 ‘*ɨɛi’는 ‘ㅖ’로 반영되었으며 극소수의 ‘*ɨɛi’가 ‘*iɛi’로 합류한 것도 ‘ㅖ’로 반영되었다. (乂刈艾2)

일부 蟹섭운자의 한국 한자음 운모가 ‘ㅣ’인 것은 止蟹섭이 합류한 역사 층위를 반영한 것이다. (泥犁提 靡迷米篦算茞螕鎞鼙批鈚) 즉, 止蟹섭 開口呼운의 합류는 蟹섭운 운모(*iɛi)의 개음 ‘*i’와 운미 ‘*i’ 사이에서 모음 ‘*ɛ’가 소실됨으로써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3) 止蟹섭 3, 4등 合口呼운의 한국 한자음

중국어 / 한국어	止섭		蟹섭	
	支脂A *iu(i)	支脂B微 *ɨu(i)	齊祭A *iuɛi	祭B廢 *ɨuɛi
ㅠ	規葵窺闚跬揆蘷縷壘累淚類隋隨垂誰雖脽荽水...	逵帷洧鮪虧	圭畦閨携	
ㅟ	吹炊翠醉			
ㅜ		嫣龜歸鬼貴威崴逶危爲潙韋圍煒偉幃暐緯葦...		衛
ㅞ	觜嘴悴萃揣		贅毳	
ㅚ	季悸癸瑞蕊藥		桂歲稅說2帨蜎蛻睿芮銳麑鞮惠慧	濊穢廢肺吠
ㅙ		軌詭跪簋匱櫃簣蕢饋餽卉毀燬虺		蹶2喙
ㅢ	衰椎鎚	愧巍畏		
ㅣ		夔羸微薇未味妃肥淝非菲誹扉飛匪篚斐悱棐誹..		

合口呼운의 경우에는 한국 한자음에서 止섭 重紐 A류의 운모 ‘*iui’가 ‘ㅟ’(齒音) 혹은 ‘ㅠ’로 重紐 B류 및 非重紐 3등운의 운모 ‘*ɨui’가 ‘ㅜ’로 반영되었으며 일부 ‘*ɨui’가 ‘*iui’로 합류하는 것도 ‘ㅠ’로 반영되었다. (일부 喉牙音) 순음의 경우에만 앞서 開口呼운과 마찬가지로 ‘ㅣ’로 반영되었다.

蟹섭 重紐 A류 및 4등운의 운모 ‘*iuɛi’가 ‘ㅞ’(齒音) 혹은 ‘ㅚ’로 重紐 B류 및 非重紐 3등운의 운모 ‘*ɨuɛi’가 ‘ㅙ’로 반영되었으며 극소수의 ‘*ɨuɛi’가 ‘*iuɛi’로 합류하는 것도 ‘ㅚ’로 반영되었다. (濊穢廢肺吠)

앞서 蟹섭 開口呼운 운모 ‘*iɛi’도 한국 한자음에서 ‘ㅚ’로 반영되었는데 이는 한국어가 중국어의 이중개음 ‘iu’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4등 혹은 重紐 A류자의 한국 한자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見’[*kiɛn]과 ‘絹’[*kiuɛn]의 한국 한자음도 구별 없이 모두 ‘견’이다.

5) 위국봉(2015)은『慧琳音義』反切 통계에 의거, 이 시기 精, 莊조자의 운모는 다른 설치음과 이미 달라졌다고 봤다.

표4) 止蟹섭 3, 4등 合口呼운 喉牙音의 합류

韻類 \ 성조	平	上	去
蟹A *iuɛi	규: 圭閨畦 휴: 携		계: 桂 혜: 惠慧 예: 麑鋭睿蜺鞮
止A *iu(i)	규: 規葵窺闚 휴: 觿 유: 唯惟維遺壝	규: 跬揆, 계: 癸	계: 季悸, 괴: 愧
蟹B *iuɛi			궤: 蹶2 훼: 喙 위: 衛
止B *iu(i)	귀: 嬀龜 휘: 麾 위: 危爲溈委萎蜼逶	궤: 軌詭跪簋 훼: 毁燬	궤: 匱櫃簣蕢饋餽 위: 僞位喟
微 *iu(i)	귀: 歸 휘: 揮暉楎煇 위: 威韋圍幃違闈魏, 외: 巍	귀: 鬼 훼: 卉虺 위: 煒偉暐葦	귀: 貴 휘: 彙 위: 緯胃謂渭蝟尉慰, 외: 畏

표4)를 보면 喉牙音자에서 止蟹섭 합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平성자의 운모는 重紐 A류나 4등의 경우 'ㅟ'로 합류했다. 그리고 上, 去성자의 운모는 重紐 A류나 4등의 경우 'ㅢ'로 합류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重紐 B류의 경우 'ㅞ'로 합류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고음 음운 체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蟹섭 3등 重紐 B류운(祭)과 非重紐운(廢)에 平성자는 없고 去성자만 존재한다. 즉, 한국 한자음에서 蟹섭 3, 4등 去성자는 重紐의 차이가 있어 'ㅢ'와 'ㅞ'로 구분해야 했지만 蟹섭 4등 平성자의 경우에는 4등자만 존재해 止섭운 重紐 A류 平성과 같은 운모(ㅟ)로 인지했던 것이다. 반면에 止섭 重紐운 上, 去성자의 경우 重紐의 차이에 따라 蟹섭 去성자의 운모인 'ㅢ'(A류) 혹은 'ㅞ'(B류)로 인지한 것을 보면 止蟹섭 합구호운의 합류가 꽤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蟹섭 3등의 경우 平성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止섭 重紐 B류 平성자의 운모는 蟹섭운의 영향을 받지 않고 止섭운 본래의 'ㅟ'가 나타났으며 非重紐운인 微운자의 경우 上, 去성자도 운모가 'ㅞ'인 경우는 극히 소수며 'ㅟ'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止蟹섭 합구호운의 합류는 重紐운을 중심으로 먼저 이뤄졌던 것이 한국 한자음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衛'는 蟹섭운임에도 한국 한자음이 'ㅞ'가 아닌 'ㅟ'인데 微운자 '韋'의 한국 한자음 'ㅟ'에 유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한자음 전체적으로 'ㅞ'라는 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어 자체의 음절 제약에 따라 止섭운이든 蟹섭운이든 'ㅟ'만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일부 止섭운자의 운모 'ㅢ'는 (愧巍畏) 灰운(*uəi)의 한국 한자음 운모다. 중고음 음운 체계에서 止섭 3, 4등운(*iui)과 灰운(*uəi)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음 'i'의 유무다. 止섭운자의 운모 'ㅢ'는 止섭운자의 쌍개음 'iu' 중 'i'가 이미 소실된 것을 반영했던 것이다.

喉牙音 외에도 일부 止섭운 齒音자의 운모에는 'ㅟ'도 (吹炊翠醉)말고도 'ㅞ'가 (觜嘴悴萃揣) 있는데 蟹섭운 齒音에서도 'ㅞ'가 나타나기 때문에 (贅毳) 이 역시 止蟹섭의 합류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止蟹섭 開口呼운의 경우 한국 한자음에서 蟹섭운의 운모가 止섭운으로 변하는 것('ㅢ' > 'ㅣ')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合口呼운의 경우 한국 한자음에서 止섭운의 운모가 蟹섭운의 운모로 변한 경우가 월등히 많다. ('ㅟ'(ㅞ)>'ㅢ'(ㅞ), 'ㅟ'>'ㅞ') 蟹섭운의 운모가 止섭운의 운모로 변한 것은 고작 蟹섭 4등 平성자의 일부 운모 'ㅟ'에 한한다. (圭閨畦携)

게다가 'ㅟ'는 쌍개음 'iu'만을 반영한 불완전한 운모 형태로 이를 통해서 蟹섭운(*iuɛi)의 모음이 止섭운(*iui)처럼 소실됐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한국 한자음 喉牙音에서는 앞서 齒音에서처럼 'ㅞ'나 'ㅞ' 따위의 운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중국어의 상황을 소상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3. 止蟹섭 합류의 開合 차이

이제 한국 한자음의 역사 층위 분석을 통해서 止蟹섭 합류의 開合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5) 止蟹섭 3, 4등운의 역사 변화

개합 / 시대	開口呼				合口呼			
切韻 601	支 (ɯ)iɛ	脂 (ɯ)i	之 i	微 ii	齊 ei	祭 (ɯ)iɛi	廢 iɐi	支 (ɯ)iuɛ	脂 (ɯ)iu	微 iui	齊 uei	祭 (ɯ)iuɛi	廢 iuɐi
慧琳音義 807	支脂A i		支脂B之微 ii		齊祭A iɛi		祭B廢 iɛi	支脂A iui		支脂B微 iui	齊祭A iuɛi		祭B廢 iuɛi
四聲等子 北宋	止 i				蟹3,4 iɛi			止 iui			蟹3, 4 iuɛi		
切韻指掌圖 南宋	止蟹3,4 i, ɣʅ							止蟹3, 4 iuɛi					
中原音韻 1324	止蟹3,4 i, ɣʅ							灰, 止蟹3, 4 uɛi					

결론적으로 支思운(*ɣʅ)을 제외하고 止蟹섭 開口呼운의 합류는 開口呼 개음 ‘i’와 운미 ‘i’ 사이에서 蟹섭운의 모음 ‘ɛ’의 소실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한자음에서는 蟹섭운의 변화로 이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ㅖ’ > ‘ㅣ’)

반면 止蟹섭 合口呼운의 합류는 合口呼 개음 ‘u’와 운미 ‘i’ 사이에서 止섭운의 모음이 蟹섭운의 모음에 동화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한자음에서는 止섭운의 변화로 이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ㅟ’(ɥi)>‘ㅖ’(ɥe), ‘ㄱ’>‘ㄱ’)

이러한 개합 차이를 통해 보면 止蟹섭 合口呼운의 개음 ‘i’가 역사적으로 소실된 이유도 알 수 있다. 止蟹섭운에서 개음 ‘i’의 존재는 운미 ‘i’와의 연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모음 소실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癸’와 ‘季’는 모두 止섭 合口呼운자로 중고음 당시 쌍개음 ‘iu’가 있었고, 한국 한자음 차용 당시 蟹섭운의 모음에 동화되어 ‘계’가 된다. 그런데 이후 ‘癸’는 일반적인 止蟹섭 合口呼운과 마찬가지로 개음 ‘i’가 탈락해 운모가 ‘uɛi’가 되는데 반해 ‘季’는 개음 ‘i’가 소실되지 않아 반대로 모음 ‘ɛ’가 소실되어 오늘날 운모가 開口呼운처럼 ‘i’가 된다. 물론 ‘季’의 예는 예외며 일반적으로는 止蟹섭 合口呼운의 합류 과정에서 開合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모음 소실을 유발하는 개음 ‘i’가 역으로 소실될 수밖에 없었다.

咍운(*əi)과 灰운(*uəi)의 역사 변화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切韻指掌圖』에서 灰운(*uəi)은 泰운 합구호운(*uɑi)과 합류하지 않고, 止蟹섭 3, 4등 合口呼운(*iuɛi)의 1등자로 배정되었다. 합구호 개음 ‘u’와 운미 ‘i’ 사이에서 止蟹섭 3, 4등운처럼 모음의 동화가 일어난 것이다. (*ə > *ɛ)

咍운(*əi)은 止蟹섭 3, 4등 開口呼운(*i)과 합류하지 않고, 泰운 개구호운(*ɑi)에 합류한다. 止蟹섭 3, 4등 開口呼운의 모음이 개음 ‘i’와 운미 ‘i’ 사이에서 소실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咍운(*əi)과 구별된 것이다.

4. 나오는 말

중고음 당시 止蟹섭운은 서로 모음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었다. 이런 止蟹섭운이 합류는 당연히 모음의 합류도 의미하는데 본고에서는 한국 한자음의 역사층위 분석을 통해 止蟹섭운 합류에 開合 차이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즉, 開口呼운의 합류는 開口呼 개음 ‘i’와 운미 ‘i’ 사이에서 蟹섭운 모음 소실의 결과였으며 合口呼운의 합류는 合口呼 개음 ‘u’와 운미 ‘i’ 사이에서 止섭운 모음 동화의 결과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高明,「韻鏡研究」,『高明小學論叢』,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1.
高福生,「內外轉及其研究」,『江西師院學報』, 1983(2).
權仁瀚,『中世 韓國漢字音의 分析的 研究』, 서울, 박문사, 2009.
羅常培,「釋內外轉」,『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4, 1933.
董同龢,「等韻門法通釋」,『史語所集刊』14, 1948.
杜其容,「釋內外轉名義」,『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40, 1968.
潘悟雲,『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薛鳳生,「等韻學之原理與內外轉之含義」,『語言研究』, 1985(1).
邵榮芬,『切韻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王力,『漢語音韻』, 北京, 中華書局, 1963.
李榮,『切韻音系』, 北京, 科學出版社, 1956.
嚴學窘,「廣韻導讀」, 成都, 巴蜀書社, 1990.
余迺永,「再論切韻音 -釋內外轉新設」,『語言研究』, 1993(2).
俞光中,「設內外轉」,『音韻學研究第二輯』, 北京, 中華書局, 1986.
李新魁,「論內外轉」,『音韻學研究第二輯』, 北京, 中華書局, 1986.
伊藤智ゆき,『朝鮮漢字音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7. (이진호 역,『한국 한자음 연구: 본문편, 자료편』, 서울, 역락, 2011.)
張玉來,「再釋內外轉幷論及早期韻圖的性質」,『語言研究』, 2009(3).
周法高,「廣韻重紐的研究」,『歷史語言研究所集刊』13, 1948.
周法高,「論中古音」,『中國文化研究所學報』1, 1968.
許世瑛,「評羅董兩先生釋內外轉之得失」,『談江學報』, 1966(5).
河野六郎,『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 天理時報社, 1968. (이진호 역,『한국 한자음의 연구』, 서울, 역락, 2010.)
黃笑山,「『切韻』三等韻的分類問題」,『鄭州大學學報』, 1996(4).

≪說文解字≫“戈”部字六書分類辨證

王蓓蓓*

<目　次>

1. 緒論
2. 許慎“戈”部字的六書分類
3. “戈”部字六書分類整理與辨證
4. 結語

1. 緒論

許慎≪說文解字≫(以下簡稱爲≪說文≫)是中國文字學史上的一部巨制，其按部首編排文字的方法開創了中國字典部首分類的先河。≪說文≫部類研究是近年來研究的熱點論題，目前學界對≪說文≫部類字研究的相關成果很多，涉及字義、字族、字形、同源詞、同義詞溯源研究；字形音義綜合研究；跨部首字對比研究以及部類字形義與文化內涵溯源等，成果豐碩[1]。相較於≪說文≫其他部類字，“戈”部字相關研究成果並不多，且主要集中在兩個方面：一，“戈”部字義類研究。魯海濤(2009)梳理了“戈”部字的義類歸屬和詞義孳乳演變，並對比≪現代漢語≫(第5版)釋義，指出其在某些字的字義闡釋上存在可待商榷之處；殷凌燕(2002)將“戈”部字的義類歸納爲兵器、以兵器進攻、以兵器防守、與兵器相關的其他意義四類，同時討論了其他部類內與“戈”部字密切相關的字及“戈”部字的重文問題。二，“戈”部字文化內涵闡釋。近年來隨著學科交叉研究的興起，≪說文≫部類字的文化內涵解讀也成爲學術研究關注的新方向。何九盈≪漢字文化大觀≫從漢字文化學角度切入，將漢字作爲文化符號來解讀，其中“漢字與軍事”一節集中討論了以“戈”“戉”部字爲主要內容的漢字所反映的上古軍事文化；孫卓(2010)通過對“戈”部字形義的溯源解讀，探討了上古的鑄造技術、戰爭特點、戰爭理念以及上古禮制等；陳虹宇(2017)則從戰爭角度入手分析“戈”部字的語義，挖掘上古戰爭文化，說明了上古祖先對尚武精神的崇拜。

相較於文化學視角下的漢字研究，從六書分類入手，對≪說文≫部類字進行六書分類的整理與辨證等研究則很少。六書形成於先秦“書同文”的文字規範過程中，而≪說文≫是第一部系統地使用六書原理對漢字進行說解分析的專著，但由于時代的限制和對甲骨文的未知，以及秦漢字體、字義的變異等因素，許慎對某些字的形義理解與六書判斷出現了偏頗。隨著出土文獻的不斷豐富，後世研究者利用古文字與≪說文≫進行互證，溯源古文字的形義，撥正訛誤，對其中一些字的六書分類提出不同的見解與看法，但這些成果大多分散零碎，散見於整部≪說文≫的注校等文獻研究之中，以部類爲單位進行整理、歸納與辨證的幾乎沒有，顯然這樣的基礎研究成果很難跟進於目前學術界對≪說文≫研究的新步伐，也不利于在文獻辨證基础上开展≪說文≫與其他學科融合的交叉研究。本文嘗試以“戈”部字爲例，結合出土文獻和傳統六書理論，溯源“戈”部字的形義關係，結合對前人研究成果的考察，對“戈”部字的六書分類進行整理、歸納與辨證，以期對≪說文≫研究以及古文字學與其他學科的交叉研究提供一些新的視角與思路。

* 숭실대학교

1) 參見裘曉晨≪近二十年＜說文解字＞部類研究情況概述≫[J]. 吉林省教育學院學報，2021(5).

2. 許慎“戈”部字的六書分類

許慎≪說文≫體例精深，最大創舉即爲分部列字。≪說文≫十五篇曰：“其建首也，立一爲專，方以類聚，物以群分，同牽條屬，共理相貫，雜而不越，據形系聯”[2]，說明了≪說文≫的編寫體例是以部首爲單位，部首內部的字“據形系聯”，在每部之初“立一爲專”，即將部首立於部內第一，在釋義的最後會有“凡某之屬皆從某”之字樣，闡明部內字與部首之間的關係，即部內字皆由此字衍伸而來。同樣，≪說文≫釋字體例也有鮮明特點，一字先以篆字開頭，隨後釋義，釋義結束便有六書分類：象形字多是直接標明，或“像某之形”；會意字多爲“從某從某”，或“從某某”；至於形聲字則多爲“從某，某聲”。後世判斷許慎對字的六書劃分基本是依據以上形式進行判斷的，且≪說文≫中未見指事字的劃分，後世學者普遍認爲許慎將指事字統歸入象形字中。

≪說文≫“戈”部共收字26個，加上其後與戈部關係比較密切的戉部字2個、我部字2個，一共30個字。依據其六書分類原則與表述形式，將“戈”部字的六書分類歸納爲三類：象形字、會意字和形聲字。其中象形字1個，爲“戈”。許慎≪說文≫曰：“平頭戟也。從弋，一橫之。象形”，明確注明其六書分類爲象形字；會意字11個，分別爲“戎、戟、戛、戉、或、戕、武、戠、戔、我、義”；形聲字17個，分別爲：“戮、  、賊、戰、戲、戓、  、、戕、戮、戡、戴、、戩、戢、戊、戚”；未分類1個，爲“肇”，許慎曰“上諱”，即避東漢和帝劉肇的名諱，並未對其進行字義解析和六書分類。

3. “戈”部字六書分類整理與辨證

本文結合六書理論、出土文獻以及後世學者的研究成果，经过文獻整理与辨證，對“戈”部字的六書分類爲：象形字3個，爲“戈、戉、我”；會意字15個，爲“戎、肇、戟、賊、戲、戚、戛、戍、或、戕、武、戠、戔、戓、義”；形聲字9個，爲“戮、  、  、戮、戡、戴、  、戩、戢”；兼類字3個，兼有會意字和形聲字的功能，爲“戰、  、戕”。本文整理歸納出的“戈”部字六書分類與許慎界定有一定的出入，象形字和会意字的数量增加，形聲字的数量減少，且将许慎提出的“声亦某”的兼类字(但“戈”部字中许慎并未有此划分)单独列出。兩者出入情況具體見下表：

字	許慎分類	本文分類	字	許慎分類	本文分類
戉	形聲字	象形字	戓	形聲字	會意字
我	會意字	象形字	戚	形聲字	會意字
肇	未分類	會意字	戰	形聲字	兼類字
賊	形聲字	會意字	戕	形聲字	兼類字
戲	形聲字	會意字	戕	形聲字	兼類字

下面著重對這些字的形義關係及六書分类辨證原因進行詳細闡釋：

(1)象形字

許慎對象形字的定義是：“象形者，畫成其物，隨體詰屈”，即象形字是對物體的形狀、輪廓及主要特點的描摹，以圖畫的形式表達出來。因此，判斷象形字的理據即是追溯其最早的字形符號是否和其字的內涵意義具有直觀或聯想上的契合。許慎認爲“戈”字是象形字，但依其對象形的定義推定，“戉”“我”也應屬於象形字。

①戉，≪說文≫：“斧也，從戈，丿聲”，許慎對其的判斷是形聲字。而羅振玉卻認爲“戉字象形，非形聲。”[3]戉字的甲骨文、金文分別爲  、  ，都像是刃部呈弧形的長柄大斧。與一般狩獵的斧子不同，戉一開始

2) 段玉裁. 說文解字註[M]，北京：中華書局2013，771頁.(以下對許慎和段玉裁的引文皆出此書，不再一一註出。)

就有可能是專門用於軍事的兵器，或者是和戰爭有關的軍事禮器。≪司馬法≫：“夏執玄戉，殷執白戚，周左杖黃戉，右秉白髦”[4]，即認為“戉”是戰爭或祭祀時的一種軍事禮器。王紹蘭≪段注訂補≫對此進行進一步解釋：“夏尚玄，故執玄戉；殷尚白，故執白戚；周尚赤，不杖赤戉，而杖黃戉，黃者中央正色。”[5]從甲骨字形構造上看，戉更像是一種武器或禮器，而戉字的金文與楷書字形已十分接近，但還具有圖畫的特點，後世楷書筆畫更趨規範，符號性增強，應該是逐漸經過隸變和楷化的結果。因此，結合戉字上古字形與字義來看，其並非≪說文≫所說的形聲字，而應該是一個象形字。

②我，甲骨文作  、  ，金文作、。李孝定≪甲骨文字集釋≫曰：“契文‘我’象兵器之形，以其柲似戈，故與戈同，非從戈也。器身作左象其內，右象三銛鋒形”[6]就是从“我”之契文字形的图画与兵器的相似度角度来推断“我”应该是个象形字。段玉裁註解“施身自謂”稱“施者，旗貌也，引申爲施捨者，取義於旗流下垂也。”即以旌旗下垂引申爲施捨之義。此處旌旗即爲“我”字的，許慎也將“”釋義為“古文垂也”，段玉裁認爲“垂”即，就是取其字下垂擺動的樣子而來。以此角度來看，“我”字左半邊即爲下垂之旌旗，右半邊爲類似戈的武器，從形貌來看，應爲一種頭部掛旗的類似戈的武器。對這種武器，≪墨子≫曾有記載：“我長七寸，我間六寸”[7]。墨子認為“我”長七寸，放置間隔為六寸，不僅記載了對“我”的外貌，還記載了“我”的放置間隔要求。從字義上看，≪說文≫釋“我”爲：“施身自謂也……或說古垂字。一曰古殺字。”三種不同的解釋表明了許慎對此字字義的不確定性。但無論是自我稱謂還是“垂”“殺”之意，其實都是武力和威嚴的象徵，上古能夠代表威嚴與力量的非兵器莫屬。以此分析之，“我”字應該是象形字而非會意字。

(2)會意字

邢福義指出：“會意字就是把兩個或兩個以上的部件組成一個新字，這些構字部件的意義合成新字的意義。”[8]≪說文解字≫中通常以“從某，從某”或“從某某”等格式來對其進行說解。許慎判斷“戈”部會意字有11個，但考證字形源流、结合出土文献及前賢觀點，“肇”“賊”“戲”“或”“戚”也應歸納到會意字類中。

①肇，≪說文≫：“上諱”，並沒有從六書層面對其進行字形分類。李舟≪切韻≫云：“擊也。從戈，肇聲”[9]，判斷它爲形聲字。段玉裁考证“肇”字来源于“肇”，“漢人肇字不行，祇用肇字訓始”，且“凡經傳言肇，始者，皆肇之叚借，肇行而肇廢矣。”段认为“肇”是“肇”的假借字。上述两位大家對其解读都有一定道理：李氏从隶变定型后的“肇”字出发，對其进行部件拆分，结合“擊也”的字義，断定“戈”为其義部，“肇”为其声部；段氏从字的用法出发，考镜源流，指出在使用过程中“肇”字表“开始”的意義用法出现了假借现象。但结合出土文献，两者的说法都不夠全面。溯源“肇”字古形，金文中已有，已出土的西周早期的“叔□□鼏作南宮鼎”中“肇”字爲  ，對比“肇”字金文(火虎簋)、(旁肇鼎)，“肇”字爲三部分組成，右上角有以手持戈的形狀，左邊與下邊則與“肇”字金文一致。≪說文≫對“肇”字解釋爲“始開也，從戶從聿”，段玉裁則認爲最初只有“肇”字，後在字形的隸變過程中出現異體分化，有“、肇、肇、”等異體，那麼“肇”“肇”義應相同，“肇”也有“開始”之意。依此分析，“肇”字中的“肇”部应该是表示其意義的一部分；另段玉裁：“按古有肇無肇，从戈之肇，漢碑或从殳，俗乃从攵作肇”來看，“肇”“肇”二字在意義上也有關聯。而“肇”字≪說文解字句讀≫≪說文通訓定聲≫都釋為“擊也”，由此意看來“肇”字金文右上邊“以手執戈”也理當為其義部。同時，“”字，丁山≪甲骨文所見氏族及其制

3) 羅振玉. 增訂殷虛書契考釋//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編纂. 古文字詁林(修訂版，冊9)[M]. 上海：上海教育出版社，2019，985頁。

4) 段玉裁. 說文解字注[M]. 北京：中華書局，2013，638頁。

5) 王紹蘭. 說文段注訂補//丁福保編纂. 說文解字詁林(冊13)[M]. 北京：中華書局，2014，12372頁。

6) 李孝定編述. 甲骨文文字集釋 第十二[M]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1965，3799頁。

7) 張仁明，盧鳳鵬著. 墨守辭典[M]. 貴陽：貴州人民出版社，2010，587頁。

8) 邢福義. 邢福義文集(卷11)[M]. 武漢：華中師範大學出版社，2019，384頁。

9) 李舟. 切韻//湯可敬. 說文解字今釋[M]. 長沙：嶽麓書社，2001，1801頁。

度≫解釋爲：“象以戈破戶之形。使戶爲國門之象徵，則戕之本義應爲攻城以戰之聯兆。”[10]也將“戕”分析爲會意字。综上所述，“肇”的金文寫法  當以會意釋之：左上部与下部合为“肀”表示开始之意，右上部以手执戈意为攻伐，整字有开始攻伐之意，應當看作爲會意字。

②賊，最早出現在金文中，寫作  ，由人、貝、戈三部分組成。小篆字寫作  ，仍是這三部分構成，只是將人移到貝的右邊。≪說文≫篆寫作，且說“從戈則聲”，很顯然是將人訛作了刀。徐箋：“隸變從戎者賊之訛也”[11]就是指出了許慎對此字的誤解。人持戈毀貝，引申爲毀壞之意，≪左傳≫有“毀則爲賊”[12]之說。≪論語·先進≫也有“子路使子羔爲費宰，子曰：‘賊夫人之子’”[13]，此處的“賊”也是“損毀、傷害”之意。段玉裁對“賊”的分析是“據從貝會意之云，是字爲用戈若刀毀貝，會意而非形聲也。”許慎誤判的主要原因是字體在隸變中的訛傳，究其源流，其字本應爲會意字。

③戲，≪說文≫：“三軍之偏也。一曰兵也。從戈，虘聲。”戲字最早出現在金文中，寫作“  、  、”，雖組合順序略不同，但構成要素一致，均爲“豆”“虎”“戈”三部分。至小篆，字形開始規整，寫作“”，分爲兩要素：“虘”和“戈”。關於“虘”字，≪說文≫：“古陶器也。從豆，虍聲”。許慎說“戲”的讀音爲“虘”聲，而“虘”讀“虍聲”，因此推之“戲”的讀音應該是“虍”。對於此，段玉裁有不同意見，段認爲“虘從豆從虍，虡從鷹從虍，虍皆謂之器之飾，非聲也。”由此反推出“戲”字中的“虘”亦爲表意而並非表聲。從字義來看，段玉裁認為“虘”爲印有虎紋的陶器，上古“豆”是一種食具，經常用來盛放祭祀食物，結合祭祀的娛神功能，印有虎紋的“虘”顯得更爲精美，理當首先成為祭祀之禮器。如果“虘”表意，那麼“戲”的字義應該與祭祀有關，而許慎釋“戲”之義為“三軍之偏”，那“三軍之偏”是什麼，與祭祀是否有關係？“三軍”的概念最早出自春秋時期，周制中天子可有六軍，諸侯大國三軍，分爲上軍、中軍和下軍。中軍最尊，是統帥大軍中作戰的大部分兵種(騎兵、步兵)，也是軍隊的核心力量。上下兩軍皆爲偏軍，主要負責軍隊行進駐紮的各種後勤保障工作。段玉裁解釋“偏”爲“前拒之偏，謂軍所駐之一面也”，即主力軍隊的側翼；王筠“凡非元帥則曰偏”[14]，即除了主帥的部隊都是“偏”。綜合看來，“戲”應該是軍隊中的偏師，非主力部隊。那這部分力量的主要職責是什麼呢？據文獻記載，上古行軍戰爭之前，要進行祭祀，這被看做是關乎成敗的重要行爲。≪禮記·王制≫：“天子將出征，類乎上帝，宜乎社，造乎禰，祃於所征之地。”[15]這裏的“祃”即爲古代行軍時軍隊駐紮的地方舉行的祭禮。依此可以推斷，偏軍中應該有部分人員從事這種祭祀行為，這部分軍隊或這種行為被成為“戲”。許慎認為“戈”表意，與軍隊有關，而無法準確解釋“偏”之意，如果“虘”亦為意部，則能夠很好地支撐許慎“三軍之偏”的釋義。由此看來，“戲”當爲會意字。

④戛，≪說文≫：“刺也。一曰剔也。從戈，𠦂聲。”戛字起自金文，最早寫爲“  ”“”，左邊似一個人，頭部被放大，右邊爲戈，好像是用戈在剔人的頭部。≪說文≫裏左半邊“𠦂”的書寫爲“”，此字爲𠦂字小篆寫法，但此字向上追溯，其甲骨文爲“”“”，戰國文字爲“”，很顯然與戛字左半邊的金文寫法“”完全不同，應是在金文向篆書過度的過程中產生了訛變。許慎對其形聲字的劃分，顯然是在其篆書的基礎上进行的，並未結合其字義對其結構進行詳細解讀。因此，從“戛”字的字源來分析，其爲會意字的六書分類更利於對其字義的探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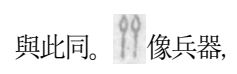
⑤戚，≪說文≫：“戉也。從戉，𠂒聲。”段玉裁註：“大雅曰干戈戚揚，傳云：戚，斧也，揚戉也。依毛傳，戚小於戉。揚乃得戉名。”王紹蘭≪說文段注訂補≫：“戚刃蹙縮，異於戉刃開張，故戉大而戚小。”[16]後世

10) 丁山. 甲骨文所見氏族及其制度[M]. 北京：中華書局，1998，126頁。
11) 徐灝. 說文解字注箋//丁福保編纂. 說文解字詁林第13冊[M]. 北京：中華書局，2014，12339頁。
12) 春秋左傳正義[M]. 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0，662頁。
13) 楊伯峻. 論語譯注[M]. 北京：中華書局，2010，117頁。
14) 王筠. 說文解字句讀//丁福保編纂. 說文解字詁林(冊13)[M]. 北京：中華書局，2014，12342頁。
15) 楊天宇. 禮記譯註[M]. 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4，149頁。
16) 丁福保編纂. 說文解字詁林第13冊[M]. 北京：中華書局，2014，12375頁。

研究者均將之釋爲一種兵器。溯源“戚”的古文字，戚的甲骨文爲  、  ，與“戊”之甲骨文  頗有相似之處，這也從構字學角度回應了將“戚”看作是兵器且爲一種斧類兵器的解釋。戚的金文爲  、  、  ，第一種和第二種可以清晰地看到斧頭的形狀，第三種已經有了線條化的簡化痕跡，成爲後世篆文、隸書的字形來源。右邊像是鋒利的斧戉，左邊則是赤的雛形。赤，≪說文≫曰：“豆也，象赤豆生之形也。”赤在構字的左下角，戉在右上角，正是用斧鉞砍落豆子的象徵，因此，戚可看作是會意字。

(3)兼類字

許慎對形聲字的定義是：“形聲者，以事爲名，取譬相成”，即先對事物進行定類，此即其意義，再取相似讀音來稱呼，此即其讀音。許慎的這個定義從根本上說明了形聲字不會是獨體字，其通常至少有兩部分構成：一部分表示意義，即爲意旁；一部分表示聲音，即爲聲旁。但實際上在形聲字範疇內有一種字，它的聲旁既表示聲音，也參與到字義的建構中來。因此，這種字就兼具形聲和會意兩種內涵。許慎也意識到有這類字的存在，≪說文≫中“某亦聲”即是對這類字的標註。徐鍇把它稱之爲“亦聲”，段玉裁也說“凡言亦聲者，會意兼形聲也”，他還指出許慎分析爲“形聲”的某些情況，從字形和字義的關係角度來看，隱含了聲旁的表意功能。徐鍇和段玉裁的這種劃分與稱呼其實是基於會意的角度來看的，但在實際的劃分過程中，字體經過了長時間的形體流變，很難確定字的表音部分是先表意後表音，還是先表音後表意，因此“亦聲”的內涵逐漸由以會意字爲基準，兼具表音的內涵定義擴大爲同時兼具表音和表義兩種功能的泛化解讀。本文在“戈”部字劃分時，基於許慎的劃分基礎，在此基礎上將形聲字表音部分兼具表意功能的字劃分爲兼類字，並不細分其爲會意兼形聲或形聲兼會意。

①戰，≪說文≫：“鬥也。從戈、單聲。”許慎把“戰”定義爲形聲字，本無可厚非。但仔細考證“單”字源流，其和戰的意義構建關係也十分密切。“單”甲骨文寫作  ，是用樹椏在兩端捆上石塊製成的一種原始武器。因此，此處“單”不僅表示聲音，還表示意義，應做會意兼形聲字處理。同時，金文銘文“單”通“戰”，馬王堆漢墓帛乙本≪老子≫中有“善單(戰)者不怒”，≪古籀補≫也說“古戰字魯公伐郑鼎‘攻戰無敵’，與阮氏積古齋款識所載  (攻戰無敵)正同。”[17]商承祚說“≪說文解字≫戰，鬥也，從戈單聲，寫作，  鼎作，與此同。像兵器，像架。所以置兵者，象形。許君從戈於諠，已複謂形聲，殆未然與！”[18]他不同意將“單”劃爲形聲字，他認爲從字的整體構型上看，“單”是與戰爭有關的。由此可推出“戰”字聲旁“單”不僅僅表聲，同時還兼有表義功能。

②  ，≪說文≫：殺也，從戈今聲。≪尚書·商書≫曰“西伯戡黎”，陸德明≪經典釋文·尚書音義≫注：“戡，音堪。≪說文≫作，云‘殺也’。”[19]實際上，今也並非只是它的讀音。溯源“今”之字形，它是含的初文，因此≪集韻≫亦把看作是的異體字：“≪說文≫‘殺也’，引殺≪商書≫西伯既黎，或從含。”[20]今字的金文寫作  (大盂鼎西周早期集成等等)，與含字的金文一樣。溯源“含”字，字的上方像一個倒置的“口”，下方的一橫，表示嘴裏所含物品。表殺之意，以字形析之，像是以戈刺口，口中含戈，即表示取人性命的殺伐之意。溯源今與含的關係，今不僅僅只表示的聲旁，其對意義的構成也有著重要的作用。

③戕，≪說文≫：“搶也，他國臣來弒君曰戕，從戈爿聲。”“戕”的甲骨文爲  。爿字甲骨文爲，是牀字的初文[21]。把字橫著看，就像一張床的樣子，上面是床面，下面是床腿，爲象形字。≪說文≫無爿字，只有牀

17) 俞紹宏校注. ≪說文古籀補≫校讀[M]. 北京：線裝書局，2012，83頁。

18) 商承祚. 殷墟文字類編//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編纂. 古文字詁林(修訂版，冊9)[M]. 上海：上海教育出版社，2019，954頁。

19) 尚書正義[M]. 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0，306頁。

20) 丁度. 集韻[M]. 北京：中國書店，1983，593頁。

字。≪說文≫對牀的解釋爲“安身之坐者”，≪初學記≫引作“身之安也”[22]；≪玉篇≫“牀”別立部，注“身所安也”[23]；從後世文獻對其的注釋追溯其本義可引申爲安身立命之所——家。此時，“爿”就不僅僅表示其讀音，而是可以和戈聯合起來爲用戈刺牀，表示以武力侵犯他人領地，非正義性由義彰顯。因此，此處戕字從六書角度解釋亦可爲會意字。

3. 結語

≪說文≫的出現具有劃時代的意義，是中國文字學史上最有影響力的一部巨製。其重要價值之一便是系統使用六書理論分析字形字義，形成了後世文字學研究的基本思路與方法。但囿於時代與資料的限制以及小篆字形在流變及流傳時的訛誤，許慎對字形、字義的分析溯源難免存在有待辨證的地方，其對某些字的六書歸類也會存在爭議。對於這些爭議，歷代學者有不同看法，但鮮有以部類為單位將這些不同見解整理匯總，分類辨證的研究。部類為單位的研究不僅對於探討類型化的字形字義演變有重要價值，而且能夠勾連文字與文化之間的關係，促進文字學與社會學、文化學、民族學等學科交叉研究的發展。而部類漢字的六書研究對於這些研究起到了基礎作用，六書分類的辨證恰恰不僅能夠為這些後續的交叉研究提供更加準確清晰的基礎材料，更能夠爲交叉研究提供新的思路與啟發。以“戈”部字爲例，通過對部內字的六書辨證，能夠整理辨證一些研究材料，爲以文字學爲切入口進而開展的關於上古兵器、軍事、禮法等研究提供一些方便，啟發一些新的視角和思路，這也是本文撰寫的初衷所在。

21) 魯實先．假借溯源[M]．臺北：文史哲出版社，1973，93頁。

22) (唐)徐堅輯．韓放主校點．初學記(下)[M]．北京：京華出版社，2000，336頁。

23) 大廣益會玉篇[M]．四部叢刊本(上海商務印書館，民國25[1937]年影元本，101頁。)